

『부산 산길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서』에서는 부산을 대표하는 산 17곳과 그곳에서 찾을 수 있는 문화유산을 소개하였습니다. 단순한 등산 코스가 아니라,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져 온 부산의 기나긴 역사까지 알려주는 흥미로운 산길입니다. 책에서 등반하는 우리 부산의 산은 승학산, 구덕산, 봉래산, 용두산, 복병산, 구봉산, 엄광산, 수정산, 배산, 황령산, 백양산, 장산, 금정산, 아홉산, 달음산, 불광산, 대운산입니다. 산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의 낮은 산, 어디서든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동네 뒷산, 느긋하게 걸어가 공원처럼 아늑하게 쉴 수 있는 산, 높게 우뚝 솟아 있는 산 등 이렇게 다양한 산에서 찾은 부산의 역사를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 「발간사」 중에서

비매품/무료

9 791185 308678 04910

ISBN 979-11-85308-67-8
ISBN 979-11-85308-29-6 (세트)

BUSAN, 百聞이不如一見

부산 산길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서

부산광역시

BUSAN, 百聞이不如一見

부산 산길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서

HISTORY TRAVEL



BUSAN, 百聞₀₁不如一見

부산 산길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서

BUSAN, 百聞不如一見

부산 산길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서

일러두기

1. 이 책은 부산의 대표 산과 그곳의 역사문화유산을 아울러 둘러볼 수 있는 코스를 새로이 개발하여 수록한 '부산 산길 역사 문화 탐방서'이다.
2. 부록 <부산 물길 역사 문화 탐방 지도>는 본문의 각 장 도입부에 수록한 지도를 종합하고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넣어 제작하였다.
3. 역사 용어는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4. 문장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고유명사나 전문용어는 이해를 돕기 위해 한자를 함께 표기하였다.
5. 연도 표기는 서기를 먼저 쓰고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묘호를 함께 표기하였다.
6. 본문에는 주를 달지 않았으며, 집필에 참조한 자료는 각 장 마지막에 수록하였다.
7. 시각자료 협조 및 제공처는 관련 자료를 간단하게 설명한 후 명시하였다. 다만 협조 및 제공처를 표시하지 않은 시각 자료는 이 책의 발행처에서 소장한 것이다.
8. 시각 자료는 원본 형태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독자들의 시각적 편의를 도모하고자 약간의 수정을 가하기도 하였다.

| 발간사 |

우리 부산 지역에는 총 몇 개의 산이 있을까요? 어림잡아도 마흔 곳은 족히 넘을 듯합니다. 한국 대표 포털사이트에서 ‘부산의 산’이라는 검색어를 넣고 찾아보았더니, 111군데라는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도시 전체가 산입니다. 어느 곳을 가더라도 산등성이가 내다보이는 이곳에 살고 있는 여러분은 부산의 크고 작은 산을 얼마나 알고 있고, 그중에서 몇 군데를 올라가 보았나요? 마음먹고 정식으로 등산했던 날만 손에 꼽아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질문은 무의미합니다.

부산 사람들에게 등산은 일상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조그마한 언덕 위의 마을이라고 알고 있던 곳. 실은 그 언덕이란 곳이 산일 확률이 높습니다. 부산에는 이런 곳이 참으로 많습니다. 마을뿐만이 아닙니다. 부산 사람들에게는 친숙한 산복도로(山腹道路, 산허리를 지나가는 길)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산복도로라는 말은 부산이 아닌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는 생경한 용어입니다. 또한 산이 많으니 산행 중에 문득 마주치는 사찰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습니다. 이렇듯 부산 곳곳에 자리 잡은 무수히 많은 산은 우리네 삶을 품어주었습니다. 부산의 산은 그런 곳입니다. 부산 사람의 역사를 단단히 지키고 바라봐주고 있는 부산의 산에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 만든 역사와 자취들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에서 출간하는『부산 산길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서』에서는 부산을 대표하는 산 17곳과 그곳에서 찾을 수 있는 문화유산을 소개하였습니다. 단순한 등산 코스가 아니라,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져 온 부산의 기나긴 역사까지 알려주는 흥미로운 산길입니다. 책에서 등반하는 우리 부산의 산은 승학산, 구덕산, 봉래산, 용두산, 북병산, 구봉산, 엄광산, 수정산, 배산, 황령산, 백양산, 장산, 금정산, 아홉산, 달음산, 불광산, 대운산입니다. 산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의 낮은 산, 어디서든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동네 뒷산, 느긋하게 걸어가 공원처럼 아늑하게 쉴 수 있는 산, 높게 우뚝 솟아 있는 산 등 이렇게 다양한 산에서 찾은 부산의 역사를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더불어 부록으로 <부산 산길 역사 문화탐방 지도>를 제작하여 책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산행 중에 지나쳤을지도 모를 부산의 역사를 담고 있는 문화유산을 접하리라 기대합니다.

『부산 산길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서』는 많은 분들의 노력과 도움으로 만든 결과물입니다. 먼저 직접 현장을 돌아보시며 촬영까지 마다하지 않고 코스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집필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기획부터 편집 등 책 발간을 진행한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시사편찬실)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을 전합니다. 책 제목처럼 이 책이 여러분과 발맞추며 산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책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자, 이제 산으로 떠나볼까요?

2024년 11월
부산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





차례 Contents



승학산,

역새풀을 머금고 학이 날아오르다 | 정규식 |

- | | |
|---------------------------|----|
| 1. 에덴공원, 도심 속 낙원을 꿈꾸다 | 18 |
| 2.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함성이 깃들다 | 25 |
| 3. 낙동강 줄기 굽어보며 산에 들다 | 29 |
| 4. 학이 하늘에서 우니 온 세상에 다 퍼지다 | 34 |
| 5. 은빛 물결, 온 산에 퍼지다 | 37 |
| 6. 숲 향기 맡으며 삶을 치유하다 | 40 |
| 7. 제석골 할매, 단디 살피 주이소 | 43 |



구덕산,

97가지 덕을 품고 구덕고개 굽이굽이 넘다 | 정규식 |

- | | |
|----------------------------|----|
| 1. 역사의 상흔을 찾아서 | 50 |
| 2. 민족과 조국의 기상을 떨치다 | 54 |
| 3. 구덕에 깃든 사람들, 끈질긴 삶을 이어오다 | 58 |
| 4. 숲속의 숲, 몸과 마음을 힐링하다 | 65 |
| 5. 9가지 덕으로 사람을 품다 | 67 |
| 6. 낙동정맥의 끝, 인재의 요람으로 움트다 | 73 |



봉래산,

신선이 노닐고 영도할매의 영험이 깃든 곳 | 박정아 |

- | | |
|--|-----|
| 1. 절영해안산책로_영도 이름의 유래와 절영마 | 82 |
| 2. 흰여울문화마을_흰 파도 치는 바람에 기댄 마을 | 87 |
| 3. 부산보건고등학교 연세대 영도캠퍼스 기념비
_포화 속에서도 배움은 이어진다 | 91 |
| 4. 북천사_산사(山寺)에서 그린 부처의 미소 | 93 |
| 5. 봉래산 산제당_할배와 아씨, 영도의 수호신들 | 97 |
| 6. 봉래산_신선이 노닐고 할매가 굽어보던 봉우리 | 100 |
| 7. 조내기고구마역사기념관_고구마에 깃든 따스한 마음 | 108 |
| 8. 청학동 해돋이 벽화마을_사람이 사는 곳은 고되기만 한 것은 아니다 | 113 |



용두산과 북병산,

대일 교류의 공간에서 식민지 근대의 이면까지 | 서용태 |

- | | |
|---------------------------------------|-----|
| 1. 용두산 일대 초량해관의 흔적, 근대도시 부산의 탄생 | 121 |
| 2. 용두산 공원, 부산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공원 | 130 |
| 3. 부산근현대역사관, 식민지 수탈과 외세 지배의 아픔을 딛고서 | 138 |
| 4. 동광동 길 따라 걸으며 원도심 주변부의 어제와 오늘 | 143 |
| 5. 용두산과 비슷한 듯 다른 북병산, 북병산의 근대 유산을 찾아서 | 150 |



차례 Contents



구룡산~엄광산,

격동의 부산 근현대사와 마주하다 | 배병욱 |

- | | |
|------------------------|-----|
| 1. 부산의 '명동성당', 부산가톨릭센터 | 162 |
| 2. 산리에 올라 만난 금수현과 박기종 | 171 |
| 3. 뜨거운 가슴으로 마주하는 민주공원 | 182 |
| 4. 원도심을 발아래, 중앙공원 | 190 |
| 5. 구룡산, 엄광산을 거쳐 동아대로 | 195 |



수정산,

왜관을 관장하던 수정(水亭)에서 발원하다 | 배병욱 |

- | | |
|---------------------------|-----|
| 1. 두모포왜관, 70년 고관의 역사가 여기에 | 208 |
| 2. 두 개의 부산진 매축비 | 216 |
| 3. 적산에서 휴식의 공간으로 | 223 |
| 4. 수정산을 오르내리며 | 229 |



배산·황령산

부산의 원점, 산성과 봉수대가 자리한 산 | 이근우 |

- | | |
|--------------------------|-----|
| 1. 성을 뜻하는 잣되라는 이름을 가진 배산 | 243 |
| 2. 거칠산국의 흔적을 간직한 황령산 | 257 |



부산에서 손꼽히는 고찰(古刹)과 함께
역사의 무게를 묵묵하게 견뎌온 **백양산** | 이상룡 |

- | | |
|-----------------------------------|-----|
| 1. 동네 뒷산 | 278 |
| 2. 백양산 가는 길 | 280 |
| 3. 해 질 무렵 운수사에서 들리는 종소리 | 286 |
| 4. 해 질 녘 석양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는 모래, 삼각봉 | 290 |
| 5. 원효가 창건한 절, 선암사 | 294 |
| 6. 거미가 웅크린 봉우리, 주지봉 | 298 |
| 7. 쇳물이 용솟음치는 산, 쇠미산 금정봉 | 300 |
| 8. 동평 현감의 유원지, 성지곡 | 303 |



차례 Contents



장산,

긴 역사와 드넓은 바다를 품은 곳 | 박창희 |

- | | |
|--|-----|
| 1. 장한 기운을 품은 장산 사포지향 부산의 표상 | 314 |
| 2. '장산 일주' 다양한 루트, 놀라운 조망
3~4시간 투자하면 장산 걸과 속 체험 | 321 |
| 3. 애국지사 강근호 길 만주 청산리 전투의 주역 | 331 |



금정산, 좋은 산의 조건 다 갖춘 명산

아낌없이 주고 사람을 품는 후원 | 박창희 |

- | | |
|--|-----|
| 1. 금정산을 걷는 일상의 행복 자연 속 풍부한 역사문화자원 | 340 |
| 2. 금정산 종주길 낙동정맥 기상과 호흡 | 345 |
| 3. 금정산 숲속 둘레길 수평의 걷기문화 실현 | 355 |
| 4. 금정산의 선물 '가람낙조길' 낙동강 벗어나며 걷는 사색길 | 362 |
| 5. 범어사 11암자길, 호젓한 순례 사색과 치유를 얻는 '내 마음의 여행' | 371 |
| 6. 남문~상계봉~파리봉~공해마을 코스 금정산이 감춘 보석같은 산길 | 379 |



아홉산~달음산,

치유의 공간과 기암절벽에서 넘실대는 바다를 품다 | 김준호 |

- | | |
|------------------------------|-----|
| 1. 종리 마을, 철마천 한 가운데 지사들의 땅 | 388 |
| 2. 아홉산숲, 삼백년 정성이 빚어낸 숲 | 391 |
| 3. 상곡마을, 일광천 발원지 | 396 |
| 4. 원효대, 원효가 달음산에서 도를 닦다 | 399 |
| 5. 대도사와 도선사, 달음산 오름자락甞생명의 섬터 | 406 |
| 6. 달음산 취봉과 옥녀봉, 달을 품고 바다를 품다 | 410 |
| 7. 옥정사, 옥 같은 샘물을 품은 생명살림 공간 | 414 |



불광산~대운산,

유서 깊은 명산에서 선각자의 자취를 느끼다 | 김준호 |

- | | |
|-----------------------------------|-----|
| 1. 상장안 마을, 오래도록 평안을 누리는 곳 | 424 |
| 2. 조선시대 분청사기 제작 공간, 상장안 가마 유적 | 427 |
| 3. 장안사, 불광산 계곡에 원효가 창건한 기장의 중심 사찰 | 430 |
| 4. 척판암, 판자를 던져 천 명의 대중을 구한 절 | 435 |
| 5. 불광계곡, 자비의 빛이 비단결 같은 계곡을 비추다 | 440 |
| 6. 대운산, 부산과 울산의 경계에 우뚝서다 | 443 |
| 7. 내원암, 영남 제일의 명당 | 448 |
| 8. 내원암 계곡과 대운산 숲이 펼치는 치유 공간 | 453 |

- | | |
|----------|-----|
| 참고자료/집필자 | 458 |
|----------|-----|



승학산, 억새풀을 머금고 학이 날아오른다

학이 나는 모습을 닮은 승학산은
청마 유치환 선생의 시비가 있는 에덴공원을
비롯하여 은빛 바다를 연출하는 억새밭,
지친 심신을 힐링할 수 있는 치유의 숲,
낙동강 하구의 철새,
을숙도 너머의 낙조가 어우러진
낙동정맥의 끝자락에
위치한 산이다.



5 억새밭



6 국립부산승학산치유의숲



7 제석골 할매당



4 승학산 정상



2 6월 항쟁도와 햇불동상



3 승학산 명품숲길



1 에덴공원

하단역

당리역

사하역

괴정역

승학산, 억새꽃을 머금고 학이 날아오른다

‘승학산乘鶴山’은 학이 하늘을 나는 모습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고려 말 무학 스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곳에 이르러 산세를 보니 마치 학이 날아오르는 듯하다고 하여 승학산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승학산은 북동쪽으로 시약산蔴藥山과 구덕산九德山, 엄광산嚴光山으로 이어지고 남쪽으로 동매산을 지나 물운대沒雲臺로 연결된다. 전형적인 노년 산지이나 산정山頂은 예리한 원추형을 나타내고 동쪽과 서쪽 산록의 경사가 비교적 급하다. 산지의 북쪽 사면에는 침식 평탄면이 형성되어, 억새가 군락을 이루는 고산 습원이 자리하고 있다. 승학산은 낙동정맥의 끝자락에 위치하면서 서쪽으로 낙동강洛東江과 을숙도乙淑島를 끼고



서 더 넓은 남해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승학산은 필자가 자주 오르는 산이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하단에 거주하였으며 현재는 동아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어 시간이 날 때마다 이 산을 오른다. 승학산 탐방로는 다양한데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에서 출발하여 정상을 거쳐 구덕산 꽃마음로 향하는 코스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승학산 탐방로는 굉장히 다양하다. 특히 당리마을 방향에서 오르는 코스는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필자가 승학산을 탐방한 날은 2023년 10월 8일로 이날은 햇빛이 드문드문 나다가 점차 흐려졌다. 13시에 에덴공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승학산 탐방길에 올랐다.

1 에덴공원, 도심 속 낙원을 꿈꾸다



승학산에서 하단 방향으로 바라보면, 그 아래에는 학이 내려앉기에 좋은 작은 대臺가 있는데 이곳이 바로 ‘에덴공원’이다. 에덴공원은 사하구 하단동에 있다. 승학산에서 학을 타고 날아오른 신선이 이곳으로 내려왔다고 하여 예전에는 ‘강선대降仙臺’라 불렸다. 대臺는 주변의 지형보다 높아서 사방을 바라보기에 편리한 지형을 이르는 말이다.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 해운대海雲臺나 다대포多浦에 있는 몰운대沒雲臺 등이 대표적이다. 에덴공원의 앞은 낙동강과 남해 바다가 만나면서 만들어진 넓은 삼각주이고 평야이다. 지금은 아파트 단지와 고층 건물들이 있어 시야가 가려져 있지만, 예전에는 이곳에 오르면 넓은 시야가 확보되었다. 이런 이유로 일제강점기에는 이곳에 일본군 포병 부대가 해안 포대를 설치하여 주둔하기도 하였다.

에덴공원 입구는 부산지하철 1호선 하단역 5번과 7번 출구 사잇길을 따라 5~7분 정도 가면 왼쪽에 있다. 입구를 조금 오르면, 아름드리 소나무가 마중을 나온 듯, 큰 가지가 하늘로 높게 뻗어 시원한 그늘을 제공한다. 완만한 경사 길을 오르다 보면 힘들지 않게 정상에 다다를 수 있다.

정상 입구에 도착하면 이곳이 에덴공원임을 알리는 표지석이 서 있다. 필자도 이곳을 자주 방문했지만 이런 표지석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에덴苑(원)’이라 새겨진 비석은 이곳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지상낙원, 즉



에덴공원 입구 소나무 필자 촬영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에덴동산을 표방했음을 알게 한다. 표지석에 새겨진 글씨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빛이 바래졌다.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그냥 서 있는 돌인지 표지석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곳에는 오태균吳泰均, 1922~1995 음악비音樂碑와 청마 유치환靑馬 柳致環, 1908~1967 시비詩碑가 있다. 두 사람은 부산을 대표하는 음악인과 시인이다.

오태균 선생은 1922년 충청남도 공주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음악적으로 타고난 기질이 보였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인 1933년에 레코드 가게에서 우연히 흘러나와 듣게 된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아 이 곡을 평생토록 사랑했다고 한다. 그는 1947년경 부산제2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진출하였다. 오디션을 통해 국립서울교향악단의 제1바이올린 연주자가 되었고, 1948년에는 대전 공회당에서 첫



에덴공원 표지석



오태균 음악비

바이올린 독주회를 가졌다. 그 후로 한국전쟁 중에 부산으로 내려와 정착하게 되었다.

부산 피난 시절, 선생의 재능을 인정한 해군 관계자의 도움으로 일본 동경국제음악학교로 유학을 다녀오기도 했으며, 그 후 주로 부산에서 활동하면서 부산 음악 문화의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 1953년 부산의 첫 실내악단인 '현악 4중주단'을 창단하였으며 1955년에는 현악 4중주 연주회를 열기도 하였다. 이후로도 그는 부산의 음악 문화를 위해 폭넓은 활동을 펼쳤다.

그는 후학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54년에는 부산대학교 교수로 부임하여 음악 미학과 예술학을 강의하였으며 1955년에는 부산의 첫 관현악단인 부산대학관현악단을 창설하였다. 이처럼 오태균 선생은 부산의 초기 관현악 운동을 주도하였고 그의 끈질긴 노력으로 1957년 8월 12일에 부산교향악단이 탄생하였다. 이후 1995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부

산대학교와 부산여자대학 음악과 교수로서 후학을 양성하였고 또한 음악인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그는 이러한 업적을 인정받아 경남도지사로부터 문화 공로상¹⁹⁵⁸, 부산시 문화상¹⁹⁶⁴, 내무부장관 문화 공로상¹⁹⁷⁰, 문화부장관 문화 공로상¹⁹⁸⁷, 대통령 수여 국민 포상¹⁹⁹⁰ 등 많은 상을 수상했다.

그는 베토벤의 교향곡 제5번 「운명」을 너무나 좋아했다고 한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이곳에 있는 음악비의 기단 정면에는 「운명」 교향곡의 첫 소절이 새겨져 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강렬한 첫 소절이 깃가에 맴도는 듯하다. 그리고 비 뒷면에는 아래와 같이 선생의 짧은 이력과 음악비 건립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고 오태균 선생은 1922년 4월 27일 충남 공주에서 출생하여 1995년 4월 부산에서 별세

1952년부터 부산에 정착한 오태균 선생님은 연주가로서 음악교육학자로서 부산음악 발전에 현저한 족적을 남겼다. 특히 혼효한 시대인 1962년에 부산시립교향악단을 창단해 교향악 발전에 혼신을 쏟았고 후학 양성에 열과 성을 다하였다. 또한 연주를 통한 유려한 음악 해설로 고전음악 인구의 저변 확대에 헌신한 바 지대함으로 그 공적을 높이 기리기 위해 음악협회가 주축이 되어 백광덕 씨가 제공한 부지에 평소 고인을 아끼시던 여러분들의 정성으로 이 비를 건립하게 되었다. 2001. 6. 30. 건립 추진위원회

이 음악비가 에덴공원에 세워진 것은 부산음악협회가 부산 지역 음악가들의 뜻을 모아 오태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라고 한다. 2001년에 건립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그해 6월 30일 오태균 선생과 친분이 있던 에

덴공원 소유주의 부지 제공 협조를 받아 건립하게 되었다고 한다.

공원 정상의 남쪽 기슭에는 청마 유치환 시비가 자리하고 있는데 멀리 을숙도를 바라보고 서 있다. 유치환 선생은 경남 통영에서 출생하여, 1922년 통영보통학교 4년을 마치고 일본 도요야마중학교로 유학갔다가 귀국하여 1926년 동래고등보통학교에 편입하여 졸업하였다. 이듬해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하였으나 1년 만에 중퇴하였다. 그 후, 1937년부터 부산에서 문예동인지 활동을 하면서 1939년 첫 시집 『청마시초靑馬詩抄』를 발간하였다. 여기에 그의 초기 대표작인 「깃발」, 「그리움」, 「일월」 등이 수록되어 있다. 1940년에는 만주로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광복 직후 귀국하였다. 한국전쟁을 겪고 1953년부터 부산으로 돌아와 이후로는 줄곧 교직 생활을 하였다. 안의중학교, 경주고등학교 등 여러 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이어오다 부산남여자상업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중 1967년 교통사고로 작고 하였다. 시비에는 선생의 대표작 「깃발」이 새겨져 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海原을 向하여 흔드는
永遠한 노스탈자의 손수건
純情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곧은 理念의 꽃대 끝에
哀愁는 白鷺처럼 날개를 펴다
아아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그는 미당 서정주未堂 徐廷柱, 1915~2000 선생과 더불어 이른바 ‘생명과 시



청마 유치환 시비 필자 촬영

인’으로 불린다. 생명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담은 독특한 시세계는 삶의 고통을 허무를 매개로 초극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깃발」 역시 그러한 시세계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시비가 있는 이곳이 낙원을 의미하는 에덴공원이므로 시에서 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과 잘 연결된다. 더불어 을숙도 넘어 푸른 해원海原을 꿈꾸며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펼쳐이는 깃발이 자리하기 더 없이 안성맞춤이다. 그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묘지는 원래 하단동 승학산 아래에 있었는데 동아대학교가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묘지를 기장군 정관면 대정공원으로 이장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1997년에 거제군 선영으로 옮겨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에덴공원은 도심 가운데 위치한 작은 공원으로 시민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이다. 정상 아래에는 벤치와 의자를 비롯한 각종 운동기구가 있어 시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체력을 단련할 수 있게

조성되어 있다. 특히 많은 사람이 공원 중턱에 조성된 둘레길을 걷고 있어 최근 일고 있는 걷기 열풍을 잘 반영하고 있다.

공원 정상에는 몇 해 전까지 있었던 건물 잔해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곳은 얼마 전까지 ‘솔바람’이라는 음악 카페가 영업하던 곳이다. 푸른 녹지 한가운데 자리한 카페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당시의 화려했던 풍경은 모두 사라지고 콘크리트 잔해들만 가득하다. 그 사이로 칙덩쿨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 세월의 무상함을 알게 한다. 하루빨리 건물 잔해를 철거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즐기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면 좋겠다.

또한 여기에 세워진 유치환 선생의 시비와 오태균 선생의 음악비를 통해 에텐공원을 서부산을 대표하는 문화 공간으로 변모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두 분은 부산의 문학과 음악을 대표하는 분이므로 이분들의 예술 세계를 새롭게 조명하고 현대적 감각을 갖춘 콘텐츠를 개발하여 이곳이 지닌 장소성을 발현한다면 부산을 대표하는 역사와 문화의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함성이 깃들다



에텐 공원에서 승학산 방향으로 도로를 건너면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가 있다. 도보로 10분 정도 걸으면 닿을 수 있다. 이곳은 뜨거웠던 민주화의 숨결이 새겨져 있는 곳이다. 캠퍼스 입구에서 오른쪽 계단을 따라 중앙운동장현재 뉴턴 공원 및 주차장 쪽으로 오르다 보면, 붉은색 벽돌로 조성된 교수회관이 있다. 교수회관 건물 아래쪽 도로 벽면을 보면 담쟁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곳이 보인다. 그 담쟁이가 덮고 있는 것이 바로 「6월 항쟁도」이다. 6월 항쟁도는 1987년 6월 민주주의의 열망을 담아 온몸으로 독재에 항거하던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그린 그림이다.

「6월 항쟁도」는 1987년 6월에 일어났던 민주 항쟁을 기념하고 자주·민주·통일의 정신을 계승하려는 취지로 제작된 벽화이다. 이태춘 열사의 추모비 건립과 함께 기획되었으며 동아대학교 그림패 「열린그림마당」의 회원들이 1988년 6월 15일부터 두 달 동안 작업을 한 끝에 완성하였다. 당시 학교 측의 반대로 제작에 어려움도 있었으나, 학생들의 서명을 받고 학생회 간부들이 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학교 측의 승인을 얻으면서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8년 8월 17일 전체 벽화 가운데 이한열 열사 추모제 부분과 박종철 열사 고문 장면이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2007년에도 「6월



6월 항쟁도 ■ 필자 촬영

「항쟁도」를 철거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동문들과 학생들의 반대로 보존할 수 있었다.

이 그림은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교수회관 담벼락에 폭 3m, 길이 30m의 크기로 그린 벽화이다. 왼쪽에는 백두산을 배경으로 자주·민주·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형상과 민중이 스스로의 힘으로 미국과 군사 정권의 압박을 물리치는 내용이 그려져 있다. 하지만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와 관련된 오른쪽의 벽화는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고 축소되고 말았다. 1987년 6월 민주 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물들이 하나둘 사라져가는 현재 상황에서 동아대학교에 남아 있는 대형 벽화는 당시 민주화의 열기를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소중한 역사 유물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항쟁도는 담쟁이들이 덮고 있어 그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함

에도 그림의 끝자락 일부만이 드러나 있는데 거기에는 ‘6·29’라는 글자가 선명하다. 번식력 강한 담쟁이도 모든 진실을 덮을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담쟁이가 덮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림의 훼손은 심해질 것이다. 습도는 물론 바람에 의한 마찰 등으로 그림이 마모되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항쟁도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맞지 않아 복원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언젠가는 복원되어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웠던 함성을 기억할 수 있는 역사의 공간으로 재탄생했으면 한다.

중앙도서관을 지나 공과대학 건물 사이를 통과하면 산학협력단과 기숙사를 향하는 길이 나온다. 그 길을 따라 조금 오르면 좌측 숲속에 이태춘 열사비를 비롯한 민주화 투쟁으로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작은 공원이 있다. 이태춘李泰春, 1960~1987은 동아대학교 졸업생으로 군사 독재 시절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항쟁하다 2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인물이다. 그는 가두 시위를 하면서 서면으로 향하던 중 좌천동 고가도로일명 오버브릿지 위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그를 기리는 추모비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다.

이태춘 열사는 일반 시민으로 1987년 6월 항쟁에 참여하여 서면으로 행진하던 중, 경찰의 최루탄 발사 이후 이곳 오버브릿지에서 사



이태춘 열사 추모비 ■ 필자 촬영



햇불 동상 ■ 필자 촬영



민주 항쟁 기념비 ■ 필자 촬영

고를 당했고 6월 24일 운명하였습니다. 6월 민주항쟁 20년을 맞아 열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려 시민들의 뜻을 모아 이 추모비를 세웁니다. 2007년 6월 24일 6월 민주항쟁 20년 부산사업추진위원회

공원에는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거대한 햇불 동상과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많은 분들의 이름을 새겨 놓았다. 또한 담쟁이가 가려 지금은 볼 수 없는 6월 항쟁도 사진도 전시되어 있다. 이분들이 들었던 뜨거운 햇불과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엄혹한 시절의 어둠을 이겨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맞이할 수 있었으리라!

민주주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유가 그러하듯, 쟁취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이곳에 있는 여러 사람의 희생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이들을 기리기 위해 만든 추모의 공간이 더 많은 사람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았으면 좋겠다.

3 낙동강 즐기 굽어보며 산에 올라



동아대학교 내에 있는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한 추모 공간을 지나 다시 캠퍼스 아래 방향으로 내려오면 대학 본부와 인문과학대학이 있는 15층짜리 건물이 나온다. 이 건물을 지나 아래로 내려가면 우측에 승학캠퍼스 낙동 주차장이 있다. 승학산 탐방은 주차장 입구에 있는 등산로에서 시작한다. 이 등산로는 승학산의 서쪽 능선에서 정상으로 오르는 코스이다. 이곳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등산로가 잘 조성되어 있다. 입구는 조금 좁은 편이지만 입구를 통과하면 동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뒤편 산등성이의 중턱까지 나무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 오르기가 수월하다. 입구에서 5분 정도 오르면 전망대가 있는데, 영남의 젖줄 낙동강 하구를 볼 수 있다. 더 넓은 김해평야, 을숙도, 가덕도 등도 한눈에 들어온다.

전망대 바로 위에 있는 바위 쉽터부터 동아대학교 학군단 뒤편까지의 산길에 '승학산 명품 숲길'이다. 뽕뽕뽕뽕한 돌부리들이 아무렇게 드러나 있고 키 높은 소나무와 참나무 군락이 빛을 가린다. 가파르지 않은 완만한 등성이를 걷는 발걸음이 너무나 가볍고 상쾌하다. 짧지만 아름다운 숲길이다.

승학산 명품 숲길 바위 쉽터에서 동아대학교 학군단 뒤편의 쉽터까지는 산책하기에 정말 좋은 구간이다. 필자도 강의가 없는 날이나 강의 사이



승학산 명품 숲길-바위 쉼터 ■ 필자 촬영

반은 이곳 쉼터부터라 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정상 아래에 있는 중봉까지가 비교적 가파른 오르막으로 제일 힘든 구간에 속한다. 승학산을 처음 오르는 탐방객들은 이 구간에서 너무 힘을 빼지 말고 체력 안배를 하면서 올라야 한다. 하늘과 바람, 나무와 풀을 벗 삼아 한발 한발 걷다 보면 정상이 저만치 다가온다.

우리는 산에 오르는 것을 등산(登山)이라 한다. 말 그대로 ‘산에 오른다.’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옛 선조들은 입산(入山), 즉 ‘산에 든다.’라고 했다. 오르는 것이 정복에 가깝다면 든다는 것은 조화에 가깝다. 산은 못짐승들이 깃드는 곳이다. 거기에는 수많은 나무와 숲이 있고 물과 바위가 있다. 길 짐승이나 날짐승들의 편안한 안식처가 된다. 산은 사람도 가리지 않는다. 넉넉한 품으로 누구나 받아들인다. 산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누구나 깃들게 한다. 그래서 선인들은 예부터 ‘지자요수 인자요산[知者樂水 仁者樂山,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인자한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이라 했다.

에 시간이 날 때면 이 길을 자주 걷는다. 특히 봄이 되면 온갖 꽃들과 새들, 그리고 나뭇잎이 펼쳐는 숲의 향연을 맛볼 수 있어 더없이 좋은 길이다.

학군단 뒤편 쉼터에는 나무 탁자와 의자, 평상과 그늘막 등이 구성되어 있어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쉼터가 되기도 하고 여름 무더위를 식히는 휴식 공간이 되기도 한다. 봄부터 여름까지는 수많은 들꽃과 꽃들이 피어 숲 체험이나 생태공원으로 이용된다.

승학산은 해발 497m로 높은 산은 아니지만, 산의 정상이 원추형으로 되어 있어 정상까지 오르기가 만만치 않다. 승학산의 진정한 등



동아대학교 학군단 뒤편 쉼터 ■ 필자 촬영



동아대학교 학군단 뒤편 쉼터 ■ 필자 촬영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인자한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이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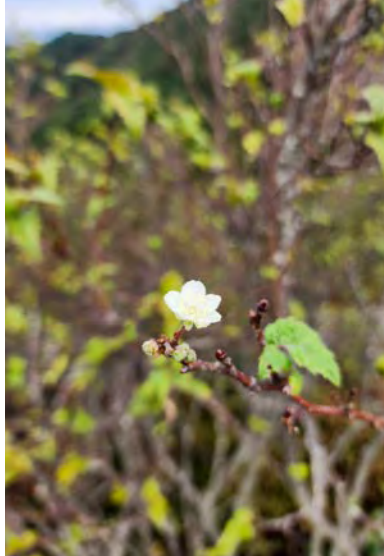
산에 드는 것은 정상에 오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 나무, 숲, 바위, 물들을 만나 그들과 대화하고 호흡하는 것도 더 없이 중요하다. 그들을 통해 산의 속살을 알고 산과 하나 되는 일체감을 경험하는 것이다. 기암괴석이나 화려한 절경이 아니더라도 산이 품고 있는 온갖 것들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소중하다. 돌맹이 하나, 나무 한 그루가 모든 생명의 원천이다.

중봉까지 이어지는 가파른 오르막을 걷다 보면 길 한가운데 멋진 소나무 한그루가 있다. 굵은 가지가 셋으로 나누어져 우람한 자태를 뽐낸다. 멀리 낙동강을 향해 우뚝 솟아올라 수없는 삭풍을 견뎌오리라. 더불어 이 길을 지나간 이름 모를 사람들의 술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들에게 차별 없이 그늘을 내렸을 것이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치열했던 역사의 나이트를 깊숙이 간직했을 터, 어찌 보면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 아닐지도 모를 일이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다 잠시 걸음을 멈춰서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보



중봉으로 가는 길의 소나무 || 필자 촬영



중봉에 핀 꽃 || 필자 촬영



승학산 정상 부근 전망대 || 필자 촬영

면 낙동강과 김해평야가 한눈에 들어온다. 멀리 김해국제공항과 가덕도 넘어 거제도까지 확 트인 시야가 정상이 가까워졌음을 알린다. 땀이 온몸을 적시고 발걸음은 무겁지만 시원한 바람과 넓은 시야가 기분을 상쾌하게 한다.

어느덧 동쪽으로 저만치 승학산 정상이 보이는 중봉에 도착하면, 동남쪽으로 사하 지역과 그 너머 감천 앞바다의 배들이 보이며 서쪽으로는 낙동강과 김해평야, 그리고 수많은 공단이, 남쪽으로는 삼각주 넘어 넓은 바다가 펼쳐진 것을 볼 수 있다. 북쪽으로는 낙동강 상류가 아련하게 보인다. 세찬 바람에도 돌무더기 주위에 산꽃이 피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한송이 산꽃이 10월의 세찬 바람에도 의연하다. 개화 시기를 놓쳐 뒤늦게 봉오리를 피운 듯한데 제철에 핀 무성한 꽃 무더기보다 더욱 청아하다. 이 또한 산이 주는 즐거움이라.

여기서 정상까지는 한달음 같다. 하지만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걷는 것은 다르다. 특히 산길을 걷는 것은 달을 듯 닿지 않는 정상을 향한 인

고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 승학산 정상 바로 아래도 비교적 가파른 돌길로 되어 있다. 예전에는 탐방객들이 밭줄을 잡고 올랐는데 지금은 나무 계단이 있어 오르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정상 바로 아래에는 전망대가 있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승학산의 서쪽과 남쪽을 조망할 수 있다.

전망대는 나무 데크로 만들어져 있다. 멀리 낙동강과 김해 평야, 가덕도와 거제도가 한눈에 들어오고 을숙도 너머 남해 바다가 들어 온다. 승학산을 오르면 어디서든 낙동강과 김해평야가 보이지만, 보는 장소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정상을 향해 한발 한발 오를 때마다 땅 아래 펼쳐진 세상들도 조금씩 달라진다. 전망대에 있는 멋진 소나무가 여기까지 오른 사람들의 땀을 식혀준다.

4 학이 하늘에서 우니 온 세상에 다 퍼지다



전망대 바로 위가 승학산 정상이다. 정상은 바위들로 이뤄져 있다. 그 중앙에 정상석이 있다. 정상석頂上石 앞면에는 해발 고도 497m가 기록되어 있고, 뒷면에는 고려 말 무학 스님과 연관된 산 이름의 유래가 기록되어 있다. 정상석 옆에는 사하구청에서 새천년2000년을 기념하기 위해 세



승학산 정상에 바라본 낙조 ■ 필자 촬영



승학산 정상석 ■ 필자 촬영



새천년 기념석 ■ 필자 촬영

운 기념비가 있다. 앞면에는 ‘새千年未來雄飛沙下[새천년미래웅비사하]’라고 새겨져 있으며 뒷면에는 ‘鶴鳴于天聲聞四海[학명우천성문사해, 학이 하늘에서 우니 온 세상에 다 퍼진다]’라는 문구가 있다.

모든 산이 그렇듯이, 정상은 땀의 결과이다. 정상의 달콤함은 한발 한발 땀 흘려 오르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샘플과 같아 오르는 동안의 고통을 망각하게 하는 힘이 있다. 맑은 공기와 상쾌한 바람, 확 트인 시야와 점점이 보이는 저 멀리 섬들은 왜 사람들이 산에 오르는지를 알게 한다. 승학산 정상에 오르면, 동쪽으로 구덕산 정상과 기상 관측소가 보이고 서쪽으로는 낙동강과 김해평야, 남쪽으로는 넓은 남해 바다, 북쪽으로는 끝없는 반도의 산야가 보인다. 큰 학이 힘차게 날아올라 한 번 힘껏 울면 그 소리가 온 천하에 울려 퍼질 듯하다.

승학산 정상에 올라보니, 필자가 만약 학이라면, 발아래 보이는 낙동강

하구와 넓은 김해평야, 그리고 광활한 바다를 향해 힘찬 날개짓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 옛날에 무학 대사가 이 산을 실제로 보았는지 알 수 없지만, 산이름을 승학이라 부른 지혜가 놀랍다.

승학산의 낙조는 일품이다. 낙동강의 노을이 유명하듯, 승학산 정상에서 낙동강 너머로 지는 저녁노을은 어디 못지않게 아름답다. 최근 승학산 낙조가 아름답다는 입소문이 나서 저녁노을을 사진에 담기 위해 승학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5 은빛 물결, 온 산에 퍼지다



승학산의 진면목은 정상에서 구덕산 방향으로 펼쳐진 광활한 억새밭이다. 억새는 우리의 산과 들에서 자라는 다년생 풀이다. 키가 대략 1~2m가량 자라는데 가을이 되면 씨앗을 퍼뜨리기 위해 흰색 꽃을 피운다. 그 길이가 대략 20~30cm 정도이다. 억새는 우리나라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지만, 대단위의 군락을 이뤄 자생하는 곳은 많지 않다. 부산 인근에도 억새로 유명한 곳이 몇몇 있지만 승학산 억새만큼 아름답지는 못하다. 가을이 깊어 가면 피기 시작하는 새하얀 억새꽃은 온 산을 은빛으로 물들인다. 활짝 핀 억새꽃에 바람이 불면, 마치 햇살이 작열하는 바다가 일렁이는 듯하다.

승학산 억새밭은 약 10만㎡ 정도의 광활한 면적을 자랑한다. 최근 사하구청과 민간단체가 뜻을 모아 억새밭을 새롭게 복원하여 탐방객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있다. 현재 억새밭 상층에는 전망대가 있어 제석골 방향으로 펼쳐진 억새꽃을 구경하기에 좋다. 이곳 억새꽃은 10월 말에서 11월 초중순 사이가 절정인데 이 시기에 이곳을 찾으면 멋진 장관을 볼 수 있다. 산 위에 펼쳐진 은빛 바다! 승학산 억새밭이 바로 그 진경眞境이다.

승학산의 대표 명물인 억새를 두고 지자체 간의 갈등도 있었다. 2005년 사상구가 승학산 억새 축제를 개최하려 하자 사하구가 발끈한 것이다. 사상구청이 2005년 10월 8일 은빛 억새 물결로 장관을 이루고 있는 승학산



승학산 억새밭 ॥ 필자 촬영

일대에서 제1회 승학산 억새문화제를 개최기로 하고 보물찾기, 백일장, 산상 음악회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히자 사하구가 환경훼손 등의 이유로 반대한 것이다. 두 지자체의 대립으로 승학산 억새 축제는 2005년 1회를 끝으로 폐지되어 현재까지 개최되지 않고 있다. 추후 해당 지자체가 서로 잘 협조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여 부산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지인들까지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친환경 명품 축제를 만들면 좋겠다.

억새밭 전망대에 올라 억새를 구경하려니 비구름이 몰려왔다. 잠시 후 세찬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맞으면서 걸을 수 있는 비가 아니

었다. 비를 피하기 위해 전망대 밑으로 들어가 쭈그리고 앉아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다. 비가 더욱 거세지자 우천을 대비하지 못한 탐방객 몇몇이 필자가 앉아 있는 곳으로 들어왔다. 비좁은 공간에 대략 6~7명의 사람이 웅기쭈기 모여 비를 피했다.

처음에는 불청객처럼 생각되었던 비가 조금 있으니 반갑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람과 비를 맞으며 하늘거리는 억새꽃이 새로운 풍광을 연출했기 때문이다. 태풍처럼 부는 바람 따라 움직이는 억새꽃의 향연이 더없이 아름다웠다. 예기치 못한 비로 승학산 억새꽃의 새로운 면모를 볼 수 있었다. 비가 그칠 기미가 없어 조금 잦아드는 틈을 타 우중 산행을 하기로 했다. 모자를 쓰고 외투를 입고 빗길을 걸었다.

6 숲 향기 맡으며 삶을 치유하다



역새밭을 지나 구덕산 방향으로 걷다 보면 하산길이 나온다. 갈림길에서 동쪽으로 가면 구덕산으로 이어지고 남쪽으로 향하면 당리동 제석골 방향의 하산길이다. 하산길은 넓게 포장되어 있어 내려오기가 수월하다. 10여 분 걷다 보면 편백나무 숲이 등장한다. 최근에 새롭게 단장 중인 ‘부산 치유의 숲’이다. 넓게 조성된 편백나무 사이로 여러 갈래의 오솔길이 있고 곳곳에 넓은 나무 데크를 만들어 숲 향기를 맡으며 일상의 고단함을 힐링할 수 있게 해 두었다. 숲 치유는 숲에서 공기를 마시고 명상을 하면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으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각종 질병과 스트레스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는 현대인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숲 치유는 현대 의학이 제공하기 어려운 대안 치료의 한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산 치유의 숲은 아직 완공 전이다. 숲 입구에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공사 안내 표지판에는 ‘원도심 산림자원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누구나 365일 산림치유를 할 수 있는 도심형 복합산림치유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공사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마감한다고 밝히고 있어 조만간 부산 시민 누구나 부산 치유의 숲을 이용할 수 있을 듯하다(2024년 8월부터 운영 중).

치유의 숲을 지나자 비가 그쳤다. 빗물로 바닥이 다소 미끄러웠지만 길이 잘 구성되어 있어 하산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치유의 숲이 끝나는 지점이 승학산 제석골이다. 제석골은 제방 사업을 하고 주변을 공원화하여 ‘제석골 산림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골짜기에 흐르는 맑은 물줄기 주변에는 원두막, 나무 의자 등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휴게 시설들이 많다. 체력단련장, 족구장 등도 잘 갖춰져 있어 몸과 마음이 지친 사람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다. 특히, 이곳은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곳으로 여름철 물놀이하기에도 좋은 곳이다. 공원의 위쪽에는 부산일과학교등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의 정문 바로 옆에는 작은 폭포도 있다. 폭포 아래에서 잠시 쉬면 일상에서 받은 피로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을 것이다.



부산 치유의 숲 Ⅱ 필자 촬영



제석골 산림공원 Ⅵ 필자 촬영



도심 인근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더없이 좋은 혜택이다. 아는 사람들은 자주 찾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곳이 있는지도 모른다. 구청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이곳을 더 많이 홍보하여 부산 시민들이 조만간 조성될 치유의 숲과 제석골 산림 공원을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

7 제석골 할매, 단디 살피 주이소



승학산 제석골은 오래전부터 제당이 있던 곳이다. 이곳 마을 이름인 당리^{堂里}도 여기에서 유래되었다. 말 그대로 ‘당산이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이다. 부산 치유의 숲 입구에서 당리마을 방향으로 내려가다 보면 골짜기 우측 절벽 가운데 당집이 있다. 당집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중턱에 위치하는데 이 당집이 바로 제석골 할매당이다. 제석골은 지세가 상당히 험준하다. 특히 할매 당집이 있는 절벽 아래로는 세찬 물줄기가 흘러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다. 지금은 탐방객들을 위해 도로를 만들고 당집 아래로는 나무 데크도 만들어서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수월하지만, 예전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작은 다리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런 곳에 제석골 할매당이 위치해 있는 것이다.

제석골 할매당은 건립 연대를 알 수 없으나 원래는 기우제를 지내던 곳이라고 한다. 당산제는 음력 삼월 삼짇날 새벽 4~5시 무렵에 행한다. 할매당은 면적이 9.1㎡이고, 기와 팔작지붕에 벽은 블록을 쌓아 마감한 구조물이다. 문은 띠살 여닫이 두 짝문으로 되어 있다. 이 구조물은 두 칸으로 되어 있는데, 왼쪽이 제당이고 오른쪽이 제물당이다. 제단의 방향은 동향이며, 시멘트로 만든 제단으로 앞면 160cm, 옆면 44cm, 높이 71cm, 두께는 7cm이다. 위패 또는 신체와 산신도는 없다. 당사 오른쪽 벽에는 「제석곡신당 중수 방어록^{帝釋谷神堂重修芳御錄}」이 붙어 있는데, 크기



제석골 할매당 || 필자 촬영



당리동 돌탑 || 필자 촬영

는 세로 49cm, 가로 89cm, 두께 1.7cm의 나무판에 최칠관崔七官 외 136명의 명단과 기부금을 써 놓았다. 제당의 북쪽 담장 옆에 산신당이 있는데 돛형으로 된 이 당의 제단은 앞면 143cm, 옆면 45cm, 높이 90cm이다. 제당의 왼쪽 뒤편의 바위굴에는 장군당이 있는데, 제단의 규모는 앞면 210cm, 옆면 70cm, 높이 84cm이다.

돌탑은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당리마을에 있다. 낙동 초등학교 앞, 당리 경로당이 있는 곳에 돌탑이 있다. 돌 사이를 시멘트로 메워 중형으로 만들었는데 밑면의 지름은 360cm, 높이는 290cm이다. 돌탑에는 동북향으로 향한 제단이 있다. 돌탑의 왼쪽에는 200여 년이 된 검팽나무는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당산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마을공동체신앙 의례이다. 마을의 수호

신인 당산신에게 마을의 풍요와 평안 등을 기원하는 마을 제사로서 오래전부터 구비전승되어 온 민간 신앙의 일종이다.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 당산제의 신앙적 기능이 줄었지만, 전통사회에서는 마을마다 당산제를 모셨다. 오늘날 당산제는 신앙이나 의례보다는 문화적 차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동해안 별신굿이나 기장 오구굿 등이 그러하듯, 당산제 역시 지역민이 함께하는 훌륭한 문화자산으로 활용 가능한 전통민속이다. 이런 점에서 당리마을 당산제는 새롭게 정비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승학산 탐방이 마무리되었다. 에덴공원에서 시작하여 제석골 할매당까지 승학산이 품은 역사와 문화, 자연을 두루 탐방하였다. 필자는 승학산을 자주 오른다. 하지만 오를 때마다 새롭다. 같은 길을 걷더라도 계절에 따라 다르고 날씨와 시간에 따라 다르다. 최근에는 억새밭이 새롭게 조성되었고 제석골 골짜기가 산림공원으로 변했다. 국립부산승학산 치유의 숲도 있다.

이처럼 승학산은 부산 사람들이 살아온 끈질긴 역사를 품고서 부산 사람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거기에 깃드는 모든 존재에게 삶을 위한 위로와 안식을 제공하고 있다.



구덕산, 97가지 덕을 품고 구덕고개 굽이굽이 넘다

아홉 가지 덕을 품은 구덕산은
부산 감옥소, 부산 전차 종점, 항일학생 의거,
꽃마을, 구덕령, 기상 관측소 등 개항 이후
부산의 성장과 발전을 조망할 수 있는
다양한 역사·문화적 장소성을 품고 있는
부산을 대표하는 산이다.





구덕산, 9가지 덕을 품고 구덕고개 굽이굽이 넘다

구덕산九德山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과 서구 서대신동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부산을 대표하는 산 가운데 하나다. 동에서 남으로 넓은 해안을 끼고 있는 부산은 원도심原都心, 신도시新都市, 도농都農, 도서島嶼 지역 등을 포함하고 있는 광역시이다. 구덕산은 부산의 대표적인 원도심인 서구와 사상구에 걸쳐 자리한 산으로 부산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풍부하게 담고 있는 부산 사람들이 사랑하는 산 가운데 하나다.

구덕산이 터 잡은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동 일대에는 민족의 아픈 역사를 담은 많은 유적이 산재해 있다. 이곳은 한국전쟁 당시 피란 수도의 역할을 했던 곳으로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현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서구 임시수도기념로 45 등을 비롯하여 1960년대까지 부산 시내를 운행했던 부산 전차의 종점 등이 있던 곳이다. 또한 1907년 일본에 의해 건설된 부산 감옥소 터현 동대신동 삼익아파트, 부산 항일학생 의거 터, 부산 스포츠의 산실인 구덕운동장, 부산 최초의 상수도 급수원인 구덕 수원지 터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구덕산은 숱한 역경에도 신명을 잃지 않은 우리 민족의 고되지만 끈질긴 역사를 묵묵히 지키면서 그때도 지금도 같은 자리에 서 있다.

구덕산은 1740년에 편찬한 『동래부지東萊府誌』에서 두송산頭松山이라는 명칭으로 등장한다. 이후 1800년대 말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초량화집草梁話集』에 비로소 구덕산九德山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면 지금의 이름은 대략 200여 년 전부터 불려진 것을 알 수 있다. 구덕산이라는 이름은 이 산에 있던 구덕사九德寺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현재 구덕사는 사라지고 없다. ‘구덕九德’은 인간이 갖추어야 할 9가지 덕德을 이르는데, 충忠, 신信, 경敬, 강剛, 유柔, 화和, 고固, 정貞, 순順 등이 그것이다. 불교에서는 부처만이 이를 갖추었다고 한다.

구덕산의 정상은 종순형終巡形으로 산록은 대체로 완만하다. 북동쪽으로는 엄광산·백양산·상계봉에 연결되어 금정산의 고당봉으로 이어지고, 남서쪽으로는 시약산과 승학산으로 이어진다. 구덕산 정상은 해발 565m로 동남쪽 사면에서 보수천이 발원하며, 동쪽 산록에는 부산 최초의 상수도 급수원인 구덕 수원지가 있었다. 보부상을 비롯하여 수많은 장사치가 부산장터에서 구포장터와 사상장터를 왕래하던 구덕령이 있으며 그들이 넘던 그 고개에는 구덕 꽃마을이 있다. 북쪽 사면에는 학장천이 흐르고 그 기슭에는 구덕사가 있었다고 한다. 승학산과 구덕산에 이르는 제석 계곡은 경치가 아름다워 등산객들과 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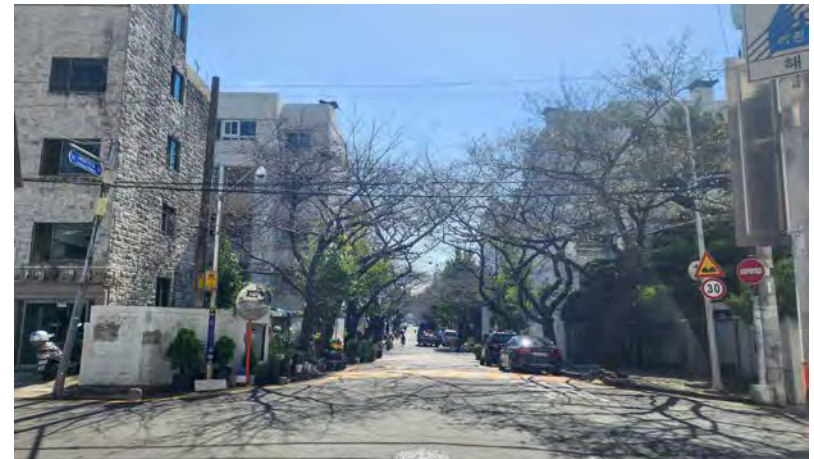
1 역사의 상흔을 찾아서



필자가 구덕산을 탐방한 날은 2023년 11월 5일 일요일이다. 오전 11시 20분에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에 주차를 하고 부산 감옥소 터가 있는 동대신동 삼익아파트로 향했다. 구덕운동장 방향으로 10분 정도 걸어가면 부산 지하철 1호선 동대신역이 나온다. 1번 출구와 3번 출구 사이 골목으로 들어가면 삼익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곳이 바로 부산 감옥소 터이다. 지금은 아파트 단지로 변화하여 감옥소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부산 감옥소는 원래 1896년 9월부터 주둔하기 시작한 일본군 수비대의 연병장으로 사용하던 곳이었는데, 1909년에 1만여 평 부지에 부산 감옥소를 만들었다. 1923년 4월 1일 부산 형무소로 1962년 11월 23일에는 부산 교도소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러다가 1973년 12월 23일에 부산구치소로 이름이 바뀌면서 북구 주례동으로 옮겼다.

대신동 삼익아파트에 도착해서 감옥소의 옛 흔적을 찾고자 하였으나 어디서도 확인할 길이 없었다. 이곳이 역사적인 장소이기에 적어도 표지판이나 안내 문구 정도는 비치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조차 없었다. 아파트 경비원, 동대신동에서 60년 넘게 살았다는 어르신 등을 통해 옛날에 이곳에 감옥소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표지석이나 흔적이 있는지 문의했으나 '이곳이 감옥소였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런 것은 본 적이 없다.'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아파트의 이미지, 가격 등 입주민들이 민감하



부산 감옥소 터 || 필자 촬영

게 받아들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가 사라진 듯 하여 아쉬웠다. 역사의 기억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 민족의 상흔을 담은 어두운 역사도 기억할 수 있어야만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삼익아파트 단지에는 나이 많은 벚꽃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데 그 나무들이 감옥소가 있었던 때부터 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봄이 되어 벚꽃이 만발하는 꽃 잔치가 펼쳐지더라도 이곳이 일제의 조선 침탈의 전초기지였음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부산 감옥소의 흔적을 찾기 위해 아파트 단지를 종횡무진 누볐더니 허기가 왔다. 인근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먹고, 다음 행선지인 부산 전차 중점 터로 향했다. 부산 전차 중점은 삼익아파트에서 4-5분 거리에 있는 구덕운동장 입구 맞은편 대신문화 아파트 바로 앞 도롯가에 위치한다.

부산 전차는 일제강점기에 설치되어 온천장을 출발하여 동래, 서면,



부산 전차 종점 터 표지석 Ⅵ 필자 촬영

부산역, 옛 부산시청, 재관소현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등을 경유하여 구덕 운동장까지 운행하였다. 1968년 전차 운행이 중단된 후, 동아대학교가 한국 전력의 전신인 남선전기(南鮮電氣)로부터 전차를 학습용으로 기증받아 구덕 캠퍼스 야외에 보관해 왔다. 2009년 동아대학교 박물관이 부민캠퍼스로 이전하면서 서구청에서 시행한 임시수도 기념 거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해 캠퍼스 내에 전시하고 있다. 이 전차는 1952년 미국에서 무상 원조로 부산에 들여와 운행하던 전차 20량 중에서 1968년 마지막까지 운행하던 전차로,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는 유일한 전차이다. 2012년 4월 18일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 전차가 다니던 선로는 원래 일제강점기 당시 김해평야에서 수확한 수많은 농작물을 비롯하여 구덕산 고개를 넘어온 다양한 물자들과 사람들

을 이동시켜 일제의 수탈 도구로 활용되었던 곳이다. 그것의 종점이 바로 이곳에 있다. 표지석에는 ‘대신동 전차종점 터’라고 새겨져 있고 이 장소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아래와 같이 기록해두었다.

이 자리는 부산의 근대화기 50여 년 동안 시민들의 풍요한 교통 수단으로 이용되어 추억과 애환이 깃들여 있는 전차 종점이 있었던 곳입니다. 부산에서는 1910년에 부산진~동래 온천장 구간에 처음 운행을 시작하였고 1928년엔 부산공설운동장이 조성됨에 따라 대신동까지 전차선로가 연장되어 이곳에 전차 종점이 들어섰습니다. 당시 운행 구간은 운동장~시청앞~충무동~서면을 지나 동래 온천장으로 가는 선로와 운동장~충무동~시청 앞을 지나 영도 남향동 종점으로 가는 2개의 선로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전차를 ‘번갯불을 잡아서 타고 다닌다.’고 해서 구경꾼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으나 대중교통 수단이 점차 버스로 전환되면서 1968년 5월 20일 전차 운행이 중단되었고 그때 운행되던 전차 1량은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일제가 폐퇴한 후, 그 선로 위를 미국에서 들여온 전차가 달렸다. 전차는 물자의 유통과 사람들 이동의 핵심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부산의 성장과 변화의 현장들을 묵묵히 지켜왔다. 지금은 화려하고 힘찬 그때의 기상을 뒤로하고서 선로가 아닌 대학 캠퍼스에 멈춰 서있다.

2 민족과 조국의 기상을 떨치다



전차 종점 터 바로 앞, 도로 건너에 구덕운동장이 있다. 구덕운동장 주자창 인근에 부산 학생 의거 터가 자리하고 있다. 학생 의거는 일제 강점기 1940년 11월 23일에 있었던 항일 투쟁이다. 당시 일제는 전시체제 시기로 군사훈련을 목적으로 학생들을 동원하여 제2회 전력증강 국방경기대회를 공설운동장현 구덕운동장에서 개최하였다. 명분은 학생들의 운동대회였으나 실질적 목적은 군사훈련을 위한 동원에 가까웠다.

종목별 경기가 열리는 동안 일본인 심판이 일본인 학교의 우승을 위해 조선인 학교를 차별하면서 경기를 편파적으로 운영하였다. 결국 폐회식 때 성적을 조작하여 일본인 학교의 우승을 발표하자 이에 조선인 학생들의 분노가 폭발하였다. 동래중학교현 동래고등학교 학생들과 부산제2상업고등학교현 개성고등학교 학생들은 우리 민요를 부르면서 공설운동장을 출발하여 보수동 네거리까지 행진한 후, 대열을 나누어 대청동과 광복동을 거쳐 중앙동까지 진출하였다. 일부 학생들은 영주동의 육군대좌 노다이[乃台] 관사로 몰려가 돌 세례를 퍼부었다. 이에 부산 헌병대는 각 경찰서에 긴급 지령을 내려 200여 명의 학생들을 현장에서 검거하였는데 그 가운데 15명이 투옥되고 21명이 퇴학을 당했으며 44명이 정학을, 10명이 견책을 당하는 처벌을 받았다.

이처럼 부산 항일학생 의거는 일제강점기 전시체제 하에 펼쳐진 대규모



부산 항일학생 의거 터 표지석 || 필자 촬영

항일 학생 운동으로서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열망했던 항일운동의 맥을 계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일제의 횡포에 굴하지 않고 의연히 떨치고 일어나 항거한 것은 민족의 기상을 더 높인 의미 있는 행동이다. 이러한 항일 투쟁의 역사적 장소가 바로 이곳이다.

부산 학생 의거 터를 지나 동아대학교 구덕캠퍼스 입구에 다다르면 좌측에 구덕도서관이 있다. 구덕도서관을 지나 좌측 방면으로 조금 더 가면 70개로 이뤄진 계단이 나온다. 계단의 끝, 공원 입구 옆에 충무공 이순신 영모비가 있다. 이곳은 구덕민속예술관, 구덕 제1저수지 등이 있

는 중앙공원에전의 대신공원인데 그 입구에 장군의 영모비가 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초, 1592년 9월에 전라좌도 수군절도사로서 조선 수군 연합함대를 이끌고 일본군의 본영이 주둔했던 부산포를 공격하여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다. 이것이 바로 부산포 해전이다. 장군의 이러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비를 건립하였는데, 원래는 충무동에 있던 것을 1992년에 이곳으로 옮긴 것이다. 비 옆에 있는 안내판에는 이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 비는 임진왜란 때 부산포 해전에서 왜적을 섬멸하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충정과 위엄을 추모하고 국난극복의 민족사를 후세에 전하고자 1957년경 충무동 경로회 회원들이 각별한 정성을 모아 충무동 광장에 건립하였다. 그 후 1960년대 초 도로 확장 공사로 서구 남부민동 소재 해양고등학교 교정으로 옮겨져 30여 년간 학생들의 정신적 상징물로 보존되어 오다가 1992년 5월에 이 학교가 다른 곳으로 옮겨감에 따라 구덕산 정기 어리고 부산 앞바다가 훤히 바라다 보이는 이곳 대신공원에 서구 21만 구민의 뜻을 모아 1992년 8월 원상대로 복원하고 길이 보존케 한다.

이 영모비의 비문은 붉은색인 것이 특징이다. 비문의 글씨를 붉은색으로 칠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데 아마 장군의 충정과 순국을 추모하기 위함인 듯하다. 영모비는 누군가를 영원히 추모하기 위해 세운 비이다. 이 비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이곳에 자리 잡게 되었으니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공원을 다니는 많은 사람이 우리 땅, 우리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처럼 구덕산 자락에 터 잡은 대신동은 60여 년 전 어린 학생들의 의연한 결기와 400여 년 전 조국을 침탈한 적을 향해 온 몸을 던졌던 충무공의 정신을 오롯이 품고 있는 부산 역사의 소중한 장소라 할 수 있다.



충무공 이순신 영모비 || 필자 촬영

3 구덕에 깃든 사람들, 끈질긴 삶을 이어오다



충무공 영모비를 지나 구덕 터널 방향으로 걷다 보면 구덕초등학교가 있다. 초등학교 정문으로 가는 길가에 구덕 수원지 터 표지석이 있다. 구덕 수원지는 부산 최초의 현대식 저수지로 인근 주민들의 식수원으로 사용되었던 곳이다.

구덕 수원지는 일본 전관 거류지日本專管居留地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었다. 원래 초량 왜관 내에는 우물 두 곳이 있었는데, 개항 이후 거류민의 증가로 물이 부족하게 되자, 1886년 보수천의 물을 죽관竹管과 목통木桶으로 끌어와 이용하였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물 부족을 해결하기 어려워지자, 1900년에 저수지 공사를 시작하여 1902년에 구덕 수원지가 준공되었다. 이 수원지의 건립으로 서구와 중구 1만여 주민들에게 1일 약 2,000㎡씩 식수가 공급되었다.

해방 이후, 이 지역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자 낙동강 물을 이용한 상수도 시설이 완비되면서 1963년경 수원지로서의 기능을 잃게 되었다. 1972년 9월에는 폭우로 인해 수원지의 둑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해 사망자 60명, 실종자 14명, 부상자 48명 등 대규모 인명 피해와 함께 수재민이 발생하였다. 이후 수원지는 복구되었으나 1981년 구덕 터널 공사가 시작되어 옛 흔적도 사라졌다.

구덕산 탐방은 구덕 초등학교 정문과 이어지는 육교를 건너면서 시작



구덕 수원지 터 표지석 Ⅵ 필자 촬영

된다고 할 수 있다. 보수대로를 가로지르는 육교를 건너면 바로 서대신 4동에 닿는다. 육교를 내려 대신중학교 방향으로 조금 내려가다가 우측으로 길을 잡으면 구덕산 고개에 자리하고 꽃마루로 향하는 길과 이어진다. 이 길이 바로 ‘꽃마루로’인데 다소 가파른 도로지만 걷기에는 큰 무리가 없다. 꽃마루까지는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많은 사람이 버스를 이용한다. 꽃마루로를 따라 20여 분 정도 걸으면 구덕 제2저수지가 있다. 호수 주변에는 나무 데크로 만들어진 둘레길이 잘 조성되어 있다. 둘레길 곳곳에서 버스킹이 열리고 있었는데, 이곳 버스킹은 중년들이 주인공이었다. 7080들의 추억이 담긴 음악이 곳곳에서 들렸다. 해운대, 광안리 등 젊은 이들을 위한 공간은 많지만, 중장년층들을 위한 공간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현실인데, 이곳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추억이 담긴 음악을 연주하고



꽃마을 입구 || 필자 촬영

즐기는 모습을 보니 구덕산이 품은 또 하나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

호수를 지나 조금 걸으면 바로 구덕산 꽃마을이다. 이 마을은 구덕산과 엄광산 사이의 고개에 위치하는 마을로, 마을 사람들이 주변에 자라는 야생화를 꺾어 팔아 생계를 유지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876년에 부산항이 개항하면서 일본인 전관 거류지에 정착한 일본인들이 군 수송로를 조성하기 위해 초량 왜관에서 구포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개수하였다. 원래 이 길은 임진왜란 시절부터 사람들이 왕래하던 길이었는데 이때의 개수를 계기로 외지에서 온 가난한 사람들이 이곳에 움막과 초가 등 무허가 주택을 짓고 살기 시작하였다. 이후 여기에 정착한 사람들이 구덕산 부근에서 채집한 들꽃과 약초 등을 시장에 내다 팔며 생계를 유지하게 되면서 마을 이름이 꽃마을로 불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후 한국전쟁으로 피난민이 몰려들어 마을의 규모가 커졌다.

이 마을은 일제강점기에는 부산부 서대신정에 속하였고, 1947년에는

서대신동 꽃마을이었다가, 1951년 서구출장소에 속하게 되었다. 1957년 서구에 편입되어 1963년에 부산직할시 서구 서대신동 꽃마을이 되었다. 당시 꽃마을은 영세민의 불량 주택이 난립해 있었는데, 1970년대 국화 단지를 시작으로 화훼 단지가 조성되었다. 1980년 마을 진입로가 포장되고 마을버스가 운행되었고, 1995년 부산직할시가 부산광역시로 승격하며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 꽃마을이 되었다. 2000년대 중반 마을이 있는 지역이 자연 녹지에서 주거지로 변경이 되어 현재의 주택지로 변하게 되었다. 지금은 구덕산을 오르는 많은 사람을 위한 먹거리촌으로 유명한 곳이 기도 하다.

부산은 산의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부산釜山이라는 지명에서도 확인된다. 부산은 바다에 인접해 있어 평지가 거의 없기에 사람들은 산과 산 사이의 좁은 땅에 도심을 이루면서 살아왔다. 개항과 한국전쟁 등으로 인구가 급속하게 늘면서 도시가 점점 팽창해져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피란 시절 만들어진 마을 가운데는 거의 산 정상 부근에 위치한 곳도 있다. 그래서 부산 사람들은 산에 자주 오른다. 집만 나서면 사방이 산이기 때문이다.

부산 사람이 오르는 산 가운데 대표적인 곳이 바로 구덕산이다. 그리고 구덕산을 오르는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이곳에서 맛볼 수 있는 음식들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꽃이 피는 봄이나 단풍이 드는 가을이 되면 수많은 사람이 이곳을 찾는다. 꽃마을은 이제 부산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지인들도 자주 방문하는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다.

꽃마을 입구에는 이곳이 오래전 장사치들이 넘나들던 고개라는 것을 알리는 구덕령九德嶺 표지석이 있다. 이 표지석은 마을 입구 왼편 도롯가에 자리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고갯길의 유래와 표지석 건립 취지가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다.



구덕령 표지석 ■ 필자 촬영

구덕령은 구덕산과 엄광산 사이에 위치한 해발 262m의 고갯길로 19세기 말 개항과 더불어 새 길이 나기 전까지 부산포에서 구포장을 잇는 유일한 지름길이었다. 당시 이 땅에 살았던 어부, 장꾼과 보부상은 물론 전란 시의 의병이 넘나들며 이곳에서 땀을 식히고 주막에서 목을 축이던 조상들의 애환이 서린 곳이다. 이제 우리 서구민은 이 유서 깊은 자리에 표지석을 세우고 애향의 터전으로 삼고자 한다.

필자는 이 표지석을 찾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문의했으나 쉽게 찾을 수가 없었다. 이 마을에 수십 년 거주하고 있다는 주민을 비롯하여 30년째 가게를 운영 중이라는 사장님 등 4~5명에게 구덕령 표지석의 위치를 물었으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수십 년 동안 마을에 거주하신 할아버지께서는 ‘이곳이 예전에 장사꾼들이 지나가던 길이었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 그것을 알리기 위해 세웠다는 표지석은 모르고 있었다.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다가 결국 스마트폰을 이용해 대략의 위치를 알 수 있었는데,

이조차도 인터넷 이용자가 작성한 글이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했다. 인터넷에 있는 화면 배경과 비슷한 곳을 몇 군데 확인하던 중 도롯가에 주차된 관광버스 옆에 있는 구덕령 표지석을 찾을 수 있었다. 당시 커다란 관광버스가 표지석을 가리고 있어 시야에 들어오기 어려웠고 심지어 사진조차 촬영하기 힘들 정도였다. 이곳이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도롯가에 주차하는 차량이 많은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마을에는 마을 주민들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던 오래된 당집이 있다. 당산제는 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수호신인 당산신에게 마을의 풍요와 평안 등을 기원하는 마을공동체신앙의 의례이다. 당산굿·동제洞祭·당제라고도 하는데 예전에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당산제를 지냈었다. 지금은 시대가 달라지고 사회가 변화하여 제를 지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제를 지내



꽃마을 당집 ■ 필자 촬영

더라도 신앙적 차원이 아닌 문화적 차원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꽃마을 당산제는 음력 1월 15일 새벽에 거행된다. 우리나라 당산제가 주로 정월대보름 새벽에 거행되는 것과 유사하다. 당산은 꽃마을의 아래 쪽인 산기슭에 위치해 있으며, 제당에서는 당산 할배와 당산 할매를 모시고 있다. 원래 할매 제당과 할배 제당이 따로 있었는데 1980년대 할매 제당을 철거하여 거기에 마을의 공중화장실을 세웠다고 한다. 그런데 이후, 마을 청소년들이 죽는 일이 많아졌다. 그러다 마을 노인들의 꿈에 당산 할배가 현몽하여 제당을 지어달라고 하자, 할매 제당에 합사하게 되었다고 한다. 당산 할배가 꿈에 나타나 할매 곁으로 안 가겠다고 하였지만, 달래어 함께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서대신동 구덕령 꽃마을 당산제를 지내는 제당을 무속인들의 굿당으로 빌려주는 일이 있으므로 마을 제당으로의 성격이 많이 약화되었다.

꽃마을 당집을 찾는 것도 구덕령 표지석 못지않게 힘들었다. 당집의 정확한 위치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안내 표지판도 없었다. 당집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행인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을 만났으나 알기 어려웠다. 그러다가 엄광산으로 오르는 입구 부근에 있는 굿집을 찾아가 무속인들에게 문의를 하니 구덕령 고개 부근에 있는 음식점 ‘일동이네집’ 사장님에게 물어보라고 하여 사장님을 통해 대략적인 위치를 알 수 있었다.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했다고 그곳을 정확하게 찾을 수는 없었다. 사장님은 그쪽으로 가면 있다고만 했지 직접 안내해주지는 않았다. 사장님이 지시한 방향으로 길을 걷다가 2~3명의 행인에게 다시 문의한 끝에 당집을 찾을 수 있었다.

꽃마을 당집은 현재 꽃마을로 168번길 바로 아래 셋길 사이 나무숲 속에 위치해 있다. 입구가 만들어져 있지만,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아 수풀이 무성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도롯가에 작은 안내 표지판이라도 만들어 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4 숲속의 숲, 몸과 마음을 힐링하다



구덕령에서 구덕산 정상 방향으로 조금 오르면 구덕문화공원이 있다. 산속의 공원으로 이곳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녹지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 공원은 2004년에 부산 시민들의 평생 교육 및 학생들의 현장 학습을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공원에는 교육 역사관, 다목적관, 목석 원예관, 민속 생활관 등 다양한 시설들이 있다. 원래는 ‘구덕 수목



구덕문화공원 || 필자 촬영

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나, 2007년에 박물관, 식물원, 전시관, 체육 시설 등이 완공되면서 '구덕문화공원'으로 변경하였다.

공원의 면적은 약 2만㎡로 1층으로 된 교육 역사관과 2층으로 된 민속 생활관 등이 있다. 또한 석부작과 아열대 수목이 있는 목석 원예관, 전시와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다목적관, 다목적 광장, 무인석 등이 전시된 옛돌 마당, 야생화 등 자연 체험 학습장을 갖춘 들꽃 동산, 산책을 즐길 수 있는 편백나무 숲 명상의 길, 인공 폭포와 놀이마당, 화가 신창호 추모비, 금당 최규용 다비 등 다양한 시설과 공간, 기념비가 있다.

이 공원은 구덕산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어 구덕산을 오르거나 내려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닿는 곳이다. 곳곳에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간단한 취식을 하기에 용이하고 숲 사이로 조성된 오솔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자연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구덕산에 올라 꽃마을의 지역 음식도 맛보고 공원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구덕산의 아홉 가지 덕을 새겨보는 것도 좋으리라!

5 97가지 덕으로 사람을 품다



공원의 숲길을 따라 산 위로 걸으면 구덕산 정상으로 향하는 탐방로를 만날 수 있다. 구덕산 탐방로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이다. 정상 부근에 기상 관측소가 있기 때문에 차량 진입을 위한 콘크리트 도로가 조성되어 있다. 흙길이 아니라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넓은 포장도로를 걷는 것도 나름의 운치를 더한다.



구덕산 정상으로 향하는 길 || 필자 촬영

탐방길은 비교적 완만한 경사로 되어 있어 오르기가 수월하다. 포장도로라서 산길에서 흔히 마주치는 돌부리도 없다. 흥미로운 것은, 도로 좌측 벽면에 수많은 낙서가 있다는 점이다. 콘크리트 벽면에는 이끼가 자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탐방객들이 낙서한 것이다. 연인 사이의 사랑 메시지를 비롯하여 합격 기원, 사업 성공 기원 등등 이곳을 다녀간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가 곳곳에 새겨져 있다. 낙서도 예술이 되는 시대이니 이 공간을 예술적 공간으로 만든 것도 좋을 듯 하고, 꼭 예술이 아니더라도 이 벽면을 탐방객들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설화의 대나무 숲처럼 활용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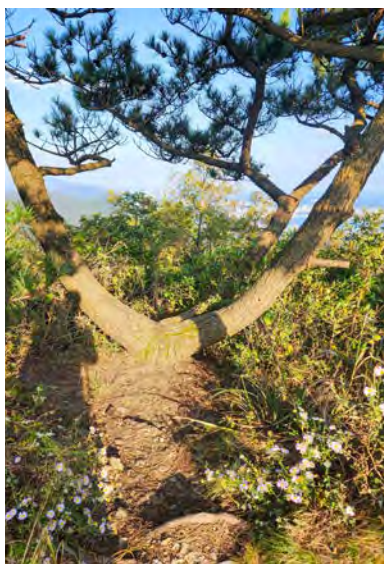
포장길을 따라 대략 25분 정도 걷다 보면 길 우측으로 기상 관측소가 보인다. 구덕산 정상은 거기에서 좌측으로 조금만 오르면 된다.



구덕산 정상에서 바라본 해운대 풍경 || 필자 촬영



구덕산 정상석 || 필자 촬영



구덕산 정상의 소나무

정상에 오르니 시야가 확 트인다. 맑은 공기가 가슴을 상쾌하게 하고 시원한 바람이 이마의 땀을 식힌다. 정상석에는 이 산의 높이가 해발 565m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동으로는 멀리 해운대의 고층 빌딩들이 보이고 남으로는 영도와 바다에 떠 있는 배들이 보인다. 서로는 승학산 정상과 역새밭, 서낙동강과 김해평야 등이 들어온다. 정상에서 맛보는 넓은 시야는 산을 오르는 동안에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상에 오른 자만이 느낄 수 있는 멋진 경험이다. 힘들고 고된 과정을 묵묵히 인내한 결과에 대한 보답이라 할 수 있다.

구덕산 정상에는 또 다른 숨은 매력이 있다. 바로 한 그루의 소나무이다. 정상석 바로 옆에는 U자 형태로 가지가 뻗은 멋진 소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앉아 사진을 찍으면 이른바 ‘인생샷’이 될 수 있다. 해운대가 보이는 동쪽을 배경으로 앉아 사진 한 컷 찍는다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멋진 풍경이 연출

될 것이다.

구덕산은 오르기에 수월한 산이다. 꽃마을에서 정상으로 오르는 코스는 포장에 잘 되어 있으며 급경사가 거의 없다. 산세가 이러하니 이산을 자주 오른다면, 구덕을 갖춘 부처 같은 성인은 아니더라도 그 가운데 적어도 유연함과 조화, 순함을 뜻하는 유柔, 화和, 순順 등을 갖춘 사람 될 수 있으리라!

구덕산 정상에서 남쪽으로 이어진 곳이 바로 시약산(蔞藥山) 정상이다. 구덕산 정상에서 기상 관측소가 있는 방향으로 길을 잡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약산 정상에 도달한다. 시약산 정상 입구 좌측에는 시약정(蔞藥亭)이 있다. 우리나라 산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부산의 산 가운데 기암괴석이 있는 곳은 많지 않다. 해안가에 풍화작용으로 인한 기암들은 많이 있지만, 내륙의 산 가운데는 찾기가 힘들다. 그러나 시약정이 위치한 이곳은 보기 드문 기암괴석들이 즐비하다. 그 위에 정자를 지어 동쪽으로 확 트인 시야를 제공한다. 높은 절벽 위에 자리한 시약정에 오르면 가까이는 대신동 일대가, 멀리에는 해운대 넘어 동해와 영도를 지나 남해까지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최근에 시약정까지 오르는 길과 정자 주변에 나무 데크를 만들어 놓아 멋진 풍경을 안전하게 구경할 수 있게 조성해 두었다.

시약정에서 산의 정상 방향으로 조금만 오르면 기상 관측소가 있다. 이곳은 일정한 공간과 시간 간격으로 기온, 강수량, 풍향, 풍속, 기압, 습도 등 다양한 기상 요소들을 관측하는 곳이다. 기상 현상은 시공간적으로 다양한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전세계의 기상요소를 일정한 시간마다 균일한 공간해상도로 관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세계기상기구 WMO에서는 온도계, 습도계, 강우계, 기상레이더 등의 관측기기의 특성을 이용하여 기상요소가 정확하게 관측될 수 있도록 기상 관측소에 관한 기준을 협의한다고 한다. 또한 기상 관측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약정 ■ 필자 촬영



기상 관측소 ■ 필자 촬영

기상 관측소가 한 번 설치되면 이후에는 이전하거나 철거하기 어렵다고 한다.

부산 기상 관측의 역사는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은 사라진 ‘부산임시관측소’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관측소는 1905년에 설치되었다. 현재 부산시 문화유산자료 88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현재는 멸실 우려로 해체하여 향후 복원을 위해 잔존 부재를 보관 중이다.

시약산 정상에 기상 관측소가 있다는 것은 이곳이 우리 지역의 기상을 관측하기에 편리한 장소라는 의미일 것이다. 기상 관측은 세계기상기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관측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장소가 이곳이라니 시약산이 품은 또 하나의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정자를 구경하고 기상 관측소 방향으로 올라가면 관측소 바로 뒤에 시



시약산 정상석 || 필자 촬영

약산 정상석이 있다. 관측소가 있는 곳이 시약산 정상이기 때문에 정상석은 관측소 펜스 바로 뒤에 세워져 있다. 시약산이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진 것이 없지만 대체로 사람들이 이곳에서 약초를 심거나 채취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약산은 낙동정맥의 최남단으로 구덕산과 바로 맞닿아 있다. 산정은 종순형이며 산록은 완만하다. 정상은 해발 510m이며 사하구와 서구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시약산 정상은 기상 관측소가 있어 상대적으로 시야가 가려져 있다. 다행히 남쪽으로 당리마을을 지나 멀리 감천 앞바다가 훤히 보이고 그 너머 광활한 남해가 들어온다.

낙동정맥 끝자락 정상에 올라 먼 지평선을 바라보니 반도의 줄기가 세차게 달려와 여기서 멈추었다는 사실을 새삼 느낄 수 있다. 우리의 산은 백두대간을 큰 줄기로 하여 반도 곳곳으로 뻗어 크고 작은 정맥을 이루고 그 사이사이에 사람들을 품어주었다. 우리 민족은 이를 터전으로 삼아 불의한 권력에 굴하지 않고 유구한 역사를 이루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산은 이 모든 것을 묵묵히 지키면서 늘 거기에 있는 것이다.

6 낙동정맥의 끝, 인재의 요람으로 뿜트다



시약산을 끝으로 구덕산 탐방은 갈무리되고 본격적인 하산길로 접어든다. 하산길의 갈래는 여러 코스로 나누어져 있어 첫 진입이 중요하다. 필자가 최종 하산지로 정한 곳이 승학산 입구와 이어지는 제석골이기 때문에 시약산 정상석이 있는 곳에서 서쪽으로 난 길로 들었다. 이 길은 승학산과 시약산의 분기점인 자갈마당으로 가는 길이다.



승학산과 시약산의 분기점 자갈마당 || 필자 촬영

시약산에서 자갈마당까지는 상당히 가파른 돌길로 이뤄져 있다. 하산길이라 힘들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돌부리가 노출되어 있어 천천히 조심해서 내려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바윗길이 많으므로 발을 디딜 때 조심해야 하며 등산화나 지팡이 등 등산 장비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려오는 것도 필요하다.

시약산 정상에서 20분 정도 내려오면 자갈밭에 닿는다. 이곳은 승학산과 시약산의 분기점이 되는 곳으로 여러 탐방로가 갈리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서북쪽으로 길을 잡으면 승학산 역새밭으로 가게 되고 동남쪽으로 잡으면 괴정 방향으로 닿게 된다. 승학산 제석골은 이곳에서 서남쪽 길을 선택해야 닿을 수 있다.

자갈마당에서 서남쪽으로 승학 약수터가 있는 방향으로 길을 잡고 20여 분 건다 보면 아치형 바위 터널이 나온다. 이곳은 필자가 자주 찾는 곳이다. 필자가 승학산을 탐방하는 코스는 크게 세 가지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제석골에서 출발하여 이 길을 지나 장수 약수터를 거쳐 다시 제석골로 내려오는 코스다. 이 코스는 승학산 초입의 산덩이를 빙 둘러보는 코스로,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짧은 구간이다. 정상을 오르는 길은 아니지만, 승학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에 충분하다. 바위 터널은 바로 이 코스에 있는데 두 개의 커다란 바위가 맞대고 있어, 그 사이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만들어져 있다. 자연이 만든 건축물로 산행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승학 약수터를 지나면 바로 제석골이다. 여기에 부산 과학영재들의 산실인 부산일과학고등학교가 있다. 부산일과학고등학교는 2012년 3월에 개교하였다. 교육 목표는 ‘따뜻한 품성을 갖춘 창의적 융재 과학 인재 육성’이며 교훈은 ‘정직, 창의, 열정’이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선도할 미래 융합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된 이 학교는 승학산 제석골에 위치하고 있기에 제



아치형 바위 터널 Ⅵ 필자 촬영



부산일과학고등학교 Ⅵ 필자 촬영

석관, 창의관, 면학관, 형설관, 회화관, 모란관, 승학관 등의 승학산 관련 명칭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제석관에는 영재 교육원, 역사관 등이 있다.

이 학교의 건너편에는 부산 치유의 숲이 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선도할 미래의 인재들이 공부하다 지치면 제석골의 맑은 물과 공기를 마시면서 치유의 숲을 걸으며 학업에 매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제석골은 현재 제석 산림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운동기구가 구비되어 있는 체력 단련장, 시민들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족구장을 비롯하여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원두막과 나무 의자 등이 잘 갖춰져 있다. 특히 제방 공사를 마친 제석골 계곡은 지친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할 수 있는 좋은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써 구덕산 탐방이 모두 마무리되었다. 아홉 가지 덕을 가진 산, 부산



제석골 산림공원 || 필자 촬영

사람뿐만 아니라 부산으로 여행을 오는 많은 사람이 구덕산에 올라 산이 품은 부산의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험하고 부산을 다시 생각하는 산행이 되었으면 한다.

구덕산 일대의 우리 역사와 문화, 산의 풍광을 탐방하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 첫째, 역사적 의미를 지닌 장소를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꽃마을 당산제는 전통 사회의 마을공동체신앙을 대표하는 소중한 민속이다. 이러한 의례가 행해진 당집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장소이다. 당산제 같은 마을신앙은 구비전승되는 무형의 문화유산이므로 당산나무나 당집 같은 것이 보존되지 않으면 현대 사회에서 그에 대한 기억은 쉽게 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잘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꽃마을을 탐방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의 문화적 가치를 알릴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

서는 탐방객들이 당집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 입구나 당집 입구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설치되어 있는 몇몇 표지석이나 안내판을 위한 별도 공간이나 시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차 종점 터, 구덕 수원지 터, 구덕령 표지석 등은 차량이 다니는 도롯가에 인접하게 설치되어 있어 주차된 차량이나 노점상 등에 의해 가려지기도 하고 심지어 훼손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여 이를 보호하여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부산의 역사를 이해하고 장소성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역사는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저 주어지지 않는다. 지금의 부산이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투쟁과 함성이 있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소중히 기억하여 후세에 전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에 사는 사람들이든 부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이든 역사적 의미를 지닌 장소들을 무심코 지나치지 않고 발길을 잠시 멈춰 부산과 부산 사람,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할 필요가 있으리라!



봉래산, 신선이 노닐고 영도할매의 영험이 잇든 곳

봉래산은 부산 영도 가운데 위치한 산으로,
신선이 산다는 전설의 산의 이름을 따왔다.
영도할매의 전설이 깃들어있는 영도에는
봉래산과 흰여울문화마을, 복천사,
산제당, 조내기고구마역사기념관,
청학동해돋이벽화마을 등의 명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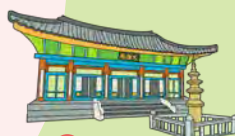
청학동
8 해돋이 벽화마을



5 봉래산 산제당



조내기
7 고구마 역사기념관



4 복천사



6 봉래산 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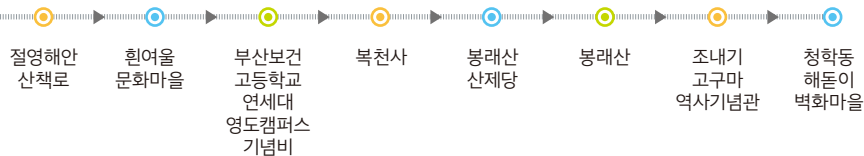
부산보건고등학교
3 연세대 영도캠퍼스 기념비



2 흰여울문화마을



1 절영해안산책로



봉래산, 신선이 노닐고 영도할매의 영험이 깃든 곳

영도影島는 부산 남쪽에 위치한 섬으로, 행정구역 상으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해당한다. 1957년에 영도출장소가 영도구로, 1995년 부산이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부산광역시 영도구가 되어 현재에 이른다.

영도 동삼동과 영선동 등지에는 신석기 시대의 유적인 조개더미들이 출토되었는데, 이는 부산 지역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유적으로, 영도가 부산에서 가장 먼저 사람이 산 곳 중 하나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영도는 아주 오래전부터 말을 키우는 목마장牧馬場으로 쓰였으며, 영도라는 지명도 이곳에서 자란 말은 그림자도 쫓아오지 못할 만큼 빠르다는 뜻의 ‘절영絶影’에서 따왔다고 한다. 그래서 영도에는 말과 관련된 기록과 전설이 많다. 목마장으로 운영되던 영도에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된 것은 부

산항 개항 이후인 1881년 절영도진絶影島鎭을 설치하고부터의 일이다. 이후 영도는 일본 어선단의 최대 정박지로 이용되었고, 일제강점기에는 부산의 공업중심지로 크게 발전하였다. 해방 이후 6·25전쟁이 발발하고 부산이 임시수도가 되었을 때는 영도에 1백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몰려 애절한 사연의 현장이 되었으며, 홍남부두에서 헤어진 누이동생을 찾는 노래인 「굳세어라 금순아」의 무대가 되기도 했다.

영도 북서쪽에서 섬 중앙까지는 봉래산蓬萊山이 뻗어있다. 봉래산은 예로부터 신선이 산다는 영산靈山으로 이름났고,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으라고 보낸 서복徐福이 이곳에 들렀다는 전설이 있다. 또한 영도 사람들을 굶어살핀다는 봉래산의 삼신할매인 영도 할매의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봉래산은 영도의 주산主山이자, 영도 주민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와서 발원發願하는 영험한 모산母山으로 여겨져 왔다. 또한 풍광이 수려하고 정상에서 내려다보이는 전망이 아름다워 오늘 날에도 영도 주민들이 많이 찾는 생활 체육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번 여정은 봉래산을 중심으로 그 인근에 위치한 영도 역사의 여러 장면을 환기하는 장소들을 둘러보며 그곳의 오래된 이야기들과 오늘날의 모습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한때 부산의 주요 공업도시로 부산 인구의 1/4이 살았았던 영도는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조금 쓸쓸해졌다. 영도에 웃음소리가 다시 한번 만개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다.



1 절영해안산책로

영도 이름의 유래와 절영마



부산대교를 건너 영도로 들어갔다. 영도로 들어가는 느낌은 오묘하다. 봉래산의 이름이 주는 선기仙氣 때문인지, 영도할매의 전설 때문인지, 영도의 상징과도 같은, 피란민의 애환이 담긴 「군세어라 금순아」의 가락 때문인지, 내내 오묘한 기분에 젖었다.

오프로는 그 유명한 영도대교가 보였다. 영도대교는 일제강점기부터 6·25 전쟁까지 근대사의 굴곡이 고스란히 담긴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다. 일제강점기에 부산항의 개발과 함께 영도가 공업도시로 크게 발전하면서 원래 배로 오가던 영도에 다리를 놓게 되었고, 1932년에 착공하여 1934년에 준공되었다. 영도대교는 부산항을 오가는 선박의 통행을 위해 도개 구조로 건설되었는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유일한 단엽식 도개교라고 한다. 토요일 오후 2시에는 영도대교의 도개 행사가 진행되므로 꼭 한 번 둘러볼 만하지만, 오늘은 봉래산과 주변의 명소를 함께 둘러보는 바쁜 일정이라 시간이 맞지 않았다. 1934년 영도대교를 개통하고 첫 도개 행사를 진행하던 날, 영도대교를 들어 올리는 위용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6만여 명의 구경꾼들이 운집했다고 한다. 얼마나 대단한 풍경이었을지 상상도 하기 어렵다. 오늘날의 도개 행사는 그날의 장엄함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러한 유서깊은 행사를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절영해안방파제 Ⅱ 필자 촬영

영도에는 영도대교를 비롯해서 갯강이 예술마을, 75광장, 해녀문화전시관, 감지해변, 태종대, 동삼어촌체험마을, 패총전시관, 아치섬, 국립해양박물관 등 며칠을 돌아다녀도 다 보기 어려울 만큼 많은 명소가 있지만, 오늘은 봉래산을 중심으로 그 일대를 둘러보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다. 절영해안산책로 인근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고, 곧장 방파제에 올랐다. 계단을 오르자마자 고르게 쌓인 테트라포트 너머로 바다와 하늘이 아득히 펼쳐졌다. 바다와 하늘이 이어진 먼 경계에서 배들이 수평선을 따라 드문드문 이어지고, 흐린 날씨에 구름 빛은 바다와 같은 색이었다. 아득한 공간에 바닷바람이 가득 차며 가슴이 후련해졌다. 방파제에서 내려와 조금 걷자 ‘절영해안산책로’라고 쓰인 파란 표지가 서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절영’은 영도의 옛 이름인 절영도絶影島에서 따온 말로 그



절영해안산책로입구

유래가 깊다. 『삼국사기』에는 성덕왕成德王이 김유신金庾信의 손자인 김윤중金允中에게 절영산의 말 한 필을 하사했다는 기록이 있다. 왕은 김윤중을 매우 총애하였는데, 왕의 친족들이 이를 매우 질투했다고 한다. 하루는 왕이 월성에 올라 주연酒宴을 베풀었을 때 김윤중을 불렀는데, 주위에서 또 시샘을 하자 왕이 “지금 과인이 경들과 평안무사한 것은 모두 윤중의 조부 덕이다.”라고 하고, 김유신의 평생에 대해 이야기하고는 김윤중에게 절영산의 말 한 필을 하사했다고 한다. 『고려사』 태조 7년에는 견훤甄萱이 사신을 보내 왕건에게 절영도의 명마 한 필을 주었는데, 절영도의 말이 고려에 이르면 백제가 망한다는 참언讖言을 듣고 후회하여 말을 다시 돌려줄 것을 청하자 왕건이 웃으면서 돌려주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절영도의 말은 역사책에 왕이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영웅의 후손에게 하사하는 귀한 선물로 등장하는가 하면, 국가의 흥망과 국운을 상징하는 신묘한 성물聖物로까지 등장할 만큼 그 명망이 대단했던 모양이다.

조선 시대에 절영도는 국가에서 설치한 국마장國馬場이 있는 섬이었다.

고지도와 지리지에는 절영도라는 이름 외에 ‘목도牧島’라는 기록도 보이는데, 이곳이 목마장으로 쓰였음을 알려준다. 국마장이란 국가의 공적인 수요에 쓰이는 말을 키우는 목장을 뜻하는데, 국토 대부분이 산지인 데다 호랑이가 많은 지리적, 생태적, 환경적 특성상, 우리나라에서는 유사 이래 내륙 지방보다는 섬에 국마장을 설치하여 말을 방목하였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절영도의 말을 잡아먹으려 호랑이들이 내륙에서 헤엄쳐 들어오기도 하였는데, 절영마를 지키는 군사들이 헤엄치는 호랑이를 발견하면 활로 쏘서 잡아다가 육지에 내다 팔았다고 한다. 그래서 호랑이들이 군사들의 눈을 피하려고 해초 등을 뒤집어쓰고 헤엄쳐서 들어왔다고 한다. 호랑이가 오늘날의 해군 특수전 부대나 해병대처럼 위장을 하고 상륙작전을 감행했다는 이야기는 실로 믿기지 않지만, 실제로 역사 자료에는 목마장이 설치된 섬에 호랑이들이 헤엄쳐 들어와서 말을 잡아갔다는 기록이 심심찮게 보인다. 심지어 호랑이들이 제주도까지 건너가서 말을 잡아 먹었다는 기록도 나오는 것으로 보면, 내륙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절영도에 전해지는 이 같은 이야기도 아주 못 믿을 이야기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조선 시대에 국마장에는 목자牧子들이 상주하며 말을 관리하였고, 관할 지역에 설치된 감목관監牧官이 나와서 마정馬政을 감독하였는데, 법전에는 동래부東萊府에 감목관이 설치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아마도 동래부의 감목관이 주기적으로 나와서 절영도의 말을 관리했을 것이다. 국마장에는 말이 넘어갈 수 없도록 주변에 말뚝을 둘러쳐 놓았는데, 그 모양이 고리와 같아 고리장 또는 환장環場이라고도 불렸다. 추정하기로는 오늘날의 영도구 신선동과 봉래동의 경계인 봉래 로터리 부근에 이 고리장이 있었다고 한다.

‘절영絶影’이란 ‘그림자를 끊는다’는 뜻으로, 이곳에서 키운 말은 워낙 속도가 빨라 그 그림자조차 말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속 뜻을 담고있다. 실제로

절영도에서 기른 말은 조선 시대에 절영마(絶影馬)로 불리면서 명마로 상당히 인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익(李翼)의 『성호전집』에는 절영도의 말에 대해 노래한 「절영마가(絶影馬歌)」가 실려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견훤이 왕건에게 절영도의 말을 바쳤다가 돌려받은 일에 대해 읊은 시이다. 그 한 대목에,

바다 안에 산이 있어 그 이름이 절영이라 洋中有山名絶影
운무가 자욱하니 용성(龍星)이 정기를 내렸다네 雲霧晦冥龍降精

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용성(龍星)’이란 전통 시대 천문학의 28수(宿) 가운데 방성(房星)을 말하는 것으로, 방성의 별칭이 마조(馬祖) 또는 용마(龍馬)이기 때문에 용성이라고 한 것이다. 즉 위의 구절은 이곳 절영도에 용마의 정기가 내렸다고 말한 것이다. 이곳의 말이 조선 시대에 얼마나 대단한 명마로 인식되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절영해안산책로를 따라 걸으니 방파제에서 보던 풍경이 해변을 따라 파도처럼 다가왔다. 해안길의 바닥과 벽면에도 파란 물결과 흰 포말의 파도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파도가 이는 해안을 따라 걷노라면 해안 산책로는 파도처럼 굽이지며 절벽을 따라 돌아간다. 한 편에는 탁 트인 바다가 멀리까지 뻗어있고 한 편에는 봉래산에서부터 꺾여 내려오는 절벽이 우뚝하게 솟아있다. 절벽을 따라 흰 페인트 칠을 한 담장이 둘러쳐져 있는데, 이 흰 담장 너머로 절벽에 붙어 줄지어 자리를 잡은 마을이 흰여울문화마을이다. 절영해안산책로를 조금 걷다 보면 흰여울문화마을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계단이라 조금 가파르지만, 계단을 오르면서 시야에 차오르는 바다와 온몸에 불어오는 바람이 넘실대는 것을 느끼다 보면, 상쾌한 기분이 참만하여 어느새 힘든 줄도 모르고 흰여울문화마을로 접어들게 된다.

2

흰여울문화마을

흰 파도 치는 벼랑에 기댄 마을



행정구역 상 영선동에 속한 흰여울문화마을은 마치 새들의 둥지처럼 벼랑에 붙어있다. 외지인이 보면 이런 곳에 사람이 살아도 괜찮은 것인가 싶을 만큼 아슬아슬하게 보이기도 한다. 보통 해안이나 강안에 위치한 주거지는 주변 풍광이 아름다워 부자들이 별장을 세우러 모여드는 곳인데, 이곳은 얼핏 보아도 그런 느낌과는 거리가 멀다. 마을에서 멀리 내려다보이는 바다의 풍경은 과연 절경이지만, 마을의 모습은 그만큼 사치스럽지는 않다. 멋지게 지어놓은 그럴듯한 양옥과 세련된 카페와 음식점, ‘인스타 감성’이 충만한 ‘힙한’ 장소들도 제법 보이지만, 얹혀지고 걸쳐진 듯한 슬레이트 지붕과 낡은 벽면을 따라 늘어뜨린 플라스틱 배수관, 몸을 한껏 구부려야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철문과 같이 곳곳에 남아있는 마을의 오래된 흔적들은 마치 유적처럼 이 마을이 본래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애초에 이곳은 사람이 살기에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사시사철 습기와 염분이 가득한 해풍을 온몸으로 맞을 것이고, 추운 겨울에는 매서운 삭풍이 몰아칠 것이고, 습한 여름에는 축축한 습기가 가득할 것이고, 매년 태풍이 불어오면 비바람을 견뎌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홍수라도 지면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빗물이 죄다 이쪽으로 쏟아질 것이다. 지금이야 이런 곳이어도 어떻게든 튼튼하게 지어내겠지만, 마을이 형성된 그 오래전이라면 집을 지을 자재도 기술도 부족했을테니 태풍이든 홍수든 들이닥치면 필시



현여울문화마을 || 필자 촬영



절영해안산책로에서 올라다 본 현여울문화마을 || 필자 촬영

마을에 난리가 났을 것이다. ‘어찌 이런 곳에.’ 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자리를 잡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인가.’ 라는 생각에 문득 황망해졌다.

이곳은 한국전쟁의 피란 시절과 1960~70년대 산업화 시기에 인구가 급격하게 유입되면서 만들어진 곳이다. 피란민들이 살 곳을 찾아 들어와 판잣집을 얹으면서 판자촌이 형성되었다. 당시에는 이곳으로 도망가면 찾지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복잡하고 험한 마을이었다. 마을 초입에 안내센터가 있는데, 1층으로 통하는 계단을 내려가면 벽면에 196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마을의 역사를 보여주는 옛 사진들이 줄지어 붙어있다. 사진 속에는 과거의 열악했던 마을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럼에도 사람이 사는 곳은 모두 같은 모습이라, 고되면서도 즐겁고 가난하면서도 풍요로운

삶 그 자체의 모습이 아련히 정겹게 느껴진다.

지금 마을의 모습은 과거의 사진 속 모습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아름답아졌다. 사진 속 어린아이가 세발자전거를 타고 누비던 60년대의 좁고 지저분한 골목길은 단정하게 정비되었고, 가옥과 담장의 낡은 벽면은 희고 푸르게 덧칠되고 귀여운 벽화들이 덧씌워져 만화 속 장면들처럼 아기가 기해졌다. 곳곳에 들어선 상점은 도심의 그것과 다를 바 없이 예쁘게 꾸며진 데다 마을과 바다와 어우러져 독특한 감성을 자아낸다. 본래 판자촌이었던 마을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면서 언젠가부터 슬럼화가 되었는데, 2011년에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현여울길 벽화 작업이 이루어졌고, 영도구에서 공·폐가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예술인들의 창작터를 만들고 일대를 현여울문화마을로 조성하면서 목공예, 닥공예, 사진 등에 종사하는 예술가들이 입주했다고 한다. 그리고 2014년에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에 선정되어 골목길이 정비되었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도시 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친환경 골목길 조성, 테마형 담장 조성, 계단과 공영 주차장 조성 등이 이루어졌다.

마을을 끝에서 끝까지 돌아보니 두세 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만한 좁은 골목길과 계단길에는 관광객으로 가득한데, 사방에서 서울,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말씨는 물론이고 중국어와 일본어와 베트남어도 들려 왔다. 이제는 전국구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알려진 관광지가 된 모양이다. 오늘날의 현여울문화마을을 두고 그리스의 산토리니에서 따서 ‘한국의 산토리니’라든지 ‘부산토리니’라든지 하는 예쁜 별명도 지어졌다고 한다. 슬럼이 된 마을을 영도구와 지역 주민의 부단한 노력으로 이렇게까지 일궈낸 모습을 보니,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마을을 구석구석 돌아보니, 이곳이 앞으로 얼마나 더 사람이 사는 마을로 남을 수 있을지 걱정스럽기도 하였다. 사람이 즐겨 사는 곳과 사람이 즐겨 찾는 곳은 함께 하기

가 어려운 법이라, 이런 곳에 으레 일어나기 마련인 젠트리피케이션과 오버투어리즘이 야기하는 문제들이 잠시 둘러보는 와중에도 곳곳에서 눈에 밟혔다. 마을의 아름다움이란 사람이 사는 아름다움만 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관광객으로 잠시 둘러보다 가는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염치가 없지만, 흰여울문화마을도 사람이 사는 아름다움을 계속 지켜주었으면 하는 소망이 들었다.

3 부산보건고등학교 연세대 영도캠퍼스 기념비 포화 속에서도 배움은 이어진다



흰여울문화마을을 나와 절영로를 따라 내려가면 부산보건고등학교가 나온다. 특별할 것 없는 보통의 고등학교가 무슨 들러 볼 만한 가치가 있겠느냐 싶겠지만, 이곳을 굳이 들러 보는 데는 이유가 있다. 교문을 지나 조그마한 정원의 한구석에 아담한 비석이 하나 서 있는데, 비석에는 익숙한 글귀가 큼지막히 적혀 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유명한 글귀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로 기독교도라면 누구나 아는 말이겠지만, 연세대학교의 건학정신으로도 알려져 있다. 비석 아래에는 ‘연세대학교 영도캠퍼스 오테르 기념비’라는 제목과 함께, 이곳이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대학교가 목재와 군용 천막으로 임시교사를 건립하여 학생들을 가르쳤던 현장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다. 아름다운 풍경이나 역사적인 유적은 아니지만, 전쟁으로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대학으로서의 본분을 다한 연세대학교와 그 구성원들의 열의를 기념한 공간이라 문득 숙연해진다. 비단 연세대학교의 교직원이나 학생이 아니더라도, 어려운 상황이 닥쳐서도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기어이 삶을 살아내게 하는 진리임을 이 비석 앞에서 절실히 느끼게 된다.

이 비석은 금년인 2023년 2월 28일에 건립되었다고 한다. 연세대학교의 설명에 의하면, 연희대학교는 1951년 10월에 영도로 피난을 와서 신선동에 천막교사를 짓고 독자적으로 개교하여 수업을 이어나갔다가 1952년 5



연세대학교영도캠퍼스 Ⅱ 필자 촬영

기록관에는 부산임시교사에서 찍은 당시의 사진들이 공개되어 있는데, 전쟁통의 모습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오늘날 대학의 여느 교수, 여느 학생들과 다를 바 없이 열띠게 공부하고 학우들과 함께 어울려 밝게 웃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찍혀 있다. 삶이란 결국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월에 국제연합 민사원조처UNCAC의 원조를 받아 목조교사를 건립하였다. 1953년에 휴전협정이 체결되자 본교는 서울로 복귀하고 부산교사는 1959년까지 분교로 운영되었는데, 분교가 폐지된 이후로 1964년까지는 부산연세실업초급대학으로, 1966년까지는 가정대학으로 운영되다가 서울로 통합되었다고 한다. 연희대학교 총장 대행이었던 국어학자 한결 김윤경이 작성한 「총장실일지」에 보면 1952년 2월 28일에 당시 보리밭이었던 이곳의 부지를 정비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하니, 71년 만에 연세대학교가 피란의 고난 속에서도 교육열을 이어갔던 역사적인 현장을 다시 찾게 된 셈이다. 연세대학교 홈페이지의 학술문화처

4 복천사

산사(山寺)에서 그린 부처의 미소



봉래산을 오르는 길에는 여러 코스가 있다. 짧게는 30분 이내에 정상에 도달할 수 있는 코스부터 길게는 수 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코스도 있다. 최단 거리로 정상에 도달하는 코스는 복천사를 통하는 길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길이 평탄하고 사진을 찍으며 천천히 걷기에 좋은 해련사 길을 택했다. 다만 산을 오르기 전에 잠시 길을 둘러 봉래산의 명소인 복천사福泉寺와 산제당山祭堂을 둘러보기로 했다.

복천사는 영도의 대표적인 사찰로, 고려 말 나옹 화상懶翁和尚에 의해 창건된 것으로 전해진다. 본래는 해운암海雲庵이라고 불렸다고 하는데, 그 창건 시기와 유래는 자세하지 않다. 조선 시대에는 영도에 목마장이 설치되었으니 사찰이 크게 운영될 만한 곳은 아니었을 것이다. 전해지는 바로는 1800년대에 직지사直指寺의 선주善住 스님이 이곳에 토굴을 세워 수행하였다고 하고, 1921년에 완호玩虎 스님이 복천암福泉庵으로 개명하고 불화소佛畵所를 운영하면서 대웅전이 중창重創되었다고 한다. 이후 1973년에 월공당月空堂 도해道海 스님이 주지로 주석하면서 조계종 복천사로 개명하였고, 이때 명부전, 칠성각, 산신각, 용왕단, 종각 등의 불사를 진행하여 오늘날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니 아마도 복천사가 본격적으로 운영된 것은 1920년대 무렵부터인 듯하다.

우리나라의 큰 사찰은 대부분 그 유래를 신라와 고려 때의 유명한 대사



북천사대웅전 ■ 필자 촬영



북천사에서 내려다보이는 송도 ■ 필자 촬영

大師로부터 비롯된다고 전하는데, 실상 그 진위는 알기가 어렵다. 다만 그 연원이 깊고, 오랫동안 그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하며 덕업을 쌓아 온 명망만은 진실일 것이다. 북천사는 영도를 대표하는 사찰로서, 이 지역 사람들이 찾아와 발원하고 마음을 달래고 삶의 깨우침을 얻어가는 곳으로 오래 신망을 얻어왔고, 북천사에 있는 약수터는 많은 주민이 찾는 샘터라고 한다. 북천사가 영도 사람들에게 얼마나 사랑받는 곳인지 알 만하다.

한편으로 북천사는 영도에서 가장 많은 불교 국가유산을 보유한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 소장된 국가유산으로는 「북천사 아미타극락회상도」(시 지정 유형문화유산 제62호)를 비롯하여 부산시 유형문화유산 4점과 「북천사 현왕도 및 복장유물 일괄」(시문화유산자료 제39호)이 있다. 특히 「북천사 아미타극락회상도」는 본지의 규모가 세로 178.6cm, 가로 224.5cm로 상당히 큰 작품이며 조선 후기 아미타극락회상도 도상 연구 및 화승 연구에 자료적 가치가 크다고 한다. 또한 1579년 지리산 신흥사新興寺에서 간행한 목판본 『북천사 선원제전집도서』는 우리나라에 전래된 선원제전집도서의 초기 형태를 보여주는 책이고, 『북천사 조상경』은 조선시대 승려인 지탁知濯이 찬집한 불교의식집으로, 여러 경전에 산재된 불상과 보살상의 조성에 따른 제반 의식과 절차에 관한 내용을 모아 체계화한 책인데, 이들은 모두 불교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며 간행 연대도 임진왜란 이전의 것으로 그 자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한다.

북천사는 2008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선 후기 불교미술의 계보를 이은 한국 불교미술 3대 불화소로 지정하였는데, 불화소란 불화佛畵를 그리는 불모佛母를 양성하여 불화를 제작하고 보급하는 곳을 말한다. 완호 스님이 영도로 이주하면서 이곳에 불화소를 설치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때 완호 스님으로부터 많은 제자들이 양성되었다. 그 중에서 월주月洲 덕문德文은 불화와 단청, 불상 조각을 연마하여 1972년에 국가 무형

유산 단청장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니, 그 연원과 맥이 오늘날까지도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북천사 주차장에 차를 대고 걸어 올라가자 ‘봉래산북천사’라는 금빛 현판이 걸린 천왕문과 종각이 우뚝하게 서 있었다. 사찰은 크게 공사를 벌이는 중이라 산사^{山寺}의 고즈넉함을 느끼기에는 조금 부산스러웠지만, 천왕문을 돌아 대웅전을 지나서 서쪽으로 탁 트인 난간 위에 서자 송도 앞바다와 남항대교 너머 송도의 고층 빌딩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불사의 현란한 단청과 비죽이 솟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어우러지는 조화로움이 기묘하고도 아름다웠다. 공사를 마치고 제 모습을 찾게 되면, 어스름한 새벽이나 노을지는 일몰에 다시 한번 찾아와 이곳에 서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5 봉래산 산제당

할배와 아씨, 영도의 수호신들



북천사에서 내려오면 북천사 주차장 맞은 편에 돌레길로 통하는 작은 셋길이 있다. 이 길로 들어서서 산제당으로 발길을 옮겼다. 봉래산 산제당은 봉래산의 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데, 영도 국마장에 얹힌 재미있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다. 전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 시대 절영도의 국마장에서 말을 실어갈 적에 서쪽으로만 끌고 가면 말들이 병들어 죽곤 하였다. 이 때문에 군마 관리의 책임을 맡은 부산진첨사는 늘 골머리를 앓았다. 항간에는 한 선녀가 노복 두 사람을 데리고 절영도로 들어갔는데 선녀가 나오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소문이 돌았다. 당시 부산진첨사로 부임한 정발^{鄭撥}은 키가 6척에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성품의 무관이었는데, 그 소문을 그대로 믿고 그 선녀가 까탈을 부린다고 여겼다.

어느 날 정발이 꿈을 꾸었는데, 선녀가 나타나서는 “이 몸은 칠원성군인데, 옥황상제가 등극하여 천상에 있지 못하고 탐라국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고려 때 최영 장군이 탕자나무로 둘러진 성 둘레에 갈대를 심어 불을 댕겨 마침내 탐라국을 함락시켰는데, 저는 장군의 첩이 되어 일편단심으로 몸과 마음을 바쳤으나, 장군은 제주도를 떠나고 나랏일로 바빠 수년 동안 소식을 끊었습니다. 독수공방으로 지내던 저는 장군이 신돈의 모함으로 절영도에 유배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 길로 절영도에 왔는데, 장군

은 절영도에 온 일이 없었고, 저는 사고무친의 이곳에서 한 많은 삶을 마치고 고독한 영신이 되었습니다. 바라건대 저를 위해 사당을 지어 고향을 위로해 주시면, 군마가 죽는 것을 막아드리고 장차 이곳에 사람이 살게 될 때 무사히 지내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모시는 사람은 만사형통하고 소원 성취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정발이 꿈 이야기를 조정에 아뢰었더니, 임금이 동래 부사 송상현宋象賢에게 명을 내려 산제당과 아씨당을 짓고 해마다 봄가을에 당제를 모시게 하였고, 그 이후로 군마가 폐사하는 일이 사라졌다고 한다.

이 전설은 봉래산 산제당의 유래를 설명하는 당신화堂神話로, 조선 시대에 국마장으로 쓰인 절영도를 배경으로 군마의 폐사라는 현실적인 소재에 임진왜란의 비극적인 영웅으로 부산 지역 사람들에게 특히 유명한 정발과 송상현, 그리고 고려 말의 유명한 인물인 최영과 신돈을 등장시켜 사실성과 흥미성을 살린 재미있는 이야기이다. 또한 신과 인간, 역사와 현실이 절묘하게 교집하며 봉래산 산제당의 유래의 깊이를 더하는 동시에 산제당을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묘함을 믿도록 한다는 점에서, 봉래산 산제당이 이 지역 사람들과 깊이 연결되어 왔음을 알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실제로 산제당과 아씨당은 음력 1월 15일과 9월 15일에 매년 당제를 지내며, 3년마다 전체 구민이 참여하는 제의를 지내고 있다. 제의 성격은 영도 어민의 만선을 기원하고 구민의 수복을 기원하는 제례로, 할배 당제→아씨 당제→사천→왕장군님 할배당→용왕 당제→골목 할매제의 순서로 진행한다고 한다.

둘레길을 통해 ‘봉래산 산제당’이라고 표시된 표지판을 따라 십여 분을 가자 금세 산제당 건물이 나타났다. 하늘색 시멘트로 마감한 벽면에 흰 현판을 달아 우리말로 ‘봉래산산제당’으로 표시를 해놓았는데, 벽을 돌아 올라가자 기와를 올린 대문이 서 있었다. 문으로 들어서자 좌측 위로는 산제



봉래산산제당 입구 ■ 필자 촬영



봉래산산제당 산신도 ■ 필자 촬영

당이 서있고, 우측 위로는 아씨당이 서있었다. 산제당은 좌향이 북북동향인데, 계단을 올라 제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ㄱ형의 제단에 유리 액자로 산신도가 걸려있고, 제단에는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바친 쌀, 물, 과일, 과자, 사탕, 담배 등이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아씨당은 산제당에서 서북쪽으로 15m 정도 거리에 있다. 좌향은 북향인데, 제단의 구성은 산제당과 같았다. 제단 위로는 여신도 2명을 거느린 아씨의 그림이 걸려있고 제단에는 산제당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바친 온갖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제당을 찾아 제수를 바치고 소원성취와 마을과 가정의 무사안녕을 비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기묘하게 느껴지면서도,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전통과 신앙이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이렇듯 소중히 여겨지고 있다는 데 마음이 따스해졌다. 발원의 대상과 형식이야 사람마다 지역마다 문화마다 다른 것이지만, 삶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가족과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무사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사람됨의 같은 본성이 아니겠는가.

6 봉래산

신선이 노닐고 할매가 굽어보던 봉우리



산제당을 나와 둘레길을 되짚어 복천사 주차장으로 돌아가서 차를 타고 조내기고구마역사기념관을 지나 봉래산 등산길 입구에 차를 댔다. 조내기고구마 역사기념관은 내려오는 길에 들러 볼 계획이다. 등산길 초입에 서니 해련사海蓮寺가 우뚝이 서 있었다. 해련사 또한 들러 볼만한 곳이지만, 공사 중이라 들어갈 수 없었다. 곧바로 등산길로 걸음을 땀다.

봉래산은 영도의 중앙에 위치한 해발 395m의 산이다. 봉래산蓬萊山이라는 이름은 그 유래가 깊다. 본래 봉래산은 영주산羣山, 방장산方丈山과 함께 중국에서 전설상으로 전해지는 삼신산三神山 중 하나로, 신선이 살며 불사의 영약靈藥이 자라는 신성한 산의 명칭이다. 신선이 사는 신산이므로 엄밀하게는 실존하는 산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 전설에서는 동쪽 바다 건너편에 있다고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방장산과 더불어 봉래산을 우리나라의 어떤 산을 뜻하는 것으로 인식해왔다. 조선 중기의 문인인 박세당은 사돈인 남학명이 지은 『와유록臥遊錄』에 서문을 써주면서, “중국 사람들이 바다 너머 멀리 동쪽을 바라보고 저 구름과 안개가 자욱한 바다 저편을 가리키며 ‘신선이 사는 봉래와 방장이 모두 저기에 있는데, 전생의 인연이 박하여 저곳에 태어나지 못한 데다 거드랑이에 날개가 돋지 못하여 아득히 먼 약수弱水에 갈 수 없는 것이 몹시 한스럽다.’라고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중국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이 모두

봉래산과 방장산을 우리나라의 산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는 봉래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산이 많다. 최고의 산이라고 일컬어지는 금강산의 여름 별칭이 봉래산이며, 강원도 영월과 전남 고흥에도 봉래산이 있다. 즉 강원도와 경상도와 전라도에 모두 봉래산이 있는 것인데, 이들 산은 모두 신선이 산다고 믿어질 만큼 산세가 아름답다. 영도의 이 봉래산도 해발 395m로 그리 높고 깊은 산은 아니지만, 그 이름이 풍기는 선기仙氣 때문인지 초입에서부터 무언가 신묘한 기운이 느껴지는 듯했다. 조금 걸어 올라가자 그 신묘한 기운의 정체를 알 수 있었는데, 등산로 초입에 조성된 편백나무 숲이 뿜어내는 피톤치드였던 듯하다. 편백나무 숲은 그 규모는 크지 않지만 높이 솟은 나무들 사이로 작은 길을 내고 데크로 쉼터를 만들어 놓았고, 데크 아래로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를 꾸며 놓았다. 어른들은 편백나무 숲의 쉼터에 앉아 쉬고, 아이들은 놀이터를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다. 잠시 앉아 나무들을 바라보고 있자니 오전 내 돌아다니며 쌓인 피로가 조금이나마 풀어지는 듯했다. 들숨에는 향긋한 나무 냄새가 섞이고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에서는 흙냄새가 났다. 가만히 앉아 몇 시간이고 머물고 싶은 숲의 공기와 바람이었다.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니 널찍한 포장길에 좌우로는 나무들이 열을 지어 가지런히 서 있었고 길가에는 도랑을 파서 배수로를 내고 일정한 간격으로 벤치와 가로등을 세워 놓았다. 등산로라기보다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천천히 걸어 올라가며 담소를 나눌 수 있을 만한 산책로에 가까웠다. 그러면서도 온갖 나무와 풀이 사방에 무성해서 시선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다. 눈이 닿는 곳마다 나뭇잎과 풀잎이 부드럽게 뒤섞이며 흔들렸다. 조금 오르자 한켠에 널찍한 공간이 나타났는데, 헬기장인 듯했다. 너른 잔디밭에는 헬기 착륙 장소임을 나타내는 표식이 있고 그 표식을 둘러싼 흰 원 위로 작은 새끼 고양이들이 마치 이세계로 통하는 결계를 친 듯 일정한



봉래산 편백나무숲 || 필자 촬영



봉래산 산책로 || 필자 촬영

간격을 두고 앉아 있었다. 한 편에서는 고양이들이 서로 추격하며 붙잡고 엮치락뒤치락하며 사냥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납고 맹렬한 기세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헬기장 옆으로는 커다란 분수와 함께 사람들이 운동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놓았는데, 사람보다도 고양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인 듯했다. 어림잡아 서른 마리는 되어 보였다.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은 제각각 홀라후프를 돌리고 기구를 이용해 운동을 하고 삼삼오오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었고, 고양이들은 낮잠을 자고 뒷발을 들어 귀를 긁었다. 사람과 동물이 모두 평화로웠다.

조금 더 올라가자 KBS 방송국과 MBC 방송국의 송신소가 나타났고, 더 올라가자 평탄한 포장길이 끝나고 좁은 데크로드가 이어졌다. 데크로드는 일정한 경사를 유지한 채 정상상을 종점으로 지그재그로 설치되어있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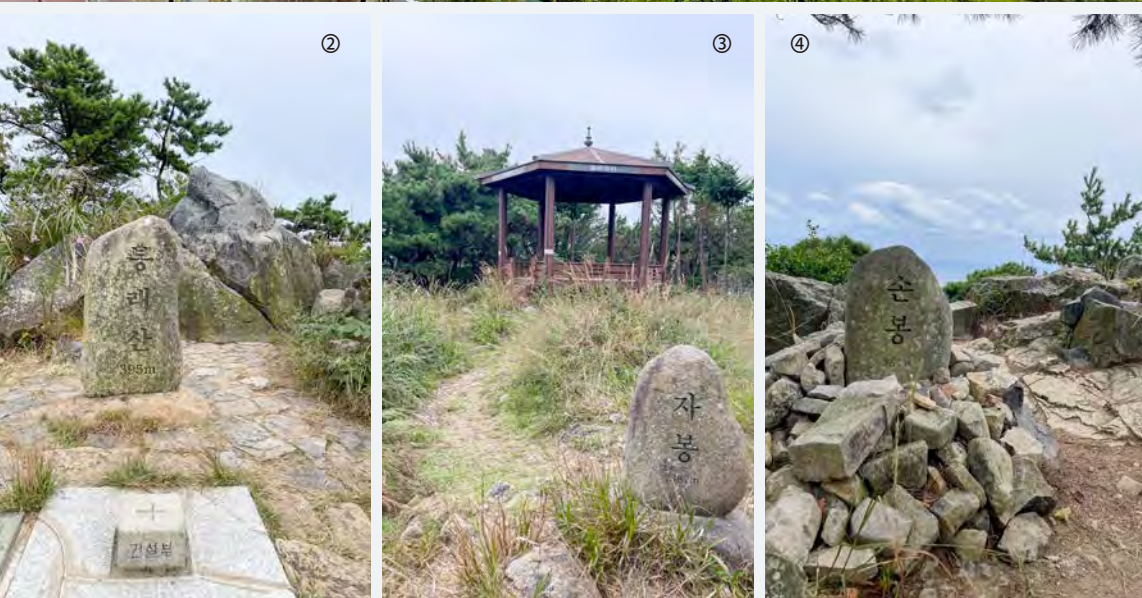


봉래산 헬기장 || 필자 촬영



봉래산 공원 || 필자 촬영

난간 너머로 먼바다와 도시가 내려다보였다. 등산로의 초입부터 정상까지 한 번도 숨이 차는 일 없이 가볍게 올라갈 수 있도록 등산로를 안내한 세심한 고려가 느껴졌다. 데크로드가 끝나자 전망대가 나타났다. 전망대 난간에는 봉래산 정상 전망대라고 적힌 설명판이 서 있었다. 여기에는 전망대에서 내려다보이는 전망 사진에 번호를 표시하여 각 장소의 명칭을 적어놓았다. 설명판을 참고해서 보니, 묘박지, 두도공원, 쥐섬, 암남공원, 두송반도, 다대포 해수욕장, 가덕도, 송도 해수욕장, 남항대교, 천마산, 부산 남항, 갯강이 예술마을, 자갈치시장, 송학산이 한눈에 들어왔다. 시야를 가득 채운 바다에는 배들이 점점이 흩뿌려졌고 저 멀리 시야 끝에서는 구름인지 산인지 파도인지 알 수 없는 수평선이 흐릿한 경계를 타고 이어졌다. 하늘에는 희끄무레한 구름 속에서 해가 운석처럼 빛났다. 전망대의 데크를 벗어나 조금 걸어가자 ‘봉래산 395m’라고 적힌 봉래산 정상임을 표시하는 비석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그 유명한 할매 바위와 함께 ‘봉래산 영도할매 전설’이라고 적힌 설명판이 서 있었다. 등산로의 초입에서 정상까



① 봉래산 전망대 ② 봉래산 정상 ③ 봉래산 자봉 ④ 봉래산 손봉 ■ 필자 촬영

지는 불과 20여 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영도할매는 삼신할매로 봉래산의 산신이자 영도 사람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여겨지는데, 영도 사람들이 영도에서 살 때는 보호해주고 영도 밖으로 이사가면 고생할까 걱정을 해준다고 한다. 그래서 영도 사람들은 할매 바위를 신성한 장소로 여겨서 바위 위에 함부로 올라가지 않으며 그 주변에서 기도를 했다고 한다.

한편 영도에는 영도 할매가 보고 있을 때 섬 밖으로 이사를 나가면 3년 안에 망한다는 속설이 있는데, 이 때문에 영도 사람들은 할매가 보지 못하도록 밤에 이사를 했다고 한다. 이는 영도 사람들이 육지 사람들에 비해 순박하고 때 묻지 않은 심성을 가져서 육지에 나갔다가 사기를 당해 재물을 잃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생긴 속설이라고 하는데, 자식을 떠나보내면서 행여나 무슨 일이라도 당할까 전전긍긍했을 할매의 모습과 그런 할매의 눈을 피해 몰래 도망쳤을 영도 사람들을 상상하면 상당히 재미있다. 한편으로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이 속설을 왜곡하여 영도 사람이 영도를 떠나면 할매가 심술을 부려서 해코지를 한다느니, 영도의 지형이 일본으로 날아가는 새의 형상이라느니, 영도에서 돈을 모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면 절명한다느니 하는 소문을 냈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삼신할매가 생때같은 자식들에게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해코지를 하겠으며, 심지어 절명까지 하게 하겠는가. 그것이 일본인들의 간계로 만들어진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 삼신 할매 전설의 일반적인 양상에 비추어 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할매에게 정말로 그런 힘이 있다면, 집 떠난 자식을 망하게 하는 데 쓰기보다는, 한 톨이라도 도와주는 데 힘을 써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옛날 영도 사람들이 밤에 몰래 이사를 나간 것도, 어쩌면 할매의 해코지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할매의 걱정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었다.

조봉과 할매 바위를 뒤로 하고 자봉으로 길을 잡았다. 조봉(祖峯, 자봉子峯, 손봉孫峯)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봉우리들은 고도에 따라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가장 높은 봉우리는 할아버지 봉우리인 조봉이고, 그 다음으로 높은 봉우리는 아들 봉우리인 자봉이고, 그 다음으로 높은 봉우리는 손자 봉우리인 손봉이다. 조봉은 봉래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주봉(主峯)임에도 길을 평탄하게 닦아놓아 산책로와 같은 느낌을 주었다면, 자봉으로 가는 길은 보다 등산로에 가까웠다. 봉우리와 봉우리를 잇는 길이라 산의 능선을 따라 길을 냈는데, 경사가 진 곳에는 돌로 계단을 놓아 걷기에 불편하지 않았다. 조봉에서 자봉까지는 거리가 멀지 않아 길을 따라 몇 번 오르내리다 보니 금세 당도할 수 있었다. 풀포기가 무성한 언덕과 같은 봉우리에 정자가 하나 서 있고, 그 곁에 ‘자봉 387m’라고 적힌 조그만 비석이 서 있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손봉으로 길을 잡았다. 자봉에서 손봉으로 가는 길은 조봉에서 자봉으로 오는 길보다는 조금 더 험했다. 사람의 발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난 좁은 산길을 돌아가고 암벽을 두르는 비탈길을 조심조심 지나가야 하면 가끔은 손을 써서 암석을 짚고 올랐다. 거리는 멀지 않았지만 걸음이 느리다 보니 시간은 조금 더 걸렸다.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능선의 끝자락에서 마치 제단처럼 세워진 ‘손봉 361m’라고 적힌 비석을 만났다. 비석 너머로 동쪽으로 트인 전망에는 영도 동삼동 시내와 국립해양박물관, 한국해양대학교가 있는 조도가 내려다보이고, 건너편에는 감만부두에 정박한 컨테이너 화물선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오전 내 이곳저곳을 찾아다니고, 조봉에서 자봉을 지나 손봉에 오르는 길에 쌓였던 피로가 봉우리에 부는 바람에 쓸려 날아갔다. 이런 맛에 산을 오르는 것이다. 속세의 틈바구니에서 눈앞에 닥쳐 있을 때는 오히려 잘 보이지



봉래산 손봉에서 내려다보이는 영도 Ⅱ 필자 촬영

않던 사람들의 삶들이, 산에 올라서 내려다보면 그 각각의 수많은 삶들이 오밀조밀하게 얹혀 분주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손봉을 뒤로 하고 하산길을 잡았다. 온 길을 되짚어가다가 조금 더 빨리 내려가고 싶은 마음에 자봉과 고신대학교의 갈림길에서 고신대학교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산세가 급격히 험해지면서 내려가는 걸음이 조심스러워졌다. 역시 산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통해야 한다는 것을 후들거리는 무릎으로 절실히 느꼈다.

7 조내기고구마역사기념관 고구마에 깃든 따스한 마음



산을 내려와 들레길을 돌아서 등산로의 초입으로 돌아와 조내기고구마역사기념관을 찾았다. 조내기고구마역사기념관은 그 건물의 모습부터가 고구마의 형상을 본뒀다. 출입문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원형으로 고구마의 둥근 몸통이고 벽면도 자주색으로 고구마의 껍질 색깔이다. 왼쪽은 각진 모양에 벽면에는 노란빛이 도는 흰색으로 생고구마의 속살 색깔이다.

출입문으로 들어가면 왼쪽으로 전시관이 있는데, 전시관에 들어서자마자 한가운데 거대한 고구마의 형상이 압도적으로 서 있다. 고구마가 원래 이렇게 귀여운 것이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모습이다. 전시관은 고구마 형상을 중심으로 오른쪽에서 빙 둘러서 왼쪽으로 나오는 코스다.

처음에는 고구마가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전해져 동남아시아와 중국과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로 전래된 루트를 세계 지도를 통해 역사적으로 보여준다. 다음으로는 250년 전 일본에 통신사로 갔던 조엄趙曁이 대마도에서 고구마를 들여와 영도에서 처음 재배하여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과정을 귀여운 애니메이션과 역사적인 자료, 샌드아트 등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마지막으로 고구마의 재배 방법, 고구마의 영양학적인 효능과 고구마로 만들 수 있는 국내외의 여러 음식까지 보여준다. 그리 크지 않은 전시 공간에 다양한 정보가 차곡차곡 알차게 채워져 있으면서도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귀여운 시각 자료들도 많이 만들어 놓았다. 시간을 들여



조내기고구마역사기념관 전경 Ⅵ 필자 촬영



조내기고구마역사기념관 고구마상 Ⅵ 필자 촬영

하나하나 찬찬히 들여다보면 고구마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갓출 수 있도록 잘 안배가 되어 있었다.

고구마를 조선에 처음으로 소개한 인물은 조선 후기에 통신사로 일본에 갔던 조엄이다. 조엄은 1763년 7월 통신사로 발탁되어 사행 중에 대마도 북단 사쓰나포에서 고구마를 보게 되었는데, 고구마가 구황작물로서 서민들의 춘궁기에 식량 대용으로 좋은 작물이라고 생각하여 그해 10월 종자를 얻어 부산포로 가는 비선편으로 부산진 첨사 이응혁에게 보냈다. 이응혁은 조엄의 부탁을 받고 종자를 잘 보관하였다가 이듬해 봄에 절영도 봉래산 동쪽 해안 야산 지대에 심었는데, 1764년 8월에 동래 부사로 부임한 강필리가 다시 이듬해 봄에 고구마 종자를 영도 지방에 처음으로 파종하여 가을에 수확한 것이 한국의 첫 고구마다. 고구마의 전래와 종자를 심은

시배지에 관한 문헌은 조엄이 통신사로 다녀오면서 기록한 사행 일기인 『해사일기』와 동래 부사 강필리가 조엄이 전해준 자료를 바탕으로 간행한 책이 『감저보』인데, 『해사일기』의 1764년 6월 18일자 일기에는 대마도에 서 고구마 종자를 구해 보내게 된 사연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 섬에 먹을 수 있는 풀뿌리가 있는데 ‘감저’ 또는 ‘효자마^{孝子}麻’라고 부른다. 일본말로 고귀마^{古貴麻}라 하는 이것은 생김새가 산약도 같고 청근과도 같으며, 오이나 토란과도 같아 그 모양이 일정하지 않다. 그 잎은 산약 잎사귀와 비슷하면서 그보다는 조금 크고 두터우며, 조금 붉은 색을 띠었다. 냉쿨 역시 산약 냉쿨만 한 데, 그 맛은 산약에 비해 조금 강하고, 실로 진기가 있으며 반쯤 구운 밤 맛과도 같았다. 그것은 생으로도 먹을 수도 있고, 구워서도 먹으며 삶아서 먹을 수도 있다. 곡식과 섞어 죽을 쑌어도 되고, 반청하여 정과로 써도 된다. 떡을 만들거나 밥에 섞거나 간에 되지 않는 것이 없으니, 가히 흉년을 지낼 재료로써 좋을 듯하다. 들으니 남경에서 일본으로 들어와 일본의 육지와 여러 섬들에 많이 있다는데, 그중에서도 대마도가 더욱 성하다고 한다. 그 심는 법은 봄에 양지 바른 곳에 심었다가 냉쿨이 땅 위에 올라와 조금 자라거든 냉쿨의 한두 마디를 잘라 땅에 묻어 흙을 덮어주면 그 묻힌 곳에서 알을 열게 되는데, 알의 크기는 그 토질의 맛과 안맞음에 달렸다. 잎이 떨어지고 가을이 깊어지면 그 뿌리를 캐서 구덩이를 조금 깊이 파고 감저를 한 층 펴고 흙을 두어 치 덮고 다시 감저를 한 층 펴고, 또 흙을 덮어 다진다. 이렇게 하기를 다섯 번 내지 여섯 번 한 뒤에 짚을 두텁게 쌓아 그 위에 덮어 비바람을 막아 주면 썩지 않는다. 또 봄이 되면 다시 위와 같이 심는다고 한다. 지난해 좌수나포^{左水那波}

나포에 처음 도착했을 때 감저를 보고 몇 말을 구해서 부산진으로 보내어 취중케 하였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인 지금 또 이것을 구해서 장차 동래의 교리들에게 줄 예정이다. 일행 중에서도 그것을 얻은 자가 있으니 이것들을 과연 다 살려서 문익점이 목면을 퍼뜨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퍼뜨린다면, 어찌 우리 백성에게 큰 도움이 아니겠는가.

다소 길지만 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우리나라의 고구마 전래와 첫 재배에 관한 가장 오래되고 신빙성 있는 기록이기도 하거니와, 백성을 보살피는 관직자로서 춘궁기 극복의 방도를 고민하여 일본땅에서 고구마를 들여온 통신사 조엄의 마음이 펍 귀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조엄이 백성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오늘날의 우리도 우리 땅의 토질에 맞게 자란 고구마를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조엄의 마음이 수백년을 넘어 현재까지도 미치고 있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 든다.

‘조내기’라는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는데, 이곳 해안에서는 썰물이 되면 조수가 내려 바닥이 드러난다고 하여, 조수가 내리는 곳이라는 뜻에서 조내기라고 했다는 설, 조엄이 일본에서 고구마를 가져와 이곳에서 처음 재배해 내었다고 해서 조내기가 되었다는 설, 영도에서는 ‘작은 것’을 쪽내기라고 하는데, 조내기 고구마는 밤알 마냥 작고 붉은 것이 특징이라 쪽내기에서 조내기가 되었다는 설 등이 있다.

무엇이 옳은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이 영도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고구마가 처음 재배된 곳이며, 영도를 통해 고구마가 전국적으로 전파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조내기 고구마라는 이름에 녹아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고구마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봉래산을 오르는 길에 조내기고

구마역사기념관에 들러 시간을 들여 찬찬히 공부해 보면 우리나라 고구마 재배 역사의 깊은 유래를 알게 될 것이고, 아울러 그 유래에 담긴 따스한 마음까지도 느끼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조내기고구마역사기념관의 2층에는 조내기 고구마를 재료로 한 케이크와 음료 등을 파는 카페도 마련되어 있으니, 잠시 머물러 조내기 고구마의 맛을 느끼며 등산으로 지친 몸을 쉬어보는 것도 좋겠다.

8 청학동 해돋이 벽화마을

사람이 사는 곳은 고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조내기고구마역사기념관을 나와 근처의 청학동 해돋이 마을로 걸음을 옮겼다. 청학동 해돋이 마을은 봉래산 중턱으로 상당히 고도가 높은 청학동에서도 꼭대기에 위치한 조그마한 마을이다. 지금은 약 500명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피란민들이 모여 살면서 수십 년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온 애환이 묻어있는 마을이다.

그도 그럴 것이 차량으로 이동하면 금방이지만, 아래에서부터 마을까지 걸어서 올라오려고 하면 한참 숨을 고르며 올라와도 숨이 턱 끝까지 차야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고도이다. 그 옛날 차도 없던 가난한 사람들이 매일매일 이 높은 곳에서 내려가 고된 일을 하고 또 지친 걸음을 옮겨 이 높은 곳까지 올라와 고된 몸을 누였을 것을 생각하면, 애환이라는 짧은 말만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고되고도 고된 삶이 이 마을에 켜켜이 쌓여 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나 고되기만 한 것은 아니어서, 높이 올라온 만큼 여기에서 내려다보이는 풍경은 실로 기가 막히게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 덕에 청학동 해돋이 마을은 2010년대에 들어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과 새뜰마을사업을 통해 곳곳이 예쁘게 단장되었고, 해돋이마을 돌담투어, 해돋이 전망대 국수 판매소와 같이 마을 주민들이 힘을 모아 더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한다.



청학동해돋이마을에서 내려다보이는 영도 ■ 필자 촬영



청학동해돋이마을 ■ 필자 촬영

마을을 돌아보면 벽면에는 예쁜 벽화들이 얼굴을 내밀고, 해돋이골 벗 나무를 지나가면 미로길, 돌맹이길, 이북 할매길, 외갓집 가는길, 학마루 산책로와 같이 귀여운 테마를 가진 길들이 이리저리 통해있다. 해돋이 공 부방과 경로당은 이곳이 그저 관광지인 것이 아니라 사람 사는 마을임을 정겹게 알려준다.

마을 길을 올라 여정의 마지막으로 해오름 전망대에 올랐다. 전망대에서 보는 풍경은 청학동 전체를 아우르고, 부산항대교로 이어진 바다를 건너 부산항과 감만부두는 봉래산에 올라 보았던 것보다 한층 가깝게 다가왔다. 저곳은 누군가의 일터이고, 또 누군가의 삶터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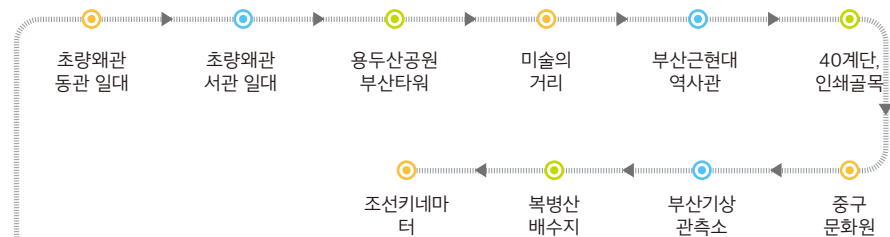
영도는 어디를 둘러 보아도 삶의 냄새가 진하게 난다. 청학동 해돋이 마을을 마지막으로 여정을 마치며 둘러 본 모든 곳의 아름다움이 마음에 켜켜이 남았다. 영도가 이토록 아름다운 것은 산과 바다, 섬과 육지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 그뿐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오래 살아왔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이 사는 곳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그 때문이 아니겠는가.



용두산과 복병산, 대일 교류의 공간에서 식민지 근대의 이면까지

조선시대 용두산과 복병산 일대는
일본인 마을이 존재하는 공간이었다.
개항 이후에는 이 지역이 일본인 전관거류지가
되면서 근대도시 부산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이곳을 '원(原)도심'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용두산과 복병산의 답사는
도시로서의 부산의 역사성을 찾는 실마리가 된다.





용두산과 북병산, 대일 교류의 공간에서 식민지 근대의 이면까지

조선시대 부산은 특별한 공간이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를 왜군을 막아야 하는 달한 지역이면서 동시에 왜인들과 교역하는 열린 지역이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재팬타운 Japan Town 초량왜관 草梁倭館이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왜관은 조선과 일본의 이질적인 문화와 사람이 만나고 교류하는 곳이었다. 일본인 마을 초량왜관으로 말미암아 부산은 국방상의 요충지이면서 조선과 일본 두 나라 사이의 교역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상업적·외교적·문화적 요지라는 위치를 겸하게 되었다.

초량왜관은 이름 때문에 지금의 동구 초량동 지역으로 위치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1678년숙종 4 설치되어서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부산이 개항되어 폐지될 때까지 이백여 년 동안 줄곧 용두산龍頭

山 일대에 있었다. 초량왜관 한가운데에는 용두산이 자리하였고 그 사방으로 담장을 둘렀는데,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는 왜관 부지가 대략 10만 평33만 578㎡에 이르렀다. 공간 구성은 용두산을 중심으로 동광동 東光洞 東館과 신창동 新倉洞 西館으로 나뉘었다. 동관은 행정·무역·외교 등 대부분의 공적 활동이 이루어지던 곳이었고, 서관은 주로 왜인들이 머물던 곳이었다.

용두산 북쪽으로는 북병산伏兵山이 마주하고 있다. 북병산은 초량왜관의 출입을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조선 군인이 지키는 초소인 북병막 伏兵幕이 있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초소는 처음에는 세 곳이었다가 1740년영조 16에 여섯 곳으로 늘어났다. 조선의 각종 군사·외교적 정보가 왜관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두 나라 사람들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통제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용두산과 북병산 일대는 방어와 교류, 통제와 소통이 공존하는 공간이었다. 개항 이후에는 이 지역이 일본인 전관거류지가 되면서 근대도시 부산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이곳을 ‘원도심’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식민제국 일본에 의한 원도심의 발전과 근대화는 우리 고장의 중심지를 고도심 동래에서 원도심 부산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이유로 용두산과 북병산 답사는 도시로서의 부산의 역사성을 찾는 실마리가 된다.



동래부 화원 변박이 그린 '초량왜관도'(1783) Ⅵ 국립중앙박물관

1 용두산 일대 초량왜관의 흔적 근대도시 부산의 탄생



왜관 관수가에서 부산부청으로 또 요정에서 호텔로

언젠가부터 원도심이라 부르는 곳, 부산 중심에 자리한 행정구역이라 해서 중구로 명명된 곳, 근대도시 부산은 옛 초량왜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초량왜관은 산이라 부르기에 다소 민망한 해발 69m의 용두산을 한가운데 두고 사방으로 조성되었다. 이번 답사코스에서는 먼저 초량왜관의 흔적을 찾아 용두산 일대를 둘러볼 생각이다. 다른 코스들과는 달리 전혀 '등산'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냥 산책 삼아 사부자기 걸으면 되니 별 부담이 없다.

왜관 시절 대마도에서 배를 타고 출발한 왜인들이 도착해서 첫발을 내딛게 되는 곳이 선창이다. 선창에는 배를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고 바다쪽으로는 방파제가 만들어져 있었다. 선창의 위치는 롯데백화점 광복점 맞은편 지금의 부산데파트가 자리하고 있는 곳으로, 당시에는 이 웅장한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배들이 정박해 있던 바다였다.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항한, 이제는 명실공히 세계적인 무역항으로 성장한 부산항이 바로 이 작은 선창에서 출발했다. 나는 왜인들이 왜관에 처음 도착했을 때처럼 선창, 즉 부산데파트에서부터 답사를 시작했다.

도시철도 1호선 남포역 7번 출구로 나오면 광복로 초입에 들어서게 된

다. 광복로 초입에서 중앙동 방향으로 곧게 난 부산테파트 뒷길은 옛 해관 오늘날의 세관에 해당이 있던 곳이라 해서 해관로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해관로 주변을 비롯한 중앙동 대부분이 왜관 시절엔 그냥 바다였다. 개항 이후 매립으로 생겨난 해관로 한 블록 앞의 광복로 입구에서 동광동 방향으로 난 광복로97번길은 일제시대에는 혼마치[本町]라 불리던 거리였다. 혼마치는 서울 남산 아래 일본인 밀집 지역에도 있었다. 바로 지금의 명동이다. 그 명동에 견줄만하니 이 길이 어떤 위상이었는지 감이 오시리라. 이 일대는 초량왜관의 중심지로서 각종 건물들이 밀집해 있었고 왜관 안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곳이었다. 선창에서부터 북쪽으로 해안선을 따라서 난 이 길의 오른편에는 창고건물들이 줄지어 자리하고 있었다. 그래서 배에 싣고 온 물건들을 하역해 보관하기 수월했고, 또한 자연스럽게 왜관 담장의 구실도 하였다. 길 왼편 용두산 기슭으로는 왜관의 주요 건물들이 집중되어 있었다.

선창에 내려 왜관 안을 바라보면 용두산 중턱에 자리한 관수가館守家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을 것이다. 초량왜관의 중심건물이자 가장 규모가 큰 건물이었던 관수가는 왜관의 책임자인 ‘관수’의 집무공간인 동시에 거주공간이었다. 개항 이후에는 이곳에 부산영사관과 부산이사청 그리고 부산부청이 차례로 자리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건물이 새로 지어지고 고쳐지기를 반복하다가 해방 후에는 민간에 불하되어 고급 요정으로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중심 관공서에서 요정에 이르기까지 부산이 변해가는 모습을 오롯이 담아내던 역사적 건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헐려버렸다. 그 자리에는 모텔이 들어서더니 지금은 주변마저도 모두 헐어 행한 공터가 되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광복로 입구에서 옛 혼마치 길에 들어서면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이 나오는데, 기업은행 건물을 따라 L자로 꺾어 들어가면 바로 정면에 고풍스런(?) 돌계단을 마주하게 된다. 관수가/



초량왜관 관수가 자리의 부산부청 ■ 부산박물관



관수가/부산부청 정문 앞 계단의 현재 모습 ■ 필자 촬영

부산부청 대문으로 올라가던 계단으로, 난간석과 경계석을 비롯하여 거의 원형에 가깝게 남아있다. 이제는 초량왜관의 흔적을 찾기가 지극히 어렵지만 이 계단으로 인해 그나마 관수가 있던 자리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 계단 오른편동북쪽에는 일제시기에 부산경찰서가 있었다. 약산 김원봉과 동지들이 조직한 의열단의 첫 의거가 범일동 출신 박재혁 의사에 의해 바로 이 부산경찰서에서 이루어졌다. 중구청에서 설치한 작고 낮은 안내문[관수가 및 부산경찰서 폭탄 의거]이라도 없었다면 어찌 이곳이 역사의 현장인 줄을 알아차릴꼬. 유서 깊은 이 자리에는 해방 이후 남궁산부인과가 들어섰는데 일신기독병원과 더불어 부산에서 가장 많은 아기를 받았던 곳으로 유명했다. 계단 앞길인 광복로85번길은 내 학창 시절만 해도 일본 서적을 전문으로 팔던 서점과 일본식 선물집이 줄지어 있었고 일본인들도 많이 다녀서 흡사 일본 거리 느낌이 물씬 풍겼었다. 지금은 더 이상 열지 않는 상점들의 굳게 닫힌 문 앞에 널부러진 각종 고지서들만 가득한 스잔한 뒷골목이다.

선창 남쪽에는 용미산이라는 작은 바위 동산이 있었다. 일제는 부산이 급격하게 발전하자 용미산을 깎아 주변 바다를 매워서 1936년 부산부청을 새롭게 만들었다. 부청 바로 옆에는 부산에서 최초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던 미나카이三井백화점이 들어섰다. 해방 이후 부산부청과 미나카이백화점은 각각 부산시청과 부산상공회의소로 오랫동안 사용되다가 1990년대 다른 곳으로 이전한 후 건물들이 모두 헐려버리고 저 거대한 롯데백화점이 들어앉았다. 부청보다 1년 먼저 건설된 영도다리가 복원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동관의 주요 건물 개시대청, 재판가, 동향사

관수가의 북동쪽[광복로85번길과 혼마치 길이 만나는 모퉁이]에는 개시대청開市大廳이 있었다. 조선과 일본이 공식적으로 무역을 하던 장소가 개시대청이다. 왜관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교역이었기에 개시대청은 왜관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던 곳이었다. 관수는 그 터라도 남아 있지만 개시대청은 아무런 흔적도 없다. 개인적으로는 연구 분야가 한국근대의료사이다보니 이곳이 남다르다. 개항 직후인 1877년 2월 개시대청 자리에 제생의원이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땅에 최초로 세워진 근대식 의료기관인 제생의원은 일반에 널리 알려진 서울의 제중원 세브란스병원 전신보다 8년이나 앞섰으며, 지금의 부산대학교병원과 부산의료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개시대청에서 혼마치 길을 따라 북쪽으로 조금 더 가면 재판가裁判家가 있었다. 재판가는 외교와 교섭을 담당하던 일본 관리 ‘재판’의 집무공간이자 거주공간으로, 지금의 타워힐호텔 부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은 이름만 보면 오늘날의 법원을 떠올리겠지만, 사법적 의미가 아니라 조선과 일본 양국간 외교 현안을 해결한다는 뜻으로 쓰인 것이다. 300년 전 최고의 조선외교전문가로 유명한 일본 유학자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도 재판가였다. 재판가 북쪽에는 동향사東向寺가 있었다. 백산기념관 맞은편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동향사는 동관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마지막 건물이었다. 동향사는 사찰이었지만 왜관을 통과하는 모든 외교문서를 이곳에서 공식기록으로 작성하고 보관했다. 동향사의 승려는 관승僧으로서 한문에 능통하고 문장력이 뛰어나 전통적인 승려 역할 외에 외교문서를 다루는 중요한 일을 맡았다. 교섭과 외교업무를 담당했던 재판가와 동향사 일대는 앞으로는 바다에 접한 담장이 있고 뒤로는 소나무 울



한성1918 부산생활문화센터 지하층에는 매립 이전에 쌓은 옛 축대가 남아있다 ■ 필자 촬영

창한 용두산이 있어 비교적 한산한 곳이었다. 역시나 작고 낮은 안내표지 판 외엔 재판가와 동향사의 흔적은 전혀 찾을 길이 없다.

해방 후 개시대청, 재판가, 동향사 등이 있던 이곳의 지명을 왜관의 동관이 있던 곳이라 해서 동관동이라 하려다가 발음이 까다롭고 광복동과 이어져 있어서 동광동이 되었다고 한다. 왜관 시절의 모습을 머릿속으로라도 그려보기 위해 백산기념관 앞에 서서 바다쪽을 바라보니 지대가 급격하게 아래로 푹 꺼져 있다. 혼마치 길이 해안선을 따라 조성되었기 때문에 길 바깥쪽은 바다 위를 매립해 만든 땅이란 사실이 눈으로 확인되는 지점이다. 더 확실하게 확인하려면 한성1918 부산생활문화센터 건물 지하층에 내려가 보기 바란다. 매립 이전 바닷가에 쌓은 옛 축대를 실제 눈으로 확인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왜관의 담장은 금생약국 앞에서 직각으로 꺾여 북쪽 담장으로 이어져 있었다. 이 담장을 따라 지금의 대청로가 생겼는데, 용두산공영주차장과

부산근현대역사관이 자리하고 있는 일대는 왜관 당시에는 소나무 숲이었다. 일제시대에는 조선 수탈의 선봉에 섰던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일본인 학교가 있었고, 맞은 편에는 헌병대도 있었다. 해방 후 미군이 잠시 주둔하다가 한국전쟁 때는 우리 헌병대가 주둔하는 등 용두산 자락 시내 한복판에 여러 나라의 군대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자리를 잡았다. 곡절의 역사를 새겨두고 일단 배를 좀 채워야겠다. 금생약국과 붙어 있는 화국반점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약국과 중화요리집 모두 수십 년 세월을 한 자리서 이어 온 이 동네 터줏대감이다. 「신세계」 등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한 화국반점은 화교가 운영해서인지 내외부 분위기가 독특하다. 다른건 몰라도 간짜장은 꼭 드셔보시길. 이왕이면 탕수육도 맛보시라. 양이 좀 적은 편이니 곱배기 주문을 추천한다. 1987년 6월항쟁 직전 요산 김정한 선생을 필두로 한 부산의 문인들이 호헌철폐·직선제 개헌을 외치며 이곳에 자주 모였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맞은편에는 1970~80년대 수많은 부산 문화예술인들이 드나들었던 주점인 광복동 양산박이 이사와 있다.

서관 삼대청 육행랑과 PIFF광장

대청로를 따라 서쪽으로 더 가면 북병산 메리놀병원 방면으로 올라가는 비탈길과 보수동 책방골목 어귀가 보이는 대청사거리가 나타난다. 이곳에서 초량왜관 담장은 다시 남쪽으로 90도 꺾여 이어져 국제시장을 지나 광복로와 만나게 된다. 왜관 시절 용두산 서쪽 신창동·창선동 일대는 일본 사절이 머물던 시설로서 서관西館 삼대청三大廳으로 불리던 동대청·중대청·서대청과 육행랑이 있었고, 국제시장 일대는 넓은 초지로 남아있었다. 원래 용두산과 그 서쪽으로 수풀과 억새가 우거져 있어서 오래전부터 이곳을 초량草梁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곳에 설치된 왜관 이름이

초량왜관인 것이다. 중년 이상의 부산사람들이 기억하는 유나백화점, 대각사[지금도 있는], 새부산예식장이 서관 삼대청 자리에 각각 차례로 있었다. 삼대청 뒤쪽으로 가지런히 조성된 육행랑은 바둑판식으로 들어선 상점가의 바탕이 되었다. 화국반점에서 간짜장을 건너뛰었다더라도 창선동 먹자골목은 그냥 지나치지 말자. 일단 비빔당면 한 그릇 하시라. 골목길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틈새에 불편하게 쭈그려앉아 먹는데도 몹시 맛이 있다. 덤으로 하나 더, 먹자골목 옆의 대형약국들 약값이 동네 약국보다 아주 많이 저렴하니 상비약은 여기서 사두면 남는 장사다.

왜관 담장은 국제시장사거리에서 또 90도 꺾여서 광복로를 따라 계속 동쪽으로 이어져 결국 출발원점인 선창을 다시 만나게 된다. 왜관을 한 바퀴 빙 두른 담장 남쪽으로도 해안선이 펼쳐져 있었다. 지금의 PIFF광장이 대략 당시의 해안선에 해당된다. 이 일대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극장인 행좌[행관]를 비롯하여 부민관, 보래관, 태평관, 소화관 등이 일제 때부터 영



1930년대 장수통·변천정 거리(지금의 광복로) 1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업을 했고, 1990년대까지도 부영극장, 대영극장, 부산극장, 제일극장, 국도극장 등 십여 개의 극장들이 밀집해 있었다. 하지만 PIFF광장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1996년 이곳에서 시작된 부산국제영화제[PIFF에서 BIFF로 명칭 변경]조차 이제는 해운대에서 열린다. 내가 1994년 4월 5일 ‘그 친구’와 함께 「선들러리스트」를 보며 처음으로 손을 잡았던 그 극장도 온데 간데 없다. 추억 속 옛날이야기가 돼버렸다.

왜관 안에는 작은 개울이 있었다. 북병산에서 흘러와 용두산과 서관 삼대청 사이를 지나 용미산 앞에서 바다로 빠져나갔다. 왜인들은 이 개울 주변에 벚나무를 심어 사쿠라가와[櫻川]라고 불렀다. 기록에 의하면 왜관에는 조선인의 출입이 철저히 금지되었음에도 벚꽃철이 되면 서로 들어가고 싶어 했다고 하니, 예나 지금이나 꽃놀이는 참기 힘든 유혹이었나 보다. 개항 이후 일본인들의 전관거류지가 되어 거주인구가 늘자 사쿠라가와를 복개해서 도로를 만들었다. 그 도로가 지금의 광복로와 광복중앙로이다. 복개 이후 길게 뻗은 길이라 하여 장수통長手通이라 불리며 도로 양쪽으로 화려한 2층짜리 점포들이 쭉 들어서고, 1917년에는 도로 위에 전차가 부설되었다. 21세기가 오기 전까지 백여 년을 부산 최고 번화가로 자리매김한 곳, 특히 광복로와 광복중앙로가 만나는 지점에 있던 미화당백화점은 오랫동안 부산땅값 1위의 영예를 독차지했다.

왜관 남쪽 담장 중간에는 부정문不淨門이란 문이 있었는데, 왜관에서 죽은 일본인의 시신이 나가는 문이었다. 예전에는 부산 사람들이 ‘ 시내’ 나간다 하면 다들 광복동·남포동을 떠올렸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 놓고 쇠락한 지역이 되고 있으니 괜스레 부정문 때문은 아닌지 트집을 잡아본다. 아무튼 이렇게 옛 초량왜관 경내를 한바퀴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어찌서 이 지역을 ‘원도심’이라 부르며 ‘중구’가 되었는지를, 근대도시 부산이 형성되는 과정이 쉽게 이해될 것이다.

2 용두산 공원

부산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공원



남산 조선신궁 버금가던 용두산 신사

초량왜관 담장을 따라 걸으며 왜관의 흔적을 찾아봤으니 이제 왜관 한 가운데 버티고 있던 용두산에 올라보자. 언제부터 용두산이라 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옛날에는 울창한 소나무 사이로 바다가 보였다 하여 송현산 松峴山이라 불렀다고 한다. 바다에서 보면 산세가 흡사 용의 생김새여서 왜관을 드나들던 일본인 혹은 고기잡이 나간 조선인들이 용두산이라고 부른 듯하다. 용두산은 본디 북병산·보수산과 이어져 있었으니, 아마도 용두산이 용의 머리이고 북병산과 보수산이 몸통일 터. 그런데 초량왜관의 담장이 놓이고 대청로가 생겨 용의 목이 잘려서일까? 위에서 보면 동그랗게 생긴 용두산 ‘꼬티’에 용미산이 있었던게 요상하다. 몸통은 안 보이고 머리와 꼬리가 붙어 있는 형상이라면 용이 뱀처럼 꼬리를 들고 앉은건가?

용이 폭풍우를 잠재우리라 여겼던지 용두산 중턱에는 1678년 왜관이 조성될 때부터 왜인들의 무사항해를 기원하며 지은 신사神社가 있었다. 용두산 신사는 우리나라에 세워진 최초의 일본 신사인 셈이다. 교역을 하러 왜관에 와서겠지만, 이곳엔 재물신인 변재천 辨財天을 모셨다고 한다. 일제시대에 광복로 일대를 변천정이라 불렀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개항 후에는 일본거류민들의 기부금을 모아 거류지 신사로 고쳐 지었고, 1910년대 다시

지금의 부산타워 일대에 크게 증축·이전하여 용두산 신사로 이름을 바꿨다. 용미산에도 신사가 있었는데 부산부청을 새로 짓기 위해 용미산을 깎으면서 용두산 신사와 합쳐졌다. 용두산 신사는 해방 전까지 서울 남산의 조선신궁과 더불어 일본인들이 사랑하는 부산의 명소가 되었다. 단순히 신사가 있어서 명소가 된 것이 아니라 용두산 일대에 공원을 조성하였기 때문이다. 부산부에서 1916년부터 공원을 조성하기 시작하여 일제 말기에는 조선총독부에 의해 정부 차원의 공원이 되었다. 이를 상징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거대한 자연석을 깎아 높이 4.18m, 폭 1.56m, 길이 2.46m의 용두산공원비를 제작하여 1944년 1월 18일 설치하였다. 이 비석이 지금도 용두산 공원에 그대로 있다 하니 일단은 비석부터 확인하러 가보자.

용두산 공원으로 가는 길은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나 있어서 어디로 가든 상관없다. 고작 수십미터 높이의 작은 산이라 네 길 모두로 한번씩 오르내려 봐도 좋다. 만만하기로는 부산근현대역사관 뒤로 가는 길이다[북



일제강점기 용두산 신사 ■ 부산박물관

쪽 길]. 완만한 오르막길이라 전혀 힘들지 않지만 용두산을 반바퀴나 감아 돌아야 공원에 닿는다. 자동차를 이용한다면 용두산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이 길로 들어서면 된다. 예전에 나는 미화당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꼭대기로 가서 용두산 공원에 이어지는 구름다리를 이용하는, 힘도 안 들고 눈요기도 하고 재미도 있는 ‘완벽한’ 길을 가장 애용했다. 지금은 신발가게가 된 옛 미화당 옆으로 나 있는 가파른 오솔길을 통해 공원으로 올라갈 수 있다[서쪽 길]. 광복로 중간 지점에서 가는 길도 있는데, 용두산 신사를 새로 지을 때 만들었다는 무려 194개의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야 한다. 사실 여기가 공원 정문격임에도 계단 때문에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기피하다보니 1998년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서 이제는 제일 편한 길이 되었다[남쪽 길]. 다만 에스컬레이터가 상행만 운행해서 내려올 때는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마지막 남은 길은 동광동 부산호텔 뒤쪽에서 올라가는 길이다[동쪽 길].

광복로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공원에 들어서면 입구에 앞서 말한 용두산공원비가 우뚝 서 있다. 일제 때 세운 비라 하기엔 너무 말끔해서 마치 최근에 만든 느낌이다. 예전엔 비석 주변으로 비둘기와 새똥 천지였는데 지금은 거의 보이지 않으니 이 커다란 돌덩이가 더 말끔해 보인다. 삼삼오오 모여 바둑장기 두던 노인들의 모습도 예전만큼 보이질 않는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가득 싣고 수시로 드나들던 대형버스들도 이제는 안 보인다. 공원이 전체적으로 말끔하게 정비가 된 모습이지만, 찾는 이들이 전보다 줄어 한산하기까지 하다. 광복로쪽 입구인 에스컬레이터길 양쪽으로 짝 차 있던 건물들이 싹 밀려 나가고 행하게 남은 공터에 덩그러니 주차장을 만들어놓은 모습이 원도심의 현주소를 보는 듯해서 서글펐다. ‘비둘기와 노인만 가득한 공원’이라는 한때의 오명이 도리어 그림기까지 하다.

용두산 대화재와 우남공원

해방 후에도 용두산 신사는 일본으로 귀환하려는 일본인들의 거점 역할을 하면서 예외적으로 존속했다. 하지만 1945년 11월 17일 한 개신교 신자가 신사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러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다. 이날의 방화가 아니었더라도 용두산 신사는 한국인들의 반일감정과 정서상 오래 버티지 못했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남아있었다면 전북 군산의 동국사처럼 색다른 명소로 관광자원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신사만 불에 탄 것이 아니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부산으로 밀려온 피란민들에 의해 용두산은 판자촌을 이루었다. 1954년 12월 10일 발생한 대화재는 동쪽 동광동, 남쪽 광복동, 서쪽 창선동, 북쪽 대청동 가리지 않고 사방으로 번져 천 채가 넘는 판자집을 태워버려 수많은 이재민이 생겼고, 용두산의 자랑인 울창한 소나무 숲도 홀라당 다 타버렸다.

이미 1953년 1월 국제시장 대화재와 그해 11월 부산역전 대화재를 겪은 터라 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두려움은 극에 달했다. 경남도지사와 부산시장은 용두산 신령과 부적의 힘을 빌려서라도 화재를 막으려 1955년 정월 대보름에 화재예방비를 세웠다. 이 비석은 부산타워 뒤편 축대 아래쪽 숲 속에 버려지듯 놓여있어서 눈에 띄지 않아 시민 대부분이 존재 자체를 잘 모른다. 특이하게도 화재예방비 옆에 안중근, 민영환, 이준 열사의 이름이 새겨진 ‘충신보국비’가 있다.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이분들이 용두산 신령과 함께 화마를 막아주리라 여겨서일까? 원래 용두산 충혼탑 옆에 있던 것을 가져다 놓았다고 한다.

1955년은 당시 대통령 이승만이 80세가 되는 해였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내무부와 부산시는 용두산 공원을 이승만의 호를 따 ‘우남공원’으로 고쳤다. 이승만이 부산이나 용두산과 무슨 연관이 있다고 이름을 그리 바꿨

을까. 어찌됐건 그 뒤 용두산 일대가 다시 공원으로 정비되고, 이듬해인 1956년에는 공원 한가운데에 12m 높이의 거대한 이순신 장군 동상이 세워졌다. 대마도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있던 신사 앞을 이순신이 떡하니 가로막고 서 있는 형세라 얼핏 보기에는 나쁘지 않지만, 이승만의 이미지에 호국·충신의 이미지가 강한 이순신이 겹쳐지도록 한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된 후 본래 이름 용두산 공원을 되찾게 되었고, 공원 한켠에 4·19기념탑을 세웠다.

공원 곳곳에는 충훈탑¹⁹⁵⁷, 어린이헌장비¹⁹⁶¹, 국민교육헌장비¹⁹⁷¹, 자연보호헌장비¹⁹⁷⁸, 부산시민헌장비¹⁹⁸⁶, 해병대사령부주둔기념비²⁰⁰² 등이 지속적으로 설치되었다. 하나같이 국가기억을 표상하는 정치적 장치로서의 기념물들이다. 이것들은 일제 시기부터 이어져 온 용두산의 장소성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 나는 이런 국가주의 프레임이 작동하는 공원이 그다지 달갑지 않다. 공원은 시민들이 편히 머무를 수 있는 휴식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용두산 공원이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은 이유일지도 모르겠다. 한편, 이순신 동상 뒤북동쪽에는 용두산이란 이름에 걸맞게 여의주를 움켜쥐고 하늘로 승천하려는 용의 모습을 한 용탑과 부산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백산 안희제 선생의 동상이 나란히 있다.

부산의 랜드마크 다이아몬드타워(부산타워)

용두산 신사 본전이 있던 자리에는 식민지 기억을 지우고 용두산을 새로운 장소로 만들기 위해 부산탑[부산타워]이 세워졌다. 1973년 전국체전에 맞추어 부산을 상징하는 등대와 불국사 다보탑을 형상화하여 당시 국내 최고 높이인 120m[해발 189m]로 건립된 부산탑은 오랜 세월 부산의



1970년대 용두산공원 ■ 부산박물관

랜드마크로 확고하게 자리잡았다. 하지만 만든지 어언 50여 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로 인해 2021년 리모델링을 거쳐 부산다이아몬드타워라는 새로운 이름을 내걸었다. 저녁이 되면 팔각정과 더불어 화려한 경관조명이 들어와 원도심의 야경을 바꾸어 놓았다. 부산항과 원도심 일대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으니 어찌 타워에 오르지 않고 배기겠나. 부산시민은 20% 요금할인이 된다. 나는 부산에서 나고 자란 완전 토박이임에도 현재 주조지가 경남인 탓에 제값인 만 2천 원을 내야 했지만 기꺼이 지갑을 열었다.

이순신 동상 앞에는 1973년 설치된 직경 5미터짜리 아름다운 꽃시계가 있다. 초침까지 달린 꽃시계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다고 하는데 부산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이 꽃시계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을 만큼 오랫동안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카메라가 귀하던 시절 직업 사

진사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목이 좋았던 곳이기도 했다. 꽃시계 오른쪽에는 부산시민의 성금으로 1996년에 만들어진 시민의 종이 있다. 매년 1월 1일 0시에 서울 보신각 종처럼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제야의 타종식을 거행한다. 타종식은 광복동 트리빛축제와 더불어 연말연시 원도심 축제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꽃시계 앞의 용두산공원비 아래에는 초량왜관 표지석도 한자리 차지하고 있어서 공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곳의 역사적 연원을 되새겨준다.

초량왜관 표지석 앞뒤로는 인공폭포와 ‘미술의 거리’가 구성되어 있다. 한국전쟁 시기 부산은 3년 동안 임시수도 였다. 주요 국가기관과 정부 인사만이 아니라 대학과 문화예술인들도 부산으로 옮겨왔는데, 이중섭과 김환기 같은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들도 용두산 주변 광복동, 남포동 일대



용두산공원비(좌), 부산타워(중), 부산시민의 종(우) 〓 필자 촬영

에서 피란생활을 했다. 이런 인연 때문인지 1970~80년대 용두산 둘레에는 수십 개의 화랑이 밀집해 있어 미술의 거리로서 손색이 없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화랑이 하나씩 이전 또는 폐관되면서 미술인들을 중심으로 화랑을 대신할 거리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에 부산시는 용두산 공원을 파리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 몽마르트 언덕처럼 만들기 위해 2008년 이 미술의 거리를 조성하였다. 현재 7개의 화가 작업실 및 공예품 판매 부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용두산을 찾는 이들에게 예술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용두산 공원에는 9개 문학비로 이루어진 ‘시의 거리’도 구성되어 있다. 피란 온 화가들과의 인연으로 용두산에 미술의 거리가 조성되었다면, 피란 온 문인들은 시의 거리 탄생의 산파쯤 되려나? 용두산 아래 밀다원으로 대표되는 다방들은 김동리와 황순원 등 내로라하는 문인들의 아지트였다. 문인들은 다방에 모여 그저 차를 마시고 음악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방문화를 낳았다. 그 시절 이곳의 다방은 문인들이 피란생활의 고됨을 함께 나누고 창작활동을 펼치는 복합문화공간이었다. 다방문화는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유치환을 비롯한 부산 문인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지금은 다방조차 보기 어렵다.

3

부산근현대역사관

식민지 수탈과 외세 지배의 아픔을 딛고서



동양척식주식회사와 미문화원 그리고 부산근대역사관

일반적인 답사와 달리 용두산 일대를 둘러보는 데는 별다른 동선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 곳곳에 역사와 문화가 깃들어 있으니 그저 발길 닿고 눈길 가는 곳으로 향하면 된다. 답사에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니 순서 상관 말고 이번에는 부산근현대역사관을 둘러보자. 그런데 어째 이름이 익숙한 듯하면서 낯설다. 우리가 알던 부산근대역사관은 무엇이고 부산근현대역사관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우선 대청로에서 광복중앙로가 시작되는 지점에 자리한 근대역사관부터 살펴보자. 독자께서 만약 이곳을 첫 답사지로 정했다면 도시철도를 이용하면 편하다. 1호선 중앙역 5번 출구로 나와서 대청로를 따라 국제시장 방면으로 5분 남짓 대략 300~400m만 걸으면 옅은 베이지색의 단정하고도 이국적인 2층 건물을 마주할 것이다. 일제 시기인 1929년에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어진 건물이다.

동양척식주식회사[대개는 동척이라 불렀다]는 ‘척식’ 즉 식민지 개척을 위하여 일제가 조선으로 이주하는 일본 농민을 지원할 목적으로 1908년에 설립한 국책 회사로서, 전국 각지의 토지를 강압적으로 매수하여 일본 농민에게 헐값에 넘기고 조선인에게는 높은 소작료를 걷어가는 등 조선의

토지 수탈의 선봉 역할을 맡았던 기관이었다. 동척은 1909년 서울본점 영업을 시작하면서 전국 각지에도 지점을 열었다. 애초에 부산에는 동척 지점이 없었으나 마산출장소가 1921년 부산지점으로 확장·이전하면서 1929년 8월 대청동 지금 위치에 현 건물을 신축하였다.

일제의 식민지 정책 수행에 앞장섰던 동척 부산지점은 해방 이후에는 미국의 손으로 넘어가 부산에 주둔한 미군의 숙소로 사용되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소유권을 넘겨받았지만, 미국이 계속해서 점유하며 오랫동안 무상 사용하였다. 미국 문화의 보급과 외교업무 등을 담당할 목적으로 1949년 5월 설립된 부산미국공보원USIS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한국전쟁 시기인 1950년 6월부터 1953년 8월까지의 주한미국대사관으로 사용되었다. 이 시기 서울에서 가져온 국보급 국가유산을 지하실에 임시보관하기도 했다고 하니 어쩌면 이때 이미 훗날 역사관으로 변신할 가능성이 짙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1957년 11월부터는 부산미국문화원으로 개칭하였고, 1984년 1월에는 2층에 부산미국영사관을 개설했으며, 1984년에는 부산아메리칸센터로 또다시 개칭되었다. 여러 번 이름이 바뀌었지만 부산시민들에겐 그냥 ‘미문화원’으로 통했다.

미문화원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1982년 3월 부산지역 대학생들에 의해 ‘미문화원 방화사건’이 일어나는 등 반미운동의 표적이 되기도 했고, 1990년대에는 시민들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어 1999년 4월 30일 미국이 무상으로 점유한 지 50년 3개월 만에 비로소 우리 정부에 반환되었다. 이후 부산시가 사유지 교환을 통해 정부로부터 다시 소유권을 넘겨받고 2001년 5월 16일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49호로 지정되었다.

동척 부산지점 건물은 전형적인 은행 건물 형태로 지어져 실내에 대형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 ■ 부산근현대역사관 소장

기둥을 세우고 아치형 창에 문양을 새겨 넣어 웅장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처음에는 2층 건물이었으나 미문화원으로 사용되는 동안 1층을 두 개 층으로 개조하여 밖에서 보면 2층이지만 내부는 3층이 된 것 말고는 건축 당시의 원형이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근대 건축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전국에 남아있는 몇 되지 않는 식민지 수탈기관으로서 해방 후에도 오랫동안 우리의 주권이 미치지 못했던,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이 서로 얽힌 근현대사의 아픔을 간직한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예전 같았으면 외세 지배의 상징과도 같은 건물이라 해서 조선총독부 청사처럼 싹 헐어버리거나 그 자리에 뭔가 그럴듯한 의미를 부여한 새로운 건축물을 지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21세기에는 패러다임이 바뀌어 동척 혹은 미문화원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살려서 이 공간을 보존하고 활용하여 후대에 전하는 것이 흔적을 지워버리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 결과 2003년 7월 3일, 2년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개항 이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부산 역사와 한일·한미

관계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전시와 교육을 담당하는 부산근대역사관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개관한 이래 역사관이라는 본연의 역할뿐 아니라 도심 속 휴식공간이자 문화공간으로도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2021년 6월 29일부터 돌연 휴관에 들어갔다. 왜?

한국은행 부산지점에서 역사문화복합공간으로 탈바꿈

부산근대역사관 바로 옆에는 한국 1세대 건축가인 이천승(1910~1992)이 설계하여 1963년 12월 28일 준공한 한국은행 부산지점이 있었다. 한국은행 부산지점[2002년 부산본부로 변경]이 50년간 이곳에 있다가 2013년 7월 문현금융단지로 이전하자 부산시는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역사문화 복합공간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근대 금융건축의 전형성이 돋보이는 건축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건물이기도 하지만 이에 더해 한국금융사와 부산 지역사에서 가지고 있는 역사적 중요성 때문이다. 부산시는 2013년 9월 25일 부산광역시 문화유산자료 제70호로 지정하고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2018년 3월 부산근대역사관과 한국은행 부산지점을 통합한 역사 박물관 조성 계획을 확정하였다. 이후 ‘부산근현대역사관’이라는 명칭도 확정되면서 한국은행 부산지점은 본관으로, 기존 근대역사관은 별관으로 정해졌다. 개인적으로 역사적 의미를 우선한다면 근대역사관이 본관이 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생각하지만 아마도 공간상의 제약 때문에 그리 정해진 듯하다.

부산근대역사관은 휴관 후 또다시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2023년 3월 1일 부산근현대역사관 별관으로 재개관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전시자료 대부분을 본관으로 보내서인지 이름에 걸맞지 않게 역사관으로서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물론 건물 그 자체가 역사관이라 하면 할 말이 없다.



부산근현대역사관 별관 내부 || 필자 촬영



부산근현대역사관 조감도 || 부산근현대역사관 홈페이지

역사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내게는 이곳이 몹시도 아쉽다. 지나치게 독서 공간 형태로 구성되어 도서관 느낌이 들고, 그마저도 신간 위주라 오히려 서점에 가깝게 느껴진다. 찾는 사람에 따라 호불호가 심히 갈리지 싶다.

별관에 이어 본관도 2024년 1월에 개관했다. 2개의 상설전시실과 1개의 기획전시실,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산 근현대사의 특색있는 콘텐츠를 주제로 지역 및 장소의 역사성을 강조하여 부산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고 한다. 접근성이 가장 좋은 1층 전체를 카페와 기념품 판매샵으로 꾸민 것이 나는 영 못마땅하지만, 이 역시 찾는 이에 따라 호불호가 있을 것이니 판단은 시민들의 몫이다. 부산근현대역사관은 본관과 별관 모두 역사관 용도로 새롭게 지은 건물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역사적 건물을 리모델링한 것이다. 앞으로 단순한 전시공간을 넘어 해양수도 부산의 역사와 원도심 지역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연구하고 복합문화공간을 제공 하는 등 다채롭게 운영되길 기대한다.

4 동광동 길 따라 걸으며 원도심 주변부의 어제와 오늘



피난살이 애환이 담긴 40계단

40계단은 계단 자체만 보면 크게 볼거리가 있지는 않다. 계단의 생김새가 독특하거나 멋들어지거나 아니면 규모가 크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주위 에라도 대단한 볼거리가 있거나 해야지 발뽀 팔아 답사를 가겠지만 그렇지 않다. 40계단은 외모 때문에 유명한게 아니라 그 속에 서린 의미로 인해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들이는다. 한국전쟁이 터지기 전까진 별 의미 없는 그저 평범한 계단이였다. 개항 이후 용두산 아래 바다가 북빈 매축공사 1902~1908로 메워지고, 북병산과 붙어 있던 영선산[쌍산]을 깎아 그 아래 바다를 또 메워 1909~1912 너른 새마당이 만들어졌다. 그전에는 용두산과 북병산 아래 이어져 있는 광복로97번길~백산길~동광길 바로 앞으로 길게 해안선이 펼쳐져 있었다. 지금의 중앙동은 이때 만들어진 매축지 새마당 이고, 여기에 부산항¹부두와 부산역, 부산우체국 등 근대시설들을 새롭게 만들었다. 이렇게 조성된 매축지 상업지와 북병산 아래 주택가를 연결하기 위해 놓은 것이 바로 40계단이다.

한국전쟁은 이 계단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산으로 피란을 떠나왔다. 무슨 대책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단 열차에 몸을 싣고 전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도망쳐온 것이었다. 막상 부

산역에 내려서니 막막했다. 낯선 곳, 아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었다. 원래 부산역은 중앙동 부산본부세관 맞은편 무역회관과 교보생명빌딩 일대에 있었다. 피란민들은 부산역 광장 정면에 딱하니 버티고 서있는 북병산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40계단 위의 북병산은 이내 피란민들의 판자집으로 빼곡히 뒤덮였다. 40계단은 부산역에서 부산우체국을 지나 시내 중심가로 이어지는 요지에 위치해서 늘 사람들로 붐볐다. 판자집 마을인 판자촌 사람들이 먹고살기 위해 부두로 품을 팔러 나가는 길이 되었고, 때로는 바로 앞 부두에서 들어오는 구호물자를 사고파는 장터가 되었고, 또 난리통에 헤어진 가족들을 다시 만나는 장소가 되었다. 까마득한 옛날 노래들이지만 들으면 알법한 ‘경상도 아가씨’, ‘군세어라 금순아’, ‘이별의 부산정거장’ 같은 곡들이 다 여기서 나왔다.

40계단은 피난살이의 애환을 상징하던 곳으로 북병산 아래 동광동과 대청동뿐만 아니라 영주동 뒷산, 보수동 뒷산 일대에 흩어져 살았던 피난민들에게는 가장 친근한 장소였다. 3년간의 전쟁 끝에 휴전이 되었어도 부산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았고 판자집은 더 늘어났다. 판자집 마을인 판자촌은 구조상 항상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하루에도 몇 건씩 화재가 발생하였다. 급기야 1953년 11월 27일 오후 8시 20분경 영주동에서 발생한 불이 강풍으로 순식간에 확대되어 북병산 판자촌과 부산역을 비롯한 중앙동 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었다. 부산역, 부산우체국, 부산공회당 등 중요 시설들과 주택 3,132채가 완전히 소실되었던 유명한 ‘부산역전대화재’이다. 이 불로 40계단도 사라졌다. 지금의 40계단은 화재복구 일환으로 원래의 자리에서 수십 미터 남쪽에 새로 만든 것이라고 한다. 40계단 중간 참에 얼핏 봐도 세월의 깊이를 오롯이 간직한 것으로 보이는 삼화이용원이 놀랍게도 아직 영업중이다. 이용원을 보면서 어쩌면 원래 40계단의 흔적도 남아있을 것 같은 생각에 계단 아랫길과 윗길을 유



40계단의 현재 모습 Ⅵ 필자 촬영

심히 둘러봤지만 헛수고였다.

40계단에서 윗길을 따라 북쪽으로 100m쯤 가면 40계단문화관[기념관]이 있다. 이곳 전시실에 40계단과 한국전쟁을 주제로 하는 전시물이 있어 간접적이거나 옛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나는 어린 시절 고지대에 살아서 물차가 오면 물 받으러 길게 줄서던 기억이 있어서인지 ‘함석바게쓰’를 머리에 지고 물을 길으러 가는 여인의 사진이 유별나게 눈에 들어왔다. 부산시는 피난민의 애환과 향수가 담겨있는 40계단 주변을 1950~60년대 분위기에 맞도록 재현하여 추억을 회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새로운 관광명소로 육성하고자 2004년에 40계단 문화관광 테마거리를 조성하였다. 부산역전대화재 이전의 옛 부산역을 호출하기 위해 기찻길이라는 주제로 40계단 앞쪽으로 광장을 만들고, 거리 곳곳에 아코디언 켜는 사람, 뽕튀기 아저씨, 어머님의 마음, 물동이 진 아이, 아버지의 휴식, 나무

전신주 등의 조형물을 설치하여 40계단의 역사성과 의미를 더해준다.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으로도 지정되었고, 주변에 숨은 맛집들과 분위기 좋은 카페가 많아 묘하게 옛것과 새것의 분위기가 어울린다. 점심 무렵이면 직장인들이 한꺼번에 거리로 쏟아져 나오니 그 모습 또한 색다른 광경을 연출한다.

1980년대에 머문 듯한 인쇄골목

40계단 윗길[동광길]은 동광동 인쇄골목이다. 옛 혼마치[백산길]와 이어지지만 대청로가 가로막고 있어 시내인 듯하면서도 외곽인 애매한 지역이다. 그래서 중심지로의 접근성이 좋으면서 상대적으로 집세가 저렴하다. 원래 부산의 인쇄업체들은 주로 옛 시청 주변과 대청사거리 국제시장 입구 쪽에 있었는데, 1960년대 초 신우정판과 동양정판이 이 골목에, 그리고 자문정판이 옛 서라벌호텔 뒤편에 처음으로 문을 열면서 동광동 인쇄골목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후 인쇄소들이 점포세가 싼 이곳에 하나 둘씩 자리 잡기 시작하여 1970년 초부터 대거 이전해오면서 이 일대가 부산인쇄의 메카로 자리매김하였다.

한창 때는 동광길을 중심으로 좌·우의 동광동과 중앙동 골목길[대청로 125번길, 131번길]을 따라 300여 미터에 걸쳐 인쇄·출판·기획·재단·지업사 등 인쇄 관련 업체 200여 개가 밀집해 있었다. 이 지역은 인쇄소와 출판사는 물론 각종 인쇄 용품의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곳에 모여 있어 전국 최대의 인쇄타운을 이루고 있다. 기획부터 인쇄와 제본까지 다양하고 수준 높은 제품을 신속하게 제작하며, 가격도 다른 지역에 비해 저렴하여 부산 전체 경인쇄 물량의 50%를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대청로변 골목 입구에 ‘부산 인쇄업의 총본산 동광동 인쇄골목’이라 적

힌 안내판이 서 있다. 골목 안은 특색 없이 비슷하게 생긴 건물들이 길 양쪽으로 빼곡하게 쭉 들어서 있는데 마치 1980년대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다. 많은 점포들이 비어있고 오가는 사람조차 적어 분위기가 영 쓸렁하다. 그래도 골목 곳곳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니 인쇄작업이 한창인 모양이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저렴한 가격이 최대 무기인만큼 중소기업과 회사들은 여전히 이곳에서 명함과 홍보물 등을 주문하고 있다. 쇠락하는 원도심 지역을 살리자는 취지로 2011년부터 열린 ‘거리미술제’로 탄생한 소박한 작품들(주로 책이나 인쇄와 관련된 그림)이 인쇄골목 안의 점포 셔터문과 담벼락 군데군데에 그려졌고, 배수관·전봇대·계단 등 지형지물을 이용해 재미난 작품들도 만들어놓았‘었다. 하지만 지금은 남아있는 작품이 거의 없으니 이쁜 벽화골목을 생각하고 찾아가면 곤란하다. 안타깝게도 언제까지 이 골목의 명맥이 유지될지 알 순 없지만 오늘도 인쇄기계들은 계속 돌아가고 있다.



동광동 인쇄골목 모습 | 필자 촬영

적산가옥 활용의 좋은 예 중구문화원

인쇄골목이 잘나갔었던 1980년대에 머물러 있다면, 일제시대에 지어졌음에도 과거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는 곳이 있다. 40계단에서 윗길을 따라 왼쪽으로 10m 남짓 몇 발짝만 가면 남성초등학교 쪽으로 올라가는 좁은 골목길[동광길21번길]이 나오는데, 그 길을 따라 100m 정도 가면 커다란 금고처럼 생긴 정채 모를 2층짜리 건물과 범상치 않은 양옥집 두 채를 마주하게 된다. 이 집은 일제 때 석유 팔아 거부가 된 부산의 '정유왕精油王' 다테이시 요시오[立石良雄]가 1932년에서 1934년 사이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적산가옥이다. 해방 후 한 번의 소유자 변경을 거쳐 해포 식용유로 유명한 동방유량과 눌원문화재단의 설립자인 신덕균 회장의 소유가 되었다. 종류가 다르지만 다테이시도 기름회사 사장이고 신덕균도 기름회사 사장이니 집주인들이 묘하게 얹힌다.

옛 다테이시 가옥은 일본식 주택과 서양식 주택 두 채가 결합된 독특한 형태로 지어졌다. 하지만 왼쪽에 있던 일식 2층 목조주택을 1958년에 철거하고 지금과 같은 2층 양옥을 새로 지어 원형이 사라졌다. 그래도 오른쪽 건물은 서양식 벽난로와 스테인드글라스 등 건축 당시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1930~40년대 서양의 영향을 받은 고급주택의 특징과 부유한 일본인의 생활방식을 확인할 수 있고, 해방 이후 신축한 양옥도 1950~60년대 한국 상류층의 주거 양식을 보여주고 있으니, 일본식 서양식 한국식 세 가지 모습이 하나의 집에 공존하고 있는 셈이다. 현관 양옆의 원형 창과 창살을 보니 커다란 범선의 조타 핸들이 떠오른다. 항구도시 부산의 모습도 추가하면 일타사피一打四皮로구나.

이 적산가옥을 얼마 전 중구청이 매입해 1년 넘게 복원 공사를 진행한 끝에 2021년 중구문화원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적산가옥 재활용의 올

바른 예라 하겠다. 내부에는 방이 무려 10개가 넘게 있는데, 모든 방에서 아기자기하게 꾸민 안뜰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이채로웠다. 본디 앞마당에도 멋진 정원이 꾸며져 있었을 테지만 리모델링을 하면서 마당과 도로 사이의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드는 바람에 마당이 사라졌다. 애초에 높은 담장으로 둘러져 있어서 동네 사람들도 '회장님댁' 마당 안을 본 적이 없다고 하니, 차라리 탁 트여 집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지금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금고처럼 생긴 별관은 실제로 귀중품을 보관하려고 지었다고 한다. 가진게 얼마나 많았길래 집 안에 이런걸 지었을까. 2층 구조인 이 창고는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일본식 창고 중에서 원형의 모습이 가장 잘 남아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건물도 '복병산작은미술관'으로 재탄생했다. 다만 규모가 너무 작아서 다양한 작품의 전시보다는 사진을 중심으로 전시하고 있다.



적산가옥을 활용한 부산중구문화원 | 필자 촬영

5 용두산과 비슷한 듯 다른 북병산 북병산의 근대 유산을 찾아서



북병산 꼭대기 부산기상관측소

대청로가 놓이지 않았다면, 아니 초량왜관 북쪽 담장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용두산과 북병산이 서로 별개의 산이 되었을까? 용두산도 산이라 부르기 민망하지만 해발 76.6m의 북병산도 사실 산이라기보단 작은 언덕에 가깝다. 구봉산과 보수산에 이어 붙은 두 산은 높이도 크기도 생김새도 비슷하다. 위에서 보면 꼭 숫자 8자처럼 생겼고, 옆에서 보면 찌뿔 두 개가 가지런히 놓여있는 듯한 모습이다. 초량왜관에서 사람이 죽으면 남쪽 담장의 부정문을 통해 대마도로 시신을 내보냈는데, 전관거류지가 형성된 뒤에는 북병산 남측 자락에 공동묘지를 만들어 묻었다. 거류지에 사는 사람이 늘어나니 죽는 사람도 늘어나 1906년 무렵 아미동에 새 공동묘지를 만들면서 북병산 못자리에 주택가가 조성되었다. 용두산과 비슷한 듯 다른 묘한 산이다.

북병산 자락은 개항 이후 식민 지배, 한국전쟁, 산업화를 거치며 급격하게 성장했다가 구도심 공동화를 겪으며 쇠퇴하고 있다. 그 부침의 과정 속에서 부산의 근현대사와 시민들의 삶의 모습을 오롯이 살펴볼 수 있는 곳으로서 답사지로는 제격이다. 북병산은 정상부에 중구청이 있고 메리놀병원이 있어서 노선버스가 많이 지나간다. 버스를 이용한다면 정상에 오르

는건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지만 명색이 산길을 따라 걷는 기획이니 평지에서부터 걸어서 북병산 꼭대기에 있는 근대사의 발자취를 쫓아가보자. 도시철도 1호선 중앙역 11번 출구로 나와 40계단을 오르면 동광동 인쇄골목이다. 만약 앞 꼭지의 동광동 길을 따라 걸으며 답사를 하고, 이어서 북병산을 오르는 상황이라면 이미 중구문화원까지는 와 있는 셈이니 북병산의 절반은 올라왔다고 보면 된다.

중구문화원에서 남성초등학교 담벼락[촉대]을 따라 북병산길을 150m쯤 올라가면 남성초등학교 정문 앞이다. 그리 가파르진 않아도 40계단서부터 계속 오르막이라 다소 숨이 차지만, 천천히 걸으면 오래된 집들과 골목길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심지어 이제는 보기 어려운 나무전봇대도 만날 수 있다. 부잣집 아이들만 다닌다던 사립국민학교라 어린 내겐 선망의 대상이던 남성초등학교가 어찌 작고 초라해 보이는 것도 신선하다. 부산근현대역사관 길 건너 바로 보이는 북병산길에 들어서서 정문의 빌라들 사이로 보이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바로 남성초등학교 정문이니 이리로 와도 좋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정문 뒤로 학교 담벼락을 따라 나 있는 좁은 계단길을 끝까지 오르면 북병산 답사의 첫 번째 목적지인 부산기상관측소에 이르게 된다.

도착한 줄 알았더니 막다른 길에 철문이 가로막고 있다고? 제대로 왔으니까 당황할 필요 없다. 진짜 당황은 다른 이유에서 하는 수가 있는데, 사전예약(051-718-0229/0216 부산지방기상청)을 해야만 이 철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내부 관람은 화·목요일 10시부터 16시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니 반드시 기억하고 답사 일정을 잡기 바란다. 내가 별다른 정보 없이 무턱대고 갔다가 굳게 닫힌 철문 앞에서 좌절하고 발길을 돌린 경험 이 있어서 하는 말이다. 사전예약하고 도착해서 철문 옆의 인터폰을 누르면 경비실에서 CCTV로 신원을 확인한 후 뿅~ 하면서 문이 열린다. 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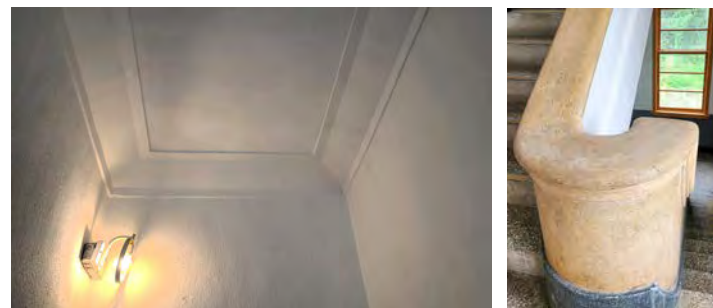


부산기상관측소 전경 || 필자 촬영

서 가파른 계단을 다시 올라야 비로소 기상관측소를 영접하게 된다. 반가움보단 불현듯 “아... 북병산도 산이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부산에 기상관측소가 처음 설치된 것은 1904년 러일전쟁 때 일본군에게 기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위치는 보수동이었는데, 시가지가 점차 확대되면서 기상관측 업무 수행이 불편하여 1933년 12월 현 위치에 새 건물을 지어 옮겨왔다. 이후 조선총독부 부산측후소를 거쳐 부산지방기상청으로 70여 년간 사용되다가 2002년 명륜동 사옥으로 이전했다. 행정사무 업무는 이전했지만 여전히 기상관측 기능은 이곳에서 수행하고 있으니 관측장비 부근으로는 절대 접근금지이다. 출입 절차가 까다로운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4층짜리 건물인 기상관측소는 멀리서 봐도 눈에 확 들어온다. 부산항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산 꼭대기에 커다란 배가 올려져 있는 형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항구도시 부산을 상징하기 위해 선박을 본떠서 지었고, 최상층은 영락없이 조타실의 모습이다. 모더니즘 양식이지만 각 층의 경계



부산기상관측소 내부 천장 물딩(좌), 부산기상관측소 내부 계단(우) || 필자 촬영

에 장식한 수평적 가로줄을 강조하여 르네상스적 기풍도 표현하고 있다. 내부도 모든 창문에 고가의 상하수직여닫이창을 달았고, 천장 물딩 장식은 붙인게 아니라 처음부터 거푸집 처리를 했으며, 난간 또한 인조대리석 일종인 유려한 테라조 재질로 만들어 상당히 인상적이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튼튼하게 지어져 90년 세월이 지났어도 크게 훼손된 곳이 없다. 일제가 이 건물을 짓는데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새삼 대단하게 느껴진다.

산 정상부에 지어진 건물이라 시야가 막힘없이 탁 트여 있다. 정면에 용두산과 부산타워가 거의 눈높이에 있고, 원도심 일대와 북항과 남항이 모두 시원스레 한눈에 들어온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며 차오르던 가쁜 숨이 감동이 되어 도로 벽차오른다. 멋진 건물에 멋진 풍경이 곁들여지니 마구 찍어도 모든 사진이 작품이다. 다른 데 안 가더라도 여긴 무조건 방문하시기 바란다. 건물 내부는 기상전시관으로 꾸며져 있다. 2층에는 부산기상관측소 역사관을 비롯하여 날씨포토존·날씨배움터·기상기록전시관이, 3층에는 기상체험전시관·기획전시실이, 4층에는 날씨속담실이 각각 꾸려져 있다. 역사관을 제외하곤 주 관람객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듯하다. 다만 1층은 관측 업무를 담당하는 기상청 직원들이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

어 출입할 수 없다.

밖으로 나와 건물 주위를 찬찬히 돌아봤다. 건축 당시 1층에서 4층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형태로 지어졌는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2층 일부를 증축해서 1층과 2층은 폭이 같아졌다. 바다를 향한 동쪽과 남쪽 두 면의 외벽에는 거자색 타일 장식이 붙어 있는데(산을 향한 두 면은 타일을 붙이지 않고 그냥 미장 마감해서 페인트 칠을 했다) 증축한 외벽에 건축 당시의 타일을 구할 수 없어 색상만 비슷한 다른 타일을 붙여놔서 영 어색하다. 그래도 멀리서 보면 표가 덜 난다. 부산기상관측소가 최초 설치된 1904년부터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상을 관측한 역사를 잘 보존하여 2017년에 서울기상관측소와 함께 기상 분야의 유네스코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기상기구WMO에서 주관하는 '100년 관측소'에 선정되었고, 2001년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51호로 지정되었다.

부산 상수도의 역사 북병산 배수지

기상관측소를 나와 다시 남성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가면 맞은 편에 중앙하이츠빌라 옆으로 가파른 골목길이 나 있다. 이 길을 따라 올라가면 북병산체육공원으로 가는 산책로가 있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가 아닌 목재 데크와 흙이 있는 숲길이라 이름에 걸맞게 산책하기 좋다. 산책로를 조금만 오르면 잔디 깔린 운동장 비슷한 뭔가가 나타난다. 운동장은 아니고 배수지다. 북병산배수지는 체육공원을 겹하고 있고 산책로도 이어져 있어서 평소에도 운동하러 나온 사람이 많다. 중구청과도 바로 붙어 있어서 만약 산길 답사고 뭐고 그냥 배수지만 보겠다면 산복도를 다니는 아무 시내버스를 타고 중구청/메리놀병원 앞에서 내려 걸어오면 힘 하나 들지 않는다.

초량왜관 시절 왜관 안의 우물을 이용하던 일본인들이 개항 이후 구덕산에서 발원한 보수천 물을 대나무 홈통으로 연결해서 거류지로 끌어다 쓴 것이 부산 상수도 역사의 시작이었다. 거류민이 늘어나자 1895년 무렵 북병산 아래 대청사거리 부근[광일초등학교]에 배수시설을 만들어 보수천의 물을 본격적으로 끌어와서 식수로 이용했다. 이는 서울보다 십여 년 앞선 것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상수도 시설이라고 한다. 그래도 물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1900년 보수천 상류에 구덕수원지를 만드는 공사를 시작하여 1902년에 준공하였다. 이어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대가 높은 곳에 설치하는 물 저장소인 배수지를 1910년 북병산 정상부에 만들었다.

이 배수지의 거대한 사각형 콘크리트 저류조 위에 흙을 평평하게 덮고 잔디를 깔아서 겉으로는 마치 운동장처럼 보이는 것이다. 앞뒤로 입구를 두고 아치 형태의 석조 문틀 위에 각각 요지무진(瑤池無盡, 신선이 사는



북병산 배수지 남쪽 입구 ■ 필자 촬영

연못의 물처럼 마르지 말라), 봉래활수(蓬萊活水, 신선이 사는 산의 생명수처럼 흘러라)라고 적힌 현판을 달았다. 배수지 옆에 세워져 있는 안내문에 '부산지역 최초의 상수시설', '성지곡수원지의 물을 부산의 각 가정에 공급하기 위해 건립'하였다는 설명이 있는데 뭔가 찝찝하다. 복병산배수지 이전에 만든 대청동배수지와 구덕수원지를 건너뛰고 이것이 최초의 상수시설이라고? 더군다나 건설 당시엔 영선산 착평도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인데 그 먼 성지곡의 물을 어떻게 이곳까지 끌어왔단 말인가? 구덕수원지 물을 끌어온거라면 납득이 되는데,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부산역사문화대전에도 그리 설명되어 있으니 내가 괜한 트집을 잡는 것일까? 복병산배수지는 백년이 훨씬 넘는 시설이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 1970년대에 기존 배수지 서쪽에 새 배수지를 증축했고, 2007년 7월 3일 국가등록문화유산 제327호로 지정되었다.

러시아영사관(조선키네마주식회사) 터

복병산 배수지를 나와 중구청 입구에서 메리놀병원 방면으로 직진하지 말고 우회전해서 굽은길을 따라 40~50m 정도 내려와 대동아파트 입구에서 길 오른쪽의 좁다란 골목길[샘길30번길]로 들어서면 양쪽으로 다양한 연식의 크고 작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유심히 보면 그 주택들이 모두 경사진 땅에 쌓은 두 개의 큰 축대 위에 지어져 있는데, 이 축대는 백여 년 전인 1912년부터 1921년까지 러시아영사관으로 사용한 2층 양옥건물을 건축하면서 쌓은 것이라고 한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더 유심히 보면 축대 곳곳에 검게 그을린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40계단 일대를 잣더미로 만든 1953년 부산역전대화재의 흔적이라고 하니 당시 화재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실감이 되었다. 러시아영사관 건물도 그때 소실되



1953년 부산역전 대화재로 검게 그을린 옛 러시아영사관 터의 축대 || 필자 촬영



부산키네마주식회사 터 입구 바닥의 동판 || 필자 촬영

어 그 모습을 알 수 없지만 축대의 형태로 미루어 짐작컨대 당시로선 제법 규모가 컸던 것 같다.

이 자리는 또 다른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러시아영사관이 폐쇄된 후 1924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사인 조선키네마주식회사가 이 건물에 사옥 겸 촬영소를 설치했기 때문이다. 조선키네마는 한국 영화계의 선구자이자 항일독립 투사로 짧은 생을 살다간 춘사 나운규를 비롯해 수많은 초기 영화인을 배출했다. 그리고 이 골목 끄트머리 너머의 남성여고 후문 주차장 자리에는 1935년부터 1972년까지 KBS방송국이 있었다. 지금은 러시아영사관 및 조선키네마와 방송국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다. 조선을 둘러싼 러일간의 첨예한 외교의 장이자 한국 영화 역사의 서막을 열었던 산실이었지만 정작 이곳이 그러한 역사적 현장이었다는 사실은 골목 입구 길바닥에 손바닥만하게 박혀있는 동판이 전부였다. 크기도 작고 바닥에 있어서 고작 몇 글자 달랑 새겨진 동판의 존재감이 미약했는데, 그나마 몇 해 전 중구청에서 안내문을 달고 러시아영사관 건물을 떠받치던 축대 담벼락에 벽화도 그리면서 예전에 비해 조금은 사정이 나아졌다.



구봉산~엄광산, 격동의 부산 근현대사와 마주하다

구봉산과 엄광산은 부산항의 등줄기 역할을 하는 산들로,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들과 한국전쟁기 피난민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했다. 1987년 6월항쟁과 열사들의 사연이 곳곳에 어려있어 격동의 부산 근현대사를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다.





구봉산~엄광산, 격동의 부산 근현대사와 마주하다

구봉산은 부산 동구 초량동에, 엄광산은 서구 동대신동의 북쪽에 각각 소재한 산들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구덕산까지 더하여 부산항의 등줄기 산맥을 이룬다. 해발 고도 400~500m의 높은 산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공원들이 산자락과 산중 곳곳에 촘촘하다.

구봉산은 과거 봉수대가 설치되었던 시절에 초량왜관을 가까이 두고 사하구 일대를 조망하는 역할을 하였고,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후에는 가난한 조선인들과 피난민들이 부산항에 일용직 지게꾼으로 노동하면서 잠시 지친 몸을 누이던 보금자리였다. 영주동 산리마을이 대표적이다.

엄광산 역시 다르지 않다. 개항장의 일본인들은 정상에서 멀리 내다보면 본국의 쓰시마 섬까지 보인다고 하여 엄광산을 ‘고원견산(高遠見山)’

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부산에서, 아니 한국에서 최초의 근대적 상수도 시설인 구덕수원지를 이곳에 설치하였다. 수원지는 일본인들에게 철저히 보호받는 시설이었지만, 구덕산과 엄광산에는 골짜기 마다 빈민들의 주택이 가득했다.

농촌을 떠나 도시로, 도시로 몰려든 서민들은 화려한 도시에 비해 초라한 살림이라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들 중 누군가는 부모와 형제의 희생으로 집안을 일으킬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장남이었고, 다른 누군가는 공부 잘하는 아들 녀석 때문에 박봉에 고되어도 힘든 줄 몰랐다. 또 다른 누군가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돌이라고 무시당해도 부당한 세상을 참을 수 없는 열혈 청년이었다. 그렇게 누군가의 장남은, 누군가의 막내아들은, 또 정의파 노동자는 열사가 되었다. 그들의 사연이 이곳 구봉산과 엄광산 자락에도 생생하다.

오늘 우리는 평범한 우리네 서민들이 만들었던 격동의 부산 근현대사의 흔적을 찾아 구봉산과 엄광산 일대를 둘러보려고 한다. 지면의 한계로 1987년 6월항쟁 위주로 다루었고, 4·19혁명과 부마민주항쟁은 상세히 서술하지 못하였다. 더불어 ‘6·10민주항쟁’이 교과서 등의 공식 용어이지만, 박종철부터 이태춘까지 등장하는 1987년 상반기를 전체적으로 해설하기에 보다 적합한 용어를 고민하다가 ‘6월항쟁’으로 칭하였음을 미리 밝힌다.



1 부산의 '명동성당', 부산가톨릭센터



부마항쟁에서 6월항쟁으로

지하철 토성역에서부터 걸어서 보수동책방골목 정류소에 섰다. 기분 탓일까? 책방골목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쿼퀴한 책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찌른다. 어쩌면 땀 냄새 같기도 한, 불쾌하지 않은 사람 냄새. 사람처럼 도시와 거리에도 고유의 냄새가 있다면, 이것은 원도심의 냄새라고 할만하다. 12월 초 짧은 겨울 해를 타하며 부산가톨릭센터가 있는 언덕길에 서둘러 오른다.

오늘 구봉산과 엄광산 자락의 부산 근현대사를 돌아보는 여행을 보수동책방골목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여러모로 뜻깊은 일이다. 한국전쟁기 피난민들에 의해 형성된 헌책방 골목으로 전국적 명성을 얻은 이곳이 부산 민주화운동의 발상지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 중심에는 부산중부교회와 양서협동조합이 자리하고 있다.

1979년 부마민주항쟁이 발생하자, 유신정권은 이들을 배후로 지목하고 양서협동조합을 강제로 해산시켜 버렸다. 그래도 불안했던지,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차지한 전두환은 1981년 부림사건을 조작하여 양서협동조합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사회주의자로 몰아 구속하였다. 영화 「변호인」²⁰¹³으로도 유명한 이야기이다.



부산가톨릭센터 ■ 필자 촬영

그리고 보니 보수동책방골목 입구 대청사거리와 가톨릭센터로 올라가는 중구로 자체가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무대가 아닌가? 그 해 10월 16일과 17일 밤 국제시장을 빠져나온 시위대가 이 고갯길을 타고 초량동, 수정동 방면으로 이동하면서 제지하는 경찰들과 뒤엉켜 일대 격전이 벌어졌다. 당시 중구로에 있던 두 곳의 대청파출소가 이틀 동안 나란히 공격받아 유리창 수십 장이 파손되고 방법 오토바이가 불에 타는 등 피해가 컸다고 한다. 이러한 경험들은 모두 1987년 부산에서 6월항쟁이 폭발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

오늘 여행의 첫 번째 코스 부산가톨릭센터는 6월항쟁의 상징적 장소이다. 그러므로 보수동책방골목을 지나 가톨릭센터로 올라가는 도보 5분 거리의 이 여정을 '부마항쟁에서 6월항쟁으로', 혹은 '시월에서 유월로'라고

부른다면, 너무 지나친 의미부여일까? 가톨릭센터는 오늘도 그 옛날의 모습 그대로 변함이 없다.

표석에 새겨진 '그날'의 뜨거운 기억

영주동 부산터널 삼거리에서 코모도호텔과 중구청, 메리놀병원을 거쳐 대청사거리로 넘어가는 중구로는 한국전쟁 때 유엔군이 부산에서 처음으로 아스팔트로 포장하였다고 하여 한 때 '유엔고개'라고도 불렸다. 이곳에 지역사회에서의 문화 사목 활동을 위해 부산가톨릭센터가 들어선 것은 1982년 4월이다. 이후 '문화의 불모지' 부산에서 갖가지 무대 예술 발표회와 고전 음악 감상회, 미술 전시회로 그 역할을 다해왔다. 아무리 이 방면에 문외한 일지라도 '목요음악감상회'는 한 번쯤 라디오에서 들어보지 않았을가? 필자도 스타리 큐브릭 감독의 명작 「시계태엽 오렌지」를 이곳에서 본 기억이 난다. 정확한 연도는 이제 가물가물하지만.

그러나 1980년대 부산가톨릭센터는 단순한 '문화 사목'을 위한 기관만은 아니었다. 시대의 아픔을 종교인들도 외면하지 않았고, 특히 1987년 6월항쟁 기간에는 이곳이 서울의 명동성당 못지않은 뜨거운 현장이었다. 그 증표가 2017년 30주년을 맞아 입구 계단 옆 화단에 설치한 '6월항쟁의 중심지 표석'이다. 불끈 쥔 주먹 형상의 높이 1m 화강암에 저항하는 듯, 춤추는 듯한 사람의 모습과 함께 그날의 구호 '독재 타도'와 '민주헌법 쟁취'를 새겼다.

1987년 1월 14일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취조받던 서울대 학생 박종철이 사망하면서 역사적 한해의 막이 올랐다.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는 황당한 해명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돋운 경찰은 부검의와 신문기자 등에 의해 ‘물고문으로 인한 질식사’라는 정황이 드러나자,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신 책임 문제가 뒷선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증거를



‘6월항쟁의 중심지’ 표석 〓 필자 촬영

조작하고 고문에 가담한 말단 경찰 2명만 구속하는 등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었다.

그럼에도 박종철의 고향 부산 시민의 분노는 각별하였다. 그를 ‘부산의 아들로’ 생각하는 지역 정서가 이 비극을 ‘우리의 일’로 인식하게 한 것이다. “종철아! 잘 가그래이... 이 아버지는 아무 할 말이 없대이...” 박종철의 아버지가 화장한 아들의 유해를 임진강에 뿌리며 했다는 이 말이 시민들에게 어떤 공감대를 불러일으켰을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2월 7일 열린 ‘박종철 군 추도대회’는 본래 신창동 대각사 앞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지만, 경찰이 봉쇄하면서 남포동 부산극장으로 옮겨 진행되었다. 이날 1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시내로 쏟아져 나와, 그 열기가 흡사 8년 전 부마민주항쟁을 연상케 하였다. 박종철의 49재가 있었던 3월 3일의 ‘고문

추방 민주화·평화 대행진' 역시 다르지 않았다. 부산의 6월은 이미 연초부터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박종철 고문 사망 사건 이슈는 점차 사그라드는 듯 했다. 그 해 연말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뽑는 방식으로 개헌하기를 염원하고 있었지만, 퇴임 후에도 권력을 유지하고 싶었던 전두환은 자신처럼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로 후임 대통령을 만들어내고자 했다. 이에 4월 13일 직선제 개헌 논의를 막고 당시 헌법에 규정된 기존 방식대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발표하였다(4·13 호헌 조치). 하지만 5월 18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에 의해 박종철 고문 사망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면서 '호헌 철폐'와 '독재 타도'를 외치는 민주화 시위의 불길이 더욱 거세졌다.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는 전당대회가 열리던 6월 10일, 고문살인과 은폐·조작을 규탄하고 민주헌법을 쟁취하기 위한 범국민 대회(6·10 대회)가 전국 22개 도시에서 일제히 열렸다. 특히 대회 하루 전인 9일 연세대 학생 이한열이 학교 정문 앞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최루탄에 뒷머리를 맞고 쓰러지자, 드디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였다. 이날 이후 20일 동안 전국에서 500만 명 이상이 참가한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민주화운동이 전개되었다. 궁지에 몰린 전두환 정권은 29일 여당 후보인 노태우를 내세워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 여러 민주화 조치를 실행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는데(6·29 선언), 그 결과 현재와 같은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가 정착된 것이다. 이상의 과정을 흔히 6월항쟁, 공식 명칭은 '6·10민주항쟁'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부산가톨릭센터는 6월항쟁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을까?

애국시민들이여, 가톨릭센터 앞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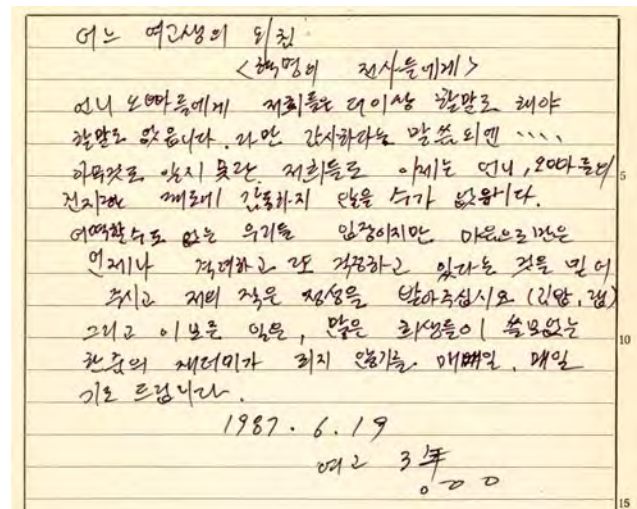
아직은 6월항쟁이 초입이던 6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 간 부산가톨릭센터에서는 '5·18 광주외거 사진전'이 개최되었다. 당시 전두환 정권의 감시하에서도 이 전시회를 연인원 6만 명이 관람하였다고 한다. 입장을 기다리는 행렬이 400m 떨어진 메리놀병원까지 이어졌을 정도로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국제시장의 상인들은 물론, 경찰도 광주의 참혹한 사진을 보고 눈물을 흘릴 정도였다. 지금이야 인터넷에 온갖 사진과 영상이 넘쳐나지만, 그때만 해도 5·18의 진상을 알지 못했던 부산 시민들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부산에서 6월항쟁의 기폭제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20년 5월 광주MBC와의 인터뷰에서 '5·18 하면 떠오르는 사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꼽으면서, 인권변호사 시절 함께 부산가톨릭센터에서 '5·18 광주 비디오 관람회'를 열었던 일을 언급하였다.

6월항쟁의 초기 국면은 서울의 명동성당이 이끌었다. 10일 오후 성당 앞 마당에서 집회를 하고 있던 3백여 명의 시민들을 경찰이 차단하여 가두면서 시작된 농성은 학생과 시민, 종교인 등이 합세하면서 점점 규모가 커졌고, 이른바 '넥타이부대'의 응원으로 태풍의 눈이 되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사태 전개에 대한 불안감과 정권의 회유·협박 속에 농성자들은 15일 자진 해산을 결정하였다. 이때만 해도 6·10 대회가 6월항쟁으로 발전하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다.

명동성당의 배턴을 이어받아 항쟁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부산가톨릭센터였다. 16일 시청현재 롯데백화점 광복점 앞에서 연좌시위를 하고 있던 시위대에 경찰이 최루탄을 난사하며 진격하자, 시위대는 국제시장, 대청동, 보수동 등지로 나뉘어 산발적 시위에 들어갔다. 그중 대청동 사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던 소규모 시위대가 경찰 진압에

밀려 부산가톨릭센터 앞에서 바리케이드를 쌓고 돌과 화염병을 주고받으며 이튿날 새벽까지 대치하였다. 17일 날이 새자, 경찰은 다시 작전을 개시하여 바리케이드를 치우고 최루탄을 쏘아 학생들을 모두 가톨릭센터 안으로 몰아 넣었다. 이렇게 고립된 350여 명의 시위대에 의해 가톨릭센터 농성이 시작되었다. 이들이 그날 발표한 성명서를 읽어보면, 마치 사활을 건 전투에 임하는 비장감마저 느껴진다.

(전략) 17일 오전 가톨릭센터에서의 철야 농성에 참여한 우리 청년 학생 시민 일동은 한 줌도 안 되는 군부 독재 정권을 몰아낼 때까지 민주에 대한 불굴의 의지로써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근로자, 택시 기사, 회사원 할 것 없이 모든 애국애족 시민



시민들의 응원 메시지 ▮ 부산민주공원 역사아카이브

이 총궐기하여 군부 폭력 정권을 끝장냅니다. 군부 폭력 정권이 터뜨리는 최루탄이 승리의 폭죽이 되는 그날까지 부산지역 애국 애족 시민이 하나 되어 힘차게 힘차게 전진합니다.

가톨릭센터 농성에 대한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시민들은 모금은 물론, 물안경, 빵, 치약, 랩 등의 물품도 보내왔고, 경찰의 침탈로부터 농성자들을 지키기 위해 가톨릭센터로 모여들었다. 센터 앞에서는 농성자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범시민 시국토론회’가 연일 개최되었다.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어진 농성 기간 동안 부산에서의 시위는 이곳 가톨릭센터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명동성당 농성 해산 후 자칫 분산·약화될 수 있었던 시위 분위기를 재점화한 것으로 평가한다.

22일 농성 해산 결정은 농성단 내부의 치열한 토론과 표결을 거친 결과



부산가톨릭센터 옥상의 농성자들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였다. 가톨릭센터를 넘어 시위가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는 전술적 차원의 고민과 함께 부산에 위수령을 발동하고 계엄군을 투입하려 한다는 소문으로 분위기가 뒤숭숭했던 것도 한몫했다. 나중에 밝혀졌지만, 전두환은 이때 실제로 군 투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병력 출동 준비까지 마친 상태에서 내부 반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고, 그 주요 설득 논리 중 하나가 1년 뒤 개최될 서울올림픽이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아무튼 교구청의 주선으로 학생 대표와 부산 중부경찰서장 간의 면담이 성사되어 농성 해제와 안전한 귀가를 각각 약속하면서 부산가톨릭센터 농성 사태는 원만히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부산대·동아대의 학교 버스는 무사히 재학생 농성자들을 싣고 귀교한 반면, 교구청에서 제공한 부산 산업대(현재 경성대) 방면의 귀가 버스는 남부경찰서로 향하였다. 무장한 전경들에게 둘러싸인 상태에서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하차 요구를 거부하자, 경찰은 버스 유리창을 깨고 내부에 최루탄을 터트렸으며, 군홧발로 밟고 방패로 찌는 등 폭력을 가하였다. 이 사건으로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17명 전원이 부상을 입어 메리놀병원에 입원하였다. 항쟁의 막바지까지 방심할 수 없게 만드는 사건이었다.

2 산리에 올라 만난 금수현과 박기종



반갑고도 아쉬운 금수현 음악살롱

역사의 현장 부산가톨릭센터를 찾았다면, 마땅히 그 역사를 집대성한 부산민주공원에도 가 보아야 한다. 바다와 산의 도시답게 민주공원으로 가는 길은 시작부터 등산을 방불케 한다. 중구로를 따라 올라가다 편의점과 미용실 사이 중구로91번길로 빠지면 몇 걸음 안 가 부광교회를 만난다. 교회 앞에서 ‘카페, 대청 달보드레’를 끼고 오른쪽으로 길을 잡는다. ‘달보드레’가 ‘달달하고 부드럽다’는 의미라니... 모국어의 아름다움에 새삼 세종대왕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런데 달은 왜? 과거엔 이런 산동네 빈촌을 달동네라고 했는데, 거기서 유래한 것일까? 가게 주인은 그냥 ‘달달하다’에서 ‘달’을 가져왔을 뿐인데, 혼자 엉뚱한 상상의 나래를 편다. 국적 불명의 괴상한 아파트 이름들보다 우리네 서민들의 보금자리에 어울리는 따뜻한 이름이 아니냐며...

이런 엉뚱한 생각이라도 해보아야 무시무시한 ‘계단 지옥’의 고통을 잠시라도 잊지 않을까? 곧바로 좌측에 대청북길34번길과 33번길을 만나고, 직진하여 망양로332·331번길도 내쳐 오른다. 이마와 어깨를 맞댄 뽕뽕한 집들과 문패들. ‘국가유공자의 집’, ‘중구 토박이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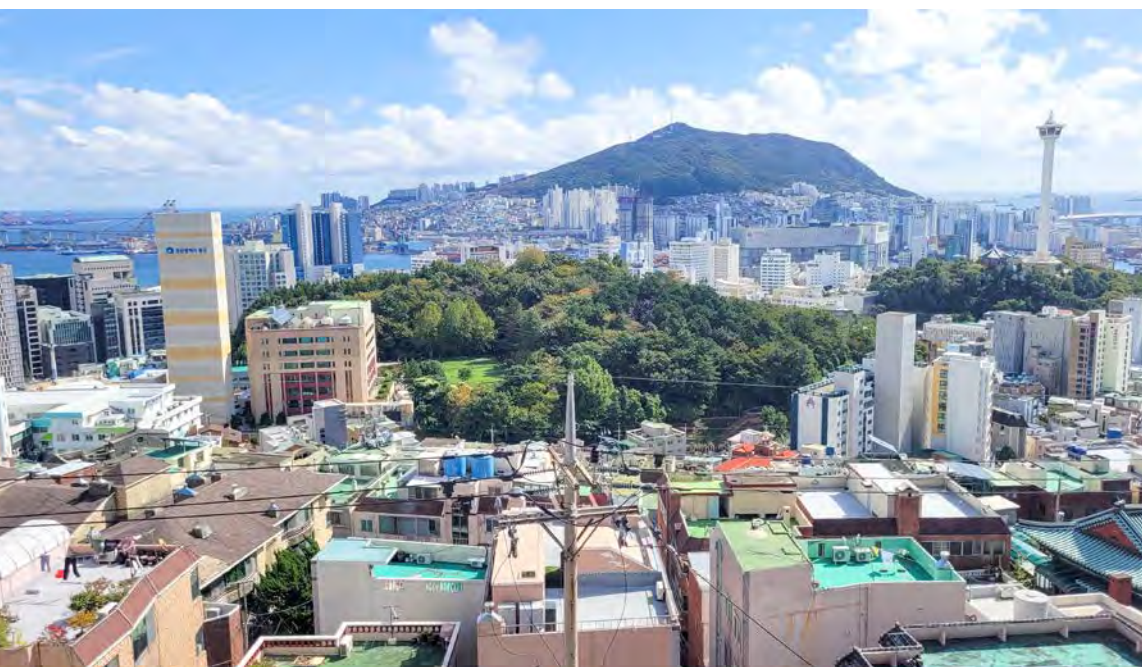
“우체부 아저씨, 여기는 ○○○번지입니다. △△△번지는 옆집입니다.”

“주인 할머니 아들 전화. 이곳으로 연락하세요.”

우체부 아저씨도 헛갈릴만한 비슷비슷한 집들과 골목의 홍수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극장가와 자갈치시장, 국제시장, 책방골목 등 한때 도심을 누볐던 학창 시절의 추억들이 골목 곳곳에 벽화들로 남았다. 그 주인공들은 이제 어느 도시의 아파트에서 저마다의 가정을 또 꾸렸을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는 한국전쟁과 피난민, 판자촌 시절까지 오랜 시간 힘겹게 보금



금수현 음악살롱 ■ 필자 촬영



대청스카이라인전망대에서 바라본 부산항 ■ 필자 촬영

자리를 지켜온 노인들이 아직 꽃을 키우고 텃밭도 가꾸고 있다.

가톨릭센터에서 출발한 지 17분 만에 망양로에 오르니 대청공영주차장 건물이 눈앞에 당당하다. 아랫집 옥상이 윗집 주차장이 되는 이런 산복도로 마을에는 꼭 필요한 시설이다. 거기다 이곳 ‘대청스카이라인전망대’에서 조망하는 부산항 경치도 기가 막힌다. 벌써 야경 명소로 입소문이 자자하다고.

전망대 맞은편에 뜻밖에도 ‘금수현 음악살롱’이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가 금수현이 한때 대청동에 살았는데, 그 집의 위치가 조금 전 지나온 서라벌맨션(대청북길33번길 4) 인근이라고 한다. 강서구 대저동 출생의 금수현은 1947년 경남도립 부산극장 지배인으로 발탁되면서 이곳으로 이사하였고, 1948년 사퇴 후 부산사범학교 교감이 되었다. 이후 경남여자중학교 교장 등을 역임하였다. 1992년 사망 후에는 음악의 대중화와 음악교육에 기여한 공로로 옥관문화훈장을 받았다.

금수현 음악살롱은 2층의 북카페와 1층의 커뮤니티 문화센터로 운영되

고 있다. 2층 북카페에 들어가 보니, 금수현의 장모인 소설가 김말봉의 시에 그가 곡을 붙인 대표곡 「그네」의 가사와 함께 작곡 당시의 일화가 게시되어 있다. 「국민가곡」 「그네」를 흥얼거리게 되는 반가움은 있지만, 북카페로서도 그의 생애를 보여주는 전시 공간으로서도 아쉬움이 크다. 건물 옆에는 ‘금수현 쉼터’라는 이름의 작은 공원도 있다.

산리에 오르니

망양로355번길을 따라 좌측 경사로로 올라간다. 어느 해의 작품인가? 살짝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는 벽화를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부산의 명소와 마크가 그려진 색색깔 화분에 민들레가 소복이 피었고, 방울토마토도 탐스럽다. 푸른 초원과 파란 하늘에 민들레 홀씨가 훑날리고, 흰 양과 멋진 뿔을 가진 사슴, 긴 목의 기린이 어우러져 행복한 웃음을 짓는다. 작품명은 「행복마을 산리」. 아마도 이쯤이 대청동과 영주동의 경계인가 보다.

영주동 산리마을은 일제강점기부터 부산 최대의 빈촌으로 유명했다. 인근 영주배수지 체육공원이 위치한 곳은 당시 부산 최고의 땅 부자 하자마 후사타로[迫間房太郎]가 소유한 산으로, 그 이름을 따 ‘박간산[迫間山]’이라 하였다. 1934년 『동아일보』는 박간산의 ‘박간별장’과 ‘얕곶은’ 대조를 이룬다고 하면서 영주정 산리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일부 현대어에 맞게 원문을 수정하였다.

부산의 왕자인 박간[迫間] 부호의 별장이 있는 소위 박간공원 밑에서 그 공원과 대면하고 있는 오불꼬불한 원시적 통행로를 가지고 층계층계 산밑에서 산상까지 벌어져 있는 천오백 개 호에 달하는 빈민굴의 외관은 실로 부산서 제일가는 박간씨의 별장과 피육적알

곳은 대조가 아니랄 수 없다. 산리라는 급설된 이 촌락은 십년 전만 해도 사람이 살지 않는 비탈진 산에 불과하였으나, 물밑듯이 모여드는 농촌 농민의 도시집중이라는 피할 수 없는 사실로 인해 건설되었다.

이 지점은 부산부의 최종양지대로, 연락선을 타고 부산항에 입항하는 손님들은 이 산리라는 조선식 양옥을 보지 않고는 지나가지 못한다. … 이 산리를 밤중에 전망한다면 한 도시의 찬란한 불빛이 반짝이는 것 같지만, 대명천지 밝은 날에는 보기에 험악한 토막과 바라크 집이 층계층계 요리조리 무질서하게 쌓여 있으니, 이곳이 조선 사람 빈민굴이라는 별명을 가진 산리다.

기자는 마을 총대를 만나 취재한다. 이에 따르면, 산리의 주민들은 대개 부산항에 출입하는 기선과 어선들의 하역을 돕고 그날그날의 양식을 구하는 자유노동자들로, 그 인구가 7천 명 내외라고 한다. 일정한 수입은 없고 일거리가 없으면 굶는 판이니, “산다는 것보다는 죽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소연한다. 같은 부민이면서도 산 아래 대로변의 자산가들과 달리 산리의 빈민들에 대한 행정은 도로나 위생 문제 등에 있어 방관 상태나 다름없다. 아동 교육 시설 역시 턱없이 부족하여 다음 세대에는 이곳을 벗어나리라는 희망도 없다. 흔히 산리를 포함한 산복도로 주변의 마을들이 한국전쟁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미 일제강점기에 등장하였고, 이후 피난민들에 의해 그 규모가 폭증한 것이다.

전후 경제성장기라고 해도 서민들의 삶이나 산리마을의 형편에 큰 변화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다 같이 어려웠기에 함께 울고 웃던 정겨운 이웃들이 있어 좋았다. 그나마도 이제 모두 떠나버리고, 빈 등지와 같은 마을에 노인들만 남았다. 아래의 시는 지금이라기보다 과거 마을공동체가 온존했



행복마을 산리(좌) 산리에 오르니(우) 필자 촬영



던 시절의 어느 한때를 노래한 것이 아닐까?

산리에 오르니 / 배가 부르네
만족이 넘치니 / 살림이 배부르고
이웃 간에 화목하니 / 마음이 배부르고
세상을 굽어보니 / 눈이 배부르고
꽃이 만발하니 / 향기에 배부르네
행복이 무럭무럭 / 배부른 산리 / 어여쁜 우리 동네 / 웃음꽃이 피네

최근 이러한 원도심의 쇠락을 손 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반성이 크게 일었다. 우리가 보았던 알록달록 화려한 벽화들도 이들 산복도로 마을들을 다시 따뜻한 삶터로 되살려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결과물이다. 금수현 음악살롱도, 또 망양로383번

안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만나는 북카페 ‘밀다원 시대詩帶’도 마찬가지다. 여타 재개발·재건축 방식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의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이 그 특징이라고 한다. 관에서 주도하여 거점시설을 마련해 주변 운영은 주민협의체에서 맡아서 하는 방식이다. 밀다원시대를 방문해 보면, 그 취지를 실감할 것이다. 이 카페는 한국전쟁기 문화예술인들의 사랑방이었고, 김동리의 소설 「밀다원시대」의 배경이 되었던 광복동 다방 밀다원을 충실히 재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척박한 임시수도에서도 한 가닥 숨 쉴 곳이 되어 주었고 희망을 잃지 않고 예술혼을 불태웠던 공간 밀다원에서처럼 인생 2막을 설계하는 시니어 ‘형님’과 ‘누나’들이 커피를 내리고 쿠키를 굽는다. 아직 한낮인데 삶이 피로하다면, 이곳에 들러 넓은 통창을 통해 산리의 벽화들과 변화무쌍한 부산항을 내려다보며 커피라도 마셔볼 일이다.

‘철도왕’ 박기종

밀다원시대에서 여정을 다시 시작한다면, 계단 길 어느 곳을 통해서는 망양로 큰길로 나오자. 이어서 경사로를 따라 조금만 내려가면 ‘박기종기념관’을 만난다. 개항기 부산 출신의 대표 경제인이자 철도, 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근대화를 위해 노력했던 선각자로 이름 높지만, 화려한 수식어에 비해 일반 독자들에게는 생소한 인물일 수도 있겠다.

박기종은 1839년 현재 부산 동구 좌천동의 한 무신 집안에서 출생하였다. 젊은 시절 일본 대마번 혹은 쓰시마번과와의 무역을 전담하던 8명의 상인 집단인 동래 팔상교(八商賈)에 드나들며 일본어와 상업을 배웠다. 조선 상인과 일본 상인들 사이에서 무역을 중개하던 그는 1869~1871년 동래 부 소통사하급 통역관으로 근무하였고, 능통한 일본어 덕분에 1876년과 1880

년 2차례 수신사 파견 때 통역관으로 일본을 방문하였다. 일본의 근대화 현장을 목격한 이 경험은 훗날 근대화 실천에 강한 추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이후 박기종은 부산지역의 치안과 무역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대 기업의 설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1886년 부산관찰관부산항 경찰관에 임명되었고, 1890년 기선 회사를 설립하여 낙동강 연안의 포구들을 왕래하였다. 그러나 풍랑에 기선이 좌초되는 등 경영 위기에 봉착하여, 1893년 오사가상산주식회사, 조선기선주식회사 등과 협동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본인에게 경영권을 넘겼다.

1895년에는 부산상무소훗날 동래상업회의소를 설립하여 초대 회두를 맡았으며, 학교 설립에도 눈을 돌려, 1896년 부산 최초의 신식 학교인 사립 개성학교를 설립하였다. 개성학교는 조선에서 세 번째로 문을 연 일본어 전문학교로, 이듬해 공립학교로 인가받아 학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나중에는 일본 외무성의 보조금도 받는 등 설립 동기에서 벗어나 일본이 조선에 진출하는 도구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1898년 외부 참서관에 임명되면서부터 박기종은 철도 건설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국가를 부강케 함은 상무가 제일이요, 상무를 흥왕케 함은 철도가 제일이다’라는 취지 아래 부하철도회사를 설립하였다. 그 첫 번째 목표는 부산항에서 하단포까지 화물 수송을 위한 경편 철도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당시 하단포는 낙동강 수운을 따라 경상도의 물산이 집결되는 장소였다. 옮긴 화물은 철도를 통해 부산항으로 옮겨 일본 등으로 수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자금 조달 실패와 일본의 경부선 부설 계획으로 인해 실현하지 못하였다.

1899년에는 대한국내철도용달회사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경원선과 함경선 부설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다. 또한 대한철도회사라는 이름으

로 만료된 프랑스 소유의 경의 철도 부설권도 따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막대한 자금 조달이 걸림돌이었다. 이에 일본으로부터 차관 도입을 시도하였고, 철도 부설권 획득을 노리던 일본은 박기종을 통해 이를 손아귀에 넣을 수 있었다.

1902년 박기종은 또한 삼랑진과 마산을 연결하는 삼마철도 건설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영남지선철도회사도 설립하였다. 이 회사는 처음부터 일본 자본을 끌어들였으며, 열차 운행도 회사 부채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일본이 담당하였다. 이렇게 박기종의 철도 부설 노력 역시 일본의 조선 진출에 길을 터 준 결과가 되고 말았다.

이상과 같이 박기종은 변방인 동래에서 태어나 유력한 가문의 배경도 없었지만, 현장 경험과 일본어 실력 등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자산을 활용하



1887년 박기종 ▮ 부산역사문화대전



박기종기념관 ■ 필자 촬영

여 자수성가하였다. 그에게 동래 출신이란 핸디캡이 아니라 성장의 사다리였던 것이다. 지방 확대와 인재 유출이 심각한 오늘날 지역 청년들이 되새겨볼 만한 지점이다.

근대화에 대한 그의 신념과 노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개성학교 설립이었던 영주동에 자리한 박기종기념관에도 ‘부산의 근대화를 대표하는 선각자’로 현창하는 내용들로 뻘뻘하다. 하지만 그가 관여한 모든 근대화 프로젝트들의 결말을 보면, 사실상 일본의 한국 침략에 도우미 역할을 한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어 어쩐지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박기종기념관에서는 이렇게 해명한다. “한평생 우리 자신의 힘으로 철도 건설을 희망했지만, 일본의 방해 공작 등으로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1907년 68세로 작고”하였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에게 엄격하지 못하고, 크건 작건 ‘우리’의 부정에 대해 짐짓 눈감거나 주위에 침묵을 강요하기도 한다. ‘우리 지역’의 ‘인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는 역사를 배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몇 해 전 방영되었던 인기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는 대한철도회사의 박기종이 실명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있었다. 이완용을 연상케 하는 극중 친일파 이완익과 함께 의병을 후원하는 선비 고사홍을 찾아가 그 저택이 경부선 철도 용지에 수용되었음을 통지하는 장면이다. 출연자의 대사를 통해 박기종이 경의 철도 부설권을 일본에 되돌려 주자는 청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도 놓치지 않았다. ‘타인’의 눈에는 박기종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기념관 근처에는 고령자가 많은 원도심의 거주자들이 계단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한 ‘영주동오름길모노레일’이 있다. 모노레일의 양측에는 영주동의 옛 사진과 함께 박기종의 활약상도 전시해 놓았다. 이 모노레일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현재까지 운영을 멈춘 상태다. 좌절된 ‘조선 철도왕’의 꿈처럼.

3 뜨거운 가슴으로 마주하는 민주공원



열사, 그 뜨거운 이름

박기종기념관에서 가까운 횡단보도를 건너 망양로355번길을 택한다. 계단 길을 오르니 ‘부산일보 구독신청소’ 안내판 맞은편으로 멀리 등산로 입구처럼 보이는 계단이 또 기다리는데, 여기도 망양로355번길이다. ‘구민체육공원’의 게이트볼장을 지나서 ‘숲속작은도서관’ 방향으로 걸어 도보 15분 만에 부산민주공원에 도착한다. 민주항쟁기념관을 향해 한 칸 한 칸 오르다 보면, 계단 옆 조명에 하나둘 불이 들어와 성화대에 점화하듯 기념관 옥상의 ‘뜻기림 햇불민주의햇불’이 환하게 타오를 것 같다.

초행이라면 민주항쟁기념관을 꼭 관람해 보기를 권한다. 오늘은 재방문 답사객을 상정하고 기념관 앞 ‘넋기림마당추념의장’에서 걸음을 멈춘다. 바로 옆의 ‘바깥놀이마당’에는 한 노년 악사의 즉흥 공연이 한창이다. 아코디언으로 「목포의 눈물」, 「짚레꽃」 등 흘러간 옛 가요를 연주하자, 유일한 청중인 한 노인이 박수인지 운동인지 모를 호응을 하며 한바탕 흥을 낸다. 조금 전 지나온 산리의 그 뽀뽀한 문패들에 적힌 노인들도 이곳에 올라와 바둑을 두고 담소를 나누며 서산의 지는 해를 볼 것이다. 혹은, 운 좋게도 이렇게 젊은 시절의 레퍼토리들을 공연으로 즐기고 있을지도... 문화 시설로부터 소외된 구도심의 이웃들에게 휴식처이자 어울림의 공간이

되고자 했던 민주공원의 당초 설립 취지와도 부합하는 한 장면이다. 길게 늘어뜨린 햇발처럼 마음이 따스해지는 초겨울 오후다.

넋기림마당은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열사들을 기리며 그 뜻을 아로새기는 추모의 공간이다. 인터넷 사전에서 찾아보니, ‘열사烈士’란 나라를 위하여 절의를 굳게 지키며 자신의 뜻을 죽음으로써 펼친 사람을 이르는 칭호라고 한다. 부산에는 1987년 6월항쟁 과정에서 열사가 된 3명의 ‘6월민주열사’가 있는데, 바로 박종철, 황보영국, 이태춘이 그들이다. 전두환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주의와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잇고자 6월항쟁 35주년인 2022년 넋기림마당 한 편에 추모의 벽 ‘늘빛드레’를 조성하였다. ‘늘빛드레’라는 순우리말 이름에는 ‘늘 빛나는 인격’이나 ‘늘 빛이 든다’는 중의적 의미가 있다고 한다. 이들의 얼굴이 새겨진 추모의 벽 위로 낮은 소나무가 푸르르고, 고향 부산의 산과 바다, 그리고 하늘이 시민들의 삶터와 어우러져 그대로 병풍이 되었다.



추모의 벽 ‘늘빛드레’ || 필자 촬영

'6월항쟁의 도화선' 박종철

열사들의 투쟁을 간략히 정리해 놓은 글을 읽어보니 그대로 6월항쟁의 전 과정이라 할 만하다. 항쟁의 주요 고비마다 부산이 지대한 역할을 했음을 이를 통해서도 실감한다. 먼저 앞서 언급한 고문 사망 사건으로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은 1965년 서구 아미동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박정기는 부산시 수도국의 말단 공무원이었다. 평생을 국가를 믿고 봉직하다 정년을 한 해 앞두고 있었는데, 국가는 그에게서 금쪽같은 막내아들을 빼앗아 갔다.

1979년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났을 때 박종철은 영남제일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시위 대열에 합류하여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최루탄 가스를 뒤집어쓰고 귀가한 바 있다. 이 경험은 그가 사회 모순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해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4년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 입학하여 비공개 서클 '대학문화연구회'에서 활동하면서 사회문제에 눈을 떴다. 이후 철거 반대 시위, 공장 활동, 농촌 활동 등을 통해 민중의 삶을 배우고 함께하고자 노력하였다. 1986년에는 언어학과 학생회장을 맡았으며, '청계피복노조 합법성 쟁취대회'에 참가하여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적도 있었다. 이때 그가 부모님께 보낸 편지를 보면,



해광고등학교의 박종철 추모비 ■ 필자 촬영

20대 초반의 대학생에 불과한 그가 얼마나 건강하고 단단한 사상의 소유자였는지 알 수 있다. 같은 해 7월 8일, 그가 숨지기 불과 6달 전이다.

아버지, 어머니.

저들이 비록 나의 신체는 구속을 시켰지만, 나의 사상과 신념은 결코 구속시키지 못합니다. 저를 포함한 수많은 노동자, 학생들이 구속되어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구속시켰습니까. 저들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저들 편한 대로만 만들어 놓은 이 땅의 부당한 사회구조를 미워합니다.

엄마 아버지의 막내아들은 결코 나약한 인간이 아닙니다.

노동자 항보영국의 마지막 기도

항보영국은 광주와 부산, 5·18과 6월항쟁을 잇는 열사다. 1961년 부산진구 당감동에서 출생하였고, 1977년 성지공업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울산 현대중공업과 부산의 삼화고무, 태화고무 등에서 근무하였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그는 부암제일교회를 다니면서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에 눈 뜨기 시작하였다.

1987년 2월 7일 박종철의 추도대회에 참여했던 항보영국은 연행되어 1주일간 영도경찰서 유치장에서 구류를 살기도 했다. 이때 TV에 박종철에 관한 뉴스 대신 김만철 가족의 월남 소식이 연일 보도되자, '국민적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군부 파쇼 정권과 어용 언론에 목숨을 걸고 항의하겠다'고 하면서 허리띠로 올라미를 만들어 자결하려 하였다. 함께 구금되어 있던 이가 '죽지 말고 살아서 싸우자'고 설득하자, "조국이 민주화되는 데 필요하다면 언제 어



서면 씨지공원의 '황보영국 열사
오월결상'(부산진구 부전동 517-5) 1 필자 촬영

디서라도 제물이 되어 목숨을 바치겠다”고 다짐하였을 정도로 의협심이 강한 청년이었다.

5월 17일 오후 황보영국은 서면 부산상고현재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앞에서 온몸에 석유를 끼얹고 불을 붙인 후, “독재 타도”, “광주학살 책임 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 “호헌책동 저지하고 민주헌법 쟁취하자”를 계속 외치면서 백여 미터를 달리다 쓰러졌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절규하며 혼절한 그는 병상에서도 신

음처럼 ‘독재 타도’를 외치다가 1주일 만인 25일 새벽 끝내 운명하였다. 향년 26세 청년 노동자의 의로운 죽음은 경찰의 협박으로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고, 언론에 보도도 되지 않았다.

영원한 '넥타이부대' 이태춘

끝으로, 이태춘은 6월항쟁이 절정으로 치닫던 시기 퇴근 후 항쟁에 참여하였던 ‘넥타이부대’의 일원이었다. 1960년 거창군 마리면에서 2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1970년 부산진구 범천4동(신암)으로 이주하였다. 가난한 형편에도 이태춘의 교육을 위해 대도시로 왔다고 할 정도로 그는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1986년 동아대학교 무역학과를 졸

업하고 주식회사 화승에 다니다가, 1987년 3월부터 태광고무 무역부에서 사무직 노동자로 근무하였다.

1979년 대학 1학년 때 부마민주항쟁을 겪었지만, 재학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그저 “공부 열심히 해서 고생한 부모님 편히 모시고 누나 시집보내는 게 소원”이었다. 그러나 TV 뉴스에서 대학생들의 과격한 데모를 보고 나무라는 어머니에게 “데모는 똑똑하고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 있으니깐 고치자는 것이지 나라 망치자는 것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지지하고 있었다. 6월항쟁이 시작되자 퇴근 후 매일 같이 시위에 참여하여 최루탄 가루를 뒤집어쓴 채 집에 오곤 했다.

1987년 6월 18일은 호헌반대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선포한 ‘최루탄 추방의 날’이었다. 이즈음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시위는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있었지만, 부산에서는 오히려 그 열기가 최고조에 달하였다. 이날 서면교차로부터 부산진시장까지 약 30만 명이 집결하였는데, 항쟁 기간 동안 최대 규모의 인파였다.

밤 10시경 서면 시위대는 촛불을 손에 들고 부산역으로 향하기 위해 범일동을 행진하고 있었다. 범일동에는 부산일보사와 KBS 방송국, 동부경찰서가 밀집해 있어 경찰이 반드시 방어해야 할 지역이었다. 경찰은 자성고가교(일명 ‘오버브릿지’. 현재 자성대교차로 부근)를 통과하려는 시위대를 막아섰고, 도로와 고가교에 뺨뺨이 들어찬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난사하였다.

이날 이태춘은 고가교 위에 있었다. 강렬한 최루가스 속에서 숨을 쉬기 위해 본능적으로 난간 밖으로 몸을 숙였고, 아래로 추락하였다. 시민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6월 24일 저녁 봉생병원에서 사망하였다. 그의 장례는 생전에 다니던 범일성당에서 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치러졌다. 이후 2002년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의 「6월민주항쟁도」 동아대학교 민주동문화, 부산민주공원

시대가 영웅을 만들고 열사를 낳는다고 하였던가! 간혹 우리는 일상에서 미담의 주인공을 만나고, 때로는 위기의 순간에 나타난 의인을 TV 뉴스로 본다. 이들만 우리 시대의 영웅이 아니다. 열사가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세상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이제 추모의 벽 옆에 조성된 ‘민주의 이름’으로 발길을 옮겨 우리의 다짐을 전하는 짧은 묵념의 시간이라도 갖자. 벽면에는 6월항쟁의 주요 장면들이 새겨져 있으니, 긴 항쟁 과정에서 언제 촬영된 어떤 사연의 사진들인지 알아보는 것도 유익하겠다.

6월민주열사들을 기억하기 위한 장소는 이곳 민주공원 외에도 부산에서 몇 군데 더 있다. 해광고등학교의 박종철 추모비, 5·18기념재단이 서면쌈지공원에 설치한 ‘황보영국 열사 오월걸상’, 이태춘이 등장하는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의 벽화 「6월민주항쟁도」 등이 그러하다. 지면의 한계로 상세히 소개할 수는 없으나, 각자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좋겠다.

시민의 뜻을 모아 세운 위령탑

민주공원을 내려와 맞은 편 중앙공원으로 향하기 전 한군데 더 들러야 할 곳이 있다. 1960년 이승만 독재정권을 몰아내었던 4·19혁명의 정신을 기리는 ‘4월 민주혁명 희생자 위령탑’이다. 본래 용두산공원에 있던 것을

2007년 6월항쟁 20주년을 맞아 민주공원에 4·19 광장을 조성하면서 이전하였다. 이때 영령봉안소도 건립하여 4·19 당시 부산에서의 희생자 19명, 이후 돌아가신 21명의 영정사진을 함께 모시고 있다.

해방 이후 이승만의 호를 따서 ‘우남공원’으로 불렸던 용두산공원에 4·19 1주기인 1961년 위령탑을 세운 것은 이승만 정권에 저항하다 돌아가신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자 한 의도였다. 위령비에도 희생자 19명의 이름을 새겼다. 당시 국제신문 주관하에 부산 시민의 성금을 모아 조성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4·19라는 숫자를 형상화했으며, 아래의 배 모양은 부산을 상징한다.



4월 민주혁명 희생자 위령탑 || 필자 촬영

4 원도심을 발아래, 중앙공원



이름도 볼거리도 노인도 많다

민주공원과 중앙공원은 인접해 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중앙공원 내에 민주공원이 있다. 민주공원의 4·19 광장을 출발하여 중앙공원의 조각공원까지 도보 2~3분이고, 충혼탑 입구까지 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또 한 편에 부산광복기념관도 있어, 중앙공원은 항일과 호국, 민주화의 역사가 한 곳에 어우러져 있는 보기 드문 공간이다. 인근의 중앙도서관까지 더하면 원도심 일대를 고루 내다볼 수 있는 전망에 이보다 멋진 휴식처가 따로 없다. 그래서 공원 곳곳에 어르신들이 나와 운동을 하거나 바둑 삼매경이다.

구봉산 자락에 위치한 중앙공원 일대는 과거 한국전쟁 시기 전국에서 피난민들이 몰려들어 판자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1970년 이들을 정리하고 시민 휴식처로 만들기 위해 대청공원이라 하였고, 1983년 공원 조성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대신공원을 편입하여, 1986년 다시 중앙공원으로 개칭하였다. 대청공원이 익숙한 이들도 더러 있겠지만 이제 중앙공원이란 이름은 대체로 자리 잡은 듯하다. 반면, 구 대신공원은 40년 가까이 지난 아직까지도 중앙공원이라 부르기에는 낯설기만 하다.

중앙공원의 조각공원에는 필자와 같은 비전문가가 보기에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미술품들과 함께 몇 가지 언급해야 할 역사적 인물의 흔적도

있다. 먼저, 행로의 순서대로 ‘독립투사 최천택 선생 기념비’이다. 최천택 1896~1962은 동구 좌천동에서 태어난 독립운동가로, 건국훈장 애족장 2003을 받았다. 1912년 부산공립상업학교 2학년 때 박재혁 등과 『동국역사』를 돌려 읽으며 민족의식을 키웠고, 이듬해 비밀결사 구세단을 조직하기도 하였다. 1920년 박재혁의 부산경찰서 폭파 사건에 관여하였고, 일제강점기 언론운동과 청년운동, 신간회 운동부산지회장 등에 앞장섰다. 해방 후에도 장건상 등과 함께 혁신계로 활동하며 이승만 독재정권에 저항하였으나, 5·16 쿠데타로 구금되었다 풀려난 후 사망하였다. 기념비는 2009년 건립되었다.

인근에 동상이 서 있는 장건상 1882~1974 선생의 생애도 비슷하다. 1882년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태어나, 1883년 현재의 동구 좌천동으로 이사하였고, 육영재에서 신학문을 배웠다. 일본과 미국 유학 후, 1916년 중국 상하이에서 동제사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이후 김원봉의 의열단·민족혁명당과 노선을 함께 하였고, 1942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학무부장 등을 지냈다. 해방 후에는 여운형 노선을 지지하면서 조선인민당과 근로인민당을 이끌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자 혁신당을 조직하여 통일 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역시 5·16으로 구속되어 5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특사로 풀려났다. 1986년 건국훈장 대통령장 2등급에 추서되었는데, 부산·경남 지역 출신 수훈자 중 최고 등급으로, 동급은 선생을 포함하여 3명뿐이다. 이곳 중앙공원에 ‘소해 장건상 선생상’이 건립된 것은 1991년이다.

두 사람은 소년 시절부터 만년까지 해방과 반독재 민주화, 통일 운동 등 한평생 민족을 위한 삶으로 일관하였으나, 반공이데올로기로 오랫동안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왜곡된 근현대사의 비극을 여기서도 목격한다.

조각공원의 끄트머리에서는 멋진 서예 작품도 감상할 수 있다. 현대 서

예계의 거목이자 예서체의 달인, 청남 오제봉^{1908~1991}을 기리기 위해 청남목연회와 청남문화재단이 1991년 건립한 ‘오제봉 서력비’이다. 그는 경북 김천 출신이지만, 부산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면서 제자를 양성하고 서예를 보급하였다. 그 결과 부산에 서예 문화의 씨앗을 뿌리고 꽃을 피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비에 적힌 글귀는 ‘무한서유락 평생오불염無限書遊樂 平生吾不厭’으로, ‘한없는 글에서 노닐던 즐거움, 평생토록 내 싫어하지 않았다네’라는 뜻이다. 오제봉의 서예 인생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였다고 한다.



① 독립투사 최천택 선생 기념비
② 소해 장건상 선생상
③ 오제봉 서력비
|| 필자 촬영

높고 당당한 충혼탑

중앙공원의 상징은 역시 시내 어디에서나 보일 만큼 웅장한 자태로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 있는 충혼탑이다. 가까이서 보면 그 모습이 더욱 위압적이다. 그러나 호국의 영령들이 도시의 골목골목까지 지켜보며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도리어 든든하기도 하다. 자꾸 보면 정든다는 것과 같은 이치일까? 충혼탑을 설계한 한국의 대표 건축가 김중업도 “항도의 상징이며 항시 험준했던 남쪽 바다를 지켜주기에 부족함이 없으리라”라고 하였는데, 이로써 부산 시민의 삶터를 지켜줄 상징적 공간을 구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부산지역 최초의 충혼탑은 1957년 6월 용두산공원에 건립되었다. 충혼탑과 충혼비 두 개의 조형물로 되어 있었는데, 1980년대 들어 충혼탑의 규모가 작고,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전이 추진되었다. 이에 1983년 이곳 중앙공원에 현재의 충혼탑을 새롭게 준공하고, 종전까지 합사하고 있던 경남 출신 영령들은 창원으로 이전하게 된 것이다.

충혼탑 관람과 참배를 위해서는 지그재그로 된 계단을 운동 삼아 걸어 올라가도 되고, 계단 왼쪽에 설치된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이용해도 된다. 곳곳에 ‘6·25의 참상’ 등 ‘추억 돌는’ 익숙한 반공교육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충혼탑은 약 400㎡ 원형의 인공 연못 위에, 9개의 벽체가 원형으로 기둥을 형성하고 있는 수직형인데, 그 높이가 70m[탑신부 39m, 상륜부 31m]에 이른다. 탑신 아래에는 위패를 모신 반구형의 영령실이 있고, 그 앞에 육·해·공군과 경찰관 및 전몰 용사를 형상화한 군상 조각이 있다. 충혼탑의 이러한 위압감과 비장감은 건너편에 마주하고 있는 민주항쟁기념관의 수평적 조형미와 매우 대조적이다. 시원한 전망과는 달리 우리 사회의 ‘자유’와 ‘민주’를 대표하는 양 기관의 소통 부재를 보는 듯해 답답한 마음도 감출 수 없다.



충혼탑 ॥ 필자 촬영



충혼탑에서 바라본 민주공원과 중앙공원 ॥ 필자 촬영

5 구봉산, 엄광산을 거쳐 동아대로



산중에도 역사의 현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산행에 나설 시간이 되었다. 충혼탑 입구에서 대신동 방향으로 중앙공원로를 따라 200m 정도 내려오면, ‘숲도랑길’이라는 아치형 문이 보이는데, 이곳이 구봉산 등산로 입구다. 중간중간 갈림길이 나오면, ‘구 대신공원’, ‘구봉산 봉수대’ 등의 이정표를 따라 걷는다. 산행을 시작한 지 정확히 6분 만에 등받이 의자에 누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편백 숲쉼터가 나왔다.

다시 자갈길 언덕을 걸어 올라가 ‘꽃동산 체육공원’에 도착한다. 어지럽게 엇갈린 이정표들 가운데, 역시 ‘구봉산 봉수대’를 따라간다. 이곳이 서구와 동구의 갈림길인가 보다. 이후 한동안은 등산화를 갖추지 않았다면 후회를 할 만한 험로다. 돌계단과 비탈길을 마구 헤쳐 가다 보면, 헬기장이 보이고, 인근이 바로 구봉산 봉수대^{404.6m}다. 충혼탑 입구에서부터 쉽 없이 걸었다고 치면, 약 35분 만이다.

봉수는 횃불과 연기를 이용하여 외적의 침범 등 나라의 위급한 소식을 전하던 조선시대의 통신 제도이다. 국경과 해안가 등 최전방의 상황이 5개의 주요 봉수 선로를 따라 한양까지 보고되는데, 구봉산 봉수대는 낙동강 하구 일대와 몰운대 앞바다를 감시하는 다대포진 응봉 봉수대에서 올린



구봉산 봉수대 모형 ■ 필자 촬영

신호를 받아 황령산 봉수대로 연결하였다. 원래 천마산에 석성 봉수대가 그 역할을 했으나, 초량왜관과 가까운 탓에 군사 정보가 노출될 것을 염려하여 1725년 구봉산에 봉수대를 새롭게 설치한 것이다.

구봉산 봉수대의 정확한 모습은 알 수 없다. 그래서 2002년 인근 봉수대와 비슷한 형태의 축소 모형을 설치해 놓은 상태이다. 봉수대답게 드넓게 펼쳐진 부산항 일대를 조망하는 맛은 장쾌하다. 다만 등산객의 볼거리와 교육적 효과를 위해 봉수대도 실물 크기로 복원한다면 금상첨화겠다.



구봉산 봉수대의 전망대 ■ 필자 촬영

봉수대 뒤편으로 흙길과 나무 난간 길의 갈림길이 나온다. 흙길로 가면 구봉산과 엄광산 정상으로 향하고, 후자는 안창마을로 통한다고 되어 있지만, 둘은 얼마 후 체육공원에서 합류한다. 따라서 어디를 택해도 상관없다.

고백하자면, 필자는 구봉산과 엄광산을 차례로 넘는 이 산행을 처음에는 동네 뒷산 산책 정도로 생각했다. 그래서 초겨울 해 질 녘에 등산을 시작해도 1~2시간 정도 어둑해지는 산길을 따라 내려오면 될 줄 알았다. ‘도심의 불빛 때문에 미끄러질 염려는 없지 않을까?’ 이런 망상을 하면서. 그러나 해가 떨어지고 12월의 칙흑 같은 어둠을 맞닥뜨리고서야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 이듬해 봄 다시 이곳을 찾았을 때 흙길과 나무 길 모두를 걸어보았는데, 10분 남짓의 짧은 시간이지만 청초한 새소리와 짙은 풀내음에 마치 지리산 어느 골짜기를 걷고 있는 듯 아득했다. 마침 평화를 깨트리는 저 선거 방송 소리만 아니었다면.

체육공원에 도착하면 부산 북항 도등이나 화장실이 있는 곳으로 가자. 벤치와 돌계단이 보이는 북쪽으로 산행을 이어가면 다시 15분 만에 구봉산 정상석을 만날 수 있다. 산의 형상이 거북이처럼 엮여 있다 하여 구봉산이라 했다던가! 행정구역상으로는 동구 초량동에 속하고, 구봉산 상봉 431m이다.

엄광산은 구봉산의 북서쪽에 있다. 구봉산 정상석에서 10분 정도 산길을 걸으니 야트막한 언덕에 조성된 헬기장이 있는데, 그 북단의 바위에 올라서면 전망이 일품이다. 이른바 ‘산불초소 전망대’다. 그러나 우리는 엄광산으로 가야 하므로, 경치를 감상했다면 헬기장으로 다시 돌아와 언덕 앞에서 좌회전을 해야 한다. 초행은 무심코 지나치기 쉽지만, 자세히 보면 이정표도 있고 산악회 리본도 여러 개 달려 있다.

능선을 타고 엄광산을 향하는 길은 두 번의 거친 바위길 오르막을 올라야 할 만큼 만만치 않다. 돌탑과 삼각점이 있는 엄광산 동봉에 이르면, 영도



구봉산 정상석 || 필자 촬영

와 광안대교가 어우러진 부산항 일대는 물론, 진구와 사상구, 북구, 강서구, 그리고 김해평야 일대까지 한눈에 조망되는 장관이 펼쳐진다. 여기서 땀도 식힐 겸 잠깐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엄광산 정상까지는 이제 약 10분 정도 남았는데, 길도 평탄하고 경치가 이곳만 못하기 때문이다. 김밥이나 간식을 들며 보다 편안한 휴식을 취하길 원한다면 정자가 설치되어 있는 정상 쪽이 낫다.

엄광산은 금정산맥의 말단부 능선 위에 솟아 있는 산으로, 남서쪽으로는 구덕산과 승학산과 연결된다. 해발 고도는 504m이다. 『동래부지』¹⁷⁴⁰ 산천 조에 의하면, ‘엄광산은 부府 남방 30리에 있으며, 위에 구봉이 있고 아래에 두모진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 산 이름을 확인할 수 있지만, 명칭의 유래는 전하지 않는다. 일제강점기에는 정상에서 일본의 쓰시



엄광산 정상석 || 필자 촬영

마 섬까지 바라볼 수 있다고 하여 ‘고원견산高遠見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1995년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우리 지명을 되찾는다는 의미에서 엄광산으로 되돌렸다.

하산은 서대신동의 내원정사 쪽으로 방향을 잡아본다. 정상 근처는 다소 밧 딛기가 조심스럽지만, 이내 편안한 산길이 나온다. 내려오다 보면 잘 가꾸어진 편백숲을 만나는데, 내원정사 방향으로 빠지는 이정표에 유의해야 한다. 그대로 직진하면 구덕꽃마을에 닿기 때문이다. 하긴, 그곳에서 내원정사가 지척이기 때문에 약간의 발품만 들 뿐 큰 문제는 없다.

내원정사는 조계종 사찰이다. 1973년에 창건하였다고 하니 전통 사찰치고는 그 역사가 매우 짧은 편이다. 그러나 사찰 운영의 현대적 시스템과 불교유치원이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산하 단체인 사회복지법인 내원을 설립

하여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신흥의 대찰이다. 내원정사의 주 불전인 대적광전 내부에는 주불인 비로자나불상 대신 1967년 중국에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가 봉안된 5층 목탑이 구성되어 있으며, 3면 벽에 장엄한 목각 탱화를 조성해 놓았다. 내원정사 소장 『묘법연화경』이 2000년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자산 제45호로 지정되었다.

내원정사 옆 ‘숲썬로드’로 내려가면 중앙공원구 대신공원에 닿는다. 이곳은 1902년 일본인들에 의해 구덕수원지로 조성된 곳으로, 1968년 폐쇄되면서 공원화되었다. 개항 후 일본인들은 보수천 물을 대나무 관으로 끌어와 사용하였는데, 거류민 증가에 따른 물 부족과 위생 문제 때문에 근대적 상수도 시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일본인들은 이곳에 4개의 여과지와 2개의 배수지를 시설하여 주로 일본인 거류지와 일본 병영 등에 급수하였



내원정사 ■ 필자 촬영



중앙공원(구 대신공원) ■ 필자 촬영

다. 한국인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문명의 이기였다. 큰길을 따라 내려오다가 구덕민속예술관에서 계곡 반대쪽으로 건너가면 구덕수원지의 흔적인 제1저수지를 볼 수 있다. 산책로는 오늘의 마지막 코스인 동아대학교 구덕캠퍼스까지 이어진다.

부마민주항쟁의 또 다른 주역, 동아대학교

구봉산과 엄광산 자락의 격동의 근현대사를 돌아보면서 부산이 역사의 주역이 된 부마민주항쟁을 빼놓을 수 없다. 마침 오늘 여정의 마침표에 동아대학교 구덕캠퍼스가 있어 동아대의 활약상을 중심으로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동아대는 4·19와 한일회담 반대운동 등 1960년대 학생운동에

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였고, 1987년에는 학원 민주화 투쟁의 열기가 6월 항쟁으로 이어져 열정적으로 참여하였다.

1979년 10월 17일 항쟁 2일 차는 말 그대로 동아대의 날이었다. 16일 부산대에서 교내 시위가 있었고, 시내로까지 확산되어 시민항쟁으로 발전한 것은 동아대 학생들에게도 큰 자극을 주었다. 이날 동아대 학생들은 오전 10시부터 도서관 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였는데 리더가 선동하거나 구호를 외치는 양상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면서 다른 학생들의 동참을 요구하는 침묵시위에 가까웠다.

본격적으로 시위가 시작된 것은 오전 10시경 교련 수업을 받던 법정계열 학생들이 운동장을 돌면서 ‘유신철폐’, ‘독재타도’ 구호를 외치면서부터였다. 이에 도서관 앞에서 연좌시위를 하던 학생들이 합류하여 교문으로 향하였으나, 11시 20분경 경찰이 가스차를 앞세워 학교에 진입함으로써 학생들은 흩어졌다. 이후 학교 측과 학도호국단 학생 간부가 경찰에 철수를 요구함으로써 사태는 마무리되는 듯했다.

오후 1시 30분경 정치외교학과·행정학과·법학과 2학년 학생들의 교련 시간에 앞서 한 학생이 단상에 올라가 유신반대와 수업 거부를 선동하자, 120명의 학생들이 스크럼을 짜고 운동장을 돌기 시작했다. 속속 학생들이 합류하여 캠퍼스를 일주하게 되자, 시위대는 천 명, 천오백 명으로 불어났다. 경찰은 2시경 기동대를 투입하여 이를 진압하였다. 이후 학생 일부가 학교 뒤 구봉산·엄광산으로 달아나 각기 남포동으로 향하는 가운데, 경찰의 감시를 받으며 3~4명씩 교문을 빠져나온 학생들 사이에서도 6시 남포동에서 만난다는 소문이 번졌다. 이들 동아대 학생들에 의해 17일 시내의 야간 시위는 16일보다 더욱 과격한 양상을 띠었다.

이상과 같이 부마민주항쟁의 무대였던 동아대 구덕캠퍼스는 현재 의과대학만 남아 병원으로 변신 중이다. 항쟁 당시의 건물들은 하나둘 사라지



동아대학교 구덕캠퍼스 ■ 필자 촬영

고 있고, 최근에는 계엄포고령과 휴학 공지를 학생들이 읽고 있는 사진 속의 옛 교문마저 철거되었다. 그러나 연좌시위를 진행하였던 도서관 앞 ‘석당 정재환 동상’과 잔디밭은 옛모습을 지키고 있다. 모든 것을 과거 그대로 붙잡아 둘 수는 없겠으나, 아쉬운 마음이 크다.



수정산, 왜관을 관장하던 수정(水亭)에서 발원하다

수정산이 위치한 동구 수정동 일대에는
과거 두모포왜관이 있었다.
왜관을 관장하던 곳이기 때문에
바다를 살피는 '수정(水亭)'이 필요했고,
수정동과 수정산이란 지명도 여기서 유래하였다.
두모포왜관의 70년 역사는
이후에도 수정산 일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4-3 안창마을



수정산 정상



4-2 수정동 목장성



4-1 경부철도 용지 표시석



1-3 두모진해관비



1-2 고관공원터
(동구청 입구)



2-1 부산진 매축기념비



부산진역

2-2 부산진 지역 매축지비



1-1 두모포왜관비



3-1 문화공감수정



3-3 수정배수지



3-2 망양로



수정산, 왜관을 관장하던 수정(水亭)에서 발원하다

수정산은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에 있는 산이다. 해발 고도 316m에 남서쪽으로 엄광산, 남쪽으로는 구봉산을 접하고 있다. 또 부산진구와 경계를 이뤄 북서쪽 하산길에는 동의대학교와 만난다. 산 정상의 남동쪽에서는 부산항이 한눈에 내려다보여, 부산항의 전망대 역할을 한다.

수정산의 ‘수정’은 어떤 의미일까? 부산에서 ‘수정’이라는 지명을 찾으면, 두 곳이 있다. 동구의 ‘수정동’과 북구 화명동의 ‘수정마을’이다. 한자로는 전자를 ‘水晶’으로, 후자는 ‘水亭’으로 각각 표기한다. 한자 때문에 동구의 수정동은 맑은 샘이 솟아나는 곳, 혹은 수정이 많이 나오는 곳이란 지명의 유래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근래의 연구에 의하면, 동구와 북구 모두 본래 지명은 ‘水亭’으로, 후대에 동구 쪽의 한자가 바뀌었다

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水亭’이었을까? 현재의 수정동은 과거 두모포 지역으로, 조선 후기에 용두산 주위로 이전 하기 전 왜관이 있던 곳이다. 그래서 용두산의 ‘신관新館’에 빗대어 두모포왜관을 ‘구관舊館’, 혹은 ‘고관古館’이라 하였다. 왜관을 관장하던 곳이기 때문에 바다를 살피는 곳인 ‘水亭’이 필요했으리라. 여기에서 수정동이란 지명이 기원하였고, 수정산이란 이름도 생겨났을 것이다.

왜관과의 짧은 인연은 신관으로의 이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개항 후 일본인들은 부산항의 초량왜관 터를 개항장으로 얻어내자, 수정동의 고관 일대를 그들의 옛 땅으로 인식하였다. 또 좁은 부산항을 벗어나 교외로 확장할 수 있는 길목으로 부산진 일대를 지목하고, 해안 매축과 함께 철도 시설을 밀어 넣었다. 일제시기 내내 이어진 부산진 매축은 고향을 등진 조선인 노동자들을 불러들였고, 평지의 알짜배기 땅들은 일본인 자본가들에게 모두 내준 채 수정산 경사면에 보금자리를 마련하면서 판자촌이 점점 높아져 갔다. 수정산 일대의 판자촌은 한국전쟁기 피란민들에 의해 정점을 찍었고, 산업화 시기에는 ‘최후의 오지’ 안창마을까지 파고들었다. 이상과 같이 수정산 자락 역사의 첫 페이지에는 두모포왜관이 있다.

이름은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水亭’의 내력은 잊고 수정동과 수정산을 ‘水晶’으로만 부르다 보면, 이미 매립되어 사라진 두모포와 왜관의 기억마저 지워질 것이므로. 나아가 고지대까지 뻗어 올린 살림집의 사연들도 왜관에서부터 이어지는 역사적 맥락을 모른다면 그저 남 보기 부끄러운 속살 정도로 치부되고 말 것이다. 이제 수정동이 ‘水亭’이던 시절 고관의 흔적들을 찾아보고, 또 수정산을 올라가 보자.

1 두모포왜관

70년 고관의 역사가 여기에



너무 소박한 두모포왜관비

수정산을 찾아가는 길은 지하철 1호선 부산진역에서 하차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약속 시간을 지켜주는 지하철은 물론 편리하지만, 경로 주변의 경관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가뜰이나 나 같은 눈썰미 없는 이에게는 두더지 굴에 다름아니다. 몇십 분의 미로 여행을 끝내고 빛을 찾아 1번 출구로 나왔을 때, 낯선 환경에 잠깐 어리둥절함을 피할 수 없다. 급히 핸드폰에 지도를 검색해 보고서야 내가 선 곳이 '고관 입구 교차로'라는 것을 알았다.

1번 출구 좌측에 그려진 횡단보도를 따라 중앙대로349번길을 건넌다. 그리고 저 멀리 위용을 자랑하는 임진왜란의 영웅 '다대점사 윤홍신 장군상' 쪽으로 걷다 보면,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 두모포왜관비에 닿는다. 행로의 정면에 있어 쉽게 찾을 수 있지만, 행인들이 눈여겨 볼 것 같지는 않다. 방형의 대리석 축대와 비신으로 구성된 단순한 외형인데, 두모포왜관의 간략한 내력을 해설하고 있다.

왜관은 조선의 교린 정책의 일환으로 탄생하였다. 건국 후 조선 정부는 왜구의 노략질에 대해 무력으로 대처하는 한편, 부산포와 제포(내이포, 현재 진해)에 이어 염포(현재 울산)를 차례로 개항하여 교역에 종사케 하면

서 '교린' 하였다. 이들 삼포에는 많은 왜인들이 거주하면서 일본인 마을이 형성되었고, 사신을 접대하고 무역을 하는 등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도 등장하였다. 이것이 바로 왜관의 유래이다.

두모포왜관은 조선 후기의 왜관이다.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 일본과의 국교를 회복하면서 부산진성 인근에 있었던 부산포왜관을 부활시키지 않고, 절영도현재 영도에 임시 왜관을 열었다. 그 임시 왜관이 협소하고 불편하다는 일본 측 요구로 1607년 장소를 옮긴 것이 두모포왜관이다.

당시 두모포왜관의 규모는 동서 126보, 남북 64보로 약 1만 평에 달하였다 한다. 감시와 통제를 위해 좌우와 후면에는 담장이, 전면의 바닷가에는 목책이 각각 설치되어 있었다. 문은 동쪽의 '수문' 1개뿐이며, 그 바깥의 하천 '좌자천' 혹은 '좌천'에서 매일 아침 왜관 사람들이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장이 섰다. 내부는 사신을 응접하는 연향청을 중심으로 동관과 서관의 2채가 있었다. 이곳에는 책임자 관수를 비롯한 500여 명의 일본인들이 상주하고 있었다.

이후 양국 관계가 안정되자 왜관에 체류자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임시가옥이 크게 느는 등 부지 문제가 대두되었다. 결국, 일본 측의 요구에 따라 1678년 용두산에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여 이전하였는데, 이곳을 초량왜관이라고 하였다. 이에 두모포왜관이 '구관', 혹은 '고관'으로 불리게 된 것은 앞서 밝힌 바와 같다. 현재의 고관이라는 지명도 물론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두모포왜관비 || 필자 촬영



두모포 일대를 묘사한 「두모진지도」(1872). 신관으로 이전한 후 왜총비, 구왜선창 등 고관(이상 파란색 원)의 흔적이 남아있고, 멀리 수정산(붉은색 원)도 보인다.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1872년 제작된 「두모진지도」는 왜관을 옮긴 후 200년이 지난 시점에 두모포 일대를 그린 것이다. 고관의 모습은 이미 사라졌으나 곳곳에서 그 흔적이 확인된다. 두모진의 뒤로는 ‘수정산’과 ‘구봉수龜烽燧’가 병풍처럼 둘러져 있고, 동쪽으로는 왜관 경계로 삼았다는 ‘좌자천’이 바다로 흘러든다. 또 해안 방파제에 ‘구왜선창舊倭船艙’이라 표기하여 이곳이 고관 터임을 알 수 있다. 뒷산의 ‘왜총비倭塚碑’는 왜관 시절 조성된 일본인들의 무덤인데, 초량왜관으로 이전한 이후에도 그 후손들이 백중날이나 세시 일에 성묘를 왔다. 이는 동래부사가 일본인에게 허가하는 유일한 공식적 왜관 밖 나들이였다.

17세기 초 약 70년간 이곳 두모포는 조선 내 유일한 대일 외교의 현장

이었다. 두모포에서 왜관에 필요한 기구와 제도가 정비되었고, 이후 초량왜관 조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전쟁으로 단절되었던 조일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이 중대한 역사의 현장을 보여주기에는 여기 두모포왜관비가 너무 작고 초라하지 않은지? 타사적지와 통일성을 기하여 일괄 제작된 양식이라 해도 아쉬운 마음은 어쩔 수 없다.

일본인들이 두모포왜관을 기억하는 공간, 고관공원 터

헛헛함을 달래려 두모포왜관의 흔적들을 찾아 나선다. 짧은 횡단보도를 건너면 고관의 새로운 상징이라 할만한 유명 맛집 ‘고관함박’이 기다린다. 학창 시절 접했던 지역사 관련 책들에는 두모포왜관의 흔적으로 ‘고관약국’을 언급했던 기억이 나는데, 위치로 보나 화제성으로 보나 완벽한 세대교체다. 차량의 진행 방향으로 ‘고관해물탕’, ‘고관맨션’, ‘고관로’ … 고관의 흔적들이 즐비하다. 그러나 나는 이들의 행렬을 뒤로하고 지하철역 사잇길 수정로 쪽으로 방향을 잡아본다.

멀리 수정산의 능선을 보며 수정로를 따라 두 블록만 가면 고관로와의 교차점 오거리를 만난다. 이어서 구청로 방향으로 몇 걸음 올라가니 동구국민체육문화센터와 동구청 입구에 닿는다. 이 언덕에 일제강점기 부산을 대표하는 3대 공원 중 하나였던 고관공원이 있었다. 이곳을 포함하여 수정전통시장 일대를 흔히 두모포왜관 터라고 하니, 나는 방금 17세기의 치열한 조일 외교 현장을 걸어온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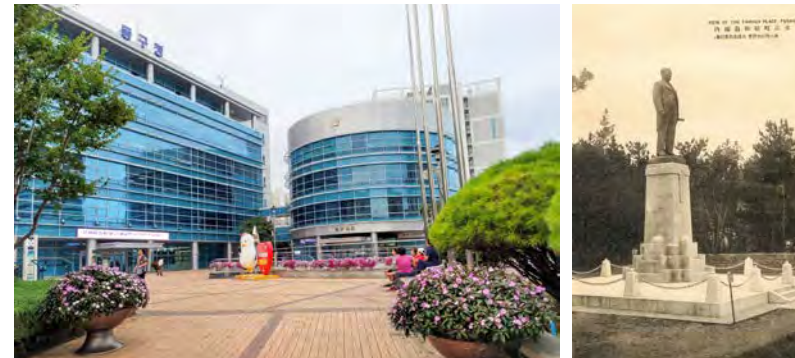
두모포왜관 당시 가장 중대하였던 외교 현안은 왜관 이전 문제였다. 이곳은 사실 지형적으로 바다와 맞닿아 있어 태풍에 취약하고, 왜관 건물이 외부 도로보다 낮아 내부가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였다. 장기 체재자가 늘



두모포왜관의 흔적들. 옛 두모포왜관에서 유래한 '고관'이라는 상호를 쉽게 볼 수 있다.
좌로부터 고관함박, 고관해물탕. Ⅱ 필자 촬영

면서 왜관이 좁다는 불평도 끊이지 않았다. 1640년 처음 왜관 이전 문제가 제기된 이래 30년 이상 이어진 양국 간 줄다리기는 결국, 1672년 교섭을 위해 동래에 왔던 쓰에 효고[津江兵庫]가 급사하면서 타결 방향으로 급물살을 탔고, 이듬해 초량왜관에의 이전이 결정되었다. 두모포에 묻힌 쓰에는 일본인들에게 '왜관의 영웅'이 되었다.

1876년 개항과 함께 초량왜관 일대를 거류지로 얻어낸 일본인들은 두모포왜관 터를 자신들의 '고토古土'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기억을 만들고 전승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개항 후 3년 만인 1879년 고관 언덕에 쓰에 효고의 초혼비를 세우고 매년 제를 올렸으며, 1914년에는 이 토지를 부산부에 기부하여 공원화하였다. '고관공원'으로 명명한 것도 이즈음으로 추측된다. 1928년 부산의 대재벌 오이케 츠스케[大池忠助]의 토지 기부와 함께 그의 동상이 건립되었다. 이후 고관공원은 오이케의 이름을 따 '대지공원'이라 하거나 '소화공원'이라 불리었다. 한때 일본인들로부터 '부산 개척의 공로자'로 칭송받았던 이들에 대한 기억의 장소들은, 해방 후 한국인들에 의해 파괴되었고 이제는 공원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고관공원 터(좌)와 오이케 동상(우).
Ⅱ 좌 필자 촬영, 우 한국저작권위원회(공유마당)·부경근대사료연구소

'대지공원'이라는 이름은 한동안 사용되었다 한다.

또 다른 개항과 재연된 갈등, 두모진해관비

개항 과정에서 두모포에서의 진통은 1876년 조일수호조규[일명 강화도조약]에서도 재연되었다. 그러나 17세기에 있었던 양국 사이의 갈등과 가장 큰 차이점은 두 나라의 입장이 서로 달라졌다는 것이다. 부산항 개항으로 일본인들은 초량왜관 담장을 넘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스러웠겠지만, 조선인들은 일본인들의 안하무인적 행패와 각종 이권 침탈에 분개하였다. 당시 부산 주재 일본 영사가 "관외 각지는 요즘 인심이 심히 나빠져 일본인이 통행하는 것만 보아도 투쟁을 하려는 정세"라고 외무성에 보고하였을 정도였다. 이에 개항 후 양국 간 갈등이 다시 한번 두모포에서 폭발하였다.

강화도조약은 일본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를 보장하였으므로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일본은 많은 상품을 싣고 와 조선에 저렴하게 팔면서 큰



두모진해관비(좌)와 두모포왜관 터 안내판(우) ■ 필자 촬영

폭리를 취했고, 조선산 곡식을 닥치는 대로 사들였다. 뒤늦게 무관세 무역의 부당성과 관세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조선 정부는 1878년 9월 두모포 수군 만호영에 해관을 설치하고, 일본 상인이 아닌 동래의 조선 상인들에게 수입세를 징수하기 시작하였다. 일본 상인들에게 관세를 징수하는 것은 강화도조약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이 조치가 자신들에게 관세를 매기는 행위와 다름없다며 수입세 징수를 폐지하라고 항의하였다. 조선 측에서 이를 거부하자 무기를 소지한 채 동래로 난입하여 폭력시위를 벌였는데, 관아의 기물을 파손하거나 심지어 민가에 행패를 부리기도 하였다. 이에 격분한 조선인들이 기와 조각과 돌을 던지며 대항하여 일본인들 몇몇이 부상을 입었다. 일본은 이를 구실로 군대와 군함까지 동원하여 압박하니, 결국 두모진해관은 개관 3개월 만인 12월 폐지되고 말았다.

이상 '두모진해관 수세 사건'의 현장 두모진해관 터는 고관공원 터에서도보 6분 거리의 인근이다. 잠시 걸음을 멈추었던 동구청 입구의 동구보훈회관에서 출발해 보자. 구청로를 따라 동구 국민체육문예센터와 동구청

건물 사이의 고개를 넘으면, 수정반점 앞 사거리를 만난다. 동구청을 끼고 우측 수정동로로 방향을 틀어서 수정초등학교까지 건노라니, 어디서나 흔히 볼법한 학교 앞 문방구 가게가 있는 골목 풍경이다. 수정초등학교에 도착하면 운동장에 들러 오늘의 최종 목적지 수정산의 원경이라도 한번 보아두는 것이 좋다. 아직은 산길 초입에도 들어서지 못하고 동네 어귀를 맴돌고 있지만.

학교 정문 맞은 편의 고층 건물이 부산진세무서다. 정문 오른쪽에 '우리나라 최초의 세관 터, 1878년 두모진해관'이라는 내용의 비가 보이는 데, 부산세관 개청 130주년을 맞아 2013년 옛 두모진해관 터에 표지석을 세웠다는 건립 취지가 써 있다. 수세 사건 이후 1883년 5월 조선해관을 창설하고, 그해 11월 부산해관도 설치되었으니, 현재의 세관은 여기에 뿌리를 둔 것이다. 비 뒷면에는 수세 사건의 전말을 간략히 정리한 두모진해관의 역사도 기록되어 있어 읽어볼 만하다.

두모포왜관과 두모진이 있던 이곳 수정산 자락의 한적한 바닷가 수정동 일대에도 이제 근대의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하였다. 수정동의 근대를 걷기 위해서는 다시 지하철역 방향으로 이동해야 한다. 세무서 앞 큰 도로 진성로만 따라 걸어도 상관없지만, 이곳이 두모포왜관 터였음을 알리는 안내판을 따라 수정전통시장의 활기도 느껴보자. 수정산 등산을 대비하여 김밥과 물을 사두는 것도 현명하다.

2 두 개의 부산진 매축비



풀지 못한 수수께끼, 부산진 매축 기념비

수정동을 포함하는 동구 일대의 근대는 ‘매축’이라는 단어를 빼놓고 말할 수 없다. 매축이란 바닷가나 강가를 메워 물으로 만드는 작업을 말하는데, 근대도시 부산은 사실 매축으로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용두산 일대의 초량왜관 터는 애초부터 일본인 거주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설계된 공간이므로, 1876년 개항으로 그 담장을 허물었다고 해도 그들이 꿈꾸는 ‘대륙으로의 현관’이 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 무엇보다도 늘어나는 인구와 교역량을 감당할 만한 땅과 교통로, 항만 등이 필요했다. 일본인들이 해안 매축에 열을 올리게 되면서 부산진도 그 대상이 되었다. 특히 부산진과 영주동을 가로막고 있던 영선산 착평공사(1909~1912)를 계기로 부산진 방면으로의 도시 확장에 장애물이 사라져, 부산진 매축은 도시의 미래와 이권 확대를 위한 선결 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부산진 매축에 관한 당대의 유물을 찾자면, 우선 부산동부경찰서로 가야 한다. 지하철 1호선 부산진역 7번 출구에서 직진하여 한 블록만 지나면 되고, 부산진세무서에서도 도보 5분 거리다. 동부경찰서 정문 우측 모서리에 있는 화강암 비석인데, 부산진 매축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인 1939년 4월 건립된 것이다.



부산진매축기념비 ■ 필자 촬영

비석을 직접 본다면, 제법 그 규모가 크다고 느낄 것이다. 아래와 좌우에 여러 겹의 지대석과 기단을 입체적으로 배치하여 장방형의 비신을 돋보이게 하였다. 전면에 ‘부산진 매축 기념비’(이하 기념비)라고 새긴 것은 제7대 조선 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의 글씨다. 지대석과 맞닿은 바닥에는 초량동·수정동·좌천동·범일동 등 동구 일대의 지형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부산진 매축 이전과 현재의 지도를 함께 그려 놓았다. 비 뒷면에는 부산진 매축의 개요를 기록했는데, 우리말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부산진은 대륙의 관문으로써 해항의 매축이 실로 핵심적 급무이다. 이에 조선기업주식회사가 1912년 9월 10일 설립되어, 익년 3월 13일 비로소 공사에 착수하였다. 그 이래로 공업功業을 누적하여 온전히 예정대로 계획을 달성하고 공사를 마쳤고, 아울러 40여만 평

의 준성을 보았다. 매축지는 철도와 국도, 경찰 관서, 창고 및 여러 회사 등 요역(要域)이 되어 군사·공무·산업·문화를 위해 공헌하는 바 넓고 크다. 국가에 봉사한다는 충심으로 영리를 떠나 온갖 어려움을 헤치고 관계자 일동이 협심·협력하여 현저한 업적을 거두고 회사를 해산함은 1937년 4월 23일이다. 이로써 사력을 써서 돌에 새겨 이를 영원히 전하여 변치 않도록 남기고자 한다.

비문은 다분히 일본의 관점으로 서술되었는데, 심지어 공사 내용까지도 왜곡하고 있다. 부산진 매축은 대한제국 때부터 구상했던 일로, 1902~1903년 고종 황제는 매축권을 인가하면서 2년 내 착공하지 않거나 외국인에게 양도하면 특허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후 한국인 소유의 매축권이 점차 일본인들에게 양도되었고, 몇 단계를 거쳐 1908년 무렵에는 스기야마 시게마루(杉山茂丸)가 부산진 매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통감부라는 강력한 정치적 배후가 있었던 덕분이었다. 스기야마는 곧바로 매축 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여러 차례 연기 신청을 하다가, 1912년 일본 나고야 지역의 자본가들이 조직한 조선기업주식회사에 매축권을 다시 넘기게 된다.

조선기업회사는 부산진 일대 해안 약 40만 평을 총 3기로 나누어 1922년까지 매축 완료하기로 계획하고 1913년 공사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초량 앞바다에서 영가대 근처까지를 대상으로 한 1기 공사부터 차질을 빚어, 1915년의 준공 예정일을 훌쩍 넘겨 연장을 거듭하더니, 1922년에서야 종료하였다. 그리고 2기와 3기 공사는 시행도 하지 않은 채 포기해 버렸고, 1923년 회사를 해산하였다. 철도 용지로 수익이 보장되었던 1기와 달리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2~3기 공사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공사 기간 중 조선방직회사가 들어서자, 그 와중에

도 돈이 될 만한 영가대 앞은 본래 2기 공사 구역이었던 것을 1기로 변경하면서까지 추가로 매축하였다. 그들에게 부산진 매축공사란 ‘아사리판의 뭉치돈’, 그 이상은 아니었다.

어쨌든 조선기업회사의 1기 공사 결과 탄생한 약 14만 평의 매축지는 대부분 철도국에 판매되었고, 1920년 고관정차장이 문을 열었다. 그리고 기존의 초량역과 부산진역을 폐쇄하고 고관정차장을 부산진정차장으로 개칭하였으니, 바로 20년 전까지 여객 업무를 보았던 부산진역이다. 기념비에서 뒤돌아보면 중앙대로는 펼쳐져 있고, 건너편 남쪽 대각선 방향으로 구 부산진역사현재 동구문화플랫폼이 보인다. 모두 1기 공사의 결과물이다.

조선기업주식회사가 손을 떼고 남은 부산진 일대의 매축은 고베 자본가를 중심으로 한 부산진매축회사가 맡았다. 부산진 매축이 재개되었던 1926년은 부산 개항 50주년으로, 기공식에 조선 총독이 직접 참석했을 만큼 일본인들에게는 의미 깊은 해이고 공사였다. ‘대부산 건설’을 내걸고 야심 차게 시작된 2기 공사의 진행 과정은 현재 상세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역시 공사가 지연되다가 이듬해 1927년 착공하였고, 1938년에서야 마무리되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공사를 주도한 일본인 자본가들 간 파벌과 이권 다툼 등으로 그 진행이 원만하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범일동 자성대 일대를 매축한 이 공사의 결과물 중 하나가 일제 말 군마와 군수물자를 수용하던 병참기지를 거쳐 해방 후 귀환동포와 피난민들의 안식처가 된 매축지마을이다. 그리고 서면과 부산진 일대가 이후 부산의 주요 공업지대로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기념비는 이토록 의미심장한 부산 지역사의 한 페이지를 어째서 왜곡하고 있는가? 이권을 향한 이진투구를 그들의 국가에 대한 ‘봉사’와 ‘충심’으로 포장한 것은 그러려니 할 수 있다. 그러나 2기 공사를 시행한 부산진매축회사는 숨기고 1기의 조선기

업회사가 모든 공정을 주도한 것처럼 서술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의문이 생긴다.

이 기념비와 관련하여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은 유물을 대하는 성숙한 태도이다. 기념비는 해방 직후 일제의 상징물들이 철저히 응징당할 때도 용케 살아남아 동부경찰서 앞을 지키고 있었으나, 1982년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사건이 발생했을 때 흥분한 시민들에 의해 파손되고 말았다. 앞면의 조선 총독 이름을 비롯하여 뒷면의 비문이 모두 마모되었고, 동부경찰서 내 화단으로 옮겨 담장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현재의 형태로 복원된 것은 불과 몇 년 전으로, 이때 설치한 지대석은 기단이나 비신에 비해 세월의 때를 적게 탄 모습이 확연하다. 우측 철망 속에 가득 담긴 돌덩이들은 기념비에 쏟아진 분노를 차곡차곡 눌러 담은 것일까? 우리의 분노도 이제 이와 같을 필요가 있다. 부끄러운 역사도 역사이고, 유적과 유물은 보존되어야 한다.



부산진 지역 매축지비 ■ 필자 촬영

위치도 내용도 애매한 부산진 지역 매축지비

부산진 매축 사실을 기록한 또 하나의 비가 있다. 동부경찰서에서 중앙대로를 따라 지하철 부산진역 방향으로 되돌아가면, 도보 8분 만에 다시 고관 입구 교차로에 도착한다. 이제는 익숙한 두모포왜관비를 등지고 서면, 짧은 횡단보도 건너 잔디밭 한쪽에 화강암 재질의 부산진 지역 매축지비 이하 매축지비가 있다.

비의 위치는 한마디로 애매하다. 이쪽과 저쪽을 오가며 편하게 비문을 읽을 수 있도록 도로를 사이에 두고 두 비를 서로 마주 보게끔 설치하였을 것인데, 근래에는 대기오염 측정소가 매축지비의 전면에 자리하고 있어 접근성이 더욱 떨어지게 되었다.

비문에는 부산진 매축 공사의 개요가 새겨져 있다. 즉, 1913년과 1926년 두 차례에 걸쳐 부산진매축주식회사가 고관, 부산진, 범일동, 문현동, 우암, 적기에 이르는 도로 우측 해안 쪽을 매축하여 시가지를 조성하였다는 것이다. 그 면적은 1938년까지 1,505,882㎡(약 455,529평)에 이른다고 한다. 뒷면을 보니 1983년 2월 부산직할시에서 설치한 것인데, 묘하게도 2기 공사의 내용을 강조하면서 이를 맡은 부산진매축회사에 관한 이야기만 기록한 것이 흥미롭다. 앞의 부산진 매축 기념비와 나란히, 혹은 정반대로 부산진 매축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오류를 저지른 셈이다.

이 매축지비는 일본인들이 만든 기념비에 대한 대응으로 그것이 생략한

절반의 사실만을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일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건립 당시 부산진 매축에 관한 정보가 다소 부족하였던 까닭으로 짐작된다.

같은 시기, 비슷한 유형의 매축지비가 중앙동의 새마당 매축지와 대교동의 영도 대포포 매축지비에서도 보이는 만큼 부산시가 일괄 제작하면서 부산진 매축의 상세한 사연을 이 비에 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땅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설치한 비에 조선인 민초들의 사연을 행간으로도 읽을 수 없는 ‘공무원 풍’의 건조한 문구는 아쉬울 따름이다.

이 지역 조선인들 역시 일본인들의 매축과 개발 논리에 동의하고 흔쾌히 동참했을까? 앞서 언급했듯 부산진 매축은 일본 제국과 조선총독부, 일본인들의 도시 부산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된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이 거대한 ‘노다지’에 일본인 건설업자 등 경제인들이 부나방처럼 달려들었다. 물론 바다가 땅이 되는 압도적 경관은 많은 조선인을 주눅 들게 하고 문화화예의 기대에 들뜨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작 부산진 지역의 주민들은 철저히 소외되었다.

부산진 매축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1915년 고관 지역의 어민들이 총독에게 진정서를 보냈다. 이들은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겨우 먹고 사는 와중에 갑작스럽게 시작된 매축 공사로 인해 기업은 점차 부자가 되는 반면, 어민들은 실업해 사망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그러나 진정서를 접수한 경남도장관과 총독부에서는 매축이 우선이기 때문에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식민지 개발이라는 ‘대의’ 앞에 민초들의 삶이란 애초부터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3 적산에서 휴식의 공간으로



일제시기 고급 주택의 모델, 수정동 일본식 가옥(문화공감 수정)

드디어 고관 입구 교차로를 벗어나 수정산을 향해 걷는다. ‘고관’ 간판의 행렬을 헤치고 중앙대로349번길을 따라 걷다 보면, 파리바게뜨 앞에서 고관로와 홍곡로가 교차하는 사거리를 만난다. 눈을 크게 뜨고 편의점 앞 가로등에 달려 있는 ‘부산 수정동 일본식 가옥’ 알림판을 따라 홍곡로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언덕을 오르는 듯한 약간의 경사. 이제부터는 하산까지 경사길만 이어지므로, 수정산 등산은 사실 지금부터 시작이다.

한 블록의 등산 후 멋진 외관의 일본식 가옥을 만난다. 고관 입구에서 도보 8분, 가까운 거리지만 경사 때문에 살짝 땀이 날 정도의 가벼운 운동량이다. 대문을 올라가기 전 화단에 설치된 안내판을 읽어보니, 건립 연도는 일제 말기인 1943년이다. 해방 후 민간에 불하되면서 일부 개량과 증축이 진행되었으나, 2007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증축 부분의 철거와 복원 후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한다. 과거에는 이를 적국인 일본(인)이 남기고 간 재산이라 하여 ‘적산가옥’이라 흔히 불렀으나, 요즘에는 이런 감정적 표현보다 ‘일본식 가옥’이라는 객관적 용어로 지칭한다.

대문을 들어서니 목조 2층 일본식 가옥의 풍채가 당당하다. 오른쪽 콘크리트 건물이 어색하고 답답한데, 조금 전 읽어보았던 안내판에 따르면,



수정동 일본식 가옥 ■ 필자 촬영



‘정란각’이라는 이름의 음식점이 되어 1970년대 증축한 것이라고 한다. 석등과 함께 멋진 조경수를 자랑하는 정원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가 본다.

좁고 긴 복도와 밖이 훤히 내다보이는 유리문 등 실내에도 일본식 가옥 특유의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가득하다. 도서관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1층은 일부 온돌방으로 개조되었다고 한다. 가파른 계단을 통해 2층에 올라가면, 여러 장의 다다미와 장지문으로 분할되어 있지만 탁 트인 개방감이 느껴지는 히로마[廣間]가 나온다. 안쪽에는 족자나 칼, 도자기 등을 진열하는 도코노마[床の間]까지 있어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았던 일본식 가옥 그대로다. 이제는 많이 사라진 일제시기 부산 지역 일본인들의 고급 주택을 거의 완벽한 형태로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유산으로서 높은 가치가 있다. 이에 2010년 문화재청이 부지를 매입하여, 2012년부터 문화유산국민신탁이 관리하면서 ‘문화공감 수정’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2층에는 일본식 가옥에 대한 충실한 해설과 함께 동구의 역사도 옛 사진들을 곁들여 전시하고 있으므로, 수정산 일대 답사에도 유용하다. 한때

일본식 가옥을 일제의 잔재라며 일소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뮤직비디오나 영화 촬영 장소로 활용되는 등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나면서 토·일요일은 물론 평일에도 관람객이 끊이지 않는다. 곳곳에 평상복 이외의 의상을 반입하지 말라는 촬영 지침이 붙어있는데, 기모노 차림은 물론 한복도 과거 고급 요리점이었던 전력 때문에 몇 차례 문제가 되기도 했다. 무릇 과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한 법이다.

망양로 노스텔지어

「문화공감수정」을 나와서 왼쪽 수정외솔로로 방향을 틀었다가, 수정외솔로7번길 앞에 선다. 눈 앞에 펼쳐진 압도적 ‘계단 지옥’의 경관 앞에 그대로 지하철역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그러나 오늘은 수정산을 찾아가는 길이니 이 ‘계단 지옥’도 수정산의 일부임을 기억하자.

이 길을 따라 직진하면 홍곡중로를 만나고, 다시 그대로 직진하면 망양로6-82번길을 지나 망양로에 오른다. 도보로 10분 거리다. 물론 보다 완만하고 큰길을 검색해서 우회할 수도 있지만, 길게 위로 뻗은 계단을 걸어서 망양로에 올라야만 수정동 근현대사를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을 것 같다.

매축만큼이나 부산의 역사를 상징하는 단어는 산복도로일 것이다. 산지가 많고 평지가 좁은 부산의 특성상 일자리를 찾아 부산진 매축 공사 현장에 들어온 외지의 노동자들은 인근 수정산의 경사면에 무허가 판자집을 짓고 정착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일제시기부터 형성된 수정동 판자촌은 해방 후 귀환동포와 한국전쟁 피란민들에 의해 고지대로 확대되었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 시기에는 고향을 떠나 부산진 일대 공장에 취업한 노동자들의 안식처가 되었다. 이들 산동네를 연결하는 첫 산복도로가 바로 수정동을 관통하여 부산진구와 서구를 잇는 망양로였다.



산복도로 주택가 계단과 부산항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 필자 촬영

수구초심(首丘初心)이라 했던가? 어린 시절 산복도로 주택가의 골목골목을 누비던 출향인들의 귀향기를 가끔 블로그 같은 곳에서 본다. 그들의 기억 속 수정동에는 아랫동네의 철도관사와 함께 윗동네의 공동수도, 정다운 친구와 이웃들, 그리고 망양로를 내달리던 마이크로버스가 생생하다. 산복도로 곳곳을 누비며 산 아래 시장, 부두 등을 오가던 이 버스는 산동네 사람들에게 든든한 발이자 생계 수단이였다. 수십 년 만에 옛 동네를 찾은 이들은 바뀐 환경과 희미해진 기억 탓에 학교와 친구네 집을 오가던 샛길 찾기를 포기하기도 하고, 의외로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정든 옛집을 발견하고는 감격한다. 심지어 부친의 성명이 적힌 문패가 그대로 걸려 있는 놀라운 광경까지 목격한다.

주민들에게는 일상인 이 계단 길을 누군가는 그리움을 안고 오르지만, 나는 그 시절 삶의 무게를 체감이라도 하듯 허우적허우적 내디딘다. 어느



1960년대 후반 망양로 수정동 일대 ▮ 부산광역시 동구청

덧 ‘대양(大洋)을 바라보는’ 망양로(望洋路)에 도달했다. 땀을 씻으며 돌아보았더니, 기대했던 망망대해의 조망은 아니다. 고층 아파트와 타워크레인이 뿔뿔이 꽃힌 사이사이로 푸른 바다와 수평선이 보일락말락 한 것이 마치 치열한 우리네 삶터 같다. 산복도로 위에도, 아래에도, 그리고 그 곁의 바닷가에도 도시 부산은 살아 꿈틀댄다.

집집마다 근대 문명을 전했던 수정배수지

망양로 좌측으로 잘 가꾸어진 잔디밭이 내려다보인다. 세월의 때가 묻은 돌계단이 아니었다면, 동네 체육공원으로 착각할 뻔했다. 망양로를 따라 내려가 보니, 입구에 ‘수정이바구길’ 안내판이 서 있다. 전문 연구자도 알지 못했던 지역 근현대사 관련 기록이 제법 상세하다.



수정배수지 ■ 필자 촬영



1960년대 고지대 급수 광경 ■ 부산광역시 동구청

이곳은 수정배수지로, 일제시기 건립된 상수도 배수지이다. 배수지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물 저장소를 말한다. 개항 후 일본인 이주민과 타향에서 온 조선인 노동자로 인해 시가지가 확대되고 인구가 크게 늘자,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립한 시설이다. 범어사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받아서 수정동 등 동구와 원도심 지역으로 급수하였는데, 그 양은 약 4만 5,000명분이었다고 한다. 1928년 착공하여 1931년 준공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의 산동네 급수 광경을 보면, 문명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세대는 일부에 그쳤을 것이다. 현재는 배수로 기능은 하지 않고 공급을 조절하는 조절지의 역할만 하고 있다고 한다. ‘수정산 배수지’라고도 불리는데, 정식 명칭은 수정1배수지이다. 배수지 주위에는 동구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산책로와 정자, 체육시설 등이 조성되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4 수정산을 오르내리며



수정산에 철도 용지라니... 경부철도 용지 표시석

다시 망양로로 올라와 배수지 맞은편 묘심사에서 망양로685번길로 빠지자. 수정공원상로20번길 끝까지 계단을 오르면 백련정사를 만난다. 수정배수지에 오르는 길 못지않은 ‘계단 지옥’이지만, 보다 널찍하고 정비된 느낌이다. 한숨 돌린 다음, 좌회전하여 돌담을 따라 수정공원상로를 천천히 걷노라면, 언덕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하나 보인다. 철문이 굳게 닫혀 있어 개인 별장이나 과수원인가 싶어 올라가 보았더니, ‘수정2배수지’이다. 앞의 수정배수지가 1배수지인 이유를 알겠다.

잠시 후 구봉산 치유의 숲길 입구에 닿는다. 묘심사에서 도보 14분 거리다. 드디어 본격적 등산의 시작인가? 평소의 운동량을 생각해 보면, 산이 반가운 건 참으로 아이러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지향하는 치유의 숲 답게 초입부터 편백 나무가 발산하는 피톤치드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다. 발물놀이장, 맨발 황톳길 등 놀이와 운동, 치유를 겸한 시설들도 알차다. 더운 여름날 나무 난간 길 곁에 설치된 평상에 드러누워 낮잠을 청한다면, 이보다 완벽한 극락이 있을까?

숲을 걷다가 이정표가 나오면, 치유숲길1코스, 수정산 임도, 청조약수터 방향으로 걷는다. 입구에서부터 30분 정도 걸어 올라가다 보면, 나무 난간



구봉산 치유의 숲길과 경부철도 용지 표시석 | 필자 촬영

길 오른쪽에 ‘경부철도 용지 표시석’이라고 적힌 알림판을 발견하게 된다. 구봉산과 수정산 사이인 이곳에서 ‘경부철도용지京釜鐵道用地’라는 글자가 새겨진 화강암 표시석 4기가 최근 발견되어 현재는 부산근현대역사관에서 보관·전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1898~1901년 사이 이 일대가 경부선 철도 예정지로 선정되어 표시석을 설치했으나, 실행되지 못하는 바람에 비석만 남게 되었다는 사연이다. 수정동이 한국 철도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목장성과 정상석

나무 난간 길을 마저 올라가면, 수정산 임도를 만난다. ‘숲속 치유 마당’ 입구에 설치된 이정표를 따라 우회전하여 안창마을 쪽으로 걸어가자. 평지에 서너 명은 함께 걸어도 좋을 듯한 자갈길과 시멘트 포장길이 이어진다. 편백 숲 옆을 한동안 걷다 보면, 숲속이라고 믿기 힘든 대규모 놀이터가 나온다. 수정산 가족체육공원의 야외 어린이 놀이시설 ‘수정산꿈자람터’인데, 생태·모험·에너지 놀이터를 테마로 그네와 미끄럼틀에서부터 집라인까지 즐길 거리가 다양하다. 부산항대교가 보이는 시원한 전망은 어린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멋진 데이트 코스가 될 것 같다. 다만 개장한 지 얼마 안 되어 아직 찾는 이가 많지는 않다. 앞으로 산림욕과 놀이 시설, 바다 전망을 한 번에 체험할 수 있는 부산의 명소로 발돋움하길 바란다.



수정동 목장성 | 필자 촬영



수정동 목장성이 표기된 '목장지도' 동래부(1663) | 부산대학교 도서관

곧이어 복잡한 이정표가 등장하지만, 수정산 정상 방향을 선택한다. 거친 오르막 등산로가 간간이 있어도 이내 평탄해져서 초심자도 아무런 준비 없이 도전할 수 있는 난이도 하의 산책 수준이다. 필자는 샌들 차림으로도 큰 어려움이 없었다.

견기 지루해질 무렵 역사 탐방에 걸맞게 멀리서 보아도 심상치 않은 야트막한 석성이 보인다. 수정동 목장성이라고 하는데, 조선시대 때 현재의 동구·서구·사하구 일대에 있었던 오해야항 목장의 외성이다. 영도에 목장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익숙하지만, 이곳도 목장이었다는 사실은 다소 생소하다. 「목장지도」가 그려진 1663년은 두모포왜관 시절이었고, 외성은 왜관에서부터 시작하여 오해야항 목장의 북쪽을 막고 있다. 현재 수정동 부산동여자중학교 뒤쪽에서부터 가야, 개금에 걸쳐 1.7km 정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관 측 외성의 일부를 본 것이다.

헬기장인 듯한 편편한 장소를 지나, 그 구석에 봉수대처럼 생긴 거대한 돌탑이 있다. 쌓아 올린 돌의 크기는 제각각이어도 견고한 만듬새를 보니, 등산객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으로 조성된 것 같지는 않다. 다시 걸음을 재촉하니, 드디어 수정산315m이라고 새겨져 있는 정상석에 닿았다. 경부



수정산 정상석 | 필자 촬영

철도 용지 표시석 알림판에서 이곳까지 약 30분 정도 걸렸다.

정상에 서니 발아래 동의대학교가 있어 계속 들리던 타구 소리의 출처가 효민야구장이었음을 알았다. 눈앞에 백양산이 펼쳐져 있고, 수정산터널에서 백양터널까지 고가도로가 시원하게 뻗어 있다. 필자가 찾은 날은 마침 화창한 날씨여서 서쪽으로 낙동강과 김해평야가 보이고, 동쪽으로는 황령산과 장산까지 또렷하였다.

수정동에서 안창마을까지, '누나의 길'에서 만나다

이제 최종 목적지 동의대 기숙사(제1효민생활관)와 안창마을의 위치를 대략 확인한 후 천천히 하산을 시작한다. 조금 전 이정표로 되돌아가지 않고 정상석을 지나 그대로 직진하였는데, 등산로가 1개뿐이라 혼란을 겪지는 않았다.

하산길은 올라온 길에 비해 험하다. 상대적으로 좁고 가파르기도 했지만, 마을과 산을 구분해 놓은 철망을 따라 하산길이 이어지기 때문에 깨진 유리 등 폐가의 잔해가 등산로 주위에 노출되어 있어 어린이를 동반한다면 주의가 필요하겠다. 그럼에도 산업화 시기 안창마을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살았고, 현재 인구 유출과 빈집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생생하게 와닿았다.

하산을 시작한 지 약 15분 만에 동의대 기숙사에 도착하였다. 기숙사와 안창마을은 셋길로 연결되어 있다. 안창마을의 별미 오리고기가 동의대생들에게 막걸리를 팔면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말이 실감 났다. 안창로72번 길은 좁고 집들로 뺨뺨한데, 곳곳에 장기 방치된 빈집으로 정비 대상이라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수정산과 팔금산 사이의 좁은 골짜기에 자리 잡은 안창마을은 과거에



수정산 아래 안창마을 ■ 필자 촬영

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었다. 앞서 본 수정동 일대의 판자촌이 일제시기에 형성되어 해방 후 더욱 고지대로 확대되었다면, 안창마을은 1970년대 산업화 시기를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고 하니 그 시절 부산으로 몰려든 노동자들에게 허락된 최후의 땅이었던 셈이다. 경남 사투리인 ‘안 짱’에서 유래하였다는 그 이름에서부터 ‘도심 속 오지’라는 이미지까지 서민들의 땀과 눈물이 어려있다. 그리고 같은 처지의 이웃끼리니까 따뜻한 인정의 공동체도 가능했다.

1978년 안창마을 이주 후 28년 동안 통장을 역임했다는 한 주민의 구술에 의하면, 과거 마을의 집들은 대부분 무허가였는데, 지금은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모두 불하를 받았다고 한다. 그전까지는 철거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어 삶이 곧 구청 단속반과의 전쟁이었다. 무허가 주택이다 보니 수도나 전기를 가설할 수 없었고, 이 문제가 1990년대 초에야 해결되었다고



누나의 길 || 필자 촬영

한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의 난립을 더욱 부채질하여, 결국 구청에서 산에 펜스를 쳐 동네의 확산을 막아야 했다. 하산길에 보았던 철망과 폐가들은 모두 그렇게 형성된 것이다.

처음에 제가 여기 왔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들 생활권이 삼화고무, 교통부 옆에 지금 경남아파트 자리에 삼화고무가 있을 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살았었어요. 다음에 진양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청소하는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살았죠. 그리고 나서 그 둘 다 부도가 나버리고 없어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생활고가 말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부 건설 현장 나가서 일하는 거죠. 참 정말 다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동네 와서 돈을 못 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 이 동네에서 더 망하면 죽는 거밖에 없어서 여기로 왔는데, 단 한 푼이라도 버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창마을에 가득했던 신발공장 여공들의 사연은 이제 수정산 자락의 폐가처럼 온기 잃은 옛이야기가 되었다. 그 시절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안창마을 버스 정류소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 범내골역이나 범일역에 내려 누나의 길을 찾아가자. 어느 곳에 내리든 도보 15~20분 정도 걸린다. 안창마을에서부터 조선방직과 그 일대 신발공장까지 별을 보고 출근했다가 별을 보고 퇴근했던 누나들을 통해 팍팍한 생활에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전성기’ 안창마을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어찌 안창마을만의 이야기이겠는가? 부산진 매축지와 수정동 산복도로 곳곳의 노동자들 사연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수정산 자락의 부산 근현대사 답사를 이곳 누나의 길에서 마무리하는 것도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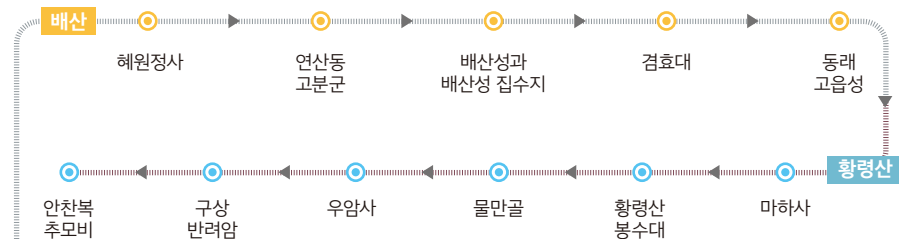


배산·황령산

부산의 원점,
산성과 봉수대가
자리한 산

황령산은 『삼국사기』에 보이는
거칠산국의 이름을 좇아 ‘거칠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래서 부산의 원점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정상에는 부산을 지키기 위한
봉수대가 자리하고 있다.
그 동쪽으로 역시 거칠산국과 부산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수영강과
부산 지역 최초의 산성이 위치한
배산을 거느리고 있다.





배산·황령산

부산의 원점, 산성과 봉수대가 자리한 산

배산과 황령산은 명실상부 부산의 원점이다. 배산과 그 주변에는 배산성을 비롯하여 동래고읍성, 연산동고분군이 있고, 황령산은 부산에 있었던 거칠산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연산동고분군은 마안산 자락의 복천동고분군과 더불어 거칠산국이 남긴 흔적이고, 배산성과 동래고읍성은 신라가 남긴 자취이다. 부산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산은 산이 많은 도시이다. 필자가 어린 시절을 보낸 대구나 대학 때부터 살게 된 서울은 도시 주변으로는 산이 많지만 도심에서는 산을 보기 쉽지 않았다. 그런데 부산은 가는 곳마다 산이었고, 도로를 달리다 보면 종종 산을 관통하는 터널을 만났다.

부산에서 처음 살게 된 아파트도 이기대로 잘 알려진 장자산 중턱에

자리한 곳이었다. 아파트를 나와서 산길을 따라 조금만 걸으면 약수터가 있었고, 한걸음 더 내디디면 장산봉 정상224m에 오를 수 있었다. 그 곳에서는 내륙에 사는 사람들이 늘 보고 싶어 하는 바다를 마음껏 볼 수 있었다. 어떤 날은 대마도가 뚜렷하게 보였다. 말로만 듣던 외국의 섬을 직접 볼 수 있었다. 바닷가로 내려가면 오륙도에서 쏜자리로 이어지는 이기대의 절경을 만끽할 수도 있었다. 살아본 곳 중에서는 부산이 최고였다. 산과 강과 바다를 아우르고 있고, 대구의 더위나 서울의 추위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온화한 날씨도 갖추었다. 산을 찾는 발길은 점점 넓어져서, 황령산 백양산 금정산 송학산 엄광산도 오르게 되었다. 산마다 높이도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느낌도 달랐다.

최근에는 부쩍 자주 황령산과 배산을 올랐다. 사학과 학부생 답사, 대학 원생 답사, 동창회 행사로도 황령산에 오르게 되었고, 서남쪽 사면을 빼고는 대부분의 루트를 다녔던 셈이다. 배산은 지금도 수시로 오르고 있다. 높지도 않고 산허리를 따라 걷기도 좋은 산이다. 그러면서도 볼거리가 가득한 곳이기도 하다. 한꺼번에 다 보려고 욕심을 부리기보다 곳곳을 빼먹듯이 한두 군데씩 다니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듯하다.

거칠산국 이야기는 『삼국사기』 거도열전에 가장 자세하게 나온다. 거칠산국居漆山國이 우시산국于尸山國과 함께 국경에 이웃하여 나라의 근심이 되므로 거도가 공격하여 멸망시켰다고 한다. 우시산于尸山은 ‘웃산’이라는 음가를 표기한 것이다. 한자에 ‘웃’이 없기 때문에 ‘울산’을 바뀐 것으로 생각한다. 거칠산은 말 그대로 ‘거친 산’인데 ‘거칠’을 한자의 음으로 나타내면, 거칠부居柒夫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거칠居漆·거칠居柒·거칠居七 등으로 표기할 수 있고, 뜻으로 나타내면 거칠 황荒이 된다.

왜 거칠산국이라고 불렀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황령산은 백악기 초기부터 제3기 초까지 진행된 불국사 화강암류로

불리는 화산의 분출 및 용암의 관입을 통해서 형성되었다. 한편 이 주변에는 부산만에서 부산진성 서쪽, 서면교차로 동편, 양정교차로 서편을 거쳐 울산시 용촌을 지나서 경주 외동읍 구어리로 이어지는 동래단층이 달리고 있다. 이 단층은 제4기에 형성된 것으로 지질적 시간으로 보면 극히 최근에 생겨난 셈이다. 현재도 지질학계에서는 활성단층을 비롯하여 역사시대에 활동한 단층 흔적을 찾으려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퇴적층 지질에 비해서 백악기 이후에 형성된 황령산과 배산 및 장산은 상대적으로 새롭게 형성되었고 제4기에 들어서도 단층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거친 지질이라고 할 수 있다. 1999년에 황령터널 입구에서 산사태가 있었고, 황령산 주변에는 수십 미터에 이르는 황령산의 침식에 의한 퇴적층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러한 주변 산들이 가지고 있는 거친 성격을 파악하고 나라 이름을 ‘거칠뢰’라고 불렀을 법하다.

한편으로는 배산 주변에서 평생을 살아온 토박이의 증언에 따르면, 황령산과 배산에 과거에는 나무가 거의 없었고 역새같은 거친 풀들이 많이 자랐다고 한다. 물론 2000여 년 전에도 같은 상황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는 하지만, 장산 장山 이라는 이름의 장 장 도 풀이 길다는 뜻이고, 황령산의 황 荒 , 동래 東萊 의 래 萊 도 풀이 무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나무가 없고 풀이 무성한 산이었기 때문에 거칠산국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산으로 따지면 마안산·배산·황령산·장산이 거칠산국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강으로는 수영강과 온천천이다. 산을 오르면 강을 내려다보고, 강가에서는 주변의 산을 올려다보면, 거칠산국의 원점을 오롯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1

성을 뜻하는 잣모라는 이름을 가진 배산



지하철 3호선 역 중에 배산역 배산驛 이 있다. 황령산·금련산을 오를 때는 이웃한 물만골역을 이용하는 게 가장 편리하다. 그러나 배산을 오를 때는 반드시 좋은 선택지라고 할 수 없다. 흔히 영주암이나 연산배수지 쪽을 들머리로 잡지만 그쪽에서 오르는 길이 가장 가파르다. 배산은 수영구와 연제구 사이에 위치하고 해발 256m에 불과하지만 그리 호락호락한 산이 아니다. 높은 산은 아니지만 정상에 서면 수영강 온천천을 중심으로 전통시대 부산의 중심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현지에서는 지금도 배산을 잔뢰 또는 잘뢰 등으로 부르고 있고, 그래서 술잔을 뜻하는 배 배 라는 한자를 쓰고 있다. 그러나 원래는 산 위에 성이 있다는 뜻으로 ‘잣뢰’라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 ‘잣’은 성을 뜻하는 고유한 우리말이고, 현재도 제주도에서 석축이나 석렬을 가르켜 잣이라고 한다. 잣뢰가 뒤에 있는 ‘ㄹ’ 때문에 잔뢰처럼 들리게 된 것이다. 『동래부지』 1740에서는 배산을 가리켜 척산 척山 이라고 표기하였다. 척 尺 은 우리말 뜻이 ‘자’이므로, 척산은 자뢰라는 우리말을 한자로 옮긴 것이다. 만약 잔뢰였다면 한자로 잔산 잔山 이나 배산 배山 으로 표기하였을 것이다. 배산역이라는 이름을 성산역 城山驛 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배산의 전체 동선을 고려하면 연산역에서 연산터널 즉 연산동고분군 아래로 뚫린 터널 쪽으로 오르는 길이 가장 무난하다. 연산중학교에서 하



차하여 연제문화체육공원으로 오르면 바로 연산동고분군이다. 바로 공원을 오르지 않고 연산중학교 운동장 끝자락에 위치한 혜원정사를 둘러보아도 좋다.

시민들과 함께 하는 도심 속의 사찰 혜원정사

혜원정사는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전국적으로도 보기 드물게 일부 공간을 24시간 개방하는 도심 속의 사찰이다. 또한 사찰이 구비해야 할 거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서,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견문을 넓히기 위해 들러볼 만한 절이다. 입구는 천왕문인데, 사천왕은 험상궂은 표정이 아니라 미소를 띠고 있다. 절을 찾아오는 아이들을 배려한 것이라고 한다.



혜원정사 대웅보전

좌우 주련에는 ‘이 문을 들어서거들랑 애시당초 내가 안다거나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지 말라. 이해하려 들지 않은 빈 그릇이어야만 대도를 가득 채울 수 있다’라고 한자로 쓰여 있다. 불교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것이라는 뜻일까? 불교의 진리는 얇이 아니라 깨달음이다. 더 아는 것이 아니라 얇으로 분별하는 것을 버려야 한단다.

제일 높은 곳에 대웅보전이 있는데, 부처님이 여러 분 모셔져 있기 때문에 보배로운 전각이라고 한 것이다. 석가모니불을 비롯하여 약사불과 아미타불이 함께 앉아 계신다. 바다와 가까이 있고, 어업이나 해운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 까닭에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해수관음도 서있다. 해수관음 신앙은 동아시아 해역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혜원정사에는 다소 특이한 이름의 전각이 있는데, 육화전과 명심전을 들 수 있다. 육화六和란 공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6가지 덕목을 말한다. 몸으로 화합하여 함께 살고, 입으로 화합하여 다툼을 없애고, 뜻으로 화합하여 다른 뜻을 없애고, 계율로 화합하여 함께 닦으며, 의견으로 화합하여 함께 일하며, 이로움으로 화합하여 고르게 나누어 가진다는 뜻이다.

명심전은 마음을 밝힌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 비로자나불과 문수보살·보현보살을 모셨다. 보통 비로자나불을 모시면 대적광전·비로전·광명전이라고 한다. 이 전각은 시민선방으로 쓰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출가한 승려들과 마찬가지로 비로자나불을 모시고 마음 수행을 하라는 뜻을 담은 듯하다. 도심 속에서 일반 시민들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참선할 수 있는 의미있는 공간이다.

부산에서 유일한 고총고분 연산동고분군

혜원정사 뒷산을 오르면 연산동고분군이 눈에 들어온다. 배산의 한 지



배산에서 내려다 본 연산동고분군 || 필자 촬영

맥이 북쪽으로 뻗어서 형성된 50m 높이의 구릉 위에 봉긋한 봉토를 가진 고분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다. 연산동 고분군은 1987년부터 2013년까지 7차례에 걸쳐서 발굴조사를 하였는데 지금까지 조사된 영남지역 삼국 시대 고분군 중 가장 규모가 큰 구덩식 돌덧널무덤을 확인하였다. 이 고분들은 신라와 가야의 고분 축조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고, 출토 유물도 부산 지역만의 특징을 가진 것과 신라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들이 함께 출토되어, 5~6세기 부산과 영남 지역의 고대사 및 고대 문화 연구에 중요한 유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부산 지역에서 원형으로 봉토를 쌓아올린 고분은 이곳에서만 확인된다. 또한 수영강 맞은편의 복천동 고분군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삼국 시대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밝히는데 중요한 유적이기도 하다. 6세기



연산동고분군에서 바라본 배산 || 필자 촬영

이전에 부산 지역을 통치하던 최고 지배층의 묘역인 것이다. 이미 일제 강점기 때 철제 갑옷과 투구들이 출토되어 고대의 한반도와 일본열도 관계를 연구하는 데도 중요한 유적으로서 일찍부터 국내외 학계로부터 관심을 받아 왔다.

배산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점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연산동고분군이 조영되기 시작한 것이 5세기 후반이고, 493년에 신라는 임해진과 장령진을 쌓아 왜의 침입을 막았다. 복천동 쪽을 묘역으로 삼고 있던 이 지역의 지배층들이 갑자기 연산동 쪽으로 이동한 이유가 바로 임해진의 설치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상상해 본다. 배산성의 원형이 임해진이고, 임해진의 운용을 위해서 연산동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면, 연산동고분군에서 갑옷이나 무기가 많이 출토되는 것도 설명할 수 있을 듯하다. 배산에 올라 망해정도 둘러보고 연산동고분군을 내려다보고 있노라면 더욱

배산성과 연산동고분군의 관련성이 궁금해진다.

부산 최초의 산성 배산성

이제 배산성으로 올라갈 차례다. 성은 배산 정상을 중심으로 대체로 8부 능선을 따라 축조되었다. 연산동고분군과 배산 사이에는 잘룩한 허리 같은 부분이 있고, 여러 갈래로 길이 났지만 가장 편한 길은 왼편의 현대 아파트 쪽으로 난 배산 둘레길이다. 이 길 주변으로 크고 작은 무덤들을 볼 수 있다. 고대뿐만 아니라 근대까지도 무덤을 많이 조성했던 곳임을 알 수 있다. 한참 완만한 경사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집수지로 올라가는 꺾임이 나타난다. 드디어 조금 가파른 길을 만나게 되지만, 그리 길지는 않다.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배산성의 흔적은 집수지 바로 아래 위치한 석축이다.



배산성 성벽 ■ 필자 촬영

신라는 5세기 후반부터 석성(石城)을 쌓기 시작했다. 흔히 신라의 석성은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하지만, 고구려 축성법과는 다르다. 도성인 국내성과 평양 지역의 대성산성을 비롯하여 고구려 석성은 모두 ‘토심 석축(土芯石築)’이다. 내부는 흙으로 판축하고 외부만 돌을 쌓았다.

반면에 신라는 주변을 잘 살필 수 있는 구릉성 산지에 성을 쌓았는데, 성돌은 세장방형(細長方形)으로 가공하고, 성벽의 안팎에서 쌓아 올리는 이른바 협축(挾築) 방식으로 높고 견고하게 만들었다. 그밖에 성벽 본체를 바깥에서 지탱해주는 보축성벽, 성벽 바닥보다 문이 높이 나있는 현문식(懸門式) 성문, 성 안에서 필요한 물을 모으기 위한 집수시설과 대형 초석건물지 등이 5~6세기대에 축조된 신라 석성의 특징이다. 그래서 신라의 석성은 잘 무너지지 않았고, 성 내부에 물을 확보하고 있어서 농성(籠城)을 하기에 유리했다.

신라는 새로운 지역을 점령하면 방어와 통치를 목적으로 거점성(據點城)을 쌓았는데, 그 거점성은 대부분 교통상의 요지이거나 주변을 잘 살필 수 있고 평지보다 100~200m 높은 독립구릉에 위치하고 있다. 배산성의 경우도 그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 처음에는 배산성도 새롭게 점령한 거칠산국을 다스리기 위한 거점성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복원된 성벽을 보면 가운데 부분이 세장방형 성돌로 쌓고 바깥쪽에 보축성벽을 붙인 6세기 전후의 성벽이고, 그 좌우에 있는 부분이 신라 삼국 통일 이후에 다시 쌓은 성벽이다. 신라 삼국 통일 이후의 성벽은 성돌이 장방형에 가깝고 성벽 아랫부분에서 조금씩 성돌을 안으로 물려가면서 쌓은 층단식 기법을 사용하였다.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이 복원된 성벽과 거의 같은 높이를 따라서 배산성 중턱의 둘레길이 나 있는데, 성벽 위를 따라 한 바퀴 돌 수 있는 길이다. 부산교육청 쪽으로 가보

면 돌레길 아래로 가파르게 경사진 비탈을 볼 수 있고, 길 주변에는 화살대를 만드는 전죽箭竹이 군데군데 자생하고 있다. 전죽이 있는 곳이 성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과거에는 대나무야말로 전쟁물자였다. 칼이나 낫만 있으면 금세 죽창이나 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영남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배산성 집수지

복원된 성벽 왼쪽으로 올라가면 다시 오른쪽으로 계단길이 있고, 그 계단을 다 오르면 집수지를 내려다볼 수 있는 데크가 설치되어 있다. 2기의 집수지는 배산성 내부에서 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1호 집수지는 지름 17.6m 깊이 4.4m 크기로 추정되고, 2호 집수지는 지름 13m 깊이 4.6m 크기로 남아 있다. 양쪽 모두 원형이며, 붕괴를 막기 위해 3~4단의 계단식 석축을 쌓았다. 집수지 구조는 이웃한 기장산성을 비롯해서 거제



배산성 집수지 || 필자 촬영

도의 둔덕기성, 남해도의 대국산성과 임진성 등 남해안 일원에 신라가 축조한 산성에서 확인되는 집수지 구조와 거의 같다. 그 규모는 전국으로는 두 번째로 크고 영남 지역에서는 가장 크다.

집수지를 둘러싸고 있는 석축은 성벽과 마찬가지로 ‘품뿔’자형으로 쌓았으며, 모인 물의 유출과 석축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석축과 파낸 땅 사이에 잡석과 황갈색 점토를 1.5~2m 정도의 너비로 ‘뒷채움’을 한 사실도 밝혀졌다. 또한 1호 집수지의 경우 아래에서부터 반지름이 각각 3.3m, 6.6m, 7.7m, 8.8m로 이루어진 동심원이고 각 층단의 높이도 1.1m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즉 1.1m를 기본단위로 하는 설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현재는 안전을 위해서 집수지 바닥에 흙을 깔았고, 석축 위에도 푸른색 모래주머니를 올려놓아 전모를 알기 어렵지만, 신라인들의 물을 확보하려는 주도면밀함이 느껴진다. 『여지도서』와 같은 조선시대의 문헌에서도 성에 관해서 기록할 때는 반드시 우물과 못의 수를 밝혔다. 그만큼 산성에서 물은 중요했으니 처음부터 산성터를 잡을 때부터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을 골랐다고 할 수 있다.

신선이 노닐던 겸효대는 어디에?

배산이 주변을 두루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변 풍광을 내려다볼 수 있는 누각도 여러 곳에 있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여러 기록에 보이는 것이 겸효대이다. 신선이 된 김겸효가 노닐던 곳으로 전한다. 겸효대를 노래한 시로 대표적인 것은 정추鄭樞의 겸효대이다. 이 시는 정추가 동래에서 재직할 때 과거를 돌아보며 한유의 도원도桃園圖에서 운을 빌어 겸효대를 노래한 것이다. 먼저 한유의 시에서 정추의 시와 운이 같은 곳을 살펴보자.

곳곳에 복숭아 심었더니 복사꽃만 한창이니	種桃處處惟開花
멀고 가까운 내와 들이 붉은 노을에 물든 듯하다	川原遠近蒸紅霞
처음 와서는 저절로 고향 경치를 생각했으나	初來猶自念邑色
세월이 오래되니 이곳이 도리어 집이 되었네	歲久此地還成家

정추는 이 시에서 1행과 4행의 화花, 가家は 그대로 가져왔고, 2행은 하霞와 비슷한 진震, 3행은 읍邑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겸효는 연꽃으로 씻은 듯하고	謙孝濯濯以蓮花
마음에 우주를 품으니 그 기개가 벼락을 능가하네	胸吞八荒氣凌震
돌이켜보니 만호 고을 벼슬을 부러워하였네	回首肯羨萬戶邑
훤훤 신선이 사는 집이나 왕래하리니	翩翩來往神仙家



배산성 일원의 기와 조각 || 필자 촬영

표절인 듯 표절이 아닌 한시의 세계를 잘 보여준다. 그밖에도 겸효대를 노래한 시가 몇 편 더 있다. 유달리 부산 지역에서는 신선과 관련된 지명이 많이 남아 있는데, 겸효대도 그런 곳 중 하나이다. 정추가 동래현령으로 온 것이 1366년이므로, 이때까지는 동래읍성도 배산 남쪽 현재의 부산지방병무청 자리에 있었다. 읍성 바로 뒤에 있는 누각이어서 정추도 자주 올라왔을 것이므로, 마지막 구절에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신선이 사는 집을 왕래하는 그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 정추는 조선 초에 표전문제로 명태조 주원장의 심기를 건드려 1397년 머나먼 대리에서 죽음을 맞이한 정충鄭摠의 아버지이기도 하였다. 그가 속세를 떠나고자 한 것은 아들의 죽음을 예견이라도 했던 것일까? 지금은 겸효대가 어디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 막연히 망해정 주변에 있었을까 생각해 본다.

배산성 둘레길을 걷다보면 가는 곳마다 기와편과 토기편이 보인다. 특히 기와편이 많다. 신라시대에 기와는 중요한 건물에만 올릴 수 있었다. 이렇게 많은 기와가 널려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배산성이 중요했다는 뜻이다. 여러 가지 문양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확인해 보는 것도 소소한 즐거움이다.

통일신라부터 고려까지 부산의 중심, 동래고읍성

하산길은 영주암 쪽으로 정했다. 동래고읍성과 좌수영성지가 그쪽에 있기 때문이다. 동래고읍성도 배산 자락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동래읍성이라고 하면 북천동 마안산 자락에 위치한 조선시대 읍성을 떠올리지만, 고려말 조선초에 현재 위치로 옮겨가기 전까지 부산 지역 행정·군사·외교의 중심은 배산의 배산성과 배산 자락의 동래고읍성이었다.

두 성은 쌍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역할이 닮았다. 위치와 모습은

다르지만 모두 전통시대의 부산 지역을 통치하는 중심지였고, 신라의 국방과 외교의 최전선이였다. 신라가 통일한 이후에는 행정의 중심지가 동래고읍성이 되고, 배산성이 군사적인 방어요새이자 피난성의 역할을 하였겠지만, 통일 이전에는 배산성이 읍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배산성이 늦어도 6세기 중반에 축조되었다면, 동래고읍성은 언제부터 존재했을까?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발굴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성 안 폐기된 우물에서 다량의 기와가 출토되었고, 그 중에는 7세기 전반 경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잔금무늬 기와가 확인되었다. 만약 동래고읍성이 이때 조성되었다면, 약 800년 간 부산의 중심지였던 셈이다. 그러나 지금은 부산병무청의 담처럼 보이는 긴 토루와 복원된 우물이 덩그러니 남아 있을 뿐이다. 동래고읍성의 성벽이었던 토루는 그냥 언덕이나 축대처럼 보인다. 망미 1동 행정복지센터 북서쪽에 조성된 작은 공원에 가야만 그곳이 동래고읍성의 자취임을 알려주는 낡은 안내판을 만날 수 있다.

동래고읍성은 병무청과 그 동쪽에 아직 빈터로 남아 있는 공간, 더샵파크리치 아파트가 들어선 공간 전부와 연수로, 연수로 건너 금련산 자락에 이르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1950년대 항공사진을 보면 그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지금은 가운데 연수로가 뚫리고 남쪽으로는 주택들이 빼곡하게 들어서서 원래의 면모를 확인하기 어렵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이라는 책에서는 동래현의 고읍성에 대하여 “해운포에 있다. 동남쪽은 돌로 쌓았으며, 서북쪽은 흙으로 쌓았다. 둘레가 4,430척인데 지금은 허물어졌다”고 하였다. 동쪽과 남쪽은 석축이고 북쪽과 서쪽은 토루였다고 하였는데, 현재 남아있는 토루가 바로 북쪽 성벽에 해당한다.

목객가인들도 동래고읍성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이규보^{1168~1241}는 동래온천을 즐기는 한편 동래고읍성의 객사가 훌륭하다는 한시를 남겼고, 이곡^{1298~1351}도 ‘산 앞에 있는 고즈넉한 관아에 매화로 담장을 두르고 대



동래고읍성 북쪽 성벽 ■ 필자 촬영



동래고읍성 복원 우물 ■ 필자 촬영

나무로 사립문을 달았네'라고 노래하였다. 정포^{1309~1345} 역시 '관아는 매화 언덕을 끼고 있고, 민가는 물가에 연하여 있네'라고 하여 고읍성 주변 언덕의 매화를 상찬하였다. 이들 기록을 통해서 고읍성의 북쪽에 있는 누각 이름이 적취헌^{積翠軒}임을 알 수 있다. 겸효대를 노래한 정추^{1333~1382} 역시 '적취헌의 바람 잦아드니 대나무는 매화와 사귀네... 관에 가득 꽃을 꽃고 말을 거꾸로 타고 돌아오네'라는 멋들어진 시를 지었다. 적취는 대나무 숲을 일컫는 말이다. 푸른 대나무와 붉은 매화가 어우러진 배산을 올려다보는 자리에 적취헌이 있었던 것이다. 수영구의 구화는 함박꽃이 아니라 매화이어야 하고, 구목은 소나무가 아니라 대나무이어야 하지 않을까? 노래 부르던 사람도 가고 읍성도 사라져 몇 수 한시를 통해서나 옛모습을 더듬어 볼 수 있는 동래고읍성을 떠나는 마음이 헛헛하다. 정추의 시 한 수에서나마 위안을 얻어 볼까.

천년된 관아에 울창한 대나무 숲
사방 민가 지붕보다 높이 자란 매화나무
볼수록 빠져드는 안개 낀 강 구름 뒤덮인 산
하늘이 좋은 경치를 동래에 숨겼구나!

2 거칠산국의 흔적을 간직한 황령산



부산을 대표하는 산은 어느 산일까? 그 높이와 상관없이 황령산을 으뜸으로 꼽을 수 있다. 다른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정상에 봉수대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봉수를 두었다는 것은 어디에서나 잘 보인다는 뜻이고, 부산을 상징하는 타워를 황령산에 세우고자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일 것이다. 황령산에 봉수대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 봉수대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또 부산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봉수는 인간들이 외부의 침입을 두려워한 이래로 등장하였을 것이고, 황령산 봉수도 거칠산국 단계에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무리 소국이라고 하더라도 해안에 위치하고 있다면, 선박의 통행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봉수 시설은 필수다. 한편 신라에 편입된 이후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황령산 봉수를 운용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왜 황령산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부산 지역의 역사는 수영강 주변에 시작되었다. 수영강은 유역 면적 198.8㎢에 유로 연장이 약 28.6km로, 부산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다. 기장군 정관읍 두명리 용천산의 동양골에서 발원한 수영강은 상류부에서 영천^{靈川}, 중류부에서는 사천^{絲川}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수영강에 흘러드는 지류는 두명천, 임곡천, 개곡천, 법기천, 임기천, 여락천, 노포천, 송정천, 신천, 안골천, 철마천, 석대천, 온

천천 등이 있다. 금정산에서 발원하는 온천천은 상류에서는 범어천이라고 하는 등 다양한 부분 명칭을 가지고 있다. 영천과 사천은 동래 단층선을 따라 흐르는데, 이 단층선 주변으로 부산~울산 간 국도 제7호선이 있으며, 범어천을 따라서는 부산 지하철 1호선이 지나간다.

수영강을 북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회동수원지와 노포동을 거쳐 기장군 정관읍 월평리까지 북상한다. 월평은 수영강과 회야강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으며, 거칠산국의 영역은 수영강 수계를 따라 적어도 범기 지역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 북쪽에는 회야강 수계를 장악한 세력이 있었는데, 『삼국사기』 거도열전에 거칠산국과 함께 나타나는 우시산국于尸山國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거칠산국의 ‘거칠 산’이라는 뜻을 한자로 황령荒嶺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때 우시산국于尸山國과 거칠산국居柒山國이 국경 사이에 끼여있어 자못 나라의 걱정거리가 되었다. 거도는 변방의 관리가 되어 몰래 (두 나라를) 병탄할 뜻을 품었다. 매년 한 차례씩 말들을 장토張吐의 들에 모아놓고 병사들에게 말을 타고 달리게 하는 것을 희락戲樂으로 삼았는데, 당시 사람들이 (그것을) 마숙馬叔이라 불렀다. 두 나라 사람들은 익히 그것을 보아왔으므로 신라가 늘상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수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자 병사와 군마軍馬를 일으켜 불의不意에 습격하여 두 나라를 멸하였다.

-『삼국사기』 거도열전

금빛 연꽃을 떠오르게 하는 절, 마하사

황령산과 금련산 자락에는 수십 개의 사찰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역시 한



마하사의 아기부처 || 필자 촬영

곳만 꼽으라면 단연 마하사다. 5세기에 아도阿道 화상이 창건하였다고 전하기도 하고, 절의 규모도 있고 모셔진 불상에서 연륜이 느껴지기도 한다. 연제구 2번 마을버스를 타고 가는 편이 저렴하고 편리한데, 노선이 복잡하므로 신리삼거리 쪽에서 마하사로 올라가는 버스를 잘 확인하고 타야한다. 종점에서 내려서 조금 걸어 올라가면 마하사가 나온다.

입구인 천왕문에는 ‘금련산 마하사’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금련산金蓮山이라는 이름도 불교에서 온 것이 분명하다. 『인왕호국반야바라밀다경仁王護國般若波羅蜜多經』에 의하면 사위국舍衛國의 바사닉왕이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를 보호하고 편안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자 석가모니불이 반야바라밀을 설하였다. 이때 대중들이 수많은 금련화를 석가모니불 머리 위에 뿌렸다고 한다. 금련은 부처님과 반야바라밀을 찬탄하는 수단이다.

마하사라는 절 이름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문자를 마(摩)와 꾸(訶)를 가(訶). 크다·완전하다 등의 뜻을 가진 산스크리트어의 ‘마하’라는 말을 나타낼 때의 표기인데, 주로 불교 용어일 때는 ‘하’라고 발음하고 있다. 천수경의 진언인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에도 ‘마하’도 같은 한자이고 위대하다는 뜻이다.

한편 마하사의 말사로 원래 반야암과 바라밀암이 있었다고 한다. 이어 불이면 ‘마하반야바라밀’이 된다. 『마하반야바라밀경』 또는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에서 온 것이다. 모든 것이 ‘마하반야바라밀’로 통하고 있다. 금빛 연꽃 속에서 피어 있는 완전한 지혜에 다름 아닌 것이다.

마하사(摩訶寺)의 창건과 변천 과정은 대웅전 상량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아도 화상이 창건한 이후 임진왜란 때 사찰 건물이 모두 불타면서, 18세기 초부터 단계적으로 재건되었다고 한다. 그 시발점은 1717년에 대웅전과 나한전을 다시 짓고 16나한상을 조성한 것이다. 이후 최근까지 중건 불사가 계속되었다.

천왕문을 지나 경내로 들어가는 길은 좁지만, 건물 사이로 난 입구를 들어서면 이런 가파른 골짜기에 있을 것 같지 않은 널찍한 공간이 나타난다. 정면으로는 높은 계단 위에 있는 삼성각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마하대북연이라는 편액이 붙은 지장전, 오른쪽으로는 단청을 새로 올린 근사한 대웅전이 보인다. 대웅전 왼편에는 나한전이 다소 비좁게 자리잡고 있다. 그렇지만 마하사에서는 대웅전 못지않게 나한전이 중요하다. 나한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전 어느 동짓날 새벽, 마하사 스님이 깨어나 보니 절 안의 불씨가 다 꺼져있었다. 스님이 불씨를 구하려다가 생각해 낸 곳이 황령산 봉수대였다. 봉수대에는 언제라도 연기와 불을 피울 불씨가 있어야 하는 법. 급하게 산을 올라 봉수대에서 불씨를 청하자, 봉군은 아까도 마하사 동자

승이 와서 불씨를 달라고 해서 불씨도 주고 동지 팔죽도 한 그릇 먹여 보냈단다. “아니 우리 절에는 동자승이 없는데, 누가 우리 절을 팔았지. 불신 지옥이거늘.” 고개를 가웃거리며 돌아와 보니 아궁이에 불씨가 살아 있고 팔죽이 한 솥 가득 끓여져 있는 게 아니겠는가. “동자승이라니, 무슨 동자승” 하면서 나한전에 들어가 보니, 입술에 팔죽이 묻어 있는 나한이 계셨단다.

그래서인지 마하사 벽에는 동자승들이 바글바글 그려져 있는 벽화가 있다. 동자승이 핸드폰도 들고 있고, 스키도 타고 귀엽기 짝이 없다. 입가에 미소를 머금을 수밖에. 잘 살펴보면 동자승들이 그려진 벽화 앞에서 커피도 한 잔 마실 수 있다. 입구에 앉아 있는 돌부처님도 해맑게 웃는 동자승의 모습이다. 완전한 지혜는 결국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생각과 다름 없다는 가르침일런지.



마하사 대웅전 Ⅵ 필자 촬영

마하사의 매력은 그뿐만이 아니다. 천왕문 위에는 범종각이 있고 종 하나가 매달려 있다. 이곳 마하사의 저녁 종소리는 수영팔경水淸八景 중 하나로 ‘연산모종蓮山暮鐘’이라고 불린다. 마하사의 볼거리를 다 말하기 어렵다. 직접 와서 어떤 문화유산이 있는지 찾아보시라. 대웅전 왼쪽의 건물은 나한전인데, 응진전이라는 작은 편액도 그 건물 어딘가에 붙어 있다.

나한전의 나한상과 16나한도도 끊임없는 상상력을 불러 일으킨다. 나한인지 지장보살인지 구별이 되지 않기도 한다. 『인왕경』에서 석가모니에게 나라를 지키는 방법을 물었을 때 그 나라의 숫자도 16이었다. 도대체 16이라는 수는 무엇인가? 삼성각에 올라 금련산 정상도 한번쯤 바라보시라. 그 자리에 서보면 왜 마하사가 범어사, 선암사, 운수사와 더불어 부산의 4대 사찰인지 알 수 있다.

마하사에서 한 가지만 더 보태자면 대웅전에 안치된 석조석가여래삼존상을 들 수 있다. 마하사에는 다른 문화유산도 많지만, 자그마한 석조불상은 화강암 재질의 돌을 이용하여 조각한 것이고 도금을 하고 부분적으로 채색까지 했다. 조선 후기에 현재의 부산과 경상남도에 해당하는 지역의 불교 미술의 양식과 계보를 살필 수 있는 자료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작품이라고 한다. 다소곳이 머리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우리들의 교만을 경계하라는 법문이 들리는 듯하다.

마하사에서는 황령산 정상도 멀지 않다. 산길을 조금만 올라가면 체육 시설이 있고 큰 길가에는 유련정惟蓮亭이 있다. 이곳이 황령산 봉수대로 가는 입구이다.

부산방어의 최전선 황령산 봉수대

황령산 정상에는 봉수대가 자리하고 있다. 황령산 봉수대는 『세종실록

지리지』에 석성 봉수대 및 간비오산 봉수대와 더불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425년세종 7 이전부터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동쪽으로 해운대에 있는 간비오산 봉수대와 북쪽으로는 범어사 동북쪽에 있는 계명산 봉수대와 연락하였다고 한다. 황령산 봉수대는 1976년 부산시에서 학술 조사를 거쳐 복원하였다. 당시의 조사 기록은 남아 있지 않으나, 관여자의 전언으로는 봉수대의 하부 구조만 잔존하였는데 일직선상의 구들이 횡으로 5줄 있었다고 한다.

신라때의 거칠산군/동래군 내의 봉수로는 석성봉수 이외에, 단봉 봉수인 간비오봉수^{147.7m}가 있는데 이때부터 사용하였을 것이다. 장산의 중턱에 위치한 간비오봉수는, 황령산과 장산 때문에 시야가 제한되는 배산성이나 신라 통일 이후의 동래 읍성현 부산율산지방병무청 일대로 정보를 전달하는데 가장 적절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영구의 백산에도 점이대가 있고 해안과 근접해서 진조말산이 있지만, 이곳도 모두 용호반도 때문에 서쪽 해상을 제대로 볼 수 없다. 이에 대해서 간비오봉수는 오륙도와 영도 쪽을 제대로 후망^{後望}할 수 있다. 이러한 위치는 현재의 천마산^{326m} 정상에 위치한 석성봉수와 상호보완적이다. 석성봉수에서는 영도의 봉래산^{396m} 때문에 영도 이동 지역을 후망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석성봉수와 간비오봉수는 단순히 불을 켜고 끄는 단봉 봉수이기는 하지만 부산 지역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부산의 봉수는 어느 시대에 전국적인 봉수망의 출발점 중 하나였다. 조선시대에는 응봉 봉수, 구봉 봉수, 황령산 봉수, 계명산 봉수, 양산의 위천 봉수, 언양의 부로산 봉수, 영천의 소산 봉수, 경주의 고위산·접포현 봉수를 거쳐 서울의 남산 봉수로 바로 연결되는 출발점이 부산이었다. 장소의 중요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황령산은 위태롭고 거친 산이면서 한편으로는 거칠산국, 신라, 고려, 조선을 지켜왔던 역사 그 자체이다.

옛날 동해가에 건달과乾達婆가 놀던 성을 바라보고, ‘왜군이 왔다’고 봉화를 든 일이 있었다. 세 화랑이 산 구경 간다는 소식을 듣고 달도 불을 부지런히 밝히려는 가운데, 길 쓸고 있는 별들을 바라보고 ‘혜성慧星이여’라고 말한 사람 있구나. 아아, 달은 저 아래로 떠갔거니, 보아라, 무슨 혜성이 있으랴.

-『삼국유사』 용천사의 혜성가-진평왕대

이들 자료를 통해서 신라 진평왕재위 579-632 때 왜구의 침입을 경계하기 위한 봉수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가야의 여러 나라도 봉수제를 운용했음을 알 수 있고, 고구려에도 봉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신라 봉수는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었을까? 신라의 봉수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대신 고려시대의 봉수제에 대한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신라 봉수제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보자.

고려의 봉수제도와 관련하여 1149년(의종 3) 8월에 서북면 병마사 조진약曹晉若에 의하여 봉수식烽燧式이 정해졌다고 한다. 이에 의하면, 평상시 밤에는 불을, 낮에는 연기를 각각 1회씩 올리도록 되어 있다. 긴급할 때는 각 2회, 더욱 정세가 긴박한 경우에는 각 3회, 한층 정세가 급박한 경우에는 4회씩 올리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봉수에는 방정防丁 2명과 백정 20명을 배치하고 평전 1결씩을 지급하도록 하였다『고려사』.

고려의 봉수제는 중국 당나라와 다르다. 당나라의 경우, 여러 개의 봉화를 피우는 화덕을 만들고 긴급한 경우는 동시에 여러 개의 봉수를 올리도록 하였다. 한꺼번에 여러 개의 봉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봉수대의 면적이 넓어지고 시설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고려의 방식이라면, 하나의 봉수대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셈이다. 고려의 봉

수 제도는 조선시대까지도 이어졌다. 하나의 봉수대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연속하여 2·3·4회에 걸쳐 불과 연기를 올려서 평상 시의 상황을 비롯하여 긴급한 정도를 전달할 수 있다.

현재 황령산 봉수에는 5개의 화덕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봉수인 계명봉 봉수는 직선거리로 14.3km가 떨어져 있다. 그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현재처럼 가깝게 조성된 5개 화덕에서 올리는 연기와 불을 과연 식별할 수 있었을까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두 봉수에서 직접 시연을 해보면 어떨까? 봉수대에서는 반드시 계명봉 봉수와 장산의 간비오 봉수, 천마산의 석성 봉수 위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

황령산 정상에서 확트인 정경을 마음껏 내려다보았으니, 다음 장소로 발길을 옮겨야 한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할지 난감하다. 물만골과 우암사가 전혀 다른 골짜기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궁여지책으로 가장 길이 편한 물만골 쪽으로 내려갔다가 우암사로 가기로 했다. 황령산 정



황령산봉수대

상에서 물만골로 가는 방법으로는 그냥 자동차도로를 따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산 속에 나있는 도로라서 주변 경치도 볼만하고 길을 잃을 염려도 없다.

물소리 끊이지 않는 도심 속의 오지 물만골

물만골은 이름 그대로 골짜기로 물이 많이 흘러내리는 곳이다. 과거에는 산 속에 고립되어 있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골짜기 입구에 큰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사람들의 출입이 빈번하고 황령산을 오르는 등산로로 붐비게 되었다. 자동차로 금련산역 쪽에 올라가서 황령산 송신탑 아래를 지나 계속 직진하면 내려오게 되는 곳이 바로 물만골이다.

물만골은 해발고도가 100~200m에 달하기는 하지만, 골짜기 안은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서, 집을 지을 만한 공간이 있는 곳이다. 본래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으나 6·25 전쟁 당시 군사 기지용 도로 개설과 1953년 농장[방목장]이 설치되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살기 시작하였다. 1964년 초량동의 부산항을 매축할 때 그곳 주민들을 이주시키면서 본격적으로 마을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물만골 마을은 무허가 주거지로 2020년 기준으로 411세대 중 건축허가를 받은 집은 한 채뿐이라고 한다.

1999년에 이곳 주민은 ‘물만골 공동체’를 결성하고 집집마다 돈을 모아 토지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매입한 토지는 주민들의 공동소유로 만들었다. 결국 ‘물만골 공동체’는 약 90%의 토지를 사들였다. 이처럼 물만골 지역 대부분이 주민의 공동소유가 되면서 마을 주민의 합의 없이는 개발할 수 없었고, 그 덕분에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었다.

아파트 개발이라는 광풍 앞에 맞서는 모습이 돈키호테와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이곳은 전국 최초로 환경부로부터 ‘생태 마을’로 지정되기도 했다. 멋들어진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인심도 좋고 물만골을 찾는 모습을 보면, 이곳 주민들의 판단이 현명했다는 생각이 든다.

물만골에는 물이 넘치는 골짜기 이외에도 볼거리가 많다. 물만골 입구 쪽에 전체 면적이 1,300평에 이르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지하 벙커가 있다. 1968년에 만들어진 이 벙커는 전시에 임시 작전사령부로 쓸 목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건설회사의 사유지가 되어서 마음대로 볼 수 없으나, 내부 시설은 잘 관리되고 있다. 부산일보가 제공하는 ‘부산 물만골 지하벙커’라는 동영상을 통해서 초대형 벙커를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밖에도 무려 4곳의 절과 2곳의 교회가 있다. 그러나 물만골에는 오래된 건물이 많아서 주거환경은 대단히 열악하다. 석면이 들어있는 슬레이트 지붕을 쓰는 곳도 있고,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되거나 축대가 무너지는 일도 일어난다.

이제 물만골에서 연제구 1번 마을버스를 타고 물만골역으로 내려와서 연제구 6번 마을버스로 환승한 다음 보리암입구에서 하차하면 우암사로 향한다.

구리광산 터에 자리한 미륵도량 우암사(牛巖寺)

마하사와 전혀 다른 분위기의 사찰이 황령산에 이어지는 금련산 자락에 있으니 그곳은 바로 우암사이다. 마하사가 오목한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우암사는 산등성이를 넓게 차지하고 있다. 대웅전과 동굴사원이 각각 있어서 계단을 두 번씩 오르내려야 한다. 계다가 어둑어둑한 동굴 속에 앉아 계시는 부처님은 우리를 주눅들게 한다. 나는 늘 여기 있었노라



말씀하시는 듯하다. 저절로 절을 올릴 수밖에. 그뿐만 아니다. 우암사는 동굴을 나와서 내려다보는 경치가 압권이다. 아 우리가 저렇게 빠글빠글 살고 있구나. 돌켜 보지 않을 수 없다. 제철이면 금낭화, 불두화, 미나리냉이꽃, 제비꽃도 만날 수 있다. 분명 부산은 축복받은 도시다. 한 자락 건너서 산만 오르면 신선이 부럽지 않은 곳이다. 계곡에는 물이 흐르고 가는 곳마다 약수터가 있다.

우암사는 마치 인도로 연결되는 통로라도 있는 듯 많은 부처님들이 자리하고 있다. 여러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는 것 역시 우암사의 매력이다. 대웅전 기둥에는 다음과 같은 주련柱聯이 걸려 있다. 극락당전만월용極樂堂前滿月容 옥호금색조허공玉毫金色照虛空 약인일념칭명호若人一念稱名號 경각원성무량공頃刻圖成无量功.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아니면 뜻이라도 알아야 한다. 절은 닳선 이들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 직접 읽고 알아야 한다. 어쭙잖은 한문 실력으로 읽어보자. 마음대로 뜻만 옮겨 보았다.

극락은 우리 눈앞에 보름달처럼 선명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헛된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건만. 만약 우리가 변함없는 마음으로 ‘부처님, 부처님’이라고 외칠 수만 있다면 그 잠깐 사이에 극락에 갈 수 있는 무한한 공덕을 이룰 수 있거늘(왜 너희들은 내 이름을 부를 생각도 하지 않은 것이냐).

물론 주련의 내용은 모순된다. 대웅大雄. 위대한 존재이신 석가모니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할 수 있다고 한 길과, 아미타불에 귀의한다(나무아미타불)라고 외치면 극락으로 갈 수 있다고 한 길은 다르다. 전자는 소승불교이고 후자는 대승불교라고 하겠지만, 주련은 두 길이 굳이 다르지 않다고 하는 원만하고 융합된 가르침을 담고 있다. 부처

님의 가르침이야 중생들의 바탕을 가릴 뿐이지 그 근본은 다르지 않을 것이니.

우암사 대웅전 뒤편으로는 전혀 새로운 공간이 있다. 바로 일제강점기 때 구리를 채굴하기 위해 만든 광산동굴 안에 부처님을 모셔둔 곳이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황령산 일대는 퇴적암 지층에 고열의 마그마가 영향을 미친 곳이다. 그래서 마그마 속에 함유되어 있는 희귀 금속이 많이 분포하고 있고, 구리와 금이 많이 산출되는 곳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곳에는 일제강점기에 구리 광산이 있었는데, 현재의 동굴 사원은 일제 강점기의 갱도일 가능성이 크다. 부경대학교 박맹언 명예교수님도 우암사의 동굴이 구리광산의 갱도일 것이라고 하였다. 황령산 일대는 구리, 납, 아연 등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석굴암이나 돈황 석굴은 모두 인공적으로 석굴을 조영하거나 굴을 팠지만, 우암사는 구리광산의 갱도를 그대로 이용한 것이다. 긴 동굴은 60m에 이르고 짧은 동굴은 20m 정도다. 전국적으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사찰인 셈이다. 동굴 속의 부처님을 찾아뵙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그 중에서도 돌미륵 부처님이 영험하다고 한다. 돌미륵 부처님을 친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일단 아무 생각없이 한번 들어 보고 무게를 감지한다.
2. 조심스럽게 내려놓다.
3. 돌미륵 부처님을 쓰다듬으면서 한가지 소원을 세번 말한다.
4. 다시 한번 들어보고 안 들리거나 무겁게 들리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가볍게 들리면 안 이루어진다.

그런데 돌미륵 부처님의 영험함은 잘 알 수 없지만, 돌미륵 부처님이 놓

인 장소 뒤에 있는 바위를 살펴보면 짙은 녹색의 물이 흐른 흔적이 완연하다. 바로 구리가 산화한 현장이다. 녹그릇이 퍼렇게 녹이 스 것처럼, 구리로 만든 거울이 푸르게 녹이 스 것처럼 군데군데 푸른 녹물이 흘러나오고 있다. 구리광산이 있었다는 증거다. 우암사의 동굴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구리를 채굴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갱도였음이 분명하다. 구리광산의 갱도를 부처님을 모신 불교의 공간으로 만든 스님들의 발상이 놀랍기만 하다. 과연 부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동굴만 흥미로운 것이 아니다. 그 바깥으로는 호랑이를 타고 앉은 산신령님도 계시고 포대화상도 자리 잡고 계신다. 산자락을 따라 깨달음을 얻는 순간의 석가모니불도 계시고, 약병을 들고 느긋한 자세를 취한 약사여래도 계신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우암사를 살펴보면, 불교의 넓고 넓은 세계를 오롯하게 느낄 수 있다.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구상반려암

인간이 영위한 역사는 자연의 시간에 비하면 너무나 짧다. 자연의 유구함과 오묘함을 느끼고자 한다면, 다시 황령산을 찾아야 한다. 전포동 쪽에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구상반려암을 볼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반려암斑禰巖이란 쌀알같은 흰 반점이 있는 화성암을 말한다. 원래 해양지각과 같은 깊은 곳에서 형성되며, 육지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한편 구상암球狀岩이란 공처럼 둥근 형태를 가진 암석으로 특수한 환경 조건에서 형성되며, 대부분 화강암 속에서 발견된다. 그런데 부산 전포동의 구상반려암은 반려암 속에 구상암이 들어있는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는 아시아에서는 유일하다고 알려진 희귀암석이다. 구상암의 지름은 작게는 1cm 이하인 것부터 크게는 5~10cm인 것도 있다. 둥근 구모양의 구조가



구상반려암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나타나는 반려암의 분포면적은 약 0.14km²에 달하여 각종 구상암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손꼽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 아울러 도심지 가운데에 위치하고 일반 시민들도 쉽게 찾아가 볼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가장 편한 방법은 동의과학대 주차장에 차를 대고 체육관 쪽으로 조금 올라가다 보면 구상반려암이라는 표지판이 있다. 체육관을 지나 오른쪽으로 나아가면 부산국가지질공원이라는 입간판이 보인다. 공원에는 표본으로 채집한 구상반려암들이 줄지어 서있고, 현장에 게시는 해설사로부터 자세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노천에 있는 바위에서는 구상반려암의 모습을 뚜렷하게 보기 어렵지만 표본을 통해서 신비롭게 동심원을 이루고 있는 핵과 각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고요와 평안을 느끼게 해주는 편백나무숲

편백나무는 일본 원산의 상록교목으로 회목 또는 노송나무라고 일컫는다. 높이 30~40m, 폭 1~2m 가량이며, 나무 껍질은 적갈색이고, 작은 바늘 모양의 잎이 가지에 뻗뻗하게 난다. 봄에는 가지 위에 작은 꽃이 피며, 10월에 녹색의 구과가 붉은색으로 익는다. 구과는 지름 1cm로 7~9개의 방패 모양 비늘조각으로 되어 있다. 잎과 목재에는 1%의 정유가 포함되어 있으며, 약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편백나무에는 피톤치드라는 천연 항균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내수성이 강하고 물에 닿으면 고유의 향이 진하게 퍼져 잡내도 없애 주기 때문에 최근 도마의 재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또 피부미용에도 좋다고 한다.

숲속에 들어서면 대낮에도 어둑어둑하고 서늘하다. 자리를 잡고 앉아 있노라면 편백나무가 뿜어내는 향이 강하게 느껴진다. 고요한 정적과 더불어 마음도 함께 편안해진다. 경성대 쪽에서 바람고개를 지나 올라갈 수도 있고, 황령산 봉수대 정상에서 내려오는 방법도 있다.

평안도 3.1 독립운동을 주도한 천도교인 안찬복공 추모비

안찬복은 1919년 3월 3일, 천도교인을 중심으로 하여 평안남도 안주읍 울산공원에서 일어난 3·1 독립운동을 주도하였다. 이날 모인 5,000여 명의 군중을 이끌고 독립선언식을 거행하였으며 대형 태극기와 악대를 선두로 하여 시가행진을 하였다.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헌병경찰의 무차별 사격을 받아 시위현장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안찬복은 체포되었다. 평양지방법원에서 2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으며 출옥 후에는 요시찰인으로 일제의 감시를 받았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에



안찬복공 추모비 ■ 필자 촬영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1992년 10월 5일에 학교법인 원곡학원은 그의 애국행적과 독립정신을 추모하고자 동천고등학교 교정에 이 비를 세웠다. 동천고등학교의 설립자인 안관성 선생은 안찬복 선생의 아드님이다. 동천고등학교는 우리나라 유일의 천도교 계열 고등학교이다. 동천고등학교는 대연역에서 걸어갈 수도, 바람고개 쪽에서 내려올 수도 있다.



부산에서 손꼽히는 고찰(古刹)과 함께 역사의 무게를 묵묵하게 견뎌온 **백양산**

백양산은 부산의 중심에 있는 산이다.
바다로 흘러 들어가기 직전의 낙동강 하류 줄기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산이면서,
부산 앞 바다를 바라 볼 수 있는 산이기도 하다.
승학산과 장산, 그리고 금정산을 조망할 수 있으며,
그 산들로 둘러싸인 부산 시내를 볼 수 있는,
산과 바다와 강 그리고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마을을 볼 수 있는 산이다.

6 주지봉

7 베틀굴

8 성지곡 수원지
사명대사상

1 백양산 정상

2 운수사 두꺼비 바위

5 능선길

4 선암사

3 삼각봉

부암역

서면역



부산에서 손꼽히는 고찰(古刹)과 함께 역사의 무게를 묵묵하게 견뎌온 백양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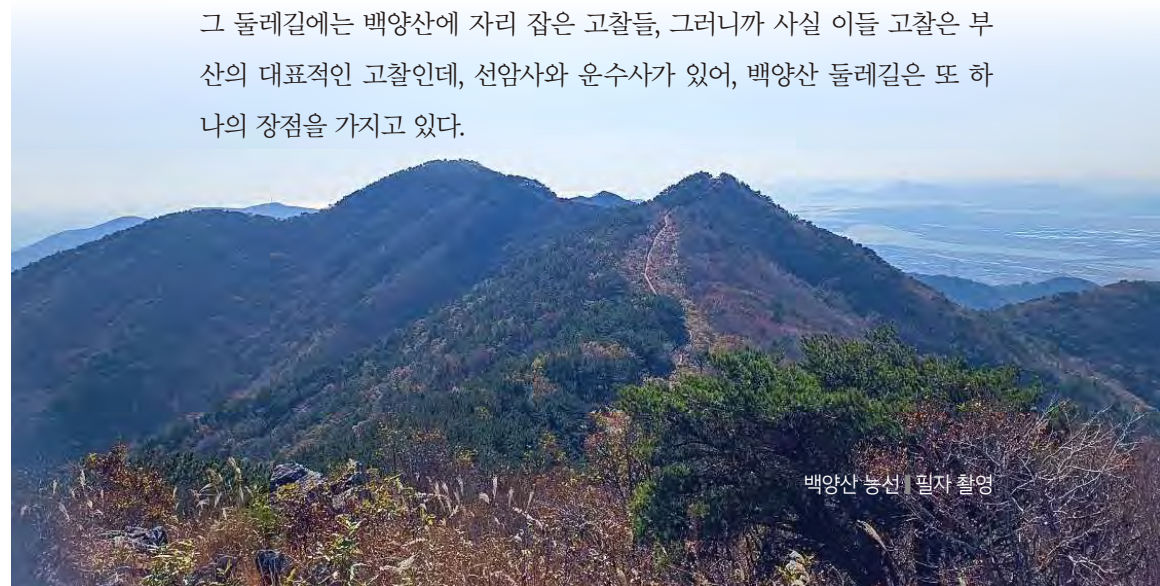
백양산은 부산 도심의 한가운데 있다. 그런데 낮은 산이 아니다. 도심 한가운데 있지만 의외로 높은 산이다. 부산은 다른 여타의 도시들과 다른 독특성이 있는 도시이며, 그 특이성에 백양산이 한몫한다. 부산은 바다와 강과 산이 한꺼번에 만나는 곳이며, 엄광산, 수정산, 구봉산, 구덕산, 승학산이 하나의 산군을 이루고, 장산, 황령산, 금련산이 또 하나의 산군을 이루고, 금정산과 백양산이 우뚝 솟은, 그야말로 부산은 산이 많은 곳이다.

백양산은 그 자락에 쇠미산과 벽방산을 거느리고 있는 산이고, 바다에서는 살짝 떨어져 있으면서 강에는 바짝 붙어 있어 백양산 둘레에는 선사 시대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백양산은 한국인들의 가장 전형적인 삶의 터전으로서의 모습을 가진, 동네 뒷산이다. 백양산은 부산에서 살아온 사

람들의 삶이 있는 곳이면서, 또한 그 높이가 만만치 않아 산을 오르는 즐거움을 주는 산이기도 하다. 그 정상에 올라서면 부산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고, 강과 바다, 부산을 둘러싸고 있는 저 풍부한 산군들을 죄다 볼 수 있는 곳이니, 백양산은 부산 지역의 산을 등산하면서 빠트릴 수 없는 그런 산이다.

백양산을 오르고 내리는 길은 수없이 많다. 어디서든 오를 수 있고, 어디서든 내려올 수 있다. 그런데 어디서 오르고 내리건 초읍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초읍은 백양산 자락의 한 마을이기는 하나, 일찍이 성지곡 수원지와 어린이대공원이 만들어져 근대 이후의 도시 개발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도심에서 곧바로 등산하면서도 제법 깊은 산을 등산할 때와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성지곡은 동평 현감이 놀러 왔다는 기록이 있듯이 옛날부터 나들이 장소였으며, 어린이대공원이 조성된 연유도 여기에 있으니, 해운대 장산을 가면 대천공원을 들르듯이 백양산에 가면 성지곡에 가는 것이 좋다.

백양산에는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다. 여느 둘레길들처럼 산 아래 자락이 아니라 산 중턱을 빙 돌아 만들어져 있어 둘레길만 돌아도 좋아서 그런지 산 능선을 따라 걷는 사람들보다 둘레길을 걷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리고 그 둘레길에는 백양산에 자리 잡은 고찰들, 그러니까 사실 이들 고찰은 부산의 대표적인 고찰인데, 선암사와 운수사가 있어, 백양산 둘레길은 또 하나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백양산 능선 | 필자 촬영

1 동네 뒷산



가장 좋은 산은 동네 뒷산이다. 등산인들 사이의 속설이다. 사람들은 좋은 것을 찾기 마련이고, 산도 마찬가지다. 산을 좀 다닌다는 사람들은 너나없이 명산을 찾아서 다니고, 설악산을 갔다 왔니, 지리산을 갔다 왔니, 어디가 좋더라, 말을 나누기 바쁘다. 그런데 산을 탄 지 오래될수록 가장 좋은 산은 동네 뒷산이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 언제든 오를 수 있고, 그 어디보다 자주 가게 되고, 그래서 가장 친숙한 산이 동네 뒷산이기 때문일 것이다.

백양산은 동네 뒷산이다. 초읍동과 당감동의 뒷산이면서 사상과 모라, 구포의 뒷산이기도 하다. 어느 동네에서든 백양산을 오를 수 있다. 동네에서 조금만 오르면 산자락 곳곳에 체육시설이 있어 마을 친화적인 산이기도 하다. 예부터 마을 뒤에 산이 있는 것은 배산임수를 따라 촌락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에는 어김없이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다. 이는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있어야 하고, 연료를 얻으려면 나무가 있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인들에게 산은 인간의 삶과 별개로 있지 않다. 먹을거리를 찾으러 가는 곳이었고, 땀감을 구하러 가는 곳이었고, 죽은 이를 묻는 곳이기도 했다. 산은 또한 신령스러운 곳이기도 했다. 한국인들에게 산은 삶과 죽음을 함께 하는 곳이었다. 백양산도 그런 곳이었다.

산은 주위보다 높이 솟아있는 지형을 말하며, 한국 고유어로는 ‘뫼’ 또는 ‘메’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70%가 산이다. 우리가 사는 나라는 온통 산으로 덮여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고, 어느 산에 오르든지 그곳에서 바라보면 보이는 것은 산과 강이고, 아니면 바다다. 산에는 계곡이 있기 마련이고, 거기서 흘러 내려온 물로 산 아래는 대개 습지거나 늪이었으니, 마을을 형성하거나 논밭을 일구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사실 이 땅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그리 많지 않았다. 중국에서 한반도는 신선이 사는 곳으로 여겨지기도 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부산만 하더라도 금정산, 백양산, 구덕산, 송학산, 달음산, 장산, 금련산, 황령산, 봉래산 등등 온통 산이고, 그 산자락 아래 좁은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 부산龜山이라 불린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우리 민족의 삶은 산과 떨어져 있지 않았으니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산을 살아 있는 사람처럼 기가 흐르는 것으로 여겨서 산줄기 안에도 맥이 있다고 생각했다. 산에 있는 바위를 빼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여 바위산을 ‘골산’이라 부르고, 흙으로 이루어진 산은 ‘육산’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남쪽 지방에는 육산이 많고, 위쪽에는 악산이 많다. 서울의 북한산은 흙을 거의 밟지 않아도 될 정도로 골산이다. 산 이름에 ‘악’ 岳, 巒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바위로 이루어진 산이라는 말이고, 한국의 3대 악산으로 꼽히는 치악산, 월악산, 설악산은 모두 바위로 이루어진 산이다. 통상 험한 산을 ‘악산’이라 하고, 우스갯소리로 오를 때 “악!” 소리가 난다고 하는 것도 바위로 이루어진 산이기 때문인데, 지금은 쉽게 오를 수 있도록 계단이 만들어져 있어 다 옛말이 되었다.

2 백양산 가는 길



백양산의 여러 이름, 선암산 운수산 금용산

백양산은 북구와 사상구, 그리고 부산진구에 걸쳐 한줄기로 길게 뻗어 내린 높이 642m의 산이다. ‘백양산’으로 통칭하고 있는 산줄기에는 지역마다 내력이 있는 산 이름이 있다. 조선 시대에는 백양산 남쪽의 선암사에 의해 ‘선암산’으로 불렸고, 서쪽의 모라 운수사에 의해 ‘운수산’으로 불렸다. 동쪽에서는 ‘금용산’이라 불렸다. 대동여지도에는 선암산과 금용산이 표기되어 있다. 백양산이라 불린 연유는 확실치 않은데, 『동래부지』¹⁷⁴⁰에 “백양사는 금용산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라는 기록에서 그 유래를 찾는다. 백양사는 초읍 쪽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될 뿐 그 위치는 알 수 없으며, 버드나무의 일종인 흰 사시나무가 많아서 백양산白楊山이라 한다는 설도 있다.



백양산 정상석 ■ 필자 촬영

백양산은 한 봉우리를 가진 산이 아니다. 여러 봉우리가 있으니, 사상과 모라 쪽으로는 삼각봉이 있고, 초읍 쪽으로는 사직동의 주산인 쇠미산과 화지산으로 이어진다. 구포 쪽으로는 거미가 웅크린 모양으로 보인다고 하는 주지산이 있고, 또 다른 줄기는 ‘구포’란 지명이 유래했다고 하는 범방산으로 이어진다. 백양산의 능선은 남북으로 뻗어 있는데, 서쪽으로는 낙동강 하구와 을숙도가, 동쪽과 남쪽으로는 부산 앞바다와 해운대, 광안리가 있고, 북쪽으로는 금정산으로 연결된다. 정상에 서면 부산 앞바다와 낙동강이 보이고, 가까이는 엄광산, 승학산, 금정산, 황령산, 장산이 보이고, 멀리 가덕도 연대봉을 비롯해 진해와 거제도 그리고 김해 방향의 산들이 보인다. 백양산에서는 부산의 내로라 하는 산이 다 보이니, 백양산에서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부산의 산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백양산은 산과 강과 바다가 다 보이는 산이다.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흔치는 않고, 내륙 지역의 사람들이 부산에 있는 산들을 특별히 동경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이들이 부산에 오면 주로 금정산과 승학산을 가는데, 성지곡 수원지의 풍경이 많이 알려져 멀리서 찾아오는 등산인들이 제법 있다. 금정산 다방봉에서 장군봉, 고당봉을 거쳐 백양산까지 종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동네 뒷산답게 곳곳에서 오르내릴 수 있다.

백양산에는 큰 계곡이 둘 있다. 하나는 초읍으로 흐르는 부전천이고, 또 하나는 모라로 흐르는 운수천이다. 부전천은 1970년대에 복개되었는데, 서면 일대의 ‘복개천’이라 부르는 바로 그 천이 발원한 곳이다. 부전천은 성지곡 수원지에서 당시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던 초량으로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백양산에는 세 개의 큰 절이 있다. 오래전부터 선암사와 운수사가 있었고, 1980년대에 삼광사가 들어왔다. 우리나라의 산에는 절이 아주 많은데, 좋은 절은 저절로 가서 절을 하게 하는 절이다. 이는 절이 자리 잡은 곳이

대개가 풍광이 좋고, 그 풍광을 걸어 올라 부처님을 뵈게 되니 경내에 들어서기 전부터 경건한 마음이 들기 때문이다. 선암사와 운수사는 그런 절이다.

백양산은 낙동정맥의 끝에 있는데, 낙동정맥은 태백산에서 시작하여 울진, 영해, 청송, 경주, 청도, 언양, 양산, 동래로 이어지는 낙동강 동쪽의 산줄기를 말한다. 조선 후기 신경준은 『산경표』에서 우리나라의 산줄기산경을 1개 대간과 1개 정간, 13개 정맥으로 정리하였다. 동해안과 서해안으로 흘러가는 강을 양분하는 큰 산줄기를 백두대간이라 하는데,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두류산-금강산-설악산-태백산-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진다. 이 산줄기를 따라 큰 강이 있으면 정맥, 없으면 정간이 된다. 산줄기 개념은 “산은 물을 건너지 못하고, 물은 산을 넘지 않는다”라는 원리를 따라 만든 것으로 통상 말하는 산맥과 다르다. 산맥은 일본의 지질학자인 고토 분지로 小藤 文次郎 1856~1935가 만든 것인데, 광물질 조사에 초점을 두어서 이 땅에서 광물질을 가져가기 위해 만든 것이다.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산과 물을 음과 양의 관계로 이해했으며, 따라서 산과 물은 서로 조화롭게 어울려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했다. 『산경표』의 산줄기 개념은 조선 후기에 정리된 것이지만, 산줄기는 오래전부터 지역을 구분하는 경계선이었으며, 고대 삼국의 국경이자 조선 시대의 행정 경계였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자연적 상징이면서 동시에 삶의 기반이 되는 산줄기다.

산을 오르는 것은 산에 가는 것과 다르다. 산을 오르는 것을 ‘등산’이라 하고, 산에 가는 것을 ‘산행’이라 한다. 등산이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산행은 굳이 산 정상이나 봉우리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산 정상을 굳이 오르려고 하지 않았다. 산은 신령이 사는 곳으로 여겨졌고, 무엇보다 짐승, 특히 호랑이가 많았기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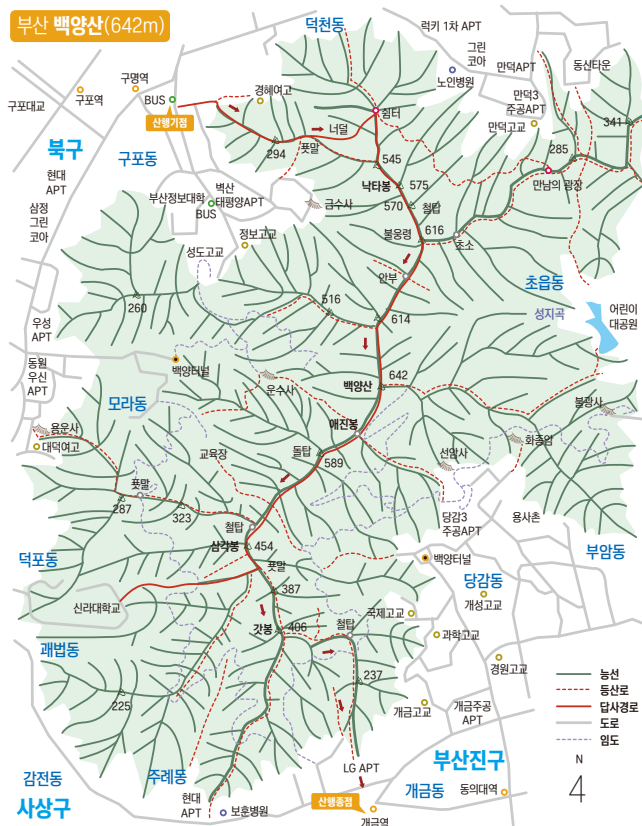
문에 위험한 곳이기도 했다. 옛날 사람들에게 산이라는 곳은 속세를 잠시 떠나 자연의 소리를 듣기 위해 찾는 곳이었었고, 이를 일러 ‘유산’遊山이라고 했다. 산은 즐기는 곳이었지 오르는 곳이 아니었다.

우리나라에서 등산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일제 강점기 때로, 유럽에서도 19세기 중반에야 나타났다. 제국주의가 팽창하면서 탐험과 모험이 찬양되었고, 제국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한 일환으로 에베레스트를 비롯한 높은 산을 등반하는 일들이 시작되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1935년 1월 교토제국대학 백두산 원정대가 백두산 정상에 올라 일장기를 세웠고, 북한산 인수봉을 ‘정복’했다. 북한산 정상 백운대에 가면 태극기가 걸려 있고 3:1 독립만세운동을 담은 암각이 새겨져 있는 연유도 아마 여기서 기인할 것이다. 일제가 정복한 산을 되찾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최근 들어 등산객들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건강을 위해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이는 좀 위험한 발상이다. 건강에 신경 써야겠다는 대뜸 등산을 시작하다 자칫 평지도 걷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산은 위험한 곳이고, 등산은 격한 운동이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등산로를 정비하고 데크를 설치하여 추락의 위험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렇다고 가쁜 숨까지 막아주지는 못한다. 산을 오르려면 신발이 중요하다.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발목을 감싸는 등산화가 중요하다. 배낭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넘어졌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한다.

백양산의 수많은 등산로

백양산 등산로는 수없이 많다. 동네, 그것도 도심 한 가운데의 동네 뒷산답게 실핏줄처럼 많다. 은퇴한 누군가가 세 봤더니 200개가 넘었다고도 한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길은 부산어린이대공원에서 만



백양산 등산지도

덕고개와 불태령을 거쳐 정상으로 가는 길이다. 많이 가지는 않지만, 사실 백양산에서 꼭 가 봐야 할 곳은 구지봉과 금정봉이다.

백양산 정상을 오르는 길은 여러 곳인데, 이전과 달리 수월하게 오를 수 있다. 사상에서는 신라대까지 차가 올라가니 여기서 오를 수도 있고, 모라 쪽에서는 운수사까지 차가 가고, 당감동 쪽에서는 선암사까지 차가 올라간

다. 이전처럼 산 아래에서부터 정상까지 치고 올라가는 곳은 어린이대공원에서 공룡 발자국 있는 곳을 거쳐 계속 산등성이를 타고 오르는 코스와, 쇠미산 금정봉을 거쳐 불태령 고개를 올라 정상으로 가는 코스, 낙타봉을 치고 올라 불태령을 거쳐 정상으로 가는 코스다.

우리가 가는 길은 범방산 → 운수사 → 애진봉 → 삼각봉 → 선암사 → 백양산 정상 → 불태령 → 구지봉 → 만남의 숲 → 쇠미산 금정봉 → 성지곡 수원지 → 부산어린이대공원(사명대사 호국 광장·박재혁 의사 상·항일 학생의거 기념탑) → 초읍동 전기 가설 기념비이다. 백양산의 대표적인 봉우리들을 모두 가보기로 한다. 쉽지 않은 코스다. 무리다 싶으면 어디서든 내려설 수 있다. 동네 뒷산의 좋은 점이다.

거북이가 낙동강을 향하여 엮드린 범방산

범방산은 구포에 있다. ‘뜰 범방’, ‘배 방방’으로 정박해 있던 배가 뜬다는 뜻이다. 예부터 구포의 감동진을 비롯해 낙동강의 여러 나루터를 끼고 배가 드나들던 곳의 배산背山으로 구포 사람들은 ‘거북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멀리서 보면 거북이가 강을 향하여 엮드린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범방산 가는 길은 구포도서관이나 구포 1차 유림노르웨이숲 아파트에서 시작한다. 이 길은 ‘무장애 숲길’이란 이름이 붙어 있는데, 정상까지 나무 데크가 깔려 있어 휠체어로도 오를 수 있다. 거리는 2km로 한 시간이면 넉넉하게 정상에 도착한다. 산 능선에는 범 바위, 맷돌 바위, 절편 바위, 얼굴 바위, 여근 바위, 짝궁바위 등의 이름이 붙은 바위들이 많이 있다. 이곳은 다대포와 함께 낙조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니, 백양산에서 해 질 녘에 이리로 하산하면 좋다. 낙동강 하구의 석양은 사상 팔경 중의 하나였다.

3 해 질 무렵 운수사에서 들리는 종소리



백양산이 품고 있는 고찰 운수사로 간다. 범방산 정상에서 운수사 가는 길은 임도가 나 있다. 심지어 차도 다닌다. 우리는 임도를 버리고 임도 오른쪽으로 나 있는 산길로 간다. 부드러운 황토를 밟으며 기분 좋게 갈 수 있다. 산길인데도 가파르지 않아 편안하다. 곧 운수사에 도착하는데, 산 너머 선암사도 그러하지만, 절 입구에 아주 넓은 주차장이 있다. 흥물이다. 절에 왔는데, 절에 온 맛이 안 날 정도로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다.

운수사는 가야국 때 지어졌다고 하나 자료가 없어서 자세한 내력은 알 수 없다. 안내판을 보면 “절의 경내에 있는 약수터에서 안개가 피어올라 구름이 되는 것을 보고, 이곳에 절터를 잡아 운수사”라 하였다고 한다. 원래는 ‘신수암’으로 불리다가 18세기 이전에 운수사로 바꾸었다고 한다. 모두 물과 관련된 이름인데, 옆의 계곡 때문에 지어진 이름인지, 물맛이 좋아 지어진 이름인지는 알 수가 없다. 물맛이 좋아 지금도 동네 사람들이 물을 길러 많이 온다. 운수사 옆으로 흐르는 운수천은 ‘청류 동천’이라 불렀는데, 이로 보아 맑은 물이 흘렀음을 알 수 있고, 빼어난 계곡을 ‘동천’이라 부르니 절경이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도 여름이면 주민들이 많이 몰려들지만, 계곡 상단을 인공적으로 정비하고 하단은 백양터널이 개통되면서 잘려 나가 이전의 절경은 사라지고 없다.

운수사에는 물과 관련한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 오니, 두꺼비 바위 전

설이다. 두꺼비 바위를 놓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운수천을 끼고 체험형 웰빙숲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표지판이 있다. 조선 시대 중엽에 한 걸인이 배가 고파 밥을 얻어먹기 위해 운수사에 들렀는데 주지가 문전 박대를 하자 곡괭이로 운수사의 수호신인 두꺼비 바위를 내려찍어 돌로 쪼개졌는데, 그 후로 사람의 발길이 뜸해지고 결국 절이 쇠되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전설에 의하면 500여 년 전 신도들이 하도 많이 와서 두꺼비 바위의 목을 큰 망치로 깨어서 넘어뜨린 후 100여 명 대 중 스님들도 흩어지고 고요한 절이 되었다고 한다.

예로부터 중국에서는 두꺼비를 재물의 땅이 아니면 살지 않는다고 여겨 길한 것으로 여겼는데, 운수사의 두꺼비 바위 전설도 신도들이 많이 몰려들어 생긴 이야기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명당의 기가 흐르는 지맥



운수사 두꺼비 바위 || 필자 촬영

을 끊어 절이 망하게 되었다는 명당 훼손설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풍수설의 특징은 비보 풍수설이라고 한다. 비보(裨補)는 풍수적으로 부족한 것은 보완하고 모자란 것은 채우는 것을 말한다. 신라 말 도선의 비보설에서 비롯한 것으로 자연 상태에서 완벽한 명당은 없으니, 잊지도 않는 명당을 찾아다니지 말고 지금 머무는 곳을 보완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보풍수는 자연과 땅에 대해 사람이 가져야 할 하나의 태도로 여겨졌고, 중국이나 일본에는 없는 한국 풍수의 특징이기도 하다. 일본이 조선의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 쇄국책을 폈다는 것은 그래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운수사의 대웅전은 약수터 옆에 있다. 범어사와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사찰로 불릴 만큼 큰 절이었다고 하는데, 규모는 크지 않다. 정면 3칸, 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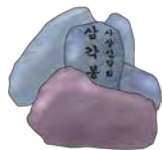
면 3칸이며, 기둥은 14개다. 기둥의 구조는 높이의 절반 정도를 석주로 세운 후에 목재 기둥을 받치고 있는데, 범어사 대웅전, 일주문 등에서도 보이는 형식이다. 이러한 형식은 태풍이 잦고 비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부산 지역에는 임진왜란으로 조선 전기에 축조된 목조 건축물이 남아 있지 않아 운수사의 대웅전은 부산 지역에서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건축이고, 2016년 보물로 승격되었다.

해 질 무렵 운수사에서 들리는 종소리를 뜻하는 ‘운수모종(雲水暮鐘)’을 상상 팔경 중 하나라고 하는데, 임진왜란 때 동래성을 함락하기 위해 우회하던 왜군이 운수사를 침범하는 과정에서 종은 사라지고, 지금은 돌기둥 네 개만 남아 있다.



운수사 대웅전 | 필자 촬영

4 해 질 녘 석양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는 모래, 삼각봉



이제 백양산 정상에 오를 차례다. 운수사 뒤로 등산로가 나 있다. 이제부터 각오해야 한다. 가파른 길을 오른다. 산을 오를 때는 빨리 걷고 자주 휴식을 취하는 것보다 일정한 속도로 오르는 것이 좋다. 산을 오르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또한 좋지 않다. 숨이 더 가빠지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산을 오르는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산길을 묵묵히 걷다 보면 산이 된 자신을 느낄 수도 있다. 산을 오르는 즐거움 중의 하나다. 산을 오르며 스스로 산이 된다는 말은 심오한 말로 들릴 수도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는 말로 이해하면 된다. 그 경지를 일러 ‘무아지경’이라 한다.

산은 사람에게 사는 게 무엇이라고 묻는다. 산을 오르다 보면 산이 내게 묻는다. “나는 왜 이 고생을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른다. 정상을 오르는 즐거움 때문에? 정상에 올랐을 때의 뿌듯함을 위해서? 정상에서 보는 장쾌한 풍경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단지 오르는 게 힘들 때만 산다는 게 무엇인지 묻는 것이 아니다. 내려올 때 산은 다시 나에게 묻는다. “삶이란 무엇이더냐?”

옛날 양반들은 산에 왜 갔을까? 건강을 위해서 일리는 없다. 산은 머슴들이 나무나 하러 가는 곳이었으니까. 놀러 간 것일까? 어쩌면. 그런데 그런 양반들도 땀을 흘리며 산에 올랐을까? 가마를 타고 오른 양반들이 많

았다고 하고, 승려들이 가마를 드는 경우가 많았다고도 한다. 아무래도 산에 사는 승려들이 산길에 익숙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산에 간 양반들은 절에서 머물며 경치 구경하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그렇게 놀았을 것이다. 양반들 욕할 것 없다. 우리는 지금 차를 타고, 케이블카를 타고 산을 가기도 하는데, 그때 그 양반들과 얼마나 다를까? 양반들이 사람을 부렸다면, 우리는 자동차를 부려 산을 파괴하고 있다.

그런데 중들은 그렇게 천대받고 노역에 동원되고, 자신들의 수행처이자 사는 집이기도 한 절이 양반들의 유흥장이 되기도 했는데, 심지어 그들은 임진왜란 때 승병이 되었다. 불교는 살생을 금하는 종교인데, 그들은 왜 그랬을까? 왕을 지키기 위해서? 어쩌면 그들은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비의 종교, 불교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호국불교’라는 말은 엄밀히 하면 ‘호민불교’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운수사에서 20여 분 가뿐 숨을 몰아쉬며 올라가면 ‘애진봉’ 큰 비석이 나온다. 그런데 여기는 정상이 아니다.

정상은 애진봉 옆에 있으니, 특이하게도 정상 밑에 정상석이 서 있는 이상한 형국이다. 애진봉이란 이름이 있으나, 이게 봉우리인지조차도 사실 의심스럽다. 전형적인 고개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름조차도 “부산진사랑”이니 부산진구청에서 행사용으로 만든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 어쨌든 여기에 서면 부산 앞바다가 흰하게 보인다. 날 좋은 날에는 멀



삼각봉 | 필자 촬영



삼각봉에서 바라본 사상 ▮ 필자 촬영

리 대마도도 보인다.

애진봉에서 정상으로 바로 오를 수도 있고, 선암사로 내려갈 수도 있고, 모라, 개금, 주례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우리는 사상 쪽으로 간다. 거기에 삼각봉이 있기 때문이다. 삼각봉까지 1.1km다. 가는 길은 제법 거친 산길을 걷는 기분을 낼 수 있고, 무엇보다 삼각봉에 서면 낙동강 하류가 선명하게 잘 보이고, 왜 저 일대에 모라니, 덕포니 하는 지명이 생겼는지 알 수 있다. 덕포의 ‘덕’은 언덕, 두덕을 표기하는 한자로, 덕포는 언덕 끝에 배를 대는 포구가 있었다는 말이다. 지금도 덕포에 가면 강선대가 있는데, 신선이 하강하여 목욕하고 쉬고 간 곳이라 한다. 신선이 목욕을 하였으니 물이 있었을 것인데, 실제로 강선대는 바위 언덕이니, 여기가 바로 덕포의 원위치다. 실제로 이곳의 바위에는 강물의 침식을 받은 흔적이 보인다고 한다. 덕포는 조선 중기 이후 낙동강 제방을 쌓으면서 포구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지금은 주택가와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강선대가 도로변이 되어 이전의 모습을 잃어버려 도대체 왜 여기에 신선에 내려왔는지 의아스러운 풍경이 되

어버렸다.

사상에는 ‘사상 팔경’이 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일컬어 ‘팔경(八景)’이라 하는데, 사상 팔경이라 하면 부산 사람들도 굉장히 낯설어하거나 의아해한다. 사상 팔경을 이해하려면 지금의 사상을 떠올리면 안 된다. 옛 사상 풍경은 낙동강 제방을 쌓으면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낙동강 하류는 모래가 많이 쌓이는 곳으로, 지금도 새로운 모래톱이 쌓여 대마등, 장자도, 백합등, 도요등 등의 모래섬들이 생기고 있다. 낙동강 하류에서 모래가 쌓인 위쪽 지역을 ‘사상’, 아래쪽을 ‘사하’, 사하의 끝을 ‘하단’이라 부른다. 제방을 쌓기 전의 사상은 얇은 개천과 갈대밭이 많았던 만큼 사상 팔경도 이와 관련된 것들이 많다.

사상의 넓은 모래펄에는 갈대가 우거졌고 철새들이 날아다니는 곳이었다. 해 질 녘 석양을 받아 모래는 황금빛으로 빛나고 기러기 떼가 날아가는 모습이 장관을 이뤘을 것이다. 이를 ‘평사낙안(平沙落雁)’이라 한다. 사상은 포구였고,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곳이었다. 바닷물은 물금까지 올라왔고, 물금이란 지명도 바닷물의 금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어부들은 고기잡이를 위해 다대포로 나갔고, 저녁이면 석양의 노을빛 속으로 흰 돛을 펼쳐 달고 감전 나루터나 삼락동 가포 나루터로 돌아왔는데, 이를 ‘원포귀범(遠浦歸帆)’이라 한다. 7월이면 무성하게 자란 갈대밭에서 게를 잡기 위해 밝힌 횃불이 만들어 내는 장관을 일컬어 ‘칠월해화(七月蟹火)’라 하고, 8월이면 하얀 갈대꽃이 피는데, 이를 ‘팔월노화(八月蘆花)’라 한다. 맑은 날 저녁이 되면 강바람에 갈대가 하늘거리고 강물은 저녁노을로 빨갛게 물드니, 이를 ‘서산낙조(西山落照)’라 하여 사상 팔경 중 으뜸으로 친다. 구덕조무(九德朝霧)는 구덕산에 서리는 아침 안개를 말하고, 금정명월(金井明月)은 금정산에 걸려 있는 달이 낙동강 물 위에 비치는 모습을, 운수모종(雲水暮鐘)은 운수사에서 들려오는 저녁 종소리를 말한다.

5 원효가 창건한 절, 선암사



삼각봉에서 내려가면 개금, 주례, 모라로 갈 수 있고, 선암사로 갈 수도 있다. 우리는 선암사로 간다. 숲길을 내려서면 곧 둘레길이 나오고, 잠시 후면 선암사에 도착한다. 선암사의 사적기는 없다. 803년신라 애장왕 4에 창건된 동평현에 있었던 건강사(建江寺)를 1400년에 부산포의 동북쪽으로 옮겨 세워 선암사로 개명하였다고 한다.

절의 뒷산 절벽 바위에서 신라 화랑들이 수련하였다고 하여 선암사로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바위 아래 폭포가 있다. 지금의 용왕단 뒤쪽이다. 선암 폭포 위로 깎아지른 바위를 신선암이라고 한다.

일설에 의하면 선암사는 원효가 창건한 절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좀 알려진 절들은 온통 원효 아니면 의상이 창건했거나 관련되어 있다. 특히 원효가 지은 절이 많고, 많아도 너무 많은데, 무슨 스님이 한 곳에 지국이 있지를 못하고 저리 싸돌아다녔을꼬 하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니... 그래서 원효의 이름을 사칭한 것이라는 설도 있다. 물론 이름을 사칭한 절이 있기가 하겠지만, 원효는 실로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고통받는 민중들에게 설법한 스님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게 또 영 엉뚱한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원효는 의상과 함께 우리나라 불교를 대표하는 스님인데, 이 두 스님은 동시대 같은 지역의 인물이고 함께 당나라 유학길에 오르기도 했다. 신분의



선암사 대웅전 ■ 필자 촬영



선암폭포 ■ 필자 촬영

차이가 있어 의상이 왕실, 원효는 민중들에게 어필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던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전쟁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던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전쟁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극락에 가는 것이었고, 원효와 의상은 각기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을 강조하여 오늘날에도 우리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 한다.

이제 백양산 정상으로 올라간다. 선암사 옆으로 길이 열려 있다. 거리는 1km 정도로 짧지만 가파르다. 오르는 동안 전망이 열리지 않아 다소 답답할 수 있지만, 정상에 올라서면 강과 바다, 그리고 산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보기 드문 산이다. 낙동강이 발아래 훤히 내려다보이고, 부산 앞 바다, 그리고 멀리 고당봉도 한눈에 들어온다. 엄광산, 승학산, 장산, 신어산도 다 보이니 장쾌한 기분이 절로 든다.

백양산 정상에서 직진하면 어린이 대공원으로 내려갈 수 있고, 가는 길에 공룡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는 바위를 볼 수도 있다. 이 길로 가파르게 내려서면 바다를 계속해서 보면서 내려갈 수 있고, 성지곡 수원지 상



백양산에서 본 낙동강 ■ 필자 촬영



백양산 능선 ■ 필자 촬영



백양산 능선 역새길 ■ 필자 촬영



불태령에서 본 만덕사지 ■ 필자 촬영

단의 계곡 길로 접어들 수도 있고, 초연중학교로 빠져 삼광사로 갈 수도 있다. 삼광사는 아주 큰 절이기는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선 절이라 옛 풍광은 없다.

우리는 내려서지 않고 능선을 따라 불태령으로 간다. 불태령 가는 능선 길은 백양산 최고의 풍광을 자랑한다. 구간은 짧지만 오르내림이 있어 단조롭지 않고, 역새로 덮인 고개가 있고, 넓은 터가 있어 앉아 놀기 좋고, 한쪽은 강이, 다른 한쪽은 바다가 보여 강과 바다의 호위를 받으며 눈앞으로 금정산을 바라보며 걸을 수 있는 멋진 길이다. 정상에서 불태령으로 가는 길보다 불태령에서 정상으로 오는 길이 더 멋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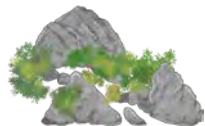
불태령은 고개다. 이곳에 서면 만덕고개 쪽에 있던 옛 사찰인 만덕사의 부처 모습[佛態]을 볼 수 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부태 고개라 불리기도 하고, 만덕에서 함박산을 거쳐 오르내린다고 하여 함박 고개라고도 불렀다. 그런데 불태령의 態태자를 熊웅자로 오독誤讀하여 불웅령 한글 표지석이 지금도 세워져 있다.



불웅령으로 잘못 세워진 불태령 표지석 ■ 필자 촬영

불태령에 서면 눈앞에 상계봉과 고당봉이 보이고, 오른쪽으로는 황령산과 장산이, 그리고 그 너머로 바다가 보이고, 왼쪽으로는 낙동강과 양산 오봉산이 보인다. 이쯤 되면 세상 부러울 게 없어진다. 그런데 이런 기분은 오를 때는 잘 느낄 수 없고 대체로 내려갈 때 느낀다. 세상 부러울 게 없는 이 느낌은 사실 십 대나 이십 대가 느끼기는 어려울 것이고, 육칠십 대나 되어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 나이쯤 되면 더는 이제 공명을 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이 아닐까? 공자가 나이 오십에 천명을 알았다고 했는데, 이 말도 사실 이를 의미할 것이다.

6 거미가 웅크린 봉우리, 주지봉



불태령에서 왼쪽 구포 쪽으로 능선이 하나 뻗어 있는데, 주지봉(蜘蛛峰) 570m이다. 구포의 주산이기도 한데, 산 정상이 마치 거미가 웅크린 모습이어서 ‘주지봉’이라 하며, ‘주지뱅이산’이라고도 한다. 암봉이 연이어 솟아 있어 ‘낙타봉’으로도 불린다. 백양산에서 가장 웅골찬 암봉이 있는 봉우리다. 정상석은 따로 있지 않다. 낙타봉 곳곳에 포진하고 있는 바위에 앉아 낙동강과 백양산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하늘 위에 올라온 기분이 든다. 단, 저 밑에 우후죽순처럼 서 있는 아파트가 없다면.

낙타봉에서 가파르게 내려온다. 그러나 잠깐이다. 곧 백양산 둘레길을 만난다.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다시 운수사로 가게 되니 우리는 오른쪽으로 간다. 곧 ‘만남의 숲’에 도착한다. 백양산에서 가장 봄비는 곳이다. 울창한 편백나무 숲이 있고, 둘러앉아 밥을 먹기에 좋은 곳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름 그대로 여러 갈래 길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왼쪽으로 돌아서 운수사로 연결된 둘레길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돌아 둘레길을 따라 선암사로 갈 수도 있다. 직진하면 금정산으로 넘어가는 고갯마루가 나온다. 여기서 왼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만덕으로 내려가고, 금정산 남문과 석미산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성지곡 수원지로 내려간다. 이곳은 옛날 거칠산국이 있던 동래로 통하는 요충지였고, 양산으로 통하는 중요한 관소였다. 이 고개에는 ‘찬물 샘’이 있는데, 그 물맛이 천하일품이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다녀 그러한지 그 물맛이 예전과 같지 않다.



주지봉 암릉 || 필자 촬영

7 쇧물이 용솟음치는 산, 쇠미산 금정봉



우리는 쇧미산 금정봉으로 올라간다. 여기서 대다수 사람이 금정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휩쓸리면 금정봉으로 가지 못한다. 안내 표지판도 없다. 사람들을 따라가다 금정산 남문으로 가는 표지석이 나오면 거기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잡아 올라가는데, 올라서면 놀라운 풍경을 보게 된다. 쇧미산의 정상 봉우리를 ‘금정봉’이라 하는데, 금정봉 오르는 길 양옆으로 노송이 줄지어 서 있는 장관이 펼쳐지고, 국내에는 희귀한 암석으로 쌓은 제단처럼 생긴 암반이 있어 자못 신비로운 풍경인데, 풍수적으로 지구의 배꼽에 해당하는 지점으로 명당이라고 한다. 쇧미산은 동래 정씨 시조묘가 있는 화지산과 연결된다.

쇠미산은 의외로 부산 사람에게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금정산맥 마지막 줄기의 꼬리 부분이라 소의 꼬리라는 뜻이라고 하고, 한자식 지명으로 금용산金湧山, 즉 쇧물이 용솟음치는 산을 뜻하는데, 이는 쇧물이 많이 나왔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청동기와 달리 철기는 대량생산이 가능하여 철기시대에 들어오면 전쟁이 많이 벌어진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는 청동기 말기에서 철기시대에 걸쳐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인데, 가야 지역과 울산의 풍부한 철광이 신라 삼국통일의 바탕이 되었다고도 한다. 동래 복천박물관에 가보면 가야 철기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데, 황령산과 함께 금용산이 이 지역 철의 산지로 추정된다.



쇠미산 금정봉 ■ 필자 촬영



덕석바위 ■ 필자 촬영

쇠미산 정상에 덕석 바위가 있다. ‘덕석’은 추울 때 소의 등을 덮어 주던 멍석을 말하는데, 덕석 바위에는 소년 장수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소년 장수는 세상을 구할 영웅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말을 타다 떨어져 숨졌다고 한다. 바위 위의 구멍도 소년 장수의 발자국과 그가 타고 다닌 말의 발굽 자국이란단. 덕석 바위가 넓다고 하나 말을 타고 다닐 정도로 넓지도 않고, 말을 타다 떨어져 숨진 장수라니 전설치고는 좀 초라하다.

덕석 바위 밑에 천연의 석회암동굴이 있다. 벼들굴이다. 임진왜란 때 왜군들을 피해온 여인들이 이곳에서 군포를 짚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굴 안으로 들어가면 왼편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작은 구멍이 있다. 군포를 짜며 남편을 기다리던 아낙들이 바깥을 염탐하기 위해 비녀로 뚫은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굴은 ‘비녀굴’로도 불린다. 이 동굴은 강원도나 경상북도 등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석회암동굴과 같으나 지질시대와 생성 기원은 이들과 전혀 다르다고 한다. 강원도 일대의 석회암은 따뜻한 바다에서 퇴적된 지층이지만 금정봉의 석회암은 호수에서 형성된 퇴적층으로 세



베틀굴 ॥ 필자 촬영



비녀 구멍 ॥ 필자 촬영

계적으로도 그 예가 많지 않다고 한다. 가끔 대학의 지질학과 학생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와서 망치 비슷한 것으로 돌을 두드려 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8 동평 현감의 유원지, 성지곡



절경 성지곡

금정봉에서 능선을 따라 내려오면 갈림길을 만나는데, 왼쪽은 금융암으로 가는 길이고, 오른쪽으로 돌면 만남의 숲 아래로 간다. 우리는 직진하여 내려선다. 성지곡 수원지가 나온다.

성지곡이란 지명은 사료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신라 시대 유명한 지관인 성지聖知가 이곳을 찾아 성지곡으로 이름 붙였다고 하는데, 전해오는 이야기, 즉 전설이다. 또 다른 이야기로, 성지곡에는 ‘석연지石燕池’라는 큰 연못이 있었는데, 어느 봄날 동평 현감이 서생과 기생들을 거느리고 놀이를 와서는 석연지 위의 거목에 그네를 매고 그네 타기 대회를 열었다. 이때 한 기생이 밧을 헛디터 소로 떨어져 익사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연못을 ‘가기소歌妓沼’라고 불렀다는 연못 유래담이다. 이 유래담이 사실이건 아니건,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여기가 당시에도 유원지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금은 그 계곡의 풍경은 사라지고 없으나, 씌어도 준치라고, 2017년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공존상을 수상하였다.

성지곡의 절경이 파괴된 것은 일제 강점기에 이곳에 수원지를 만들면서 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성지곡 수원지는 1907년에 일본인들에 의해 착공되어 1909년에 완공된 한국 최초의 콘크리트 중력식 댐인데, 당시 4만

명에 불과했던 부산의 인구가 일본 거류민들에 의해 늘어나자 30만 명으로 늘어날 때를 대비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국내 최초의 콘크리트 중력식 댐이자 근대적 상수도 시설로, 집수 수로를 통하여 저수지에 물을 모으고, 침전지에서 토사 등을 침전하여 얻은 맑은 물을 여과지로 운반하는 전체 과정이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귀한 문화재이기는 하지만, 저수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성지곡의 절경이 많이 훼손되었다. 회동수원지도 절경이 훼손된 곳인데, 1930년대 일본이 오류대 계곡을 파괴하고 만든 것이다. 태종대, 해운대, 물운대 등에서 보듯이 ‘대’자가 들어있는 곳은 절경인 곳인데, 오류대의 절경도 이때 파괴되어 그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다.

얕꺽게도 성지곡 수원지의 형태는 한반도 지형의 남쪽, 즉 남한 지역을 닮았다. 만남의 숲에서 오른쪽 둘레길을 따라 걷다 보면 전망대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반도 모습의 수원지 형태가 뚜렷하게 보인다. 의도하고 만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얹잡아 볼 때 ‘반도인’이라 부르고, 임진왜란 때에도 한반도의 남쪽을 내놓으라는 것이 강화협상의 주요 조건이었기도 했다. 이곳에 사명대사상이 있으니, 그 인연이 몹시 짙다.

사명대사의 번뇌

성지곡 수원지 상단에 홍제존자사명대사상이 서 있다. 사명대사의 당호는 사명四溟·종봉鍾峰·송운松雲이고, 법명은 유정이다. ‘유정대사충의비惟政大師忠義碑’도 함께 있다. 1880년고종 17 부산 첨사 임형준任衡準이 세운 것인데, 유정대사가 일본으로 가기 전에 부산에서 머물렀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94년선조 27년 왜군은 서생포율산와 웅천창원 등 곳곳에 왜성을 쌓고 지구전에 대비하는데, 조선 4개도를 일본에 넘기는 문제를 두고 극비리



사명대사상



유정대사 충의비



에 진행되고 있는 명·일 회담을 탐문하라는 도원수 권율의 지시에 따라 사명대사는 서생포에 주둔한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 진영에 들어가 회담을 하게 된다. 후일 ‘서생포회담’으로 불리는 이 회담에서 전해 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가토기요마사: 그대 나라의 보배는 무엇이나?

사명대사: 우리나라엔 보배가 없다. 우리나라의 보배는 바로 그대의 머리니까.

가토기요마사: 그 무슨 이야기냐?

사명대사: 난리가 나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데 우리나라 형편에 보배가 어디 있는가, 오직 그대의 목이 하나 있으면 조선은 전쟁 없이 편안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의 머리를 가장 값비싼 보배로 여긴다.

-「해인사 사명대사 석장비문」

임진왜란이 종결된 후 조선 조정은 일본과 강화조약을 맺기 위해 사신을 보내고자 하였으나 아무도 나서지 않아 사명대사를 보내는데, 사명대사를 본 일본인들이 “설보화상(說實和尚)이다. 저 스님이 설보화상이다”라고 환영하며 존경했다고 한다. 1605년(선조 38) 3월 일본과 화의를 맺고 3천여 명의 포로를 데리고 돌아오는데, 사람들은 그 공적만 기억하고 그 번뇌를 기억하지 않는데, 『사명당대사집』에 이런 시가 있다.

대마도 객관에서 왼쪽 두 번째 어금니가 괜히 시리고 아파서

베개에 엎드려 신음하다

病局賓館痛生牙 在車第二牙無故酸痛 伏枕呻吟

병든 몸 객관에서 어금니까지 아프니

病局賓館痛生牙

앉아서 세어 보니 평생 좋은 일 없었다네

坐筭平生百不嘉

머리 깎고 중 되어도 항상 길에 있었고

髮作僧長在路

세상 본받아 수염 남겨도 집은 없었네

留鬚效世且無家

연하(煙霞)의 산중 생활도 설어서 익히기 어려웠고

煙霞事業生難熟

존성(存省)하는 공부에도 채찍을 가하지 못했다고

存省工夫榮未加

진퇴의 두 길 모두 그르치고 말았는데

進退兩途俱錯了

흰머리로 어이하여 또 배를 탔는지 원

白頭何事又乘槎

사명 유정, 이상현 옮김, 『사명대사집』, 동국대학교출판부, 2014.

성지곡 수원지는 1978년 세계 아동의 날을 맞아 부산어린이대공원으로 이름이 변경되었고, 수변 공원에 ‘헌7학병1661명 기념비(憲七學兵一六六一名記念碑)’가 있다. 1950년 8월 28일 부산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중 1,661명이 육군헌병학교에 지원·입대하는데,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10월 4일 전국의 격전지에 분산·배치하였으니 많은 학생들이 전사하였다. 2001년 6월 16일 전쟁에서 살아남은 육군헌병학교 제7기 동기생들헌7학병동지회가 참전 5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비를 건립하였다.

수변공원에는 박재혁(朴載赫) 동상도 있다. 박재혁 열사는 1885년 좌천동에서 태어났다. 의열단 단원이었고, 1920년 김원봉으로부터 군자금 3백 원을 받아 부산경찰서에서 폭탄을 투척하여 일본인 경찰서장의 다리에 중상을 입히고 순국한 박재혁 의사의 항일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1998년 5월 12일 부산광역시에서 건립하였다. 가구거리공영주차장에 박재혁 의사 생가터 안내판이 서 있다.

사람 살기 좋은 곳, 초읍

이름이 촌스럽다. 시골의 흔적이 남아 있는 듯 ‘초읍’이다. 한자를 풀면 풀 고을, 풀 골이라는 뜻인데, 풀이 많아 생긴 지명으로 전한다는 설이 있다. 실제로 초읍은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산림이다. 북쪽과 서쪽으로는 백양산이 있고, 동쪽으로는 화지산이 둘러싸고 있어 천연의 성벽을 이루는 분지 지형으로 풍수상으로는 복조리 형이라 한다. 남쪽은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는데 지금의 시민 공원이고, 그 이전에는 한국전쟁 때 미군 하야리아 부대가,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 경마장이었다.

한 마디로 살기 좋았던 곳이라는 것인데, 실제로 초읍의 ‘초’는 처음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새로 생긴 읍’이라는 뜻도 있다. 즉, 초읍의 원래 이름은 ‘새터’였는데, ‘새’는 갈대를 의미하는 ‘초’로, ‘터’는 ‘읍’으로 표기하여 초읍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옛날 동평현의 치소가 지금의 당감동 부근에 있었는데, 고려 후기 부터 왜구의 침략이 잦아 천연의 요새인 이곳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마을이라는 뜻에서 새터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는 이때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마을 이름을 그리 불렀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지금의 시민 공원은 조선 시대에는 동래의 서쪽에 있다 하여 ‘서면’으로 불리던 곳이었고, 고을 하나를 넉넉히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의 넓은 논밭이 있었으니, 이전부터 많은 사람이 모여 살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초읍동에는 ‘초읍동 전기가설기념비’라고 하는 특이한 비석이 하나 있다. 초읍동에 전기가 들어온 것을 기념해 세운 비석으로, 처음에 초읍 못에 세웠던 것인데, 1965년 지금의 부산진고 앞산을 헐어서 못을 메우면서 지금의 초읍동새마을금고 도로변 화단으로 옮겼다. 초읍 못은 ‘화지언’이라 불렀는데, 동래부에서 가장 큰 못이었다고 한다. 이 화지언 외에 또 하



초읍동 전기가설기념비

나의 큰 연못이 있었는데, 새로 만들어진 못이라 하여 ‘신지언’이라 불렀고, 이 연못에 연꽃이 많아, 지금의 ‘연지동’ 이름은 여기서 유래한 이름이다. 연못은 사라지고 지금은 연지초등학교가 들어서 있다.

초읍동에 전기가 들어온 것은 1953년 6월 10일인데, 해방 이전부터 전기를 끌어들이려고 했으나 “머슴들이 밤새도록 잠자지 않고 전깃불 밑에서 노름하면 농사일 망친다”라며 지주들이 반대해서 못 했다고 한다. 한국전쟁이 끝나가던 무렵 전기가 들어오게 되는데, 기념비의 측면에는 공로자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모두 초읍 주민이다. 비석에는 특별공로자도 새겨져 있는데, 한국전력이 아니라 뜬금없이 한국은행이다. 전쟁이 나고 한국은행이 부산으로 피란을 오게 되는데, 한국은행 임직원의 거처로 인기가 높았던 곳이 초읍이었고, 이들의 힘으로 전기가 들어왔다고 한다. 초읍은 그 당시에도 살기 좋은 풀 골이었다.



장산, 긴 역사와 드넓은 바다를 품은 곳

해운대 장산(634m)은
부산에서 금정산 백양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산이다.
세계도시로 나아가는 해운대를 끼고
드넓은 바다를 굽어보는 모습은 아름답다.
장산이 있기에 해운대는 비로소 완성된다.
넉넉한 숲에다 다양한 산길,
사계절 물이 흐르는 장산은
부산시민의 돌도 없는
자연 휴식처이기도 하다.



장산 정상



1 천제단



2 마고당



6 모정원



4 원각사 현왕도



5 '이산' 표석



3 폭포사 묘법연화경



장산, 긴 역사와 드넓은 바다를 품은 곳

해운대 장산634m은 산과 강, 바다, 온천을 품었다 하여 사포지향四抱之鄉이라 불리는 부산의 자연 표상과도 같은 산이다. 화산 작용으로 산 자락에 해운대 온천이 있고 수영강, 춘천, 송정천 등 도심 하천을 끼고 바다에 이어져 있으니 사람 살기 좋은 복지福地라 할 수 있다.

장산은 부산에서 금정산801m, 백양산641m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산이지만, 기나긴 역사나 지형과 자연생태나 산이 품은 이야기를 보면 어디 내놔도 손색없는 명산이다. 세계도시로 도약하는 해운대를 끼고 드넓은 바다를 굽어보는 모습은 위풍당당한 개선장군 같다. 생김새도 삿갓 모양으로 준수하다. 도처에 등산로가 나 있고, 길마다 골마다 이야기도 널려 있다.

해운대와 기장의 경계를 따라 늘어선 장산은 부산에서 금정산 다음으로 등산로가 다양하게 나 있다. 해운대 좌동, 우동, 재송동, 반여동, 기장 내리 등 접근하는 방향에 따라 들머리가 제각각이다. 어디에서 출발하느냐는 도보자의 취향과 목적에 따라 다르다. 장산 전체를 보면 정상을 중심으로 옥녀봉, 중봉, 위봉 등 주요 봉우리를 거점으로 한 포인트 산행이 가능하고 감담산308m과 구곡산434m, 간비오산148m을 돌아보는 연계 산행도 생각할 수 있다.

해운대구는 '장산 구립공원' 누리집에 다양한 장산 트레킹 코스를 소개해 놓았다. 장산 종주 코스는 크게 장산과 해운대 해수욕장, 그리고 송정해수욕장을 잇는 두 곳이다. 해운대 해수욕장 종주트레일은 해운대 해수욕장~중봉~장산 정상 및 너덜길을 조망하고 석대천을 지나 해운대수목원까지 이어진다. 거리는 9.7km. 송정 해수욕장 종주트레일은 송정 해수욕장에서 출발하여 송정옛길을 지나 장산마을~반송공원~운봉산으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거리는 12.5km이다. 마음 단단히 먹고 걸어야 할 곳이다.

도심 가까이 이같은 멋진 종주코스가 있다는 것은 복이다. 부산은 걷기 좋은 복받은 도시다.



장산은 정상부에 장엄한 억새밭도 품고 있다. 필자 촬영

1 장한 기운을 품은 장산

사포지향 부산의 표상



1) 장산국의 옛터

장산(長山)이란 지명은 고대에 장산국이 있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원래 이름은 상산(上山)이다. 일설에는 상고시대에 산 아래 우시산국(于尸山國)이 있었는데 시(尸)가 고어로 ‘근’ 혹은 ‘스’으로도 읽혀 울산 또는 웃산이 되었다가 상산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장산의 장(長)자는 ‘거칠다’라는 의미와 ‘거친 복숭아’라는 뜻을 함께 지니고 있다. 거친 복숭아는 돌복숭아인데 껍질에 가시가 많이 돋아있는 것이 특징이다. 옛날부터 장산에는 거친 복숭아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거칠다’는 의미에서 이곳이 부산의 고대국가인 거칠산국이 자리했을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해운대 향토사학자인 김병섭은 “‘장(長)’자는 ‘보리수’란 뜻도 있어 불교와의 연관성도 찾을 수 있다”며 “어쨌든 문헌에 ‘장(長)’자로 나오는 만큼 ‘장(長)’이나 ‘장(壯)’을 쓰면 안 된다”고 말한다.

고대 장산국내산국은 미스터리 왕국이다. 고지도에는 장산국기(長山國基), 즉 장산국의 터가 장산 중턱 즈음에 있는 것으로 표시돼 있다. 산지 습지인 장자별 일원에서는 고대 토성 흔적과 우물이 조사되었고 토기와 엽전이 출토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식 발굴은 되지 않았다.

장산국 혹은 거칠산국이 신라에 귀속된 이야기가 『삼국사기』에 일부 전해

져 내려온다. 신라 탈해왕 때 이웃에 우시산국과 거칠산국이 있어 근심거리가 됐다. 당시 간(干)의 벼슬을 가진 ‘거도’라는 관리가 있었는데 두 나라를 신라에 귀속시킬 생각으로 매년 한 차례 장도현 기장지역 들판에서 병사들로 하여금 말을 타고 달리게 하는 마숙(馬蹴)이라는 위장 놀이를 하게 했다. 이때 이웃의 우시산국과 거칠산국 사람들은 신라에서 의례적으로 하는 놀이로 생각하고 방심했다. 이 틈을 타 거도는 병마를 이끌고 두 나라를 쳐서 없애버렸다는 내용이다. 이 기록에 대해, 학계에서는 거칠산국 또는 장산국이 가야의 소국이었으나 5세기 전반 또는 6세기 전반 어느 시기에 신라에게 병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장산 정상에는 수만 평에 달하는 넓은 들판이 있는데 ‘장자벼들’이라 불린다. 인근에 토성과 토기, 우물터가 발견되었다. 장자가 이 부족 국가를 다스렸을 지도 모르지만, 여전히 실체는 아리송하다.

장산의 역사는 기원 전 3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장산 기슭인 좌동 유적은 BC 3만~2만 년, 중동 유적과 청사포 유적은 기원 전 1만5천 년 전 후의 구석기 유물이 나왔다. 반여동에선 청동기인의 움집 유적이 발굴됐다. 장산 기슭에서 전혀 다른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에 의해 남겨진 유적이다.

2) 장산은 물산

장산은 무엇보다 물이 풍부해 예로부터 물산(水山)이라 불렸다. 더운 물, 찬 물, 약수, 정화수, 음료수까지 다 있다. 폭포가 자그마치 5개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양운(養雲) 폭포다. 암석단에 걸려 있는 이 폭포는 9m 높이에서 떨어지는 폭포수가 뿜어내는 하얀 물기둥과 함께 바위에 부딪혀 피어나는 물보라가 구름 같다고 해서 양운이란 이름을 얻었다. 폭포 아래는 둘레 15m가 되는 푸른 소가 있는데 마치 가마솥처럼 생겼다고 해서 ‘가마소’라

고도 불린다. ‘해운 8경’ 중 3경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약수샘, 마고당 약수 등 웅달샘이 곳곳에 널려 있다. 사찰 이름들도 옥천사, 금수사, 폭포사, 약수암, 장천사 등으로 모두 물이 들어가 있다. 산 기슭엔 유명한 해운대 온천도 자리한다.

장산에서 발원하는 하천은 춘천, 송정천, 반송의 수무지천, 반여의 신선천 등이 있는데, 산의 규모에 비해 물줄기가 풍부하다. 해운대 우2동의 코카콜라 공장과 반여1동의 펄스콜라 공장이 들어섰던 것도 장산의 풍부한 물과 무관하지 않다.

장산은 또한 자연 생태의 보고다. 정상 일원에 있는 장자별은 규모가 무려 10만여 평에 이르고 식생 상태가 아주 양호하다. 해운대 춘천이 여기서 발원한다.

장자별의 산썰레와 돌미나리는 명물이다. 봄철 이곳에 산썰레가 피면 일대 장관을 연출한다. 게다가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참개구리 지렁이 두더지 살모사가 산다. 이같은 산지 생태는 그 자체로 자연학습장 구실을 한다.

해운대구 조사에 따르면, 장산에는 삶과 수달, 담비, 너구리 등 포유류 10종, 도롱뇽, 무당개구리 등 양서 파충류 10종, 벌매, 새호리기, 붉은배새매, 팔색조 등 조류 36종, 물결나비, 갈색여치 어리호박벌 등 곤충류 111종이 산다. 또 깨묵, 물질경이, 꽃창포 등 육상 식물 433종이 발견되었고, 플라나리아, 다슬기, 무늬하루살이 등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60종, 긴물개, 버들치, 꺾지 등 어류 11종이 확인되고 있다.

춘천의 맑은 계곡물엔 최근까지도 물고기가 뛰놀았다. 춘천약어(春川躍魚·춘천에 뛰노는 물고기라는 말이 실감난다. 해운대 주변의 7개 포구가 말해주듯, 장산 근해는 예로부터 황금어장이었다.

3) 장산에 산재한 문화자원

장산 중턱에 자리잡은 천제단과 마고당부산시 민속문화유산 제6호은 아는 사람만 아는 특이한 유적이다. 해운대 신시가지 대천공원에서 임도를 따라 10여분 오른 뒤 갈림길에서 오솔길로 접어들어 20여분 올라가면 7부 능선쯤에 너럭바위와 함께 천제단 안내판이 나타난다. 제단 위에 세워진 3개의 입석은 한민족의 전통사상인 천·지·인을 뜻한다고 한다.

마고당은 천제단에서 남동쪽으로 200여 미터 떨어져 있다. 두 세겹으로 정교하게 쌓은 돌담 속에 제당이 숨어 있다. 바깥에서 보면 자그마한 성채 같다. 제당에는 ‘상산마고당(上山麻姑堂)’이라 적힌 작은 현판이 붙어 있다. 입구에는 마실 수 있는 웅달샘도 있다.

제의를 주관하고 있는 좌동향토문화보전사업회에 따르면, 매년 음력 1월, 6월에 제를 올리는데, 새벽 6시께 주민들이 제물을 지고 천제당에 가서 먼저 산신제를 지낸 다음 마고당 할머니를 모신다고 한다. 제의는 원래는 해운대의 좌동, 중동, 운촌, 미포, 장지, 오산 6개 마을이 순번제로 지냈는데 1987년 좌동사무소가 맡았다가 1995년 보전사업회가 맡아 지내고 있다.

조선시대 들어 장산은 나라에서 관리하는 봉산(封山)으로 보호될 만큼 산림 자원이 우수했다. 장산의 소나무도 유명했다. 장산 자락인 재송동의 조선골에서 조선통신사 선박과 좌수영의 병선을 제조했다는 사실은 장산을 다시 보게 만든다.

근래에는 장산 일대에서 ‘이산(李山)’ 표석 20여 개가 발굴됐다. ‘이산’은 ‘이 왕가의 산’을 뜻한다. 일제 강점기에 개인의 재산으로 등록되지 않은 임야는 모두 조선총독부의 재산으로 몰수하는 법이 시행되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왕실에서 급히 ‘이산’ 표석을 세워 장산의 임야를 지켰다고



장산은 시민들의 휴식처이다. 장산 구립공원 입구의 대천공원 풍경이다 필자 촬영



장산 천제단 필자 촬영



장산 마고당 필자 촬영

한다.

이밖에도 장산에는 고씨 할매고선옥 설화가 전해지고, 장산개척단으로 활동한 이정희 여사의 모정원 스토리와 그의 남편이었던 강근호 애국지사의 길이 조성돼 있다. 주요 문화유산으로는 폭포사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부산시 유형문화유산 제129호, 원각사 현왕도現王圖, 부산시 문화유산자료 제67호 등이 있다.

4) 장산은 불산(火山)

장산은 부산 국가지질공원 중 한 곳이다. 약 7천만 년 전 유문암질 화산 활동으로 분출된 화산재, 용암, 화쇄류가 장산을 뒤덮었던 것 같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다양한 화산암과 폭포, 돌서령 등의 웅장한 지형지세가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장산이다. 장산의 지질은 백악기 말 칼데라의 잔존 구조인 화산 함몰체로 한반도 남동부의 화산 활동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장산의 전체 형태는 원추형으로 산정은 예리하고 사면이 가파르다. 산정 아래에는 제4기 빙하 시대에 형성된 암괴류/너덜block stream, 거대한 암석 덩어리와 애추崖錐, 산지의 급사면에서 낙하한 암설이 퇴적된 지형로 이루어진 사면이 있다. 장산 둘레길을 ‘너덜길’이라 이름한 것은 이같은 지형 때문이다. 장산 중턱을 돌게끔 만들어져 있는 이 길은 장산의 웰빙 산책로이자 치유의 길로 사랑받고 있다. 장산의 동북쪽은 기장으로 이어지는 구곡산이고, 서쪽은 회동수원지로부터 흘러내리는 수영강이 자리한다.



장산은 불의 산으로 불린다.
사진은 장산 너덜경 모습이다 ■ 필자 촬영



장산은 물이 풍부해 '물산'이란 별칭도 갖는다.
사진은 장산 양운폭포 모습 ■ 필자 촬영

2 '장산 일주' 다양한 루트, 놀라운 조망 3~4시간 투자하면 장산 겉과 속 체험



대표 코스

대천공원 ⇒ 옥녀봉 ⇒ 중봉 ⇒ 장산 정상 ⇒ 억새밭 ⇒ 폭포사 ⇒ 대천공원

1) 해운대 어디서든 접근 가능

가장 대표적인 등산로는 대천공원에서 시작해 옥녀봉, 중봉을 거쳐 장산 정상을 찍고, 억새밭을 지나 폭포사를 거쳐 다시 대천공원으로 내려오는 원점회귀 코스다. 산행시간은 3~4시간 정도. 장산의 겉과 속을 두루 맛볼 수 있고 장산의 특성인 산지 습지 및 너덜경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대천공원에서 도시철도 2호선 장산역까지는 걸어서 15분 남짓 거리라 접근성도 좋은 편이다.

장산의 숲속을 여유롭게 걷고 싶다면 대천공원 내의 산림욕장을 기점으로 폭포사~체육공원~장산마을 갈림길~헬기장~장산~중봉~옥녀봉~대천공원을 택하면 된다. 대략 4시간 30분 소요된다.

수영구나 해운대구 우동에서 접근하려면 우2동사무소를 들머리로 잡는

장산 서편 루트가 적당하다. 우2동사무소~성불사~쫓대바위~정상~정상 뒷길~헬기장~돌탑~반송3동체육공원. 4시간 10분 정도 걸린다.

반송이나 철마 쪽에서 장산을 오르려면 반송2동 주공아파트에서 시작하면 된다. 반송2동주공아파트~돌탑~헬기장~억새밭~정상~쫓대바위~성불사. 약 4시간 소요된다.

재송동에서는 재송2동 세명아파트를 출발해 정상 밑 갈림길~억새밭~헬기장~장산마을~폭포사~산림욕장에 이르는 코스도 걸을만하다. 3시간 20분 소요되는데 장산 정상까지 다녀오면 약 20분이 더 걸린다.

재송동 반산중학교~동국아파트~너털체육공원을 거쳐 장산의 허리를 한 바퀴 도는 코스를 선택하여 중간에 정상으로 올랐다가 다시 내려와 동국아파트로 내려 온다면 5~6시간 정도 잡아야 한다. 이 코스를 선택해 산행에 나선다면 정해진 산행로를 따르는 게 안전하다. 군데군데 군부대 철조망이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장산에는 과거 군부대에서 묻어둔 지뢰들이 일부 남아 있어 위험지대 진입은 금물이다.

정상을 최단 루트로 답파하고 싶다면 반여3동 체육공원에서 출발해 정상 뒷길을 지나 정상에 오른 뒤 반여초등학교를 지나 관음정사로 내려오는 길을 추천한다. 2시간 가량 걸린다.

산행시간이나 난이도는 어떤 코스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장산을 걸어서 즐기려면 적게는 2시간, 많게는 7~8시간이 소요되는 코스까지 다양하다.

장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위의 코스들을 응용하면 좋겠다. 산길은 얼핏 숲속에 숨어 복잡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거의 다 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길을 산의 혈관이라 일컫는 이유다.

어디를 오르나 장산은 조망이 특별해 산행을 하는 동안 시원한 눈맛과 함께 치유의 시간을 얻는다. 전망이 트인 곳을 지나다보면 문득 쪽빛 바다



장산은 해운대구 어디에서든 접근이 가능할 정도로 등산로가 다양하다 ■ 필자 촬영

해운대와 광안리가 손에 잡힐 듯 다가오고, 바다를 끼고 산따라 골따라 길 따라 들어선 우리네 삶터도 덩으로 살필 수 있다.

2) 해운대구, 2021년 장산 구립공원 지정

2021년 9월 해운대구는 장산을 구립공원으로 지정했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전국 최초 사례다. 장산의 자연생태와 산길, 문화 체육시설, 역사와 교육자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홍보하기 위한 조치다. 장산을 지키려는 해운대구의 의지가 읽힌다.

장산은 그동안 토지 소유관계에 따라 산림청·국방부·미군부대·민간 등 관리주체가 분산돼 있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웠다. 그러다가 장산이 구립공원이 되면서 해운대구가 협의 권한을 가짐에 따라 장산을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 6·25 전쟁 이후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했던 장산 정상에 군과 협의해 70여 년만에 시민에게 개방했다. 개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그리고 정상 표지석, 진입로, 입간판, CCTV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해 주민이 안전하게 정상을 오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등산로를 대폭 정비하고 장산 정상, 장산체육공원, 재송소공원 등 3곳에 화장실을 새로 설치했고, 구립공원 입구에 '조형문자 포토존'을 조성했다.

해운대구는 '장산 구립공원' 홈페이지에 다양한 장산 트레킹 코스를 소개해 놓았다. 장산 종주 코스는 장산과 해운대 해수욕장, 그리고 송정 해수욕장을 잇는 두 곳이다. 해운대 해수욕장 종주트레일은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출발하여 중봉을 거쳐 장산 정상 및 너덜길을 조망하고 석대천을 지나 해운대수목원까지 연결된다. 거리는 9.7km, 난이도 중. 송정 해수욕장 종주트레일은 송정 해수욕장에서 출발하여 송정옛길을 지나 장산마을~반송공원~운봉산으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산악마라톤트레일런에 적합한 종주길이다. 거리는 12.5km, 난이도 중. 전문적인 장비는 필요치 않으나 노약자가 보행하기는 어려운 코스다.

둘레길 두 곳도 소개한다. 장산 둘레길은 반송공원~임도~장산 너덜길~재송소공원~임도~해운대여고까지 약 8.3km 구간이다. 난이도 하. 다른 한 곳은 운봉산 둘레길로 해운대수목원~운봉들~윗반송역까지 연결된다. 거리는 약 6.5km, 난이도 하.

테마 탐방로 코스로는 ▲너덜길 탐방로(장산폭포~너덜정1~중봉~너덜정2~초록공원 약 5km)와 ▲송정옛길(부산환경공단~메타세콰이어 숲길~기억의 쉼터~바다전망대~송정해수욕장 약 2.4km)이 눈길을 끈다.

이와 별도로 해운대구는 '장산 숲길' 코스 세 곳을 조성해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천공원을 거점으로 한 ▲참여의 숲길 ▲배움의 숲길 ▲건강의 숲길이 그것이다. 각각 1~2시간이면 돌아볼 수 있어 취향이나 목적에 따라 이용하거나 적절히 응용해 혼합 코스를 만들 수도 있다.

3) 장산 너덜길 원점회귀 코스

코스

대천공원 ⇨ 옥녀봉 ⇨ 너덜지대 ⇨ 조망바위 ⇨ 반여3동 체육공원 ⇨ 장천사 ⇨ 반송3동 체육공원 ⇨ 돌탑 ⇨ 구곡산 안부 ⇨ 장산마을 ⇨ 대천공원

장산 트레킹 코스는 어디를 기종점으로 잡느냐에 따라 다양한 노선이 그려질 수 있다. 단체나 개인 할 것 없이 취향이나 목적에 맞게 설계를 하면 된다. 산악인들과 걷기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대천공원을 기종점으로 하는 원점회귀 코스 하나를 소개한다.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과 자가용 이용자들을 감안한 코스다.

구체적인 산행 코스는 대천공원~옥녀봉~너덜지대~조망바위~반여3동



장산 정상에 오르면 해운대 시가지와 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 필자 촬영

체육공원~장천사~반송3동 체육공원~돌탑~구곡산 안부~장산마을~대천공원이다. 전체 거리가 약 14km에 걷는 데만 5시간이 걸리는 만만치 않은 코스다. 하지만 겁낼 필요는 없다. 초반의 옥녀봉 구간만 빼고는 대체적으로 평이하고 아기자기한 길이다. 산길이라 다소의 오르내림은 감수해야 하고 대신 오른 만큼 조망이 열려 피로한 줄도 모른다.

들머리는 대천공원 입구다. 대천호수를 지나 장산사까지 못가서 개울을 건너면 산으로 오르는 셋길을 만난다. 정상·옥녀봉 이정표를 보고 능선을 타고 올라간다. 길이 완만해지는 곳에서 Y자 갈림길을 만나면 옥녀봉 방면으로 간다. 계속 이어지는 능선길. 숲길을 지나면 해운대와 수영 일대의 도심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낸다. 바위가 깔린 된비알 구간을 오르면 1차 목표점 옥녀봉^{370m}이 눈앞에 다가온다.

옥녀는 누구였을까? 산에 자주 오르는 사람들은 전국 곳곳에서 ‘옥녀봉’을 만난다. 옥녀봉은 장산에도, 경남 합천 삼가면에도, 전남 순천 송주에도, 서울 양재동에도 있는 흔하디 흔한 산봉우리 이름이기 때문이다. 국토지리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명칭이 있다고 등록된 산봉우리는 전국에 2137개. 이 중 가장 많은 산봉우리 이름은 국사봉으로 138개가 있고, 2위는 옥녀봉으로 95개에 달했다. 3위는 매봉^{78개}, 4위 시루봉^{74개}, 5위는 형제봉^{51개}이다. 국사봉의 경우 한자는 조금씩 달라 국사國師, 국사國土, 국사國事, 국사國思 등을 쓴다.

옥녀봉은 풍수지리학과 관련이 있다. 옥녀봉이란 이름이 붙은 봉우리가 있는 산은 대개 험하지 않고 봉우리가 밋밋하고 둥그스름하다. 그 모습이 옥같이 고운 여인의 쪽진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옥녀봉이라 부른다. 전국 곳곳에 산재한 ‘옥녀’가 장산에도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이 선녀인 옥녀의 신통력을 믿고 싶었나 보다.

옥녀봉에 오르면 울울창창한 소나무 아래로 해운대 광안리 영도 송도까지 부산의 바다 조망이 시원하게 펼쳐진다. 광안대교가 유연한 라인을 그리며 가물가물 바다에 떠 있다. 한 등산객은 “시계가 좋은 날엔 저 바다 건너 대마도가 희미한 형체를 드러낸다”고 귀띔했다.

4) 장산 허리길이 어디예요?

이제 난코스는 지난 셈이다. 한숨 돌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붓한 오솔길을 걷는다. 체육시설의 쉼터를 지나면 장산너덜길을 만난다. 장산너덜길은 부산에 갈맷길이 만들어질 시점인 2009년 말 조성한 둘레길 16.3km이다. 그 전에는 장산 순환 허리길이란 이름으로 불렸다. 등산객들 중에는 아직도 장산 허리길이라 부르는 사람이 적지 않다.



장산 습지는 산지 습지로서 생태적 보존가치가 높다 ॥ 필자 촬영

중봉으로 가는 이정표를 찾았다면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 능선길이 완만해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갈릴길이 나오면 반송동 체육공원 방면으로 진행한다. 여기서 곧장 올라가면 정상으로 치고 오르는 길이다. 너털경을 만난다. 너털경은 돌이 많이 깔린 비탈을 뜻하는 순우리말. 줄여서 ‘너털’이라 한다.

장산은 화산활동으로 인해 만들어진 장산 절리를 따라 암석에서 분리된 돌들이 쌓여 발을 이룬 ‘너털’이 잘 발달하여 기괴하고 웅장한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장산 자락에 무수히 널린 너털경은 돌너털, 테일러스, 애추, 돌서령, 암괴류 등 다양한 이름을 갖는다. 화산암으로 이루어진 장산 너털경의 돌들은 가로와 세로축이 각각 2~10m, 1~6m로 매우 큰 편에 속하며 너털경 전체 면적은 43만㎡에 이른다. 이로 인해 장산은 2013년 부산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너털이 깔려 있는 길이 ‘너털길’이다. 뺨죽뺨죽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인



장산은 정상부에 장엄한 억새밭도 품고 있다 ॥ 필자 촬영

바위와 돌덩이들이 장산 기슭에서 수영강이나 바다로 쏟아져 내릴 듯한 기세다. 장산에 이러한 너털경이 10여 군데 존재한다. ‘장산 너털길’이란 이름을 가질만하다.

길은 반여동 방면으로 향한다. 부산 도심이 한눈에 잡히는 조망 바위를 지나면 고즈넉한 산길이 이어지고 폭신평탄한 흙길을 즐기다 보면 장천사에 닿는다. 장천사와 약사여래불 사이 셋길은 억새밭과 장산 정상 방면으로 이어진다. 이어 약수터가 나오고 곧바로 반송3동 체육공원이다. 반송 쪽에서 장산을 종주하거나 둘레길을 걸으려면 여기서 출발해도 된다.

경찰특공대 훈련장까지 못가서 임도를 따라 올라가면 돌담과 장산 정상 가는 길이 연결된다. 돌담은 오거리로서 산길이 자그마치 다섯 갈래가 만나는 요충지여서 산꾼들의 쉼터 또는 만남의 장소가 되고 있다. 이곳에서 기장 한전, 안적사, 장산마을, 헬기장과 정상으로 갈 수 있다.

돌탑 오거리에서 돌탑을 오른쪽으로 끼고 갈림길로 들어선 뒤 왼쪽 장산마을 이정표를 따라 간다. 아기자기하고 평탄한 길이다. 역새발이 보인다 싶으면 구곡산 안부鞍部다. 여기서 구곡산 정상도 멀지 않다. 왕복 10분 거리이니 여유를 부릴만 하다.

여기서 직진하면 군 작전도로를 겸한 임도를 만난다. 장산 정상이 개방됐다고 하나, 정상부에는 군사시설이 적지 않고, 등산로가 아닌 곳에는 지뢰가 매설돼 산꾼들을 적잖이 긴장시킨다.

임도를 따라 내려오다 장산 마을을 끼고 내려간다. 해운대 좌동 장산 마을은 1963년 장산 개척단에 의해 조성된 마을이다. 장산 개척단은 퇴역 장병 10여 명이 당시 원호청으로부터 정착 대부금을 받아 설립됐다. 60년대엔 강근호 지사의 부인 이정희 여사가 개척단장을 맡기도 했다. 마을 주민들은 해발 550m의 산정을 개간한 뒤 목축과 고랭지 채소를 가꾸며 생활 터전을 일구었다. 이후 부산시가 퇴역 장병들에게 토지를 불하하며 거주자가 늘어났다. 현재는 20여 가구가 살고 있으나, 진입로가 군부대 안에 있고 의료시설이나 학교가 없어 많은 생활 불편이 따른다.

장산 마을에서 원각사를 지나 산길을 따라 내려가면 종착점인 대천공원 폭포사에 이른다. 장산의 주요 지점을 돌아온 약 14km의 ‘경쾌한 트레킹’이 었다.

3 애국지사 강근호 길

만주 청산리 전투의 주역



1) 만주벌의 이름 없는 전사

장산에는 민족혼과 의열義烈을 생각하게 하는 자취들이 있다. 장산국의 전설이 그렇고 천제단 마고당 유적이 그렇다. 장산 자락에 조성된 ‘애국지사 강근호 길’은 항일 독립정신을 일깨우는 길이다. 이 길을 걷다보면 의열, 호국, 애국 같은 단어가 떠올라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한다.

애국지사 강근호 길은 해운대구가 2015년 4월 청산리전투에 참가해 공을 세운 독립운동가 강근호 지사를 기리기 위해 조성한 명예도로다. 장산 대천공원에서 모정원까지 약 2km 구간이며, 장산 나들이나 체험학습하기에 좋은 곳이다.

강근호 길은 대천공원 폭포사를 지나 체육광장에서 시작된다. 체육광장에서 시계 2시 방향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애국지사 강근호 길을 알리는 표지석이 서 있다. 초입부는 가파른 오르막길이다. 조금 가면 장산의 특이 지형인 더덜경이 나타나고 해운대 도심이 언뜻언뜻 조망된다. 길 중간에 천제단으로 가는 안내판도 보게 된다.

강근호 지사는 1920년 청산리전투에서 북로군정서의 중대장을 맡아 큰 공을 세웠던 독립운동가다. 사실 그의 이름과 공적이 알려진 것은 오래 되지 않았다. 청산리전투라 하면 보통 김좌진 장군과 홍범도 장군을 떠올

릴뿐, 함께 싸운 여타 투사들은 가려진 존재였다. 강근호 지사 역시 잊혀질 뻔한 존재였으나 그의 부인인 이정희 여사의 끈질긴 노력으로 1990년 건국훈장에 추서되어 비로소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부산의 해양사학자 김재승의 역할이 컸다. 김재승은 이정희 여사 생존시 장산 모정원을 수시로 드나들며 이여사의 구술을 채록·정리하고, 치밀한 자료 조사를 통해 강근호 지사의 일대기를 복원했다. 그것이 2002년 출간된 『만주별의 이름 없는 전사들』이다. 이 책이 나오면서 강 지사의 애국적 삶이 비로소 조명되기 시작했다.

강 지사는 1898년 함경남도 정평군 신상면 조양리에서 부친 강형석과 모친 신혜운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체격이 건장했던 그는 함흥중학교 시절 학생운동을 벌인 전력이 있고 도피생활을 했으며 1916년 일제의 탄압을 피해 만주로 망명을 갔다. 만주에서 강 지사는 1920년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고 조국 독립을 위한 무장투쟁의 길을 걸었다.



장산 체육공원에서 시작되는 강근호 지사의 길 | 필자 촬영

강 지사는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한 직후 김좌진 장군의 요청에 따라 북로군정서의 사관연성소에서 교관으로 활동했다. 청산리 전투에서는 제1중대장 서리로 참전을 했는데, 중대장들 가운데 나이가 가장 어렸다고 한다. 나중에 드러난 사실이지만, 독립투쟁 당시 그는 강화린(姜華麟, 강화인(姜和仁)이라는 가명을 썼는데, 그 때문에 독립운동을 입증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¹⁾

게다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1960년 작고 이후에 남아 있는 유품이란 것도 사진 몇 장과 6·25전쟁 참전으로 받은 무공훈장 등이 전부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정희 여사는 강 지사의 업적을 집요하게 추적했다. 강지사는 생전에 ‘만주별의 이름 없는 전사들을 위해 작은 돌비석이라도 세워달라’는 말을 유언처럼 남겼다고 한다. 함께 무장투쟁한 이름 없는 동지들을 기억해 달라는 간절한 당부였다.

2) 강근호와 이정희의 러브 스토리

강근호 지사는 1945년 염원하던 독립이 이루어지자 만주 망명 31년 만인 1947년에 고국으로 돌아왔다. 청산리 대첩에서 공을 세웠지만 그를 알아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는 50세 나이로 육군사관학교에 재입교한 뒤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이정희 여사와의 만남은 운명적이었다. 이여사는 1953년 강원도 양구의 103사단에서 정보요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강지사는 당시 103사단의 122연대장이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은 크리스마스 파티 참가를 계기로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 여사는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4살의 나이 차

1) 박창희 외, 『부산학의 선구자들: 김재승 편』, 부산연구원, 2020.

를 극복하고 1953년 진중 결혼식을 올렸다.

이 여사는 1932년 충남 대덕군 진남면 송정리 태생의 당차고 명민한 여자였다. 그의 증조부는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 이시영이다. 한국전쟁이 터지자 이 여사는 대구로 피난을 왔다가 학도의용군에 자원 입대하여 방송요원으로 활동을 했다. 그후 여군으로 입대하여 국군 제1군단의 일원으로 참전하기도 했다.

강 지사는 1956년 제대 후 부산 영도 영선동에서 살았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 영도 판잣집에서 살던 강 지사는 1960년 향년 63살의 나이로 숨을 거뒀다. 강 지사의 묘는 처음에 영도 봉래산에 두었다가 1964년에 해운대 장산 모정원으로 옮겨졌고, 1990년 건국훈장 추서와 함께 다시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 되었다.

3) 장산개척단 활동

이 여사와 장산의 인연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편이 숨진 후 이 여사는 생활고를 겪다가 미군의 도움을 받아 고아원에서 일을 했다. 한 동안 보육원을 운영했던 이 여사는 1964년부터 장산개척단장을 맡는다. 그녀는 지금의 장산마을 역사 그 자체다. 장산 일대 50만 평에 대한 개간 허가를 받고, 주민들과 함께 자갈밭을 일구었다. 무와 배추, 감자와 고구마 등을 심었고 젓소를 들여와 사육했다. 당시 부산항을 통해 들어온 외래종 젓소는 뉴스거리였다. 장산마을 근처에는 이때 사용한 목장터가 있다. 목장은 1990년대까지 젓소를 키우다가 해운대 신시가지의 개발에 따라 사라졌다.

장산개척단장으로 활동하면서 이여사는 모정원(母情苑)을 만들어 2016년 10월 별세할 때까지 살았다.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는 동



이정희 여사가 만년에 기거한 장산 모정원 Ⅱ 필자 촬영

산’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모정원에는 강 지사의 자료와 함께 추모비 등이 세워져 있다. 매년 삼일절과 현충일, 광복절, 청산리대첩 승전일 등 기념일이 되면 이곳에서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수많은 행사가 열린다. 2016년 10월 이 여사가 향년 84세로 별세한 후 모정원은 주인 잃은 동산이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이가 이곳을 찾아 나라를 위해 힘쓴 애국지사를 추모하고 이정희 여사의 호국·개척정신을 기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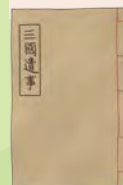


금정산, 좋은 산의 조건 다 갖춘 명산 아낌없이 주고 사람을 품는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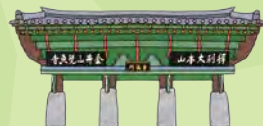
금정산(801m)은 부산의 진산이자
한국의 명산이다. 사계절 자연생태가 뚜렷하고,
물이 풍부하며, 산세 경관이 빼어나고,
지역의 역사와 이야기를 품고 있다.
무엇보다 접근성이 좋아 부산 북구, 금정구,
동래구 양산 쪽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쉽게 오를 수 있다.
하루만 투자하면 능선 종주가 가능하다.
이런 산을 품은 부산은 복받은 도시다.



6 청련암



3 범어사 소장 '삼국유사'



2 범어사



금정산 고당봉



4 금샘



5 울리바위그늘유적



1 금정산성 동문



금정산, 좋은 산의 조건 다 갖춘 명산 아낌없이 주고 사람을 품는 후원

“참 좋은 산이여! 부산의 복덩어리여!” 금정산성의 동문에서 북문으로 가는 길. 휴일, 형형색색 차림의 걷기꾼들이 이구동성으로 금정산을 상찬한다. 걷는 이들의 표정이 밝고 경쾌하다. 금정산 주능선과 금정산성의 흔적을 따라 난 등산로는 다른 데서 맛볼 수 없는 묘한 역사적 상상력을 부채질한다. 동문을 벗어나면 울창한 소나무 숲길이 나타나고 걷기 좋은 흙길이 한참동안 이어진다. 거추장스러운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는 사람도 더러 보인다. 걷기에 진심인 사람들에게 금정산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주고 유유자적이다.

보면 볼수록 정 깊은 산이 좋아서
하루 또 하루 지나도 산에서 사네

-이정선, 「산사람」

누군가 콧노래를 흥얼거린다. 발걸음이 경쾌하다. 바쁜 세상, 마음의 한가로움을 얻으니 이보다 값진 행복이 다시 없다. 금정산 산길은 일상의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연결고리다. ‘왜 산속에 사느냐고 물으니 웃으며 답하지 않지만 마음은 저절로 한가롭다’라는 중국 시인 이백의 ‘산중문답’의 시구가 절로 떠오른다. 금정산을 걷고 있는 당신, 지금 뭐가 부러운가.

금정산^{801m}은 그다지 높지도 크지도 않은 산이지만, 좋은 산의 조건을 거의 다 갖춘 명산^{名山}이다. 사계절 자연생태가 뚜렷하고, 물이 맑고 풍부하며, 산세 경관이 빼어나고, 지역의 역사가 흐르고, 산마을 곳곳에 사람 이야기가 넘친다. 게다가 접근성이 좋아 사방팔방 어디에서든 마음만 먹으면 쉽게 오를 수 있고, 하루만 투자하면 능선 종주가 가능하다.

바다만 있고 산이 없는 부산은 상상할 수 없다. 금정산은 산의 도시 부산의 근간이다. 금정산이 있기에 부산은 비로소 부산다워진다. 옛 사람들이 부산^{釜山}을 왜 산 부자 도시, ‘부산^{富山}’이라 했는지 알 것 같다.

사람들은 예로부터 금정산을 부산의 진산^{鎭山}, 주산^{主山}이라 일컬었다. 진산은 옛날 도읍지나 각 고을에서 진호^{鎭護}하는 곳으로 정하여 제사하던 산이다. 부산의 산들은 대부분 금정산에서 갈라져 나간 지맥으로 볼 수 있다. 풍수지리설상 금정산은 부산의 주산에 해당한다.



부산의 진산인 금정산의 주능선 풍경. 언제, 어느때 올라도 좋은 최고의 명산이다. 필자 촬영

1 금정산을 걷는 일상의 행복

자연 속 풍부한 역사문화자원



1) 천년 이야기의 샘, 금샘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아름다운 금정산 이야기 하나가 전해 온다. ‘금정산은 동래현의 북쪽 20리에 있다. 산마루에 큰 돌이 있는 데 그 위에 샘이 있다. 돌레가 10여 척이고 깊이가 7촌 가량으로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다. 한 마리 금빛 고기가 오색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와 범천(梵天)에서 논다.’

금빛 샘이 있는 산, 금정산(金井山)이란 이름은 여기에서 유래한다. 범어사 창건설화도 마찬가지다. 금정산이란 이름이 유래한 범천과 금샘, 금어와 관련한 일화는 범어사 창건 설화와도 겹친다. 범어사는 678년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해동의 화엄십찰 중 하나로 창건했다. 범어사란 이름은 범천의 범(梵)과 금어의 어(魚)가 합쳐진 것으로, 천상계와 지상계를 아우르는 절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금샘은 하늘과 땅, 천신과 산신, 자연과 사람을 연결하는 우물이다.

금정산의 최고봉은 고당봉(姑堂峰)이다. 고당봉 바로 턱밑에는 고모당이 라는 당집이 자리한다. 수백 년 전부터 있었다고 한다. 고모당은 고모산신, 즉 할미산을 모신 곳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산신 사상과 관련이 있다. 지리산 성모상이나, 한라산의 설문대할망이 그렇듯, 금정산 할미도 인간 세



금샘 ■ 필자 촬영

상에 생산과 풍요를 안겨다주는 오랜 민간신앙을 반영하는 현장이다.

금샘은 어디에 있는가. 금샘은 사실 아는 사람만 찾아간다. 고당봉으로 오르는 등산로 오른쪽에 고당샘이 있는데, 그곳에서 동쪽으로 난 오솔길을 따라 200m쯤 가면 암릉지대가 나온다. 밧줄을 타고 바위에 올라서면 높이 4m 정도의 우람한 바위기둥을 만나는데, 이것이 곧 금샘이다. 꼭대기가 넓은 그릇 모양으로 패어 물이 고여 있다. 바닥의 길쭉한 홈이 물고기를 연상케 한다. 심한 가뭄이 오면 물이 마르기도 하지만 비가 오면 금방 채워진다.

금샘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것은 1990년대 들어서다. 일찍이 범어사 스님들은 기록 등을 토대로 그 존재를 알았던 것 같은데 보존 차원에서 비밀로 해왔을 것이란 이야기도 있다. 어쨌거나 금샘은 문헌과 현장, 전설이 일치하는 흥미로운 이야기의 샘이면서 역사문화자원이다.

2) 국내 최대 규모의 금정산성

금정산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금정산성사적 제215호¹⁾이 있다. 북구 화명동부터 금정구 남산동에 이르기까지 약 18km에 달하는데 1703년 처음 쌓았다. 그러다 1740년대에 대거 무너진 것을 1808년 동래부사 오한원이 방어를 위해 다시 축성했다. 지금의 금정산성은 1970년대부터 꾸준히 복원된 것이다. 축성 이후 한번도 실전에 써먹지는 못했지만, 호국 의지와 국토수호의 정신을 일깨우는 소중한 역사유적이다. 이 산성은 대부분의 등산로와 연결되어 있어 산성 따라 한 바퀴 돌아보는 트레킹 코스로도 제격이다.

금정산은 대체로 산록이 가파르고 사면에는 거대한 바위들이 깔려 있다. 산정을 잇는 산릉은 치밀한 절리 때문에 부서진 기반암의 노출로 경관이 마치 자연 성곽처럼 우람하다. 우리 선인들은 산간 분지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자연조건을 이용하여 산성을 쌓았다. 금정산맥의 주봉인 고당봉



금정산성 제4망루와 부채바위 전경 ■ 필자 촬영

을 비롯하여 장군봉과 원효봉, 상계봉 등 고도 500~800m의 산정과 산정 사이를 잇는 능선 대부분이 산성으로 이어진다. 성채와 같은 산세를 적극 활용한 산성이라 경관이 빼어날 수밖에 없다.

3) 수려한 경관의 국가지질공원

금정산은 지질학적 가치가 높아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곳이다. 약 7천만 년 전 지하에서 마그마가 식어 생성된 화강암이 융기하여 만들어졌는데, 오랜 세월 비바람에 깎이고 다듬어진 기암절벽, 토르, 나마, 인셀베르그, 블로스트림 등 우아한 화강암 지형을 이루고 있다.

금정산에는 독특한 바위 지형인 토르가 발달해 있다. 토르는 커다란 한 개의 화강암 바위가 풍화작용에 의해 수직과 수평으로 깨어진 틈, 즉 절리에 의해 하나하나가 독립된 바위로 서 있는 것을 말한다. 이같은 토르가 금정산에 대략 50개쯤 있고, 높이는 4~15m로 다양하다. 최고봉인 고당봉과 상계봉도 토르이다.

금정산은 2020년 12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된 부산 국가지질공원 중 한 곳이다. 부산의 국가지질공원은 이밖에도 낙동강하구, 물운대, 두송반도, 송도반도, 두도, 태종대, 오륙도, 이기대, 장산, 구상반려암, 백양산 등 총 12곳이다. 금정산 지질공원 안내소는 금정산성 북문 인근에 자리하며, 자연학습장으로 기능한다.

역사적 지질학적 의미가 아니더라도, 부산 사람들에게 금정산은 ‘문화적 후원’, ‘도시의 허파’, ‘생태계의 보고’ 등으로 통한다. “부산을 키운 건 팔팔이 금정산이다”라는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닌 것이다.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금정산의 암릉. 동문~북문 주능선에서 바라본 모습이다 || 필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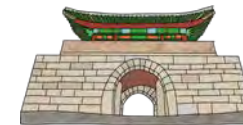
4) 천갈래 만갈래의 등산로

금정산에는 몇 개의 등산로가 있을까? 부산시 자료에 따르면 금정산에는 총 59개의 공식·비공식 등산로가 있다. 59개 코스를 연장하면 144km라고 한다. 이 가운데 지정 등산로는 총 27개 총연장 69.2km다. 대표적인 등산로 또는 트레킹 코스는 갈맷길 7코스 금정산 구간 19.8km가 있고, 금정산 둘레길 88.6km, 금정산 숲속 둘레길 56.3km이 꼽힌다. 이밖에도 범어사 일원의 등산로를 비롯, 금정산 웰빙산책로, 부산 국가지질공원 금정산 지질탐방로 등 다양한 길이 조성돼 있다.

이들 등산로는 금정산의 혈류이자 접근 통로이다. 금정산은 등산로를 통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자신을 온전히 내주고 자연으로 우뚝 서 있다. 때때로 인간의 시달림과 응석을 감내하면서.

자, 백문불여일보百聞不如一步. 금정산의 자연 속으로 길을 찾아 떠나보자.

2 금정산 종주길 낙동정맥 기상과 호흡



1) 낙동정맥의 마지막 등줄기

강원도 태백의 백두대간 삼수령에서 시작된 낙동정맥은 동해를 따라 내려오다 부산에 들어서면서 금정산맥을 만난다. 백두대간의 기상이 금정산에 스며든 셈이다. 도시의 산이 그렇듯 금정산 등산로도 사방팔방 여러 갈래로 연결돼 있다. 도시철도 2호선이 생기기 전까지 등산로는 낙동강을 끼고 있는 산의 서쪽보다 범어사와 금강공원이 있는 동쪽에 훨씬 많았다. 북구 만덕동을 통과하는 도시철도 3호선이 생기면서 사정이 달라져 지금은 동·서쪽 사면을 막론하고 등산로가 거미줄처럼 이어져 있어서 어디서든 마음만 먹으면 오를 수 있다.

등산로 특징을 보면 동쪽은 산길이 짧고 주변에 주거지가 많아 여전히 등산객이 붐비는 반면, 낙동강을 끼고 있는 화명이나 금곡, 호포 쪽에서 오르는 서쪽의 등산로는 비교적 길고 잘 다듬어지지 않아 한적한 편이다. 그러나 도시철도 3호선 개통 이후 접근성이 좋아진 만덕동, 덕천동 쪽에서도 상계봉의 탁 트인 조망을 찾아 오르는 등산객이 늘고 있다. 어디서든 도시철도나 노선버스를 타고 손쉽게 오를 수 있으니, 주말이나 휴일이면 금정산을 찾는 등산객이 줄을 잇는다. 최고의 시민공원인 셈이다.



금정산 동문~북문~고당봉~장군봉을 잇는 주능선의 등산로 ■ 필자 촬영

금정산의 크기나 위용을 느껴보려면 먼저 주능선을 종주해야 한다. 금정산 주능선은 태백에서 시작된 낙동정맥이 다대포까지 이어지는 북에서 남으로 향하는 방향이 좋다. 양산 쪽에서 올라 낙동강 물줄기와 먼 바다를 바라보며 쇠미산이나 금정봉까지 걷다 보면 금정산을 오롯이 품은 듯 독특한 산맛과 재미를 느낄 수 있다.

(1) 양산 계석마을~금정봉 종주

코스

양산 다방동 계석마을 ⇨ 다방봉 ⇨ 임도 ⇨ 은동굴 갈림길 ⇨ 727m봉 ⇨ 장군봉 ⇨ 고당봉 갈림길 ⇨ 마애불 갈림길 ⇨ 고당봉 ⇨ 북문 ⇨ 동문 ⇨ 대륙봉 ⇨ 만덕고개 ⇨ 금정봉

금정산 주능선 종주라고 하면 겁부터 집어먹는 사람이 많지만, 실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신발끈을 졸라매면 시작이 반, 못오를 곳이 없다. 시작 구간인 양산 계석마을~장군봉 구간을 제외하면 비교적 평탄한 트레킹 코스다.

전체 코스를 잡아보면, 양산 다방동~계석마을 입구~다방봉~임도~바위봉~은동굴 갈림길~727m봉~장군봉~고당봉 갈림길~샘터~마애불 갈림길~고당봉~북문~제4망루~동문~산성고개~대륙봉~제2망루~휴정암 갈림길~소나무 전망대~만덕고개~동래구민의 숲~금정봉이 된다. 산행 소요시간은 약 7시간이다. 하루 코스로 제격이다.

출발지는 양산시 동면 석산리 계석마을. 흔히 양산 다방리로 알려진 곳이다. 계석^{계석}이라는 마을 이름은 산 북쪽에 돌이 많다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부산도시철도 1호선 명륜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양산 방향으로 가는 시외버스를 타고 양산 다방리에 내려 다방교를 건너면 계석마을이다.

계석마을은 셋바위봉 북쪽에 자리하며 들머리가 꽤 가파르다. 산길을 20분쯤 오르면 다방봉538m에 닿는다. 질매재를 지나 임도에 들어서

면 은동굴 갈림길이 나온다. 나무계단을 지나 작은 봉우리에 올라서면 양산시가지와 물금 일대가 한눈에 들어온다.

이제 727m봉과 장군봉^{734m}으로 이어지는 산 능선길이다. 높이가 곧 이름인 727m봉은 전망대로 손색없다. 눈앞에 우뚝 솟은 장군봉이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듯하다.

사배고개 갈림길을 지나 비교적 평탄한 송전 철탑을 통과하면 가산리 마애여래입상 갈림길이 나온다. 등산객들이 흔히 ‘미륵불’이라 부르는 마애여래입상인데, 다소 희미하긴 해도 눈매 등 표정이 자애롭다. 유장한 흐름의 낙동강을 굽어보는 자태가 인상적이다. 갈림길에서 양산쪽으로 150m 정도 떨어져 있지만, 내려가서 기도 드리면 마음이 편해진다.

여기서 고당봉^{801m} 아래까지는 폭신평신했던 오솔길이다. 코앞에 고당봉이 우뚝 나타나 있다. 금정산의 유래를 담은 금샘을 지나칠 수 없다. 금샘으로 가려면 고당봉으로 바로 오르지 말고 동남쪽 소나무숲 샅길로 10분쯤 더 들어서야 한다. 금샘을 보고 고당봉을 오르면 중주 산행의 절반은 해결한 셈이다.

고당봉에는 나무계단을 만들면서 세운 전망대가 좋은 쉼터 역할을 한다. 자연석을 다듬어 세운 정상 표석비는 앞면에 고당봉姑堂峰 801.5m 라고 새겨놓고 뒷면에는 시가 적혔다. ‘둘우물 금빛고기 옛 전설 따라/ 금정산 산머리로 올라 왔더니/눈앞이 아득하다. 태평양 물결/큰 포부가슴속에 꿈틀거린다. 노산 이은상 짓고 월인 김정선 쓰고 부산시민 세움. 2016년 10월’이라 돼 있다. 이렇게 다시 세우게 된 것은 정상 표지석이 벼락을 맞아서 파손됐기 때문이다.

정상 표석비 바로 아래에는 고모당(姑母堂)이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금정산의 고모당과 금샘, 용왕굴 등은 주민들이 경배하고 신성시해 온 토속신앙의 본거지로도 유명하다.

고당봉에서 북문까지는 0.9km, 20분이면 족하다. 서쪽 산성을 따라 미
 륜암을 들렀다가 중주를 계속해도 된다. 범어사에서 30~40분 거리인 북문
 일대는 습지와 함께 휴식공간이 조성돼 휴일이면 많은 사람이 북적댄다.

북문부터는 본격적으로 산성을 끼고 걷는 산길이다. 15분쯤 오르막길을 오르면 원효봉에 닿는다. 원효대사가 이곳에 왔는지는 모르지만, 원효암, 원효석대, 미륵암 등에 전설같은 흔적을 남기고 있으니 신통방통한 일이다. 어쨌든 원효가 금정산과 관련이 없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원효암을 지나면 꽃봉우리 형상의 의상봉이 다가온다. 인근의 제4망루는 조망처이자 시민 휴식처로, 금정산성 최고의 망루다. 해운대 광안리 등 도심이 한눈에 들어온다. 망루 안의 사각 목재틀이 의자 구실을 한다.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지 않지만, 그 속에서 등산객들은 땀을 식히고 목을 축이며 간식을 먹는다.

제3망루는 등산로에서 안쪽으로 더 들어가야 만난다. 동문까지는 걷기 편한 넓은 등산로가 계속된다. 최적의 흙길이 발걸음을 가볍게 한다. 맨발로 걷는 사람도 있다. 동문을 지나 자박자박 내려가면 이내 산성고개다. 버스가 다니는 산성길은 온천장에서 산성고개를 넘어 금성동산성마을, 화명동으로 이어진다. 주능선의 지맥을 끊어먹은 산성고개 위에 생태통로가 연결돼 있다.

생태통로에서 내려와 남쪽으로 열린 넓은 비포장도로는 연못산장을 거쳐 남문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능선 종주 코스는 생태통로에서 산성의 성곽을 따라 올라간다. 꽤 가파른 오르막을 뚫다 오르면 대륙봉520m이 나타난다. 대륙봉은 금정산의 자봉으로 1970년대 초 부산 대륙산악회가 암벽타기 연습을 하던 암장대륙바위 위에 있다고 해서 대륙봉이라는 이름하였다. 정상에 있는 바위는 평평바위라 불리며 산꾼들의 쉼터로 활용되고 있다.

대륙봉에서 내려와 20분쯤 가면 제2망루를 만난다. 전망은 별로인데, 남문과 동문 사이의 요충지일 것이란 느낌이 든다. 제2망루에서 남문 가는 길은 능선을 따라가는 것이 수월하다. 남쪽으로 10분쯤 가면 휴정암과 남문마을, 케이블카 방향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있는 네거리에 서게 된다.

금강공원에서 출발하는 금정산 케이블카는 1966년 9월에 개통됐으며, 길이가 1,260m에 달해, 개통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거리의 케이블카였다. 오가는 케이블카를 타면 금정산 자락 해발 540m까지 오를 수 있으며, 소나무 전망대를 비롯하여 남문과 남문마을, 동문과 산성마을 등으로 손쉽게 갈 수 있다.

케이블카 전망대에서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남문이고, 계속 내려가면 오리고기로 유명한 남문마을이다. 산속의 정취를 간직한 남문마을은 각종 계모임이나 회사의 단체 회식팀이 많이 찾으며 가게마다 족구장이 갖춰져 있다.

여기서 만덕고개까지는 대략 30분 정도 소요된다. 만덕고개에는 동쪽의 온천동과 서쪽의 만덕동을 잇는 포장도로가 나 있다. 도로 개통비에는 ‘1964년 개통, 부산시장 김현옥’이라 적혀 있다.

만덕고개에는 그 옛날 산적이 출몰한 곳인 모양이다. 이곳에 전해지는 ‘만덕고개와 뽀뽀 영감’ 전설에 산적이 등장한다. ‘만덕고개와 뽀뽀 영감’은 비상한 힘을 가지고 있으나 삿자리갈대를 엮어서 만든 자리 장사로 신분을 감춘 뽀뽀 영감이 만덕고개에서 장꾼을 위협하고 재물을 빼앗는 도적 무리를 물리쳤다는 이인담異人談이다.

만덕고개에도 지맥을 잇는 30m 길이의 생태통로가 조성돼 있다. 고개 아래에는 제1, 2만덕터널과 도시철도 3호선이 횡단하고 경부고속전철 터널이 종단한다.

만덕고개를 지나면 목재테크로 된 오르막길이 나온다. 계단이 싫은 사람



금정산성 동문 부근의 등산로. 산성버스를 타면 쉽게 갈 수 있다 Ⅵ 필자 촬영

은 우회하는 둘레길을 이용해도 된다. 이 둘레길은 금병 약수터를 경유하며 산어귀 전망대를 꼭짓점으로 그 자체로 한바퀴 돌 수가 있는 운치있는 산책로다.

갈맷길은 종주 능선을 따라가며 목재테크길을 이용해 직진하면 산어귀 전망대를 지나고 동래구민의 숲에 닿고, 계속 가다 왼쪽으로 난 좁은 산길을 따라가면 넓적한 덕석바위를 만나고 마침내 1차 목적지인 금정봉에 닿는다. 산길 초입에 해주 사람들의 망향비가 세워져 있어 발길을 잠시 멈추게 한다. 덕석바위 아래엔 임진왜란 때 여성들이 숨어서 베를 찼다는 베틀굴도 있다.

지역주민들은 금정봉을 쇠미 혹은 쇠미봉이라 부르기도 한다. 고당봉에 비하면 한참 낮지만, 금정산의 외곽 터주대감으로서 솟구친 품새가 당당하다. 여기서 하산은 어린이 대공원이나 사직운동장 어느 쪽도 좋지만, 2~3km

를 더 걸어내려와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2) 다양한 금정산 종주 코스

금정산 종주가 반드시 양산 계석마을에서만 시작되는 건 아니다. 트레킹 좋아하는 산꾼들은 양산 동면 사송리 외송마을에서 은동굴을 거쳐 장군봉~고당봉~북문 코스를 선택한다. 외송마을은 장군봉을 업고 있으며 산자락에 금륜사와 은동굴이 있으며 산 아래엔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간다.

은동굴 銀銅窟은 장군봉의 8부 능선쯤에 자리한다. 『양산시지』에서는 은동굴을 신라 때 동銅광산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은과 동을 캐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동굴이었는데, 여기서 지명이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진왜란 때 최씨 등 마을의 여섯 성씨가 동굴에 숨어 살았다는 이야기에 따라 숨을 ‘은隱’ 자를 쓰기도 한다. 외송마을은 임진왜란 때 왜군이 동래에서 양산으로 쳐들어가면서 두 차례나 마을을 휩쓸고 지나가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은동굴은 2개인데, 왼쪽 동굴은 약수가 나와 약수굴이라 불리기도 한다. 두 개의 석굴은 5~6평 정도. 외송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은동굴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고 한다. 굴 안에 용왕이 모셔져 있고 예전에는 해마다 마을 사람들이 여기서 용왕제를 지냈다고 한다. 굴 앞에는 약사여래가 모셔져 있다.

도시철도 1호선 명륜역 인근에서 양산 시외버스를 타고 양산 동면초등학교에 내리면 사송리다. 신도시 개발지대라 어수선하지만, 외송마을에서 법륜사 은동굴 방향으로 올라가면 장군봉 등산로가 나타난다.

은동굴 오르는 길은 된비알이다. 된비알은 몹시 험한 비탈을 이르는 순우리말이다. 은동굴 약사여래 옆 바위를 돌아 계곡을 가로질러 나가면 주



금정산성 제4망루에서 바라본 낙동강 전경 Ⅵ 필자 촬영

능선으로 가는 산릉에 올라선다. 여기서 장군봉은 20여 분 거리다.

장군봉과 고당봉을 거쳐 동래구민의 숲을 지나 금정봉까지는 앞서 소개한 능선 종주와 다르지 않다. 코스는 산행자가 얼마든지 길게, 짧게 조정할 수 있다. 초보자의 경우 외송리에서 출발해 약 5km의 은동굴~장군봉~고당봉~북문~범어사 코스를 선택하기도 한다.

금정산 종주는 특히 부산 산꾼들에게 하나의 로망이다. 부산의 진산이자 상징인 금정산 종주 정도는 해야 부산 사람이라 자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주변에서 ‘금정산을 종주했다’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만난다. 그러나 내용은 제각각이다. 산성버스가 다니는 동문에서 북문까지 약 5km 걷고도 종주했다고 하고, 양산 계석마을이나 외송리에서 장군봉~고당봉~동문~남문~만덕고개~금정봉을 걸은 후 종주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동문~북문 코스는 너무 짧고 평이해 종주라기보다 주능선 일부를 걸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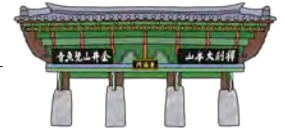
다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금정산 길’이란 명칭으로 정비된 산길도 있다. 부산시가 녹색 성장 및 일 자리 창출 작업인 희망 근로 프로젝트의 하나인 갈맷길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11월 조성한 길이다. 도시철도 범어사역에서 시작하여 성지곡 수원지까지 이어지는데 총 19.8km이며 소요시간은 약 7~8시간이다. 본래 금정산을 따라 형성된 산길인데,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노후된 등산로를 정비하여 트레킹 코스를 만들었다. 금정산 길은 백양산 중턱으로 연결되며 중간에 낙동강 둔치, 화명수목원, 산성마을, 남문마을, 만덕고개, 구민의 숲 등과 연계되어 있는 천혜의 자연 경관을 지닌 길이다.

일부 산꾼들 사이에선 진정한 금정산 종주란 계석마을이나 외송리에서 장군봉을 거쳐 고당봉~만덕고개~금정봉을 넘고 불웅령을 거쳐 백양산 정상을 올라야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 이른바 ‘금백종주’ 코스다. 소요시간은 약 8시간. 하루 코스로 고되긴 해도 낙동정맥을 제대로 밟고 금정산~백양산의 정기를 주고받는 장쾌한 코스라 할 수 있다. 실제 금백종주를 즐기는 산꾼들이 적지 않다.

어느 것이든 아직 금정산 종주를 못해본 사람은 이를 이 글에서 소개한 다양한 종주길을 참고하여 완주의 벅찬 감격을 누리셨으면 좋겠다.

3 금정산 숲속 둘레길 수평의 걷기문화 실현



코스

범어사 입구 ⇨ 상마마을 ⇨ 부산외대 ⇨ 부산대 윗길 ⇨ 금강공원 ⇨ 제1만덕터널 입구 ⇨ 석불사 입구 ⇨ 북부산 전력사업소 뒷길 ⇨ 화명수목원 ⇨ 금곡 주공6단지 ⇨ 진흥사 ⇨ 부산시 인재개발원 ⇨ 금곡동 임도 ⇨ 금천사 입구 ⇨ 법천사 입구 ⇨ 금륜사 ⇨ 은동굴 ⇨ 계명봉 둘레길 ⇨ 금어동천 옛길

1) 3일 꼬박 걸어야 완주

장장 56.3km. 일반인 걸음으로 약 21시간이 소요되는 길. 하루 7시간씩 걸어도 3일을 꼬박 걸어야 하는 길. 이런 길이 부산에 있다는 건 자랑이자 축복이다. 이름하여 ‘금정산 숲속 둘레길’. 그런데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등산 밀이 어둡다 했던가. 걸어보면 지리산 둘레길, 제주 올레길, 소백산 둘레길에 전혀 뒤지지 않는다. 오히려 아기자기함이나 접근성 면에선 더 낫다고 할 수 있다.

금정산 둘레길이 논의된 것은 부산의 갈맷길이 막 태동하면서이다. 부산의 걷기 좋은 길인 갈맷길이 공공근로사업으로 2009년 처음으로 열리자, ‘걷는 길’ 논의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2010년 부산시가 야심찬 구상

을 내놓았는데, 그것이 ‘금정산 둘레길’이다. 아직 ‘숲속’이란 개념이 만들어지기 전이다. 금정산 둘레길은 성지곡수원지 등 백양산 일부를 포함해 금정산 자락을 크게 아우르는 88km의 장거리 길. 시작은 미약했으나 결과는 창대했다.

부산시는 2011년 6월 금정산 숲속 둘레길 1코스를 열었다. 1코스는 범어사 매표소 입구에서 시작하여 상마마을을 지나 부산외국어대학교 운동장~구서동 롯데캐슬아파트~부산대학교 운동장 위~금강공원~제1만덕터널 입구까지 16.48km다. 금정산 자락의 숲속 길을 파고든 이 길은 등산객의 호응을 받았다. 접근성이 대단히 뛰어났고 자연성이 돋보였으며 기존 등산로를 활용하여 보완하니 예산도 절감할 수 있었다. 수직의 등산문화를 수평의 걷기문화로 바꾸는 시도는 시대정신과도 맞아떨어졌다.

부산시는 금정산권의 금정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양산시와 협력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56.3km의 전체 구간을 연결했다. 그렇게 확정된 코스는 범어사 입구에서 출발하여 상마마을~부산외대~부산대 윗길~금강공원~철학로~제1만덕터널 입구 생태터널~석불사 입구~상학초등 윗길~북구 국민체육센터~북부산 전력사업소 뒷길~화명수목원~금곡 주공6단지~조성협진아파트~진흥사~부산시 인재개발원~금곡동 임도~양산 임도~금천사 입구~법천사 입구~질메고개~금륜사~은동굴~사배고개~계명봉 둘레길~금어동천 옛길~범어사 입구이다.

부산시역은 40km, 양산시역은 16.3km이다. 코스를 세분해보면 범어사~만덕고개 입구가 1코스, 만덕고개~화명수목원까지가 2코스, 화명수목원~금곡 임도까지가 3코스, 양산시권이 4코스로 구분된다. 부산시 산림녹지와 관계자는 “전체를 한꺼번에 관리하며 세부 코스로 나누진 않는다”면서 “안내판 등 기본 시설물 관리는 부산시역 중심으로 하고, 양산시역은 임도가 대부분이어서 크게 관여할 게 없다”고 말했다.

금정산 숲속 둘레길 안내지도는 부산관광포털 비짓부산 www.visitbusan.net 여행준비 코너에 링크되어 있다.

2) 범어사 출발, 금정산 한바퀴



금정산 둘레길의 한 구간인 금강공원 내의 오솔길 Ⅱ
필자 촬영

금정산 숲속 둘레길을 걷다 보면 금정산의 품이 얼마나 깊고 너른지 새삼 확인하게 된다. 금정구 범어사는 부산의 대표적 사찰로서 부산 사람들의 정신적 안식처이다. 범어사는 해인사, 통도사와 함께 영남의 3대 사찰로 꼽힌다. 678년 신라 문무왕 때 세워졌으며 역사적으로 의상대사를 비롯해서 원효스님, 표훈스님, 용성스님, 동산스님, 성철스님 등 많은 고승 대덕을 배출한 선찰대본산禪刹大本山이다. 산내 암자가 11개이며, 주변의 계곡과 산세가 빼어나 사시사철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동래구 온천동의 금강공원은 부산의 후원과도 같은 공원이다. 금정산 남쪽 자락에 자리잡아 금정산의 등산로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특히 1966년에 로프웨이케이블카가 설치되어 금정산 남문과 남문마을, 제2망루

일대로 오르는 교통수단이 되고 있다.

금강공원에는 일제강점기의 아픈 상흔이 있다. 1920년 담배 장사로 큰 돈을 번 일본 상인 히가시바라 카지로[東原嘉次郎]가 자연 풍광이 뛰어난 이곳에 개인 정원을 꾸민 것이 공원의 출발점이다. 그는 계곡물을 이용해 일본식 연못을 만들고 전망 좋은 언덕에 탑도 세웠다고 한다. 1940년 금강원으로 명명되고 1965년 공원으로 지정되었다. 1967년에는 한국에서 민간 최초이자 전국 두 번째로 개장하는 동물원인 동래금강동물원이 문을 열어 한 시절 시민들과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동물원은 적자운영으로 2001년 폐쇄되었다.

공원 안에는 부산민속예술관, 세계해양생물전시관, 식물원, 각종 놀이 시설, 체육공원 등이 있으며, 부산민속예술관에서는 동래야류국가무형유산과 동래지신밟기부산시무형문화재, 동래학춤부산시무형문화재 등의 전통 민속놀이를 가르치고 공연도 한다.

금강공원은 일제강점기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안고 있어 시민 생활사와 연계한 다크 투어리즘 자원으로 활용해도 좋겠다.

3) 만덕고개의 이야기 보따리

금정산 숲속 둘레길은 동래구와 북구의 경계인 만덕고개를 지난다. 만덕고개는 근대화 이전부터 구포와 동래를 이어주는 중요한 교통로였다. 실제로 1973년 제1만덕터널이 개통되기 전까지 그랬다. 조선시대 구포감동진는 낙동강의 수운 요충지로 동래도호부와 통하는 가장 가까운 나루터였다. 구포의 물자와 동래의 물산이 소나 말, 짐꾼들에 의해 만덕고개를 오르내렸다. 그래서 고갯길이 험하고 도적이 많았다. 만덕고개가 눈물고개, 한숨고개, 도둑고개라 불리는 연유이다.

지금이야 만덕고개 아래에 터널이 뱅뱅 뚫려 고개같지 않은 고개가 되었지만, 고갯마루에 쌓인 시간의 더께를 털어내면 옛 이야기들이 술술 나온다. 추억의 그림자를 더듬듯 무심한 고개를 넘으며 길의 운명과 영고성쇠를 생각한다.

‘만덕萬德’은 만가지 덕을 얘기하는 곳이다. 지명 유래담이 다채롭다. 먼저, 만덕고개에 도적이 많아 ‘만 사람이 무리를 지어 올라가야 도적을 피한다’는 말에서 유래했다는 설이다. 또 하나의 설은 임진왜란 때 이곳에 피신해 온 만 명의 백성이 모두 살아서 ‘만 가지의 덕’을 입었기에 ‘만덕’이라 했다는 것이다.

『부산의 지명 연구』에는 만등설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옛날엔 만덕동 일대를 ‘만등’이라 불렀다. ‘만萬’은 훈차로서 ‘크다’ ‘높다’라는 뜻을 갖는다. 이렇게 보면 수수께끼는 간단하게 풀린다. ‘만’은 ‘口+ㄷ’ 즉, ‘최고, 우선, 처음’의 뜻에서 왔다. ‘등’은 부산 경남에서 산마루를 ‘만당’으로 부르는 것과 맞닿는다. 결국 만덕은 가장 높은 등성이라는 것이다.

김해의 금관가야 세력이 동래 복천동으로 옮겨올 때 넘었던 고개 역시 만덕고개였을 것으로 본다. 서부산의 낙동강 나루터에서 동래 쪽으로 넘어려면 만덕고개가 가장 빠른 것이다. 우수한 철기와 토기를 가지고 마소를 이끌고 역사의 고개를 넘었을 가야인들을 상상해본다.

만덕고개는 옛날 산적들의 아지트였다. 오죽했으면 만 사람이 무리를 지어서 넘어야만 도둑을 피할 수 있다고 했을까. 이곳에 전해지는 ‘만덕고개와 뽀뽀 영감’ 전설은 도적을 혼쭐낸 이야기다. 만덕고개 길목의 갈매길 안내판에 전설이 소개돼 있다.

만덕고개는 1960년대 들어 큰 변화를 겪는다. 고갯마루에는 ‘축 개통 1965. 2. 6. 부산시장 김현옥’이라 적힌 도로 개설 기념비가 서 있다. 당시 불도저 시장이라 불리던 김현옥 시장이 만덕고갯길을 대대적으로 정비한



부산 북구와 동래구를 잇는 만덕고개의 생태터널 모습. 주민들의 애환과 전설이 서려 있다 ▣ 필자 촬영



만덕고개 도로 개통 기념비 ▣ 필자 촬영

흔적이다. 1973년 뚫린 제1만덕터널은 만덕고개의 존재를 우습게 만들었고, 88올림픽이 열리던 해 제2만덕터널이 4차로로 크게 뚫리면서 만덕고개는 한낱 전설의 고개로 남았다.

만덕고개에는 현재 근사한 생태터널이 설치돼 있다. 고갯길로 끊긴 금정산 지맥을 잇고 등산로 겸 동물을 위한 생태길이다. 천년 넘게 이어져 온 만덕고갯길을 걷는 감회가 새롭다.

4) 대천천과 화명수목원

화명수목원은 금정산 숲속 둘레길의 서부산쪽 핵심 포인트다. 숲속 둘레길 전체를 볼 때 범어사에서 화명수목원까지가 대략 절반쯤 된다. 화명수목원에서 내쳐 오르면 금정산성 서문이고, 조금 더 가면 산성마을이다.

화명수목원은 낙동강 하구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금정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다. 금정산 고당봉을 뒤로하고 맑은 대천천이 수목원 가운데로 흐

른다. 화명수목원 정문을 통과해 관리동을 지나 대천천 위에 건립된 대천교나 아치교를 건너면 본격적으로 수목원이 펼쳐진다. 다리 위에만 서도 금정산 아래 도심과는 전혀 다른 탁 트인 풍경에 가슴이 시원해진다.

화명수목원은 부산시가 2011년 3월 164억 원을 투입해 문을 연 부산 최초의 수목원이다. 면적이 11만653㎡로 그리 넓지 않지만, 1400여 종 23만여 포기의 다양한 식물이 있다. 식물은 종별로 침엽수원, 활엽수원, 초화원, 약초원, 수서생태원 등으로 공간을 나눠 심어놓았다.

면적이 좁다는 지적에 따라 부산 북구는 500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 대천천 애기소 인근까지 총 41만㎡ 규모로 약 4배가량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확장된 수목원에는 부울경 나무병원과 식물 보전 구역을 만든다고 한다.

화명수목원을 거쳐 금곡 주공6단지~조성협진아파트를 지나면 진흥사 앞 부산시 인재개발원에 닿는다. 인재개발원에서 산길을 따라 걷다가 양산시역에 접어들면 제법 너른 임도가 조성돼 있다. 임도를 따라 줄곧 가면 금천사와 법천사 입구에 닿고, 질메고개를 넘어 금륜사~은동굴~사배고개를 지나고 계명봉 둘레길을 한바퀴 돌면 범어사 입구로 원점 회귀한다. 장장 56.3km의 둘레길은 이렇게 마무리 된다.

4 금정산의 선물 '가람낙조길'

낙동강 벗어나며 걷는 사색길



코스

도시철도 금곡역 ⇨ 부산인재개발원 옆 진흥사 ⇨ 낙조전망대 ⇨ 금정산성 암문 ⇨ 학생교육원 ⇨ 화명수목원 ⇨ 금정산 둘레길(부분 중북) ⇨ 진흥사 ⇨ 금곡역

1) 가람가에 살던 누나

가람은 ‘강’을 뜻하는 순우리말이다. 김소월의 시 ‘접동새’에 ‘가람’이 등장한다. ‘접동 접동 아우래비 접동/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진두강 앞 마을에/와서 읊니다...’ 가람은 혈육의 정과 민족정서를 자극하는 단어다. 가람이 불교에선 절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가람은 민족정서가 흐르는 강에 절 한 채 세우는 의미가 깃든 말이다.

낙조落照는 저녁에 지는 햇빛, 지는 해 주위로 퍼지는 붉은빛이다. 낙조는 큰 강의 하구나 흐르는 강이 배경이 될 때 풍경이 완성된다. 사실 해가 ‘지는’ 것은 아니다. ‘지는’ 것은 ‘지는’give up 것이다. 낙조는 하루 해가 새로운 내일을 위해 잠시 자취를 감추는 것일 뿐이다. ‘붉은 노을처럼 타올라야 청춘이다’는 노랫말도 있다.

가람과 낙조가 결합하면 가람낙조, 그곳에 운치있는 길이 만들어지니 이름하여 가람낙조길이다. 강에 드리워지는 장엄한 일몰이 일상의 여유와 행복을 안겨주는 길. 호젓한 숲속에 역사와 이야기가 흐르는 길.

부산 북구에 가람낙조길이 생긴 건 10여년 전의 일. 수려한 금정산 자락에서 바라보는 낙동강의 낙조 풍경을 누리게 하기 위해 트레킹 코스를 만들었는데, 안타깝게도 많이 알려진 것 같지는 않다. 홍보 부족, 소통 부족이다. 길은 뚫는 것보다 그 곳을 누가 걷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가람낙조길은 역설적이게도, 고즈넉하고 한적한 것이 매력이다. 완결성 있는 순환형 산책길로서 이만한 매력을 가진 길을 찾기가 쉽지 않다. 흔히 명품 웰빙길의 조건으로 접근성, 자연미, 정취, 조망, 이야기 등을 꼽는데, 가람낙조길은 이 모두를 다 갖추고 있다. 말하자면 북구의 자연 보물이라 할만하다.

여기서도 금정산이 얼마나 좋은 산인지 실감한다. 금정산은 나무와 숲, 야생화, 물, 바위, 산길을 아낌없이 내주고 스스로는 유유자적이다. 도시의 지친 영혼들은 이런 산이 가까이 있기에 생활에 여유를 찾고 일상의 에너지를 회복한다. 산의 고마움을 한시라도 잊어선 안 된다.

2) 문화가 흐르는 사색의 길

가람낙조길은 도시철도 금곡역에서 출발해 부산인재개발원 옆 진흥사~낙조전망대~금정산성 암문~학생교육원~화명수목원~금정산 둘레길(부분 중북)~진흥사~금곡역으로 원점 회귀하는 코스다. 전체 길이는 10.8km, 소요시간은 대략 5시간이다. 길지도 짧지도 않은 코스지만, 주민들이 지역의 문화와 녹색 웰빙길을 함께 체험하고 나누는 장소로는 더없이 소중한 산책길이다.

가람낙조길의 포인트는 낙동강 조망, 자연생태 체험, 역사문화와의 만남 등이다. 이를 통해 건강과 치유의 효과를 얻는다.

명칭에서 알수 있듯, 가람낙조길의 최고 선물은 금정산 중턱에서 바라보는 낙동강 조망이다. 낙동강 너머 낙조는 한 폭의 그림이지만, 반드시 일몰 무렵이 아니더라도 풍광은 장엄하고 아름답다. 강은 나그네의 시심을 자극하고 사색하게 만든다. 강원도 태백에서 시작된 강 줄기가 구포 금곡까지 흘러온 뜻이 예사롭겠는가.

가람낙조길에서 가만가만 낙동강 물줄기를 바라보고 있으면 산다는 것, 흐르는 것,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다. 이런 깨달음을 선인들은 도道라 했다. ‘조문도 석사가이朝聞道 夕死可矣,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말한 공자의 얘기가 낯설지 않게 다가온다.

강에 흐르는 것이 어디 물뿐이겠는가. 모래가 흐르고 영남의 역사와 사상, 문화가 흐르고 인심이 함께 흐른다. 금곡-구포지역은 낙동강 최종 집수구역이니 이 모든 게 흡수·통합되어 하구를 거쳐 바다로 흘러든다. 그 속에는 백두대간 산간오지의 생활문화와 낙동강 양안의 가야와 신라 문명, 영남의 선비문화, 나아가 근대화 산업화의 물길이 같이 흐른다. 가람낙조길에서는 이 모든 것이 사색의 대상이요, 또다른 상상력의 원천으로 다가온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단순한 강의 풍경, 정경만이 아닌 것이다.

이곳을 걸으며 역사문화를 만나는 것은 또다른 선물이다. 걷다보면 금곡동 올리바위그늘유적과 올리배총이 나타난다. 바위그늘은 선사시대 사람들의 주거 또는 창고, 묘지, 제사 유적 등으로 사용한 곳이다. 집터는 너비 255~270cm, 깊이 230cm, 높이 200cm 정도의 크기이며, 야외 화덕자리 세 개, 집터 바깥에서는 돌무지 흔적이 확인되었다. 집터와 조개더미에서는 빗살무늬 토기와 간돌도끼, 돌끌, 간돌살촉 등이 출토되었다.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 이어지는 과도기의 문화양상과 당시의 생활문화를



선사시대 조개무지가 발견된 부산 북구 금곡동 올리바위그늘유적 Ⅵ 필자 촬영

보여준다.

가람낙조길 곳곳에는 생태계 보전구역이 설정돼 있다. 생강나무 군락지와 철쭉 군락지, 도농롱 서식지는 이곳의 생태가 양호하고 보전가치가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생태하천으로 명성이 높은 대천천의 자연성도 이곳의 자랑거리다. 기후위기 시대에 소중한 생태적 자산이다.

생강나무 군락지를 지나 20분 정도 걸으면 고당봉, 화명수목원 갈림길이 나온다. 수목원 방향으로 가면 잇따라 텍 다리를 건넌다. 생강냄새가 나는 생강나무는 녹나무과로 일명 아귀나무, 동백나무, 아구사리, 개동백나무라 불리기도 한다. 3월이면 잎보다 먼저 꽃이 피며, 노란색의 작은 꽃들이 여러 개 뭉쳐 꽃대없이 산형(傘形)꽃차례를 이루는 모습이 감쪽하다. 이곳에 생강나무 군락지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식생 환경이 좋다는 것을

시사한다.

도롱뇽 서식지도 눈길을 끈다. 도롱뇽은 도롱뇽과에 속하는 양서류이며, 도마뱀과 비슷하게 생겼으나 생물학적으로는 개구리나 두꺼비에 더 가깝다. 1~2급수 맑은 물에 살며 3~4월 산란기가 되면 갈색의 어린 새끼들이 태어난다. 도롱뇽이 산다는 것은 생태계가 살아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도롱뇽 서식지 안내판을 지나 다소 가파른 임도를 오르면 낙동강 전망대로 올라가는 길이 갈라진다. 낙동강 전망대에 오르면 낙동강과 교량들, 주변 풍광이 한눈에 들어온다. 멀리로는 물금 시가지와 오봉산 토곡산이 보이고, 강 건너에는 김해 신어산과 무척산이 손에 잡힐 듯 다가온다. 바위 전망대를 지나면 이번에는 나무데크로 된 가람낙조길 전망대가 나온다. 아마 낙동강을 바라보는 최고의 조망점이 아닐까 싶다.



금정산 북서 사면에 조성된 가람낙조길 안내판 | 필자 촬영

3) 금곡동 역사 다시 보기

가람낙조길 대부분은 금곡동에 걸쳐 있다. 금곡동金谷洞은 금정산의 주봉인 고당봉에서 낙동강변으로 뻗어내린 첫 골짜기이기에 붙여졌을 것으로 본다. 가야시대 철기문화와 연관이 있을 것이란 솔깃한 이야기도 있다. 금정산 서쪽 골짜기에 금금이 나오는 곳이 있어서 금맥을 찾아 뚫어 놓은 굴이 많아 ‘금이 생산되는 골짜기’이 되었다는 설이다. 금곡동 공창마을 뒤 도덕골 아래 위치한 불매등에서 쇠를 달구고 남은 쇠파괴 녹인 부유물이 발견되었고, 가야시대 쇠를 녹이던 야철지라서 쇠 금자를 써서 금곡이라 했다는 것이다.

금곡동은 4개의 자연부락공창, 동원, 동원, 울리를 두고 있다. 공창 마을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곳이다. 공창公倉이란 지명은 조선 시대 동원진東院津의 역원驛院, 수참水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살았던 마을이라 하여 불린 지명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기록을 보면, 동원 수참東院水站은 낙동강을 왕래하는 배를 조망하고 배로 강을 건너거나 이용하는 공무 수행인들과 일본倭의 사신, 일반인들의 숙식 등 편의를 제공하였던 시설이었다. 지금의 금곡대로 550번길 대우이안아파트 내 놀이터 일원으로, 수참자리는 2004년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2동의 건물터와 담장석열 2기, 석조유구, 기타 부속건물 등이 확인되었다. 초기 축조는 고려 중·후기, 수축은 고려 후기에서 조선 전기이며 임진왜란 이후 폐기된 것으로 보여진다.

『세종실록』에는 양산군 동원진에 수참을 두고 역무를 보게 하여 대일 교역의 근거지로 삼았다는 내용이 나온다. 일본 사신이 삼포三浦: 부산포, 염포, 제포에 도착하여 서울로 가는 첫 기착지가 동원이었다. 『세종실록』 또한 이곳에서 사신들이 가져온 예물과 교역물품을 물류창고에 거두어 들이고,

대구 화원~상주 함창~충주 조령관을 넘어 남한강 수로를 이용하여 서울 동평관에 도착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임진왜란 이후 일본과 교역을 다시 시작하였을 때는 다른 행로가 생겨났다. 감동진[구포]의 조세미租稅米 등 세곡 수납, 운송, 보관 등과 감동장의 포구상업이 중심이 되고, 밀무역 감찰 단속 기능을 동원진에서 구법진 덕천동 덕천초교 일대로 옮기면서 동원진은 쇠퇴의 길을 걸었다.

동원진 강변에는 5백여 년 된 당산나무가 있어 이곳을 지나는 배들의 이정표 역할을 했으나 1959년 사라호 태풍때 사라졌다고 한다.

공창 마을은 구한말 양산군에 속했다가 1906년 동래군 좌이면, 1910년 부산부에 편입되었으며, 1914년 행정 구역 개편으로 동래군 구포면 금곡동이 되었다.



금정산 가람낙조길에서 굽어본 낙동강 전경 ■ 필자 촬영

공창 마을의 동쪽으로 금정산 장골봉이 있으며, 서쪽으로 낙동강이 남으로 흘러간다. 마을은 산사면의 구릉지에 위치하며, 남쪽 고지대엔 등마 마을본동네, 북쪽 낮은 지대엔 골마 마을이 자리한다.

자연성을 자랑하던 공창 마을은 지역도시화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며 옛 흔적은 거의 찾을 수 없다. 현재 이 지역에는 부산시 인재개발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시 교통문화연수원, 금창초등학교, 북구 장애인 복지관, 도시 철도 2호선 금곡역 등이 들어서 있다. 최근에는 공창 행복마을센터, ‘알베르게 금곡’ 같은 이색 공간이 들어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마을 앞으로는 금곡로가 관통하며, 경부선 철도를 비롯하여 도시철도 2호선이 양산까지 연결되어 있다.

4) 진홍사에서 출발, 원점회귀

가람낙조길은 대체로 걷기에 평이하나 일부 오르내리막이 심한 산길 구간을 끼고 있다. 그렇다고 힘든 등산 수준은 아니다. 마을을 비우면 발걸음도 가벼워지는 법. 포근한 흙길과 낙엽이 쌓여 폭신한 운치 있는 길도 제법 된다.

도시철도 금곡역에서 15분 정도 올라오면 가람낙조길의 출발지이자 도착지인 진홍사 입구에 닿는다. 진홍사는 부산시 북구 금곡동 430 금정산 자락에 자리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 통도사의 말사다.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낙동강을 굽어보는 입지가 돋보인다. 일주문에 무애문無礙門이란 현판이 걸려 있다. 거리낌이 없는 문! 이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금 보니 문에 계단 같은 장애가 전혀 없다.

사찰 입구의 오른쪽 계단으로부터 산길이 시작된다. 이 길은 금정산 숲속 둘레길과 일부 겹친다. 절 담장을 돌아가면 가람낙조길 이정표가 있다.

선찰대본산인 범어사는 본사도 중요하지만, 산내 암자 하나 하나에도 역사와 이야기가 서려 있다. 범어사를 거쳐간 주요 고승대덕들, 경허, 용성, 표훈, 동산, 성철 스님 등이 범어사 산내 암자에서 불도를 닦았다. 이들 산내 암자에서 범어사의 정신세계, 한국 선불교의 맥이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부산도시철도 1호선 범어사역 5번 출구에서 출발하여 경동아파트 옆 범어사 옛길을 따라 오르면 지장암을 만난다. 이어 범어사 경내로 들어가 계명암을 돌아보고 다시 내려와 청련암~내원암을 거쳐 고당봉으로 향하는 임도를 따라 양산 가산리 마애여래입상을 본다. 고당봉 아래에 왔으면 금샘을 보고 가야 후회하지 않는다. 웅장한 바위의 우물을 보고 나서 미륵사를 돌아보고 북문을 통과해 원효암을 찾는다. 원효암에는 성철 스님의 체취가 배어 있다. 순례길은 계속해서 대성암~안양암~금강암~사자암~만성암까지 이어진다.

범어사 11암자길은 스님들이 알게 모르게 이용해왔으나 일반인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크게 보면 금정산 동쪽의 계명봉에서 꼭대기인 고당봉, 금정산성 북문을 잇는 커다란 트라이앵글 계곡 속에 11개 암자가 조화롭게 산재한다. 북문 너머에 있는 미륵사를 빼면 모두 트라이앵글권에 들어온다. 범어사에서는 이를 산내 암자라 부른다.

2) 암자마다 간직한 이야기들

가장 먼저 만나는 지장암地藏庵은 1916년 금서암이라는 이름으로 창건했다. 일제강점기 불교계 민족독립 운동을 주도한 스님들이 대부분 범어사 출신이었다. 이때 금서암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그후 지장암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1985년 범어사에서 중창해 오늘에 이른다. 입구의 암

굴에 용왕전이 있고, 산신각 뒤로 난 길을 따라가면 범어사 옛길과 만난다.

계명암은 지장암 뒤 산길에서 오를 수도 있고, 범어사 경내를 거쳐 청련암 입구에서 갈 수도 있다. 불교에서 ‘닭울음 소리鷄鳴’는 깨달음을 의미한다. 깨달음이란 어둠에서 벗어나 빛을 맞는 상태가 아닐까. 어둠이 걷히는 순간을 알리는 소리가 새벽 닭 울음이다. 통일신라 시대 의상대사가 이 부근에서 절터를 물색하던 중 한밤중에 닭 울음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암자를 세우고 계명암이라 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1902년 스님들이 계명선사鷄鳴禪社라는 선원을 개설하고, 이듬해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인 경허 스님이 주석하며 선풍을 진작시켰다고 한다.

계명암에서 보는 가을 달, 즉 ‘계명추월鷄鳴秋月’은 금정팔경의 하나로 꼽힐만큼 그 풍광과 정취가 좋다. 실제 계명암 경내에서 보는 범어사 풍광과 부산 남산동 일대의 경치는 가히 장관이다. 계명봉 정상에는 봉수대가 설치돼 있다.

가파른 계명암 계단 길을 내려와 오른쪽 금정산으로 발길을 돌리면 청련암, 내원암이 차례로 나온다. 청련암은 1709년 신주 대사信珠大師가 중창했으며, 3·1운동 때는 부산지역 항일 운동의 아지트 구실을 했다.

청련암靑蓮庵은 불문에서 전해지는 금강영관金剛靈觀의 산실이자 본산이다. 금강영관은 몸과 마음과 호흡의 조화를 이루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불가의 수행 방법. 양익 스님이 청련암 주지로 주석하면서 수련과 수행법을 정립했고, 적운 스님경주 골굴사 주지, 안도 스님장산 원적사 주지 등이 그 계보를 잇고 있다.

조선시대 승유억불 정책과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던 금강영관을 되살린 사람은 양익 스님1934~2006이다. 1971년 금강영관을 복원한 양익 스님은 범어사 청련암에 수련원을 설립하고 제자들을 양성했다. 1980년대 들어 제자들이 금강영관을 포교에 활용하기 시작하



불무도 수행도량 청련암을 지키는 금강역사 ■ 필자 촬영

였다.

범어사에는 양익 스님에 대한 전설같은 일화가 많다. 높이 4m의 범어사 일주문을 단번에 뛰어넘었다 하고, 앉은 채로 솟아올라 천장에 박힌 못을 빼냈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청련암 주변에서 회자된다. 양익 스님은 2006년 5월 세수 73세, 법랍 45세를 일기로 청련암에서 ‘좌탈’坐脫·앉아서 숨을 거둔 입적해 화제를 낳았다. 하지만 이제 청련암에서는 더 이상 불무도를 지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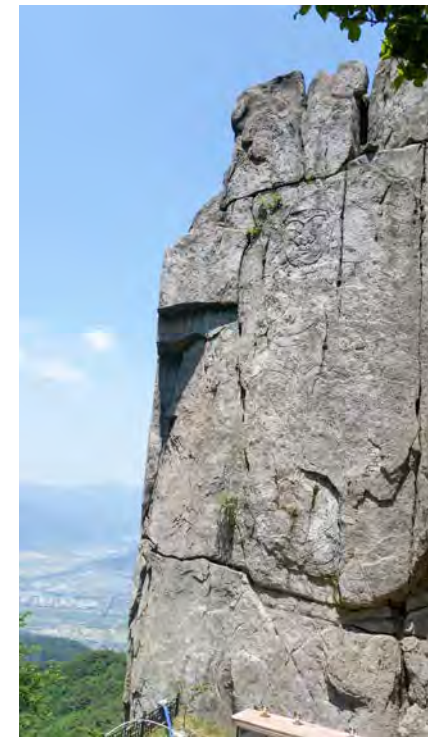
내원암은 범어사의 어른으로 존경받는 능가 스님이 주석하는 암자다. 내원암은 경허스님이 선원을 열었고 성철 스님도 수행했던 선도량이다. 동산 스님과 지효 스님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선농일치禪農一致의 총림정신을 살리려 이곳에 농장을 개설했다. 지금 농장은 범어사 복지 활동에 쓰인다.

3) 낙동강 굽어보는 마애불

내원암을 나오면 금정산 입도다. 산길이 제법 가파르다. 고당봉을 향해 오르다 ‘미륵불’이라 표시된 안내표지를 따라 오르다가 낙동강이 바라다 보이는 양산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가산리 마애여래입상이 가산리 마애불이 불현듯 나타난다.

가산리 마애불 아래로 까마득히 양산벌이 펼쳐지고, 삼랑진 쪽에서 굽이쳐온 낙동강 본류가 양산 쪽에서 흘러드는 양산천을 조용히 불러들이고 있다.

가산리 마애불은 통일신라 시대 말에서 고려시대 초에 제작된 높이 12m, 폭 2.5m의 거대한 마애불로, 경상남도 유형문화유산이다. 얼굴은 약간 각이 졌고, 머리에는 육계肉髻·살상투가 높고 귀는 어깨까지 늘어졌다. 육계는 보통 부처의 머리 위에 흑과 같이 살이 올라온 것을 말하며 지혜를 상징한다. 휘어진 눈썹과 살짝 감은 눈, 콧방울이 큰 코, 꼭 다문 입 등은 토속적인 표현이다. 어깨가 벌어져서 신체가 건장해 보이며, 목에는 삼도三道가 얇게 새겨져 있다.



금정산 고당봉 아래에 있는 양산 가산리 마애여래입상(일명 미륵불) ■ 필자 촬영

무릎 아래쪽에는 두 줄의 완만한 V형을 그리는 법의 끝단이 남아있으나 불상을 표현한 각선刻線이 매우 얇고 가는데다 마모가 심하고 바위 여러 곳에 균열까지 있어 천의天衣의 형태나 세부 주름 표현을 자세히 알아보는 것은 어렵다. 수인手印 또한 명확히 알아볼 수 없는데 오른손은 가슴 부근까지 들어올리고 왼손은 아래로 내려뜨린 형태다. 광배光背는 알아볼 수 없으나 대좌는 단판의 꽃잎을 선각한 연화대좌로 추정된다.

화강암 재질의 거대한 암벽 주변에 축대와 토기 조각이 흩어져 있는 것으로 볼 때, 예전에 근처에 사찰이 있었던 것 같다. 워낙 깊은 산중이고, 위치 또한 천험지이라 보통 사람들이 찾아오기 어려운 곳임에도 기도나 참배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는다.

가산리 마애불을 보면 두 손이 저절로 모아진다. 이곳은 범어사 산내 암자가 아니지만, 순례자들이 필히 친견하고 기도라도 올려야 할 유적이다.

4) 원효와 의상의 원력

마애불을 뒤로 하고 금샘에 들른 뒤 미륵암彌勒庵으로 간다. 고당봉에서 미륵암까지 거리는 약 2km. 북문과 고당봉, 미륵암이 트라이앵글을 이루는 구도다.

미륵암 뒤에 엄청난 화강석 덩어리들이 법당의 후불탱화처럼 자리한다. 화강석 암괴가 내뿜는 기운에 압도되는 느낌. 하지만 산사는 고요하고 평화롭다. 미륵봉으로 난 계단을 올라가면 독성각이 아슬아슬하게 자리잡고 있다. 풍광이 멋지다.

미륵암에는 많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지금의 절터는 고당봉과 이어진 미륵봉 아래의 바위 굴 속 연못에 이무기가 살다가 용으로 승천한 자리라 한다. 678년 원효대사가 창건했으며, 원효대사가 호로병 5개로 왜구를 물

리쳤다는 무용담도 전해진다. 그때 원효대사가 손가락으로 그렸다는 마애불과 장군기를 꽂았다는 바위의 홈이 남아 있다. 미륵암 뒤의 암괴를 자세히 보면 코끼리 형상을 한 바위 7개가 있는데 코끼리는 상서로운 동물이어서 마음이 맑아야 보인다고 한다.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이다.

이제 북문에서 원효암元曉庵으로 간다. 이름 그대로 원효 대사가 미륵암과 함께 창건한 것으로 전해진다. 10세기 경 건립으로 추정하는 두 기의 삼층석탑이 길손을 반긴다. 이들 탑은 기단과 상륜부는 사라지고 지대석과 탑신부만 남아 있다.

금정산 곳곳에는 원효 대사와 의상 대사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범어사는 의상대사가 창건한 화엄 십찰十刹 중 하나다. 원효암 주변에도 원효가 참선 수행했다는 원효석대와 의상대가 있다. 제4망루 인근에는 원효봉도 있다.

원효암은 금정총림 방장을 지낸 지유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암자다. 동산스님 상좌인 지유 스님은 스님과 재가자들의 존경을 받는 선지식이다. 그는 장좌불와 수행으로 명성이 높다. 한동안 직접 법문을 하기도 했는데, 노스님의 찌렁찌렁한 목소리는 못 대중의 발걸음마저 숨죽이게 한다.

범어사 쪽으로 산길을 내려가면 금강암이다. 동글동글한 한글 현판이 눈길을 끈다. 큰 법당 이름도 주련도 모두 한글이다. 젊은이들이 특히 좋아한다. 1803년순조 3 대성암大聖庵과 함께 취규就奎 대사가 중창했다는 금강암은 선찰대본산 범어사 선 수행의 출발지로 알려져 있다.

금강암 바로 아래에 비구니 선원인 대성암大聖庵이 있다. 금정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돌 사이를 흐른다. 이 일대의 수많은 돌을 일러 범어사 돌바다라고 한다. 폭 70m, 길이 2.5km에 이른다니 가히 그럴 만 하다. 범어계곡의 물은 대성암 각해선림 구들장 아래로 숨어 흐르는데, 이를 ‘대성은수大聖隱水’라 한다. 금정8경 중 하나다.

대성암 옆은 안양암이다. 한때 방장 지유스님이 주석한 곳이다. 안양암도 1900년 전후 오성월吳性月, 1871~1943 스님이 범어사에 선원을 열 때 함께 한 수행 도량이다. 범어사 산내 암자 곳곳에 오성월 스님의 원력이 미치고 있음이다. 성월 스님은 경남 양산 출생으로 15세에 출가, 20세까지 여러 경전을 공부한 후 범어사 계명암에서 10년 간 오로지 참선 수행에 전념했다. 이후 주지를 맡아 1910년까지 산내에 여러 선원을 개설했다. 1899년 10월 금강암 선원을 열었고, 1900년 10월 안양암, 1902년 4월 계명암, 1906년 6월 원효암, 1909년 1월 안심료와 승당, 그리고 1910년 10월 대성암에 선원과 선회禪會를 창설하여 범어사 선풍을 크게 진작시켰다. 성월 스님은 또 3·1운동의 후원, 대한승려연합회 독립선언서 서명, 상해 임시정부에 군자금 전달 등 범어사 항일운동도 이끌었다고 한다.

비구니 수행도량 만성암은 범어사를 나와 상마마을에 자리한다. 상마마을의 오리고기 먹거리촌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마치 민가같은 암자가 나타난다. 포대화상이 절 입구에 평퍼짐하게 앉아 방문객을 맞이한다. 만성암 부근에서 범어사 남쪽 경계임을 알리는 석표石標가 발견됐다. 범어사의 토지 경계는 동쪽 계명봉, 북쪽 고당봉 일대, 서쪽 원효봉으로 확인된 바 있다. 사찰의 석표는 고려 시대 호부戶部에서 세금 징수를 위해 사찰 소유의 토지 경계선에 세운 표지석이다.

범어사 11암자길은 범어사가 감추어둔 사색과 상상력, 치유를 주는 우리 가가이에 있는 순례길이다. 금정산과 범어사의 역사와 이야기를 품고 있는 범어사 11개 암자길은 모두가 함께 가꾸고 다듬어야 할 부산의 역사 문화 콘텐츠다.

6 남문~상계봉~파리봉~공해마을 코스 금정산이 감춘 보석같은 산길



1) 최고의 조망을 가진 산길

산을 좀 탄다 하는 사람에게 “금정산 어디가 가장 좋으냐”고 물으면 “상계봉과 파리봉이 최고지”라는 대답을 흔히 듣는다. 상계봉과 파리봉은 금정산이 감춘 보석같은 산봉우리다. 실제로 이들 봉우리는 사파이어나 수정같은 보석을 거꾸로 꽂아놓은 듯 수려하다. 이름만 들어 보고 못 가본 사람은 꼭 한번 가봐야 할 곳이다.

금정산의 10여개 봉우리 중 상계봉640m과 파리봉615m은 금정산성을 끼고 우뚝 솟아 있는데, 그리 높지도 낮지도 않으면서 적당히 험하고 부드러운, 거기다 부산 전경을 굽어볼 수 있는 최고의 조망처로 정평이 나 있다.

산행 경로는 금정산성 남문 입구에서 출발해 임도~수박샘~능선 안부~상계봉~산성 제1망루~파리봉~공해마을로 내려오는 약 2~3시간의 산길이다.

케이블카는 금정산의 가파른 계곡을 건너 뛴듯 20여 분 만에 남문 들머리까지 데려다준다. 그게 아니면 산성버스를 이용해 산성고개에 내려 임도를 따라 남문으로 가는 길을 택한다. 어느 것이나 교통이 편리해 초보 산꾼들이 접근하기 용이하다.



금정산 상계봉의 일명 뽕족바위. 마치 조각품 같다
I 필자 촬영

산성고개 남문 들머리에서 남문까지 약 1.5km 구간은 금정산 능선 종주 시 이용되는 주통로이므로 등산객이 끊이지 않는다. 남문에 도착하면 상계봉 안내 팻말을 보고 가면 된다. 먼저 수박샘이 나온다. 물맛이 수박처럼 달고 맛나다 해서 붙여진 약수터다. 실제 먹어보니 물맛이 밍밍하긴 해도 나쁘진 않다. 금정산은 물이 흥한 산이다. 수박샘과 함께 북문 근처의 세심정, 고당봉 아래의 고당샘은 금정산을 대표하는 샘터다. 수박샘

에서 수통에 물을 채우고 본격적으로 오르막 오를 준비를 한다.

돌계단을 10분쯤 오르면 능선의 안부에 닿는다. 시야가 열린다. 산성의 무너진 석축을 따라 계속 오르면 상계봉으로 가는 길과 제1망루로 가는 길 이 나뉜다. 왼쪽 산길을 따라 상계봉 쪽으로 간다. 기기묘묘한 화강암 바위 들이 성채 같다. 금정산은 약 7천만 년 전 지하에서 마그마가 식어서 생성 된 화강암이 용기해 형성된 산이다. 오랜 세월 비바람에 깎이고 다듬어져 만들어진 화강암 지형은 그 자체로 거대한 자연예술이다. 한 산악인은 이 를 천구만별千龜萬龜이라 했다. 천 가지 형상의 거북과 만가지 형태의 자라.

어찌 다 헤아리라. 자연의 절대 조각품 앞에 그저 숙연해진다.

천구만별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 발걸음은 상계봉 정상에 이른다. 정상석은 단출하다. 최고의 조망은 정상석 우측 편에 있는 바위 전망대다. 북쪽을 바라보면 기암 하나가 우뚝하고, 그 옆으로 불꽃처럼 피어난 ‘돌불꽃’ 들이 하늘을 향해 화려하게 피어 있다. 장쾌한 풍경! 가슴 속에서 환희의 감탄사가 터진다. 유장한 낙동강의 모습과 김해평야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한 눈에 들어온다. 금정산의 주봉 고당봉, 시계 방향으로 대운산과 철마산, 두루뭉술한 달음산과 개좌산이 차례로 눈에 들어온다. 아마 서부산권과 동부산권을 조망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지점은 찾기 어려울 것 같다.

상계봉은 흔히 상학산이라고도 불린다. 상학산은 바위가 학의 부리를 닮았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고, 쌍계봉은 바위가 수탉의 벼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만덕쪽에서 크게 보면 학이 날개를 펼친 형상이지만, 뽕족뽕족한 바위 봉우리만 보면 그 형상이 닭 벼에 가깝다. 이름이 두 개인 이유다.

2) 수정을 꽃아 놓은 듯한 수려한 산세

상계봉의 자연 조각품이 쉽게 발길을 놓아주지 않는다. 뒤돌아보면서 아쉬움을 접고 금정산성 제1망루 쪽으로 향한다. 제1망루까지는 약 10분 거리. 산성에는 모두 10개의 망루가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 4망루까지 복원돼 있다. 제1망루는 1995년 태풍 제니스에 의해 무너져 1996년에 해체됐으며, 성가퀴성벽 위에 설치한 높이가 낮은 담와 초석만 남아 있다. 사방을 살피기엔 이만한 장소가 없어 보인다.

산길 이정표는 파리봉 1km를 가리킨다. 길은 암릉과 나무 사이를 요리조리 파고드는 오솔길로 조망과 운치가 그만이다. 드디어 파리봉이다. 기



상계봉 촛대바위의 위용 || 필자 촬영

기묘묘한 암괴가 뒤엉켜
신비한 자연예술을 연출
하고 있다. 상계봉에서 본
것은 예고편에 불과했다.

파리봉의 이름에는 두
가지 설이 있다. 아주 오
래된 옛날에 큰 홍수가 나
서 산과 마을이 물에 침수
되고 바위산 봉우리에 파
리 떼가 새까맣게 붙어 있
었다고 해서 파리봉이라
불렀다는 설과, 불교의 일
곱 가지 보물 중에서 수정
을 뜻하는 보석인 ‘파리’서
유래했다는 설이 그것이
다. 수정처럼 빛나는 산정

에 코끼리가 낙동강 물을 마시고 있는 듯한 형상의 바위가 있다 해서 불교
식 이름이 붙었다는 말도 있다. 수정은 불교의 칠보七寶 중 하나다. 산성마
을 쪽에서 보면 봉우리가 마치 수정처럼 반짝거리기도 한다. 정상 표지석
에는 불교에서 말하는 ‘파리’에서 이름이 유래했다고 적고 있다.

파리봉 좌측에 나무 데크 전망대가 있다. 아래는 천길 낭떠러지다. 아찔
한 절벽 아래쪽으로 산성마을로 이어지는 나무 데크 계단 길이 조성돼 있
다. 그전에는 로프에만 의지해 위험하게 오르내려야 했던 곳이다.

이제 오른쪽으로 내려서서 산성마을로 향한다. 산성막걸리와 먹거리촌
으로 유명한 산성마을에는 아직 조선시대 군사마을의 흔적이 남아 있다.



상계봉에서 바라본 낙동강 하구 전경 || 필자 촬영

죽전마을은 화살 재료인 시누대가 많이 자라났다는 곳이고, 중리 마을은
산성 중성문 근처에 형성됐다는 마을이다, 공해마을은 관아가 있는 마을
이라고 해서 붙여진 지명이다. 세 마을을 합쳐 산성마을이라고 하는데 행
정 지명으로는 금정구 금성동에 속한다.

느릿느릿 여유작작 약 5km의 산길을 2시간 반 동안 걸었다. 짧은 코스
지만 많은 것을 보고 즐긴 행복한 산행이었다. 산성버스를 타고 나서도
“금정산이 보배”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아홉산~달음산, 치유의 공간과 기암절벽에서 넘실대는 바다를 품다

기장의 서쪽 철마면은 산지로 둘러싸인 곳이다.
달음산을 경계로 정관읍과 맞닿아 있고,
철마천은 먼 걸음을 달려
회동저수지로 이어진다.
철마천이 시작되는 곳에
중리마을과 아홉산숲이 있다.
선비정신과 항일정신이 살아 있는 곳이며
3백년 정성이 만들어낸 치유의 공간 아홉산숲이 있다.
달음산에 오르면 기장, 일광, 좌천 일대의
바다를 드넓게 조망하는
또 다른 치유의 공간이 펼쳐진다.





아홉산~달음산, 치유의 공간과 기암절벽에서 넘실대는 바다를 품다

동해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기장을 해양도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기장을 찾는 이들의 공통된 생각일 것이다. 기장군 전체 5개 읍면 중에서 기장읍, 장안읍, 일광면 셋은 동해바다와 마주하고 있지만, 정관면과 철마면은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고을이다. 우리가 갈 곳은 내륙의 기장이다.

기장의 산을 주제로 첫 번째 답사할 경로는 아홉산에서 시작하여 달음산에 이르는 코스다. 행정구역으로는 철마면에서 출발하여 일광면으로 넘어가는 경로가 된다. 철마면은 거문산巨文山, 543m과 함박산457m, 그리고 백운산白雲山, 520m과 철마산鐵馬山, 604m이 양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또한 천마산과 달음산이 정관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곰내재와 같은 고갯길이 발달되어 있다. 지금은 터널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재를 넘어서야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었다.

산은 우뚝 솟아올라 마을의 동서남북 공간을 잡아주고 병풍 역할을 하며 냇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보여주는 존재로만 머무르지 않는다. 마을과 마을이라는 공간의 경계를 만드는 일이 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산과 산에서 흘러나오는 냇물이 합쳐져서 하천을 이루고, 하천이 모여서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며 만들어지는 땅의 무늬야말로 우리가 사는 마을과 마을 사이를 이루는 공간인 것이다.

이 장에서는 기장군 철마면 중리마을에서 일광면 일광읍 옥정사에 이르는 여정을 담았다. 하루에 다 돌아보기 어려울 만큼 긴 여정이지만 학문과 독립운동의 정신이 살아 있는 중리마을은 기장군 철마를 거론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고장이다. 중리마을 건너 미동마을에 있는 아홉산숲은 치유의 장이다. 아홉산숲은 기장군 철마면의 자랑이며, 용천리 상곡마을에서 원효대를 거쳐 대도사와 도선사에 오르는 길은 주변의 산세를 온전하게 담아내는 공간이자 일광천을 만들어내는 발원지가 되는 곳이다.

달음산 취봉과 옥녀봉은 동해바다의 풍경을 온전하게 껴안고 있어서 힘겹게 오르는 수고를 보상해준다. 원효대와 더불어 원효 이야기를 품은 옥정사 또한 그 이름만큼이나 시원한 냇물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공간이다. 하룻길로는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산행과 답사를 겸할 수 있는 인문공간이다.



1 중리 마을, 철마천 한 가운데 지사들의 땅



중리마을은 기장군 철마면 웅천리에 있다. 부산에서 가는 길은 정관산업로를 따라가다가 곰내터널 직전 중리 웅천 방향으로 빠져나오면 된다. 아홉산숲으로 가는 길도 중리마을을 거쳐가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동일하다. 그러나 여기서 중리마을을 소개하는 이유는 아홉산숲으로 가는 진입공간이라는 데 머무르지 않는다.

중리中里는 웅천리熊川里, 곰내마을의 한가운데라는 뜻이다. 마을 전체를 감싸주듯 품은 거문산이 우뚝 서 있고, 북쪽으로 이어진 문래봉文萊峯은 정관읍과 마주하며 경계를 만들어낸다. 거문산과 문래봉 사이에서 발원한 철마천은 남동쪽으로 흐르다가 홍연폭포 무지개를 지어내고 소류지에서 잠시 숨을 고른다. 총 8.5km를 내달려 오륜대 수원지로 들어가는 철마천은 정관산업로를 통과하고 곰내연밭, 상현당尙賢堂과 중리마을회관의 우측으로 물길을 잡아 중리마을과 아홉산숲 사이를 지나가며 마을의 젖줄이 된다.

조선 숙종 대에 정2품 정헌대부를 지낸 문세명文世鳴이 집승정集勝亭을 지은 것은 동래와 정관, 기장과 일광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는 이곳의 풍광을 노래하고 싶었던 것이리라. ‘뛰어난 경치[勝]’를 ‘모음[集]’이라는 뜻에서 지은이의 의도를 알수 있지만, 후학을 양성하던 공간이라는 위상에서도 이곳에 대대로 터잡고 살아온 남평 문씨 집안의 면모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중리마을회관 앞 수리정愁離亭이 자리한 곳에는 1977년에 후손 문성운·문덕수에 의해 건립된 문공휘세명집승유허비文公諱世鳴集勝遺墟碑가 이 땅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다.

수리정. 정자의 이름을 ‘근심에서 벗어난 곳’이라 부른 사연은 이러하다. 조선 숙종 대 이조참판을 지낸 이선李選은 인현왕후의 폐위를 반대하다가 쫓겨나 1689년 이곳으로 유배오게 된다. 이선은 문상익文尙翼의 집에 살면서 주로 집승정과 유란헌幽蘭軒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자신을 괴롭히던 온갖 근심과 시름을 이곳에서 떨쳐버렸다고 하며 집승정을 수리정이라 불렀다고 한다. 여기서 이선은 송강 정철의 가사를 재정리하는 일에 매진하였는데, 이 결과 『송강가사松江歌辭』의 세 개 판본 중 하나인 이선본의 결실이 중리마을에서 이루어진다. 거문산과 문래봉의 ‘문文’자가 피어난 것일까? 사실 중리마을의 문자향은 홍연폭포를 바라보는 곳에 자리잡은 문연정文淵亭에서 이미 피어나고 있었다.

문연정은 남평 문씨 부사공파의 원류가 되는 문여옥文汝郁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1632년인조10에 세워졌다. 문여옥은 병자호란 뒤 동래에서 기장 철마로 이주한다. 그의 둘째 아들이 바로 문상익이니 수리정과 문연정의 연속성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기장군한시연구회」에서 해마다 이곳에서 시회를 개최하고 일찍이 한의생漢醫生 김채홍金採洪, 1870~1928이 자신의 집에 서당을 열어 학문과 한의학학을 함께 가르친 일도 우연이 아닌 것이다. 철마면 3·1 운동을 주동한 정인준·문진호·문용호 등의 인물은 모두 이곳 서당 훈장출신이었으니 학덕이 애국으로 발휘된 사례는 이곳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기억해야 할 일이라. 문용호文龍鎬의 생가에는 준호구 단자, 신호적 등 67점, 녹봉이 정해지지 않은 관직자를 임명하면서 발급한 문서인 차첩差帖 및 민원문서인 소지所志 등 25점의 고문서와 경서가 소장되어 있다.



입구쪽 대숲 | 필자 촬영

마음이 든다. 붉은색 자태를 드러내며 곧게 솟아오른 모습에서 힘찬 기운이 한껏 느껴진다.

약 9백미터 지점에 이르면 맹종죽 숲이 나타난다. 이곳 마을 사람들이 굿터라 부르는 곳이다. 맹종죽이 빼곡하게 땅을 차지하고 있는 곳에 사찰 입구의 당간지주로 보이는 돌기둥 둘이 마주 보고 서 있는 너른 공간이다. 맹종죽이 치고 들어오지 못한다 해서 기운이 센 곳이라 여겼던 것일까? 어쨌든 대숲 가운데 빈 공간은 쉼과 멈춤을 선사한다. 그런데 당간지주치고는 사이가 꽤 벌어져 있다. 원래부터 사찰의 입구를 가리키는 용도로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던 것을 누군가 옮겨놓은 것으로 보인다. 맹



금강송 | 필자 촬영



맹종죽숲 | 필자 촬영

종죽이 사방으로 뻗어 있는 곳에 자리한 빈 공간은 영화와 드라마가 곧잘 촬영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드라마 ‘더 킹: 영원의 군주’에서 시간을 넘나드는 차원의 문으로 등장한 덕분인지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설새 없이 풍경과 사람을 사진으로 담아내기에 바쁘다.

대나무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장군의 특산물로 기록될 만큼 이 지역을 대표하는 식물로 알려져 왔다. 아홉산숲에는 다섯 종류의 대나무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표 대나무인 왕대와 솜대, 그리고 18세기 중국에서 들어온 맹종죽이 넓게 펼쳐져 있다. 출구쪽 관미헌(觀微軒)에 이르면 검은색 자태로 유명한 오죽(烏竹)과 대나무 마디가 거북이 등처럼 생긴 구갑죽(龜甲竹)도 살펴볼 수 있다.

다시 임도를 따라 걸어가면 참나무, 차나무, 편백나무, 삼나무, 소나무가 줄지어 자태를 드러낸다. 특히 영화제작 때 만들었다는 서낭당을 지나 조금 더 걸어가면 만나게 되는 편백나무 숲은 한참을 바라보기에 충분하다. 하늘을 향해 올곧게 쭉 뻗어 있는 편백나무의 힘찬 모습 때문일 것이다.



관미헌 Ⅵ 필자 촬영

편백나무와 삼나무, 참나무, 소나무를 뒤로 하고 출구가 가까워질 무렵 평지대밭이 나타난다. 두 번째 맹종죽숲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곧바로 출구로 나가지 말고 아래로 난 길을 따라 한 바퀴 둘러서 원점으로 돌아오는 길을 놓치지 않도록 한다. 숲속 걷기의 백미라고 할 만한 공간이 기다리고 있으니 말이다. 이곳의 주인인 맹종죽은 키가 20m, 지름이 최고 20cm에 이르는 거대한 녀석들이다. 느릿느릿 10여 분간 둘러보는 이 둘레길이야말로 숲을 오감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 하겠다. 감각기관을 한껏 열어 천천히 걷노라면 영화와 드라마에서 왜 이곳을 촬영 무대로 삼았는지를 알게 된다.

평지 대밭을 지나 총 3.2km에 이르는 길이 마무리되는 지점에 오면 출

구 쪽에 관미헌이 보인다. 고사리^薇와 같은 풀들이 자라는 모습을 살펴 본다면 ^觀은 마음 씩씩이를 담은 이름이다. 이 뜻은 경주 양동마을 관가정 ^{觀稼亭}의 의미와도 맞닿아 있을 것이다. ㄱ자 모습으로 전통 한옥의 자태를 보여주는 이곳은 아홉산숲 주인장들이 대대로 거주해오는 공간이다. 관미헌 앞 100년의 나이테를 지닌 배롱나무는 커켜이 쌓인 세월의 무게를 그대로 보여준다.

산이 많은 덕분에 우리 땅에는 숲이 어디든 있다. 그러나 숲이 선사하는 갖가지 아름다움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해 수백년에 걸쳐 노력한 결과로 이루어진 숲은 보기 드물다. 가까운 이들과 함께 걸으며 휴식과 치유의 공간으로 삼을 수 있는 곳이 여기에 펼쳐져 있다.

3 상곡마을, 일광천 발원지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는 산수곡山水谷, 대리大里, 상곡上谷, 회룡回龍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상곡의 옛 이름 ‘웃골’에는 용천마을의 위쪽 또는 큰 마을大里 위쪽에 있다는 뜻이 담겨 있을 것이다. 상곡은 달음산의 남쪽 중턱에 형성된 산골짜기 마을로서 일광면에 속하는 자연마을 가운데 고도가 가장 높은 곳에 있다. 상곡마을에서 원효대를 거쳐 대도사를 지나 도선사의 좌측으로 지나가는 가파른 길로 오르면 달음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등산로가 나온다.

상곡마을을 찾아오면 전원주택이 제법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장면을 먼저 만난다. 달음산 원효대로 올라가는 골짜기에 전원주택들이 자리잡은 이유는 아무래도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찾아야 하리라. 국립달음산자연휴양림, 기장청소년수련관, 동부산승마장 등의 시설이 이곳에 자리잡은 이유, 또 신라의 원효가 수행터로 삼은 원효대(元曉臺)를 비롯하여 대도사(大度寺), 지인사(智印寺), 약수사(藥修寺), 도선사(道詵寺) 등의 사찰들이 인근에 줄지어 세워진 것도 마찬가지 이유가 아닐까? 원효대는 예부터 기장지역을 대표하는 4대 사찰의 하나였던 취정사(鷲井寺)가 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 마을은 북쪽으로 정관읍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천마산과 함박산, 서
쪽으로는 아홉산이 자리하고 동북쪽으로 달음산과 월음산으로 둘러싸여



다음산 정상에서 바라본 상곡마을 일대(상곡마을, 원효대, 용천저수지) ■ 필자 촬영

있다.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골짜기 마을이라는 관점으로는 상곡의 면모가 잘 보이지 않는다. 1958년 1월 1일에 준공된 용천저수지를 근거지로 해서 모여든 물줄기들이 힘을 합쳐 일광천을 만들어내는 공간이라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상곡의 면모가 제대로 보인다.

우리들의 산은 마을을 다정하게 품은 듯, 모진 바람으로부터 사람들을 감싸 안는 역할을 해준다. 병풍처럼 우뚝서서 바람을 막아주는 일로부터 배산임수背山臨水라는 말이 생겨났을 것이다. 그렇기에 산은 의미 없이 불쑥 솟아오른 그저 높은 데가 아니라 마을을 지켜주는 제일의 보호막이다. 산은 가장 소중한 먹거리인 물을 끊임없이 만들어주는 생명의 제1번 지이고 짐승을 사냥하는 곳이기도 하며, 땀감을 구하는 공간이면서 다양한 나물과 천하의 명약인 산삼과 영지를 제공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적어도 이 땅에서는 산의 존재 없이 사람들의 살림살이를 말할

수 없으리라.

『기장읍지』에서는 “취정천은 일광천을 가리킨다”라고 하였다. 지금의 일광천은 예전의 취정천인 것이다. 곧 수리봉[鷲峰], 수리골, 수리샘, 취정鷲井이라는 말은 모두 달음산의 정상인 취봉과 이 일대에서 샘솟아 8.17km를 내달리는 물길인 일광천에서 비롯된 말이다. 냇물이 물길을 이루어 하천이 되면, 사람들은 거기에서 먹고 살아갈 물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사짓고 살아갈 터전이 이루어지고, 들판이 만들어지며, 마을과 마을을 넘나드는 곧은 길도 더불어 얻어진다. 용천리 수리골에서 출발하여 이천항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일광천이야말로 일광 일대의 젖줄인 셈이다. 원효가 취정사터에 자리잡아 수도한 뜻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용천龍川이라는 이름을 덧붙인 것도 냇물이 하천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힘 있게 묘사하려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광천 덕분에 소규모지만 평야가 발달되고, 일광 해수욕장이 만들어진다.

4 원효대, 원효가 달음산에서 도를 닦다



원효대라고 불리는 곳에는 현재 원효사가 자리잡고 있다. 대한불교 법화宗法華宗 소속의 원효사는 1898년에 영명당 선사禪師가 기도와 참선 도량으로 건립한 사찰이다. ‘원효대’와 ‘원효사’라는 명칭은 원래 신라의 원효가 취정사鷲井寺를 세워 수도한 곳이라는 사실에서 비롯한다.

취정사는 18세기 중반까지 기장 지역을 대표하는 4대 사찰의 하나였다. 고산자 김정호가 편찬한 『대동지지』 「경상도 기장 산수」에서 “취봉산은 기장현의 북쪽 20리에 있다”라고 말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취정사는 달음산(혹은 취봉산鷲峰山)의 수리봉鷲峰 아래에 18세기까지 존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뒤 언제 폐사 되었는지, 또 본래의 위치가 어디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지만, 원효대의 존재는 일광천이 발원한 데서 활동한 원효의 흔적을 또렷하게 말해주고 있다.

지금의 원효대는 취정사터가 아니라고 말하는 의견도 있다. 조선 후기 이충익李忠翊, 1744~1816의 시문집인 『초원유고椒園遺藁』에 실려 있는 「조우취정사阻雨鷲井寺」에서 말하는 내용이 그 단서이다.

이미 폐허가 된 취정사지에 가을비가 자비도량을 막고 있으며
폐허된 창문에 그래도 부처께 불공드린 향불 내음이 남아 있다. 가을비는 바다와 접하고 있으며 종소리는 멈추었고 스님의 불경소리





원효대 입구 ■ 필자 촬영

는 이미 끊어졌으나 꿈속에서라도 부처님 말씀을 듣고 싶어라.

이 시에서 옳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취정사는 18세기 무렵 이미 폐사되었으며 동해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금의 원효대에서는 동해바다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취정사터는 일광면 원리의 상리마을에 있는 폐사지가 본래의 취정사일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동해바다가 보이는 곳이라는 점, 이 절터의 남북방향으로 높이 2.5m 정도의 석축이 있다는 점에서 일광광산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상리마을 폐사지에 취정사가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의견일 것이다. 그러나 취정사의 본래 위치가 어디든 상관없이 원효가 수도한 곳이라는 ‘원효대’의 의미까지 희석되는 것은 아니다. 일광천이 시작되는 곳,



삼성각 위 절터(대도사 가는 길) ■ 필자 촬영

달음산의 중턱에 자리잡아 일광면 일대의 시야가 툭 터지는 곳, 그래서 특
별한 풍광이 펼쳐지는 곳이라는 의미는 쉽게 달라지는 것은 아닐 터이다.

원효사 위에 있는 빈 터가 현재의 원효대이다. 한때 청동으로 조성된 비로자나불상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이곳 달음산은 포항 유제산雲梯山, 울산 문수산文殊山, 양산 천성산千聖山, 장안 불광산佛光山, 부산 금정산金井山 및 백운산白雲山과 더불어 원효의 구도행각에서 중심을 이루는 공간인 것이다.

원호대가 있는 곳으로 가려면 아홉산숲 옆으로 난 길을 따라 국립달음 산 자연휴양림으로 올라가 함박산과 천마산 정상을 바라보며 능선을 따라가면 된다. 기장군청소년수련관 근처에 다다르면 달음산 등산로 제5코스로 접어들게 되므로 달음산 정상까지 곧장 오를 수 있다. 중간에 오른쪽

길로 빠져나와 방향을 잡으면 원효대 방향으로 내려올 수 있는데, 총 8km 거리의 산행이라 만만치 않은 길이다.

답사에 무기를 두면 아홉산숲 주차장에서 철마천을 따라 남쪽으로 가는 길로 이동하는 편을 권할 만하다.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아래를 통과 하여 이곡리를 지나 다시 고속도로 아래를 지나 북쪽으로 향해가는 경로다. 일광천을 거슬러 올라가면 상곡마을이 보인다. 전원주택이 빼곡하게 자리잡은 마을을 가로질러 올라가면 이제 달음산 임도로 접어든다. 마주 오는 차를 조심하며 5백여 미터쯤 올라가면 원효사 주차장이 나타난다. 여유 있게 주차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다. 고개를 들어 원효사를 바라보면 힘이 넘치는 취봉이 배경이 되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주차장에서 원효사로 올라가는 길에는 온통 ‘원효’라는 이름으로 빼곡하다. 원효교를 지나면 원효대가 쓰인 큰 바위가 안내하며 ‘축봉산 원효대’라는 글씨가 새겨진 일주문을 통과하게 된다. 우람한 몸체를 자랑하는 사천왕이 지키고 있는 천왕문을 지나, 계단을 올라 정문인 해탈문(解脫門)을 지나면 그야말로 원효대의 공간이다. 일찍이 이 절을 창건한 영명(靈明) 선사가 꿈에서 원효를 보았기 때문일까? 「영명당 선사 영정」과 「원효대사 영정」이 함께 걸려 있는 모습은 전해오는 이야기에 실감을 보탠다. 천성산과 금정산만 원효의 활동무대가 아니라 달음산도 그에 못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듯하니 말이다.

원효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사찰은 대체 얼마나 될까? 모르긴 해도 단연코 제1위에 등재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원효대처럼 사찰의 명칭에 아예 원효가 들어간 경우도 만만치 않다. 원효는 과연 전국을 다니며 사찰을 실제로 건립했을까? 사실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사찰을 창건하는 비용이 얼마인데 자유인으로 살았던 원효가 감당할 수 있을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요석공주의



대광명전 | 필자 촬영

절대적인 후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사찰에 한해서일 것이다. 이야기에서 전하는 것처럼, 원효의 인연이 닿은 땅에 초막을 짓고 수도에 전념하던 곳에 사찰이 건립된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심지어 관련이 없는데도 원효라는 이름을 내세워 사찰의 권위로 삼았을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신라 사람 원효는 고려 숙종 때인 1101년이 되어서야 화쟁국사(和諍國師)로 인정받지만 백성들에게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원효대사’였을 것이다.

유명한 해골물 사건을 계기로 원효는 당나라 유학길을 그만두고 경주로 돌아온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러나 이후 원효가 포항의 오어사(鰐魚寺, 당시 향사사恒沙寺)와 같은 경주 외곽 지역에서 활동한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양산의 산막(山幕)과 호계리(虎溪里), 홍룡사(虹龍寺) 등지에서 활동한 원효는 부산에도 발자취를 또렷하게 남겼다. 금정산 원

5 대도시와 도지사, 달음산 오름자락 못생명의 쉼터



원효사 위에 있는 원효대에서 길을 따라 1km쯤 올라가면 달음산 정상에 이른다. 올라가는 도중에 약 4백 미터 간격으로 두 사찰이 차례로 나타나는데, 대도사와 도선사라는 사찰이다. 공통으로 들어간 ‘도度’자는 일상에서 법도나 제도에 해당하겠지만 사찰에서는 중생 제도濟度의 의미로 읽는 것이 먼저다.



대도사 입구 ■ 필자 촬영
가운데 석축 아래로 냇물이 흐른다. 왼쪽이 도선사 가는 길, 오른쪽이 대도사.



대도시 전경 ■ 필자 촬영
좌측이 대웅전, 우측 정면으로 보이는 건물이 관음설법전.

대도사는 1992년에 등록된 대한불교 법화종 소속의 사찰인데, 정확한 위치는 기장군 일광면 상곡길 70[용천리 200]이다. 1900년대 초에 김화자라는 이가 창건한 것으로 전한다. 처음 이름은 죽림사竹林寺였으나 1982년에 범천梵天이 주지를 맡아 사찰을 정비하면서 대도사大度寺로 명칭을 바꾸었다고 한다.

원효대에서 달음산 정상으로 가는 길은 가파르다. 대도사와 도선사까지는 임도가 있어 자동차로도 이동이 가능하지만, 올라가는 운행이 만만하지 않다. 맞은 편에서 내려오는 차라도 만날 때면 공을 들여 조심스럽게 빠져나가야 하는 길이다. 이처럼 가파른 오르막길 도중에 너른 공간이 있으니 사찰이 들어섰을 것이다. ‘대도大度’는 ‘크나큰 중생衆生 제도濟度’란 뜻으로 풀어도 되고, ‘위대한 도량度量’이란 뜻으로 풀어도 무방할 것이다. 어느 쪽이든 달음산의 너른 품을 닮은 적절한 이름이라 하겠다.

약1,983.47m²[6백 평]의 사찰 규모는 평지나 언덕이라면 작은 공간이겠

으나 달음산 중턱 너머 정상으로 향하는 길에 자리잡고 있다면 그 위상은 남다른 것이다. 현재 대웅전, 요사채, 삼성전, 용왕전이 가람의 면모를 이루고 있다. 신라 때부터 고찰이 있었다거나 한겨울에 기도를 올릴 때면 정수에서 고드름이 솟구친다는 전설이 전해오는 것을 고려하면, 일대 마을 전체의 모습이 보이는 곳에서 기도의 도량으로 삼아서 마을 사람들의 정신적 의지처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다. 대도사 아래로도 작은 냇물이 흘러간다. 누군가 정성을 들여 석축을 쌓아 놓았다. 2002년 2월경에 부처의 진신 사리를 미얀마 승려로부터 전해받아 보관 중이라고 한다. 아래에 있는 원효대의 진신사리탑 신앙과 이어지는 지점이다.

도선사度詵寺는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의 사찰로, 위치는 상곡길 116[용천리 산78]이다. 대도사에서 위로 400여 미터를 더 올라온 곳에 있다. 거의 3백 미터지점에 떨어져 자리잡고 있는 사찰이다. 1900년대 초에 건립되었다고 전하니, 대도사와 비슷한 시기에 창건되고, 중창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부지가 3만 9천㎡[1만 2천 평]으로 나온다. 달음산의 가파른 오르막에 어떻게 이토록 넓은 공간이 조성될 수 있을까?

정답은 경사진 곳에 석축을 쌓아 2층의 공간을 만들어낸 노력과 정성에 있다. 전통목조건축으로 지어진 극락전도 2층으로 건립되어 마치 아래 공간과 위의 공간을 이어주는 건물처럼 보인다. 석축을 숨씨 좋게 쌓아 비탈진 땅을 깎아내듯 고르듯 이중의 이층 공간을 짜내어 만들어낸 기획과 실행력에 감탄하게 된다. 비탈진 공간을 계단으로 오르내려야 하지만 이와 같은 공간에 대웅전, 나한전, 천불전, 요사채, 산신각, 약사전 등이 제각각의 역할에 따라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은 험한 산지에 적절한 건축방법으로 보인다.

대도사에서 이미 탁 트인 시야에서 생겨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만, 도선사에 들어서서 바라보는 시야에는 주변의 산세가 제 모습을 온전



도선사 전경 Ⅵ 필자 촬영



입구에서 바라본 일몰 Ⅵ 필자 촬영

하게 보여주기 시작한다. 저 아래 상곡마을과 아홉산 자락의 전체 모습은 물론이고, 일광천 발원지와 용천저수지는 말할 것도 없다. 일몰 무렵 입구 앞에 서면, 정관읍과 경계를 이루는 천마산과 함박산의 생김새를 또렷하게 살펴보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자신들의 바람을 불보살님에게 기도하는 불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이곳을 찾는 이들이 저절로 열린 마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귀중한 공간이다. ‘도선度詵’의 뜻은 중생제도를 많이 성취하는 곳, 법도가 넉넉한 곳이라는 뜻, 혹은 그와 같은 법도와 중생제도의 길에 대해 묻는 곳이라는 뜻도 되리라.





옥녀봉에서 바라본 일광 앞바다 Ⅵ 필자 촬영

우리가 있다. 구슬아기봉이라 부르기도 한다. 취봉 일대에서 발원한 하천을 취정천(鷗井川)이라 부르는 것처럼, 이 옥녀봉을 기준으로 삼아 발원한 냇물을 옥정천(玉井川)이라 부른다. 옥녀봉이라는 이름은 전국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산봉우리에 ‘옥녀’라는 이름을 즐겨 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취봉이 독수리 모양으로 보이는 것처럼, 옥녀봉은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보였던 것일까?

옥녀라는 명칭은 생명 탄생의 근원이라는 여성성을 숭배한 데서 비롯된 이름일 것이다. 아름다운 모습을 찬양하는 측면만으로 전국에 무수하게 존재하는 ‘옥녀봉’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달음산의 옥녀봉은 나중에 살펴볼 옥정사 옥샘과의 연관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이 귀하기로 소문난 달음산에서 취정(鷗井)과 옥정(玉井)의 존재

는 소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냇물의 존재 덕분에 물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서야 집도 절도 들어설 수 있을 터이다. 취정사도 옥정사라는 이름도 모두 샘물을 따서 지어진 것이다.

달음산을 오르는 다섯 경로 가운데 옥정사에서 출발하는 1.9km의 제1코스는 오르기가 무난하다고들 말한다. 초보자들에게도 권할 수 있다고 하지만 발품을 팔고 땀을 흘리지 않고는 오를 수 없는 곳이 바로 산 아니던가. 옥정사에서 출발하면 옥정천의 발원을 확인해가며 갈미산고개를 거쳐 옥녀봉에 이르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올라가는 길도 있다. 일광 광산마을에서 왼쪽으로 길을 잡아 포장임도를 따라 올라가서 편백나무 숲을 통과하는 방법이다. 해매기 고개를 지나 한참을 올라가면 취봉 정상에 도달한다. 다섯 경로 가운데 제3코스이다. 취봉 정상에서 옥녀봉 쪽을 택하여 옥정사를 거쳐 광산마을 입구로 내려오면 달음산을 크게 한 바퀴 돌아오는 길이라 매력적인 동선이 될 것이다.

아홉산숲 주차장에서 이동하여 원효사 주차장에 차를 대고 달음산으로 오르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이 길은 곧장 오르막으로 시작되고 가는 내내 힘이 드는 길이다. 그러나 원효대를 거쳐 대도사와 도선사를 찾아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과 산세와 동해바다를 바라보는 지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할 필요가 있는 길이기도 하다. 답사를 염두에 둔다면 특히 그러할 것이다. 역시 무난한 산행길로는 옥정사에서 출발하는 코스를 권한다. 힘든 산행을 하지 않고도 달음산에 올라 동해바다를 멀리 조망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차량으로 기장군 청소년수련관이나 국립달음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겠다.

7 옥정사, 옥 같은 샘물을 품은 생명살림 공간



달음산 옥녀봉 기슭 옥정계곡 옆에 사찰이 있다. 옥정사다. 넓은 주차장에 도착하여 저 멀리 동해바다를 바라보며 사찰로 올라가는 길을 걷노라면 어느새 시원한 소리를 내는 냇물과 만나게 된다. ‘옥정’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모습이다. 물이 귀한 달음산에서 유일한 계곡이라고 할 수 있는 취정과 옥정 두 곳에 오래 전에 사찰이 들어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 옥천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한다.

취봉산[달음산] 서쪽에 있는 취정사에 머물고 있던 원효대사는 왕도[경주]로 가려고 옥녀봉을 넘어 동쪽 산기슭에 이르러 동해의 해를 바라보다가 문득 갈증을 느꼈다. 그때 마침 아름다운 처녀가 웅달샘에서 샘물을 물동이에 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대사께서 물을 청하자 처녀는 표주박 가득히 샘물을 떠올렸다. 그 샘물을 마시자 온몸이 시원해지면서 무거운 몸이 흥모처럼 가벼워졌다. 대사는 세 번이나 받아 마시고 처녀에게 ‘나무관세음보살’을 읊으며 고마운 인사를 하였다. 그러자 그 처녀는 몸이 굳어지면서 돌로 변하여 관세음보살상이 되었다. 대사는 그 처녀가 관세음보살의 화신이었음을 알고 오체투지의 예를 올렸다. 그런 뒤 대사는 이곳이 관음도량임을 알고 초막을 짓고 잠시 머물면서 동해용왕에게 이 옥샘을 지켜주기를 당부하고 왕도로 떠났다. 그 후 이곳은 동해용왕이 지켜 주는 옥샘이 있고 관세음보살의 석상이 계신다며, 마



옥정사로 가는 길 ■ 필자 촬영

을 사람들이 암자를 짓고 옥천사라 하였다고 한다.

또 원효가 등장하는 이야기다. 이 전설에 따르면, 원효는 달음산 취정사에 있다가 서라벌로 가기 위해 옥녀봉을 넘었다. 취정사의 위치 비정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지금의 원효대를 취정사로 가정하면, 원효는 원효대에서 대도사가 자리한 곳을 지나 옥녀봉에 도착한 뒤 옥정사 방향으로 내려갔을 것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옥샘이 옥정사라는 명칭이 생겨난 이유이다. 게다가 이 옥샘의 물을 떠준 이가 다름아닌 관세음보살이라는 이야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비의 화신인 관세음보살은 천수천안千手千眼을 갖추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정병淨瓶 즉 물병을 필수품처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으로도 나타난다.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제공하는 것이 관세음보

살에게 주어진 임무인 것처럼 말이다. 산이 생명의 터전이라면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나그네들의 목마름을 풀어주는 고마운 샘물은 옥샘이라 부르며 관세음보살의 자비 그 자체로 보는 관점은 전설이 아니라 현실의 이야기로 들린다. 이처럼 달음산은 원효대에서 대도사와 도선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곳 옥정사에도 모두 관세음보살 신앙을 깊이 품고 있다.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관세음보살의 존재야말로 산이 인간들에게 베풀어주는 덕목과 잘 일치되는 지점이기애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리라.

샘물 덕분에 지친 몸을 달래며 위기를 회복할 수 있었던 원효가 관세음보살이 베푼 은혜를 기리며 초막을 짓고 잠시 머물렀다는 이야기는 원효가 이곳을 수도처의 하나로 여겼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경주로 가던 길이라 오래 머물지 않았지만 동해의 용왕에게 이곳 옥샘을 지켜주기를 당부하는 장면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샘물의 존재를 동해의 용왕과 관세음보살에게서 비롯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옥정사가 비록 기장을 대표하는 4대 사찰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취정사와 더불어 원효가 수도한 곳이라는 위상은 이미 갖추고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이 옥샘에 얹힌 ‘전통’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억하는 이가 있었기에 옥정사가 창건될 수 있었을 것이다.

옥정사는 1907년에 승려 박공해(朴公海)가 창건하였다. 유서깊은 절터로만 남아 있던 것을 안타깝게 여기다가 자신의 고향에 창건한 것이다. 일광면 원리의 마을 친구였던 이희조에게 현재의 사찰 부지를 희사받은 인연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처음엔 작은 초가와 토굴을 조성하여 시작하였지만 1922년에 상좌인 수진과 함께 불사(佛事)를 벌여 지역의 유지들과 불자들의 도움을 얻는다.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1923년에는 건평 82㎡에 달하는 세 칸의 법당을 짓기에 이른다. 이어서 산신각과 요사채, 창고 등도 차례로 건립하면서 사찰로서의 모습을 차츰 갖추기 시작한다.



옥정사 대웅전 ■ 필자 촬영

『기장현읍지』에는 옥정사에 관한 기록이 없다. 그러나 기장의 뛰어난 경치를 노래한 가사 『차성가車城歌』에는 “옥정사 깊은 골의 춘경春景을 구경하고”라는 구절이 나온다. 『차성가』의 제작연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1800년대에 지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옥정사는 적어도 19세기 초에는 달음산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일광면 원리의 주민들이 옥정사가 있던 골짜기를 ‘절골’이라 부르고 있는 점, ‘절골 못’, ‘절 텃들’ 등의 지명이 남아 있다는 점에 토대하면 달음산에 위치한 옛 사찰로서의 면모는 분명하다.

1954년경부터는 박한봉 선사에 의해 많은 불사가 이루어진다. 그는 30년이 넘도록 불사에 매진하였는데, 불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관세음보살을 세 번이나 현몽하였다고 하니 그 정성을 가늠하기가 어렵다.

1971년 66㎡ 규모의 대웅전을 건립하면서 사찰의 모습이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 1982~1983년에 범종각과 사물四物 조성, 1986년에는 설법보전 說法寶殿 증축 등의 불사를 거듭하며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1992년 봄에는 홍수로 허물어진 계곡 쪽에 석축을 다시 쌓아 옥정교를 설치하고, 높이 7m의 약사여래藥師如來 입상도 조성하였다. 지금은 옥정사를 찾는 이들이 자연스레 다리를 지나 편하게 절로 들어서게 되지만 당시 공사를 담당한 이들은 비탈진 계곡에 석축을 쌓고 다리를 설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들였을 것이다. 1994년에는 스리랑카에서 진신사리를 모셔와서 삼층석탑에 봉안하였다. 2002년에는 2층의 목조 건물인 지장전을 건립하여 사찰의 면모 갖추기를 마무리한다.

현재 옥정사 경내에는 대웅전을 중심으로 설법보전, 약왕각, 지장전, 칠성각, 산신각, 범종각 등의 전각이 있다. 대웅전 앞에는 진신사리를 모신 삼층 석탑이 있고, 계곡 쪽에 약사여래불 입상이 세워져 있다. 약왕각藥王閣은 옛 용왕전을 헐어내고 지은 것인데, 여기에는 미륵보살을 봉안하여 미래에 미륵이 여는 불국토 세계인 용화회상龍華會上을 염원하는 꿈을 담아 감로수각甘露水閣을 설치하였다. 옥샘이 약왕으로 드러나고, 미륵으로 나타나며, 감로수로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해준다는 의미를 담으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2020년 기장군에서는 옥정사 근처에 편백숲 둘레길을 조성하여 산책길과 숲속 쉼터 등의 공간을 만들어 관광객들의 휴식을 돕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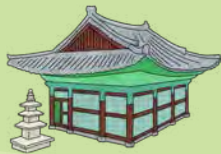
일광읍을 찾아 옥정사로 가는 곳 입구에 광산마을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두어야 할 역사의 현장이다. 바로 일제강점기 때 노동자들의 눈물과 한이 서려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광산 마을은 1930년 3월 11일부터 달음산에서 구리광산을 개발하면서 형성되었다. 당시 광산 입구에 있는 실개천에 다리를 놓고 석축을 쌓아 터를 조성하여 광산업무에 필요한 사무실과 일본

인 간부 사택을 지었다. 이 때문에 일제 강점기에는 이 광산마을 입구에서 옥정사로 올라가는 길목에 50여 가구, 광산촌 입구에도 40여 가구가 거주하여 번성했다고 한다. 1994년에 광산이 폐광되어 탄광촌으로서의 기능을 잃으면서 우리들의 기억에서도 사라지고 있지만, 일제강점기 때 또 다른 착취가 벌어진 아픔의 현장이 달음산 옥정사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이다.





3-1 대운산



3-2 내원암



3-3 내원암 계곡과
국립 대운산 치유의 숲



불광산 정상



2-2 척판암



2-1 장안사



1-2 분청사기 가마터



1-1 상장안 마을



2-3 불광 계곡



불광산~대운산, 유서 깊은 명산에서 선각자의 자취를 느끼다

양산 천성산에서 뿔어나온 줄기에서
대운산이 우뚝 선다. 대운산에서 남쪽
불광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가
부산의 북쪽과 울산의 남쪽 경계를 나누니,
이 산과 계곡에서 형성된 길은 기장, 울산,
양산을 오고 갈 수 있다. 우리 선조들에게는
중요한 교통로였던 것이다.
선각자 원효의 발자취가
곳곳에 보이는 이유다.



불광산~대운산, 유서 깊은 명산에서 선각자의 자취를 느끼다

기장의 산 두 번째 답사길로 나서기 위해 기장군 장안읍으로 떠난다. 장안읍은 기장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곳이다. 장안읍을 대표하는 불광산과 대운산은 그 경계를 울산과 나누어 가진다. 불광산과 대운산 산길의 도움을 받으면 부산과 울산을 넘나들 수 있다.

장안마을은 상장안 마을과 하장안 마을로 나뉜다. 장안사 바로 아래에 있는 마을이 상장안이다. 부산에서 동해선 기차를 타고 기장역에 내려 기장시장에서 9번 버스를 타도 되지만, 기차여행의 재미를 더 누릴 요량이라면 좌천역에 내려 9번 버스를 타도 된다. 25~50분 간격으로 운행되는데, 상장안 공영주차장이 종점이다. 장안사로 가려면 여기서 내리면 된다.

장안마을의 위상은 계곡이 좋은 곳, 장안사가 있는 마을이라는 데 머무

르지 않는다. 이 일대에서 발견된 가마 유적 여섯 곳의 중심에 장안마을이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상장안마을은 분청사기 가마 유적이 발견되어 더욱 주목되는 곳이다. 마을 초입에 기장 도예촌이 들어서서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장안천은 불광산과 삼각산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흔히 장안사계곡이라 부르지만 불광산이 주는 선물임을 고려하면 불광계곡이라 부르는 게 합당하리라. 물빛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금수동계곡 또한 적절한 이름이다. 이 계곡에서 시작된 장안천 상류로 올라가면 냇물이 교차하는 지점 너른 곳에 신라의 원효가 창건한 장안사가 있고 장안사 서쪽 산등성이에도 그가 세웠다는 척판암이 있다. 그렇기에 장안사와 척판암으로 향하는 걸음은 위대한 선각자였던 원효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길이 된다. 금정산과 더불어 불광산은 원효와 부산의 인연을 말해주는 곳이라는 점에서 가보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또 하나의 중심 대운산으로 간다. 행정구역으로 볼 때 대운산은 분명 울산광역시에 속한다. 그러나 대운산과 불광산은 남북으로 맞닿아 있고, 산길로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하나처럼 보아도 좋은 산이다. 큰 구름 대운산은 내원암 계곡을 만들어 못 생명들에게 선물한다. 이 계곡에는 수정처럼 맑은 물이 무진장이라, 예로부터 탁족처로 유명했다고 한다. 이 계곡을 따라 대운산 정상으로 가는 길목에 유서 깊은 고찰 내원암이 있고, 계곡 상류로 더 올라가다 대운산 치유의 숲이 있는 길로 방향을 잡으면 도통굴로 올라간다. 숲의 푸르름과 계곡물의 맑음을 마음껏 즐기는 길이다. 여기서도 원효의 발자취를 발견할 수 있다. 도통굴에서 말이다.

1 상장안 마을, 오래도록 평안을 누리는 곳



상장안마을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리에 있는 자연 마을이다. ‘상장안上長安’이란 이름 그대로 장안의 위쪽 동네를 가리킨다. ‘장안’은 ‘오래도록 편안하다’는 뜻이니, 낙안樂安처럼 살기 좋은 땅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이름이라. 이곳을 장안이라고 하는 지명이 문헌에서 확인되는 것은 『고려사高麗史』이다. 여기서는 “고려 성종 2년 983년부터 김해, 양산 등의 영현領縣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북쪽의 불광산佛光山, 350m과 남쪽의 삼각산三角山, 468m이 마주보며 만들어진 우뚝한 산지 오른쪽에 장안마을이 있다. 이 마을을 관통하는 장안천의 상류에 상장안마을이 있고 그 아래가 하장안마을이다. 장안사 가는 길의 위쪽 마을이 상장안, 아래쪽 마을이 하장안이 되는 셈이다. 두 곳으로 나누었으나 하장안마을회관에서 상장안 공영주차장까지는 1km가 조금 넘는 거리일 뿐이다. 두 마을을 통과하는 냇물은 장안천이다. 장안천은 마을 북쪽 불광산과 남쪽 삼각산이 서로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골짜기에서 발원한다. 처음에는 동쪽 방향으로 흐르다가 하장안마을에 이르러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동남쪽 월내포로 8.5km를 내달려 동해 바다로 들어간다. 수량이 풍부하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장안마을의 가마유적에서 생산된 도자기들을 운반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물길이기도 하다.

장안사는 원효가 673년신라 문무왕 13에 창건한 사찰로 본래 이름은 쌍계사雙溪寺였다. 장안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두 냇물이 만나기 때문에 만든 이름이다. 그런데 809년에 애장왕이 이곳을 다녀간 뒤부터 ‘장안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의 장안읍은 부산의 외곽지역에 해당하지만 그 옛날 장안은 남창, 온양을 거쳐 울산으로 가는 중요한 교통로 가운데 하나였다. 신라때의 경주는 수도인 서울이므로 울산은 경기지역에 해당하고 기장은 바로 그 아래에 인접한 지방에 해당한다. 더구나 불광산에서는 산길을 통해 웅상과 서창지역으로도 나갈 수 있으니 교통의 요지가 되는 것이다. 기장을 대표하는 4대 사찰의 하나인 장안사 또한 주요 간선로 인근에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금수동 석각 眞眞자 촬영

장안사를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흘러가는 장안천은 상장안마을에서는 불광산 금수동錦水洞 계곡이라고 불린다. 기장 팔경의 하나인 금수동계곡. 이름은 ‘비단처럼 고운 물’이라는 맑은 냇물이 주는 고마움의 뜻을 담은 말이겠다. 금수동 계곡의 남쪽에는 바위가 많다. 상장안마을에 들어서서 장안사로 가는 길가에 10m 높이로 우뚝 서 있는 큰 바위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여기에는 ‘금수동錦水洞’이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어 이 마을과 계곡의 위상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장안천은



상장안마을 당산 || 필자 촬영

마을 남쪽을 지나며 동쪽으로 흘러간다. 북쪽으로는 낮은 산지 옆으로 양지사소류지가 있는데 이 일대는 농경지로 쓰인다. 마을 북서쪽에는 그릇을 구워내던 큰 가마가 다섯이나 있었다고 한다. ‘오그랑 텃골’이라 부르던 골짜기다.

하장안마을회관과 연꽃단지를 지나 상장안마을로 접어들면 길모퉁이 왼편에 우진각 지붕을 하고 있는 한 칸의 작은 건물이 있다. 상장안 당산堂山이다. 이곳에는 오래전부터 당산 할배제를 지내왔다고 하는데, 1995년부터는 매년 1회 정월 14일 자정에 당산제를 지낸다. 제당은 회칠한 벽면 구조물인데, 제당 주위에는 돌로 된 담장이 둘러싸고 있으며 해나무와 팽나무가 옆을 지키듯 서 있다.

2 조선시대 분청사기 제작 공간, 상장안 가마 유적



상장안마을에는 분청사기粉靑沙器를 만들던 가마 유적이 있다.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까지 자기를 구웠던 것으로 추정되는 가마터다. 2009년 9월 15일부터 12월 24일까지 부산박물관의 발굴 조사에 따라 총 6개소의 가마 유적이 드러났다. 가마유적은 대부분 장안사 동쪽 너른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데, 하장안 도요지, 용소리 백자요지, 기룡리 옹기요지, 오리 신리 청자요지, 오리 대룡요지, 오리 판곡요지 등이 확인된 것이다. 장안사의 남쪽에 있는 용소리 유적을 제외하면 모두 장안사 동쪽에 분포하고 있다. 부산-울산간 동해고속도로와 14번 국도 사이 일대가 부산을 대표하는 가마유적지인 셈이다.

상장안요지와 하장안요지, 장안읍 오리 신리유적 등 대표적인 가마터에서는 임진왜란 전후 백년 동안 가마를 구운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아마도 임진왜란 당시 이곳에서 활동하던 사기장과 도공들이 모조리 일본으로 피랍되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전 장안사를 답사할 때면 장안천을 따라 한적한 시골길 풍경이 기억에 또렷했는데, 지금은 명례일반산업단지와 기룡일반산업단지가 두 도로 사이에 빼곡하게 들어서 있어서 마을 입구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 그런데 14번국도를 빠져나와 장안초등학교에서 장안천을 따라 장안사로 가는 길은 예전의 기억과 닮아 있어여전히 정답다. 4.3km 밖에 안 되는



상장안 분청사기 가마 유적지 부산박물관

짧은 길이지만, 장안천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 길목에는 기룡마을을 거쳐 하장안마을, 상장안마을을 차례로 지나가니 그야말로 상장안 가마유적지를 품고 있는 도자기 여행길인 셈이다.

영화 「과묘」(2024)의 주요 장면이 촬영된 기장도에촌도 이 길목에 있다. 기룡마을회관을 지나 하장안마을로 들어서기 전 진행방향 왼편에 삼각산 기슭 탐곡지로 올라가는 큰 길이 입구다. 경비소를 지나서 언덕길로 들어서자마자 기장도에촌이라는 이정표가

보이고 한창 작업중인 너른 터가 보이는 이곳이 기장도에촌이다. 제 모습을 갖추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전통과 현대를 이어주는 귀중한 공간이 될 것이다.

분청사기는 회색 또는 회흑색의 태토胎土 위에 백토로 표면을 분장한 조선 초기의 도자기이다. 분장회청사기粉粧灰靑沙器의 줄임말이다. 고려 청자에서 기원한 것이지만 변모를 거듭하면서 14세기 말부터 분청사기의 제작법과 특색이 두드러졌다. 이로부터 15~16세기 약2백년 동안 제작되다가 16세기부터 백자가 주를 이루게 된다. 비교적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분청사기는 우리 도자기 역사에서 한 축을 이루며 독특한 아름다움을 보여준 유물이다.

발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존 상태가 좋은 분청사기 가마터 1기와 폐기장 및 굴립주 건물 터 1동과 수혈竈穴 2기가 확인되었고, 다양한 종류의 분청사기 그릇들이 출토되었다. 특히 높은 다리를 가진 백자 고족배高足盃



백자 염주 부산박물관



백자 고족배 부산박물관

와 지름 1cm 안팎의 원구형으로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있는 백자염주가 눈길을 끈다. 백자 고족배는 경기도 광주의 관요官窯와 같은 중앙에서 생산될 만한 상품上品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주변지역이었던 상장안마을에서 만들었다는 사실은 이곳 장안의 도자기 생산력이 상당히 뛰어났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백자염주 또한 당시의 제작기법을 알려주는 소중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곳 도요지와 장안사의 긴밀한 관계성을 유추해볼 수 있는 근거라 하겠다.

자기에는 ‘울산 인수부蔚山仁壽付’, ‘울산 장흥고蔚山長興庫’, ‘경주 장흥고慶州長興庫’ 세 종류이고, ‘울산蔚山’, ‘관중대구官中大口’, ‘대대’, ‘태태’라는 글자들이 새겨져 있다. 그 중에서도 울산이란 지명과 장흥고長興庫라는 중앙관청명이 함께 표기된 분청사기도 채집되었기 때문에 장안마을의 도요지 규모가 대단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3 장안사, 불광산 계곡에 원효가 창건한 기장의 중심 사찰



1980년대 중반 고등학생 시절, 좌천 장안사를 처음 찾았던 기억이 또렷하다. 겨울방학 중 3박 4일의 수련회에 참가하면서 장안사와 처음 만났다. 그때 장안사로 가는 데 하루종일 걸렸다는 기억은 낯선 곳으로의 여행이라는 느낌 탓도 있겠지만, 계곡을 따라 터벅터벅 걸어가던 길에서 만난 맑은 기운은 그 뒤로도 수없이 이곳을 다시 찾게 만든 계기로 작용했던 것 같다.

장안사는 부산 시내 기준으로는 먼 곳에 있지만, 지금은 교통의 편리 덕분에 훨씬 수월하게 찾아갈 수 있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그리 불편하지 않다. 여행길 삼아 동해남부선을 타고 좌천역에 내려서 마을버스를 이용하면 상장안마을 공영주차장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상장안마을에서 장안사까지는 1.3km 떨어져 있어서 계곡을 바라보는 즐거움을 누리며 걸어가기에 충분한 길이다.

장안사長安寺는 신라시대 원효가 창건한 사찰이다. 창건 당시의 첫 이름은 쌍계사였는데, 809년애장왕 10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기장현읍지』의 기록에 따르면 선여사船餘寺, 취정사鷗井寺, 안적사安寂寺, 장안사長安寺가 기장을 대표하는 4대 사찰이다. 기장을 대표하는 전통사찰이 모두 원효가 창건했다는 점에서 원효와 기장지역과의 깊은 인연이 잘 드러난다. 장안사에서 장안천을 따라 내려오면 월내포와 임랑포로 가는 길이 열리고 온양 남창 방향으로 길을 잡으면 울산을 거쳐 경



일주문 ■ 필자 촬영

주로 가는 길과 연결된다는 점은 신라시대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교통길이었을 것이다. 또한 장안사에서 불광산과 대운산 사이의 굽이굽이 골짜기에 난 길을 이용하면 웅상, 웅촌으로 곧장 넘어갈 수 있는 통로라는 점도 장안사의 입지를 이해하는 토대가 된다. 원효는 신앙적 관점으로만 사찰을 건립한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왕래하던 산길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선각자라 부를 만하다. 장안사의 위상을 새겨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장안사에는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다포식多包式 팔작八作 지붕 형태의 전통 목조건물이 있다. 이곳의 대웅전은 건축사적 가치에 따라 2012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전각이 불탄 뒤, 1658년효종 9에 중건되었다고 한다.



대웅전 ■ 필자 촬영

지금의 장안사는 대웅전 좌우에 응진전應眞殿과 명부전冥府殿이 호위하듯 서 있고, 그 뒤를 요사채가 일렬로 자리잡아 사찰의 중심공간을 이루고 있다. 2009년 대웅전의 종도리에서 ‘순치십삼년順治十三年(효종8)’이 명시된 ‘묵서墨書’가 발견되었다. 이 묵서의 기록을 근거로 지금의 대웅전이 1657년 2월 4일에 시작하여 1658년에 완공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더구나 현재의 대웅전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구조물들이 원래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대웅전의 내부 불단에는 또 하나의 보물이 있다. 석조 석가여래 삼불좌상이다. 삼존불은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좌협시 약사여래불과 우협시 아미타불을 가리키는데, 불석佛石 위에 도금하여 제작하였다. 2006년에 발견된 복장 유물 기록에 따르면 1659년에 조각승 녹원鹿元이 제작하

고, 1703년 금문金文이 중수 및 도금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856년에 제작된 후불탱화 영산회상도부산시 유형문화유산 역시 4m에 달하는 대각이자 묘사가 뛰어난 수작이므로 찬찬히 살펴보아야 할 작품이다.

대웅전 밖으로 나와 기둥 위에 차례로 늘어서서 처마의 무게를 받치고 있는 공포栱扄들의 생김새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하늘을 향해 솟구치는 처마의 상승감은 언제나 힘이 넘쳐 보기에 좋다. 3월 중순, 대웅전 앞 목련꽃이 만개할 무렵에 방문했다면 감상하는 즐거움은 두 배가 되리라. 정문 세 칸에 모양을 번갈아 바뀌며 조화롭게 배치된 창살들의 아름다움도 감상의 포인트다. 이제 걸음을 옮겨 대웅전의 좌우를 호위하고 있는 동쪽 응진전과 서쪽 명부전을 살펴보자.

응진전應眞殿(1899년 건립)과 명부전冥府殿(1744년 중건)이 대웅전 좌우에 배치된 사례는 흔하지 않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그의 제자들인 16아라한[Arhan, 성자]을 모신 전각인 응진전은 주로 경내의 주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동서를 마주 보고 있는 두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집으로 동일한 양식이다. 응진전에 있는 석조 석가삼존 16나한상과 명부전에 있는 석조 지장보살삼존 및 시왕상이 모두 1684년에 제작된 작품부산시 유형문화유산이라는 점도 동일하다. 영산회상도(1882년 제작)와 명부전의 지장보살도(1856년 제작)가 모두 뛰어난 작품이라는 점도 공통적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수인 건물이 짝을 이루어 대웅전을 받들고 있는 셈이다.

최근에 지은 극락전에는 와불상이 봉안되어 있다. 누워 있는 불상은 석가모니 부처가 세상을 떠날 때의 모습을 재현한 것이다. 우리 불교문화에서는 흔하지 않지만 인도와 동남아시아 불교에서는 불교신앙의 한 중심을 이룬다. 2001년 미얀마에서 기증한 부처님의 진신 사리 3과가 봉안되어 있다. 대웅전 앞 한가운데에 있는 7층 석탑에도 진신 사리 7과



원효 이야기 숲 입구 ॥ 필자 촬영

가 모여져 있다고 한다.

장안사에는 대나무 숲속을 거닐 수 있는 산책로가 마련되어 있다. 천왕문 오른쪽 5기의 승탑이 있는 곳으로 난 길이다. 장안사 경내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대숲을 한 바퀴 돌아오는 코스이다. 원효 구도의 길이자 요석공주의 만남을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낸 공간이기도 하다.

4 척판암, 판자를 던져 천 명의 대중을 구한 절



척판암의 본래 이름은 담운사淡雲寺이다. 원효가 장안사를 창건하면서 673년문무왕 13에 세운 절이다. 장안사에서 척판암으로 가려면 주차장 입구까지 되돌아나와 백련암으로 올라가는 방향을 잡으면 된다. 이 길로 조금만 걸으면 곧 계단이 마련된 산등성이 오솔길 입구가 나온다. 척판암으로 가는 길이다. 이정표가 안내하는 대로 20분쯤 올라간다. 이 길은 경사가 완만하여 힘들이지 않고 올라갈 수 있다.

척판암에 먼저 들렀다가 장안사로 가는 방법도 있다. 차량을 주차한 경우, 장안사 경내로 들어가는 것보다 척판암으로 가는 길을 택하는 게 실제로 더 가까운 길이고 차량으로도 곧장 갈 수 있다. 척판암과 백련암으로 가는 차도를 택하여 백련암앞 주차공간이 나올 때까지 10분쯤 이동하면 된다. 주차공간에는 척판암으로 올라가는 오솔길도 있다.

우측 백련암으로 난 길을 택해도 척판암으로 가는 데에 문제 없다. 백련암까지 차량으로 5분이면 갈 수 있겠지만, 장안사로 내려오는 냇물을 구경하며 거슬러 걸어가는 길을 권한다. 길가에는 하늘로 뻗어있는 키 큰 참나무들이 즐비하므로 심심할 틈이 없다. 조금 건다보면, 길 왼쪽 산등성이에 척판암으로 올라가는 오솔길이 보인다. 백련암 입구에도 척판암으로 가는 길이 있다. 꼬불꼬불 산길이지만 300m 거리의 오르막길이므로 땀흘려 오르다 보면 금세 척판암이 보일 것이다.



백련암 입구에서 척판암으로 가는 길 ॥ 필자 촬영

척판암은 돌산 위에 지은 듯 걸모습부터 무게가 느껴지는 곳이다. 척판(擲板)이라면 나무 판자를 내던진 곳이라는 뜻인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일까?

신라의 원효대사가 이곳에 암자를 짓고 수도하고 있었던 어느 날 암자에서 산기슭에 만발하고 있는 철쭉꽃을 구경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북녘 하늘을 응

시하며, 천안통으로 중국 땅 장안성을 투시하고 있었다. 그곳 종남산 기슭에 있는 운제사의 대웅전에서는 천 여 명의 승려들이 예불을 드리고 있었다.

이 예불하는 광경을 보고 합장하고 있던 원효대사는 대웅전의 대들보가 썩어서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성사께서는 그 위급한 사태를 알리고자 옆에 놓여 있던 소반에다 ‘해동원효척반구중(海東元曉擲盤救衆)’이라는 여덟 자를 적어서 북녘 하늘 높이 힘껏 내던졌다. 던져진 소반은 운제사의 대웅전 앞뜰 위에서 웅웅거리며 공중에 맴돌고 있었다. 막 예불을 마친 승려들은 이 광경을 구경하려고 모두가 재빨리 대웅전 앞뜰로 나왔다.

이때 굉음과 함께 대웅전이 폭삭 내려앉고 공중을 맴돌던 소반도 땅에 떨어졌다. ‘해동에 있는 원효가 소반을 던져 무리를 구하노

라’는 여덟 자를 읽은 그곳 승려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 신라국의 원효선사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장안성내에 있던 천 여 명의 승려들은 먼길을 떠나 경남 양산군에 있는 천성산(千聖山) 석굴에 계신 원효성사를 만나 뵈게 되었다. 장안성에서 찾아온 천 명의 승려들은 이곳에서 원효성사의 오묘한 법문과 가르침을 받고서 모두가 성인이 되었다. 모두가 끝내 이곳에서 열반을 하였는데 그 육신은 저절로 바위가 되었다고 한다. 이 산에서 천명의 성인들이 나왔다는 뜻으로 천성산이라 하였다. 천성산의 바위들은 그 성인들의 변신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기장군지』에 실려 있는, 척판암이 세워진 이유다. 이야기에 따르면 척반암(擲盤庵)이라 부르는 게 옳겠지만 현재는 척판암으로 되어 있다. 이 설화는 『양산군지』에도 실려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북한 묘향산 척반대(擲盤臺) 설화와 경주 단석산의 척판암 설화가 그것이다.

불광산 척판암 설화를 통해 중국에까지 전해진 원효의 뛰어난 면모를 알 수 있는데, 송나라 찬녕(贊寧) 919~1002이 편찬한 『송고승전(宋高僧傳)』에도 ‘척반구중(擲盤求衆)’ 네 글자가 실려 있다. 10세기 말 중국에까지 원효의 행적이 잘 알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에 있는 1677년 기록인 「천성산운흥사사적(千聖山雲興寺事蹟)」에도 이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다.

척판암은 장안사의 부속암자였으나 현재는 독립된 사찰이다. 절의 중심건물인 인법당(因法堂)에는 척판암 편액이 선명하다. 법당 안에는 조선후기에 제작된 아미타여래좌상이 모셔져 있다. 높이 37.5cm의 작은 석불이지만 현재 부산시 문화유산자료로 등록되어 있다. 법당의 왼쪽에



척판암 || 필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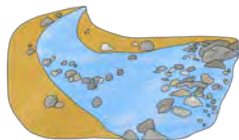


법당 앞 풍경. 불광산과 대운산 || 필자 촬영

는 원효의 진영眞影이 모셔져 있는데, ‘본암창건주本庵創建主’라는 글씨가 선명하여 척판암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법당은 1938년에 경허擎虛가 중수하였다.

척판암은 법당에서 나와 밖을 바라볼 때 그 진짜 가치를 볼 수 있다. 삼각산과 불광산은 물론 저 멀리 대운산까지 보이기 때문이다. 법당 앞에는 1972년에 건립된 삼층석탑이 서 있다. 고철古鐵 불상의 복장유물제주 관음사에 있던 사리53과 중 5과를 모셔와 이 탑에 봉안하였다고 한다. 사찰 한 켠의 경사진 좁은 터에 용왕각과 극락전을 지었다. 수행공간인 극락전 앞에는 극락교가 있다. 데크로 만든 다리다. 이 다리를 지나면 제법 너른 공간이 나오는데, 포대화상 뒤로 독성각과 산신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 이 계단을 올라가면 독성각을 지나 벼랑의 한 가운데 있는 산신각을 볼 수 있다. 정면의 유리판으로 산신의 위용이 보일 듯 하지만, 지금은 안전문제로 통행이 제한되어 있다.

5 불광계곡, 자비의 빛이 비단결 같은 계곡을 비추다



이제 상장안마을 버스 종점에서 장안사로 계곡을 따라 올라간다. 1.3km의 짧은 거리라서 걸어서 20분이면 넉넉한 길이다. 버스 종점에서 출발하여 장안사쪽으로 350m쯤 들어간 지점에서 크게 휘어지는 곡선길을 만나게 되는데, 튀어나온 오른쪽 산자락에 큰 바위가 서 있다. 높이가 10m에 폭이 8m나 되는 암벽이다. 이 바위에는 누군가 ‘금수동錦水洞’이라고 음각한 글자가 보인다. 『기장군지』 「금수동의 명필」 설화에서,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린 어린 장수가 하늘로 날아가면서 손가락으로 휘갈겨 놓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눈에 보아도 힘이 넘치는 초서체의 글씨다. 가로 80cm, 세로 95cm로 글자의 크기도 압도적이니, 날개 달린 장수가 썼다는 이야기가 전할 만하다.

금수동 글자가 씌어진 큰 바위를 지나면 길과 계곡은 더욱더 가까워진다. 이 계곡은 불광산이 만들어내었으니 불광계곡이라 부르는 게 자연스럽지만 암벽에 새겨진 ‘금수동’ 이름처럼 ‘비단결 같은 물이 흐르는 마을’이란 이름도 좋다. 금수동 계곡물은 불광산과 삼각산이 엮어내는 깊은 골짜기가 연원이다. 늦가을이면 붉은 단풍으로 유명한 박치골이라 부르는 곳이다. 이 박치골에서 장안사 아래로 흘러가는 냇물을 ‘박천하川’이라 하고, 백련암 쪽에서 장안사 옆으로 흘러가는 냇물을 ‘금천錦川’이라 불렀다. 원효가 이곳에 사찰을 창건하면서 ‘쌍계사’라고 부른 바로



금수동계곡 | 필자 촬영

그 이유이다. 그야말로 두 냇물이 합쳐 장안천을 이루어가는 모습 그대로를 이름에 담은 것이다. 금천이 고운 물이라면 박천은 맑은 물을 가리킨다. 불광산과 시명산, 그리고 삼각산이 힘을 합쳐 만들어낸 고운 물과 맑은 물이 8.5km를 내달리는 장안천의 원류인 셈이다. 조선후기에 기장의 뛰어난 유적과 자연을 노래한 「차성가」에서는 ‘금수동 깊은 수원 길 이 흘러 금천이요, 기산에 걸던 표자 떠왔으니 박천이라’고 하였다. 금수동 계곡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면서 금천과 박천의 소중함을 놓치지 않은 것이다.

이제 금수동계곡 발원지 속으로 들어가 보자. 장안사입구 주차장에서 백련암과 척판암으로 가는 길을 택하지 않고, 장안천 계곡 상류를 따라 올라가는 임도로 들어선다. 이 임도의 명칭은 ‘불광산 테마 트레킹 로드’인데

2016년도부터 조성하기 시작하여 매년 증설을 거쳐 2021년에 완성하였다. 총 길이는 8.4km에 이른다. 장안사 입구에서 출발하여 40여 분 계곡을 따라 걸어가면 갈림길이 나오는데, 좌측으로 가면 박치골 한가운데로 들어선다. 우측길을 택하면 불광산, 시명산을 거쳐 대운산 정상까지 오를 수 있다. 좌측 박치골로 가는 길은 해운대컨트리클럽을 우회하여 계속 남쪽으로 향하면 정관읍 병산리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금수동계곡에 초점을 맞추어 박치골을 목적지로 두면 트레킹로드의 도움만 받아도 충분하다. 계곡 곳곳의 바위들과 고운 물, 숲이 선물하는 맑은 공기뿐만 아니라 야생화 군락들이 저마다의 모양과 색깔을 드러내며 숲의 아름다움을 더하기까지 한다. 갖가지 야생화들이 펼치는 예쁜 색깔과 고운 자태는 봄날이 무르익을 무렵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테마 트레킹 로드 입구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장안 반딧불이 공원도 주목할 만하다. ‘무장애길’이라는 이름에 걸맞듯 노약자나 임산부들도 계곡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출렁다리와 데크길이 잘 갖추어져 있다. 여름 날 밤이라면 출렁다리 근처에서 물소리를 들으며 반딧불이를 기다리는 즐거움도 그려볼 수 있다. 가을날이라면 불광산 일대 특히 박치골의 붉은 단풍이야말로 금수동계곡이 주는 최고의 선물일 터이다. 그야말로 비단결 같은 계곡이다.

6 대운산, 부산과 울산의 경계에 우뚝서다



부산 금정구에서 7번 국도를 타고 울산으로 가는 길에서 웅상, 서창으로 접어들면 늘 마주치는 산이 있다. 높이 742m 솟아오른 대운산이다. 대운산 정상에 서면 서쪽으로 천성산이 우뚝하게 보인다. 이 양대 산이 만들어낸 회야강을 토대로 넓게 펼쳐진 땅이 웅상과 서창이다.

대운산이라는 이름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읍지에는 나오지 않는다. 『대동여지도』¹⁸⁶⁴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옛 기록에서는 불광산佛光山이라 부를 뿐 대운大雲이란 이름은 보이지 않기에, 대운산은 근래 어느 때부터인가 부르기 시작한 명칭일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었다. 그러나 1832년의 『경상도읍지』에 수록된 지도에는 불광산 아래쪽에 대운봉산大雲封山이라는 명칭이 표기되어 있다. 비록 위치는 정확하지 않으나 ‘대운大雲’이라는 명칭이 새겨져 있는 것이다. 봉산封山은 국가에서 일반인이 함부로 별채하지 못하게 하는 곳으로, 이 산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다. 대운봉산이란 명칭은 1899년에 편찬된 경상남도 『울산군읍지』에 수록된 지도에서도 나타난다. 여기서도 울산지도의 남쪽, 곧 기장군과의 경계에는 대운봉산大雲封山이라는 명칭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다.

그렇다면 봉산으로서 대운산이라는 명칭은 언제 처음 나타난 것일까?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현존하는 『울산읍지』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



대운산 정상으로 가는 길, 큰 바위 전망대 Ⅵ 필자 촬영

운산에 주목하면 대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1786년에 편찬된 『울산 부여지도신편읍지』에서 「산천」과 「봉산」 항목을 찾아보면, 「산천」에서는 불광산이 나오고 대운산이라는 이름은 없다. 반대로 「봉산」에서는 불광산은 없고 태운산太雲山이라는 명칭만 나온다. 태운산의 둘레를 61리라고 명시한 설명에서 대운산과 동일한 산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899년에 편찬된 『울산군읍지』의 「산천」에는 ‘불광산이 남쪽 45리에 있다’고 기록하고, 「봉산」에서는 ‘대운산은 온양면에 있는데 둘레가 61리’라고 말하고 있다. 두 기록에 따르면, 1786년부터 1899년까지는 대운산이 봉산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문제는 대운봉산이 옛 지도에 표시될 때, 대운산과 불광산의 위치가 현재와 동일한가 아닌가에 있다.

1902년에 편찬된 『울산읍지』에는 「봉산」 항목이 없으나 「산천」 항목

에서 울산의 산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불광산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울산부읍지』와 마찬가지로 울산부의 남쪽 45리에 있다고 했는데, ‘일명대운산一名太雲山’이라는 기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불광산과 대운산을 동일한 산으로 보고 있는 시선이 드러난다. 이 기록에 따르면 『신증동국여지승람』을 편찬하던 시기부터 약 400여 년 동안 ‘불광산’이라는 명칭은 지금의 대운산과 불광산을 아울러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다가 장안천이 흐르는 불광산과 삼각산 일대를 대운봉산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면서, ‘대운’이라는 명칭이 등장하였고, 일제강점기 무렵에 불광산이라는 이름은 지금의 장안사와 장안천 부근의 산을 가리키는 말로 바뀐 듯하다.

불광의 불을 ‘벌[弗]’로 보아 넓고 빛나는 벌판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불광은 한자 그대로 불교와 인연이 깊은 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효가 창건한 장안사와 적관암뿐만 아니라, 대운산 자연휴양림이 있는 곳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흐르는 용당천의 물을 가득 모은 곳인 탑골저수지라는 이름이 그냥 생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탑골저수지 일대에서 기와조각과 탑의 부재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자연휴양림 일대가 예전에는 용당천의 맑은 물을 따라 수행자들이 운집한 곳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탑골이자 절골이니 불광이라 부를 만한 곳이라.

대운산은 양산과 울산 그리고 기장과 경계를 나누고 있는 산이다. 대운산의 북쪽과 서쪽은 양산의 땅이고, 남쪽에 자리한 수목원과 치유의 숲은 울산 12경의 하나이다. 수목원의 바로 아래서 길을 나누고 있는 불광산과 삼각산은 기장에 속한다. 대운산은 어느 한 지역에서 독점할 수 있는 산이 아닌 것이다.

『대동여지도』에도 불광산이라 명명한 대운산은 원적산[지금의 천성산]에서 뻗어나온 산줄기를 굽게 그려서 서로 튼튼하게 이어놓았다. 대



대운산 정상에서 바라본 동해바다쪽(서생, 남창, 온산 일대) Ⅵ 필자 촬영

운산은 이른바 낙동정맥洛東正脈의 한 갈래인 것이다. 대운산 정상에 서면 신불산, 운문산, 가지산이 지어내는 경남 제일의 고봉들을 볼 수 있다. 북쪽으로는 울산 문수산, 남쪽으로는 기장 달음산과 금정산, 그리고 동쪽으로는 동해바다가 펼쳐지니 열린 공간만큼이나 훌륭한 경치를 제공하는 소중한 곳이다.

대운산은 회야강回夜江을 만들어내는 곳이기도 하다. 회야강은 천성산의 절골과 무지개폭포에서 발원하여 천성산과 대운산의 사이를 북쪽으로 곧게 흘러간다. 천성산의 골짜기마다 발원한 냇물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강이지만, 대운산 또한 서쪽면으로 명곡천과 용당천을 흘러보내 힘을 보탠다. 게다가 대운산 남쪽 울산수목원과 내원암의 계곡물이 대운천을 이루어 온양읍 지점에서 회야강에 다시 합류하니 대운산의 역

할도 작지 않다.

둘레가 61리에 이르는 큰 산이기에 대운산으로 오르는 길은 여럿이다. 10km가 넘는 하루종일 코스는 물론 3-4시간을 들여 오르내리는 길도 있다. 양산쪽이라면 상대마을에서 출발하거나 명곡천을 거슬러 오르는 길이 적절하다. 울산수목원 쪽에서 오르는 길도 좋다. 그런데 큰 바위 전망대에서 정상에 오르는 길은 매우 가파르고 험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기장 장안사로부터 시작하여 대운산까지 걸어가는 종주길도 산행을 즐겨하는 이들이라면 추천할 만하다. 어느 쪽이든 산의 능선에서 정상에 이르기까지 진달래와 억새, 특히 철쭉군락지가 많아 5월이면 만개한 철쭉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7 내원암, 영남 제일의 명당



내원암은 대운산의 남쪽, 운양읍 운화리에 있다. 내원암은 석남사, 문수사, 신흥사, 동축사와 함께 신라시대에 창건된 울산 지역을 대표하는 고찰이다. 암자라는 이름값으로도 대표성을 가진 이유는 내원암의 본사였던 대원사의 면모에서 찾을 수 있다. 신라 중기 대원사를 창건한 고봉(高峰) 선사가 이곳을 ‘영남 제일의 명당’이라고 말한 데 있는 것이다. 풍수가의 말을 빌리면, 내원암은 꽃봉오리 모습을 띤 대운산 다섯 봉우리의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 그야말로 명당 중의 명당인 셈이다.

대원사는 절터로만 남아 있다. 대운교를 지나서 우측 내원암으로 올라가는 길로 들어서면 곧바로 밭과 농막이 나타나는데, 이곳을 지나 본격적인 오르막으로 접어들 무렵 길 우측으로 전나무 조림지가 보인다. 내원암으로 올라가는 대운상대길 초입에 있는 셈이다. 지금은 사찰의 흔적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운화리 1294번지인 이곳에는 원래 승탑 4기가 있었고, 기와조각과 청자조각 등도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이 유물들은 남아 있지 않고 석종 형태를 띤 승탑 1기만이 내원암 경내 한켠에 놓여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22권 울산군 사찰항목[佛宇]에는 ‘대원사가 불광산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16세기 조선시대 이 사찰의 위상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기록은 1871년에 편찬된 『영남읍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내원암 전경 ■ 필자 촬영

고 있으므로 19세기 후반까지는 대원사가 존립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899년에 편찬된 『울산군읍지』에는 대원사는 없고, 내원암이 기록되어 있다. 『울산군읍지』의 기록이 부실한 게 아니라면 대원사는 1871년과 1899년 사이에 어떤 이유로 폐사되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내원(內院)’이란 이름을 가볍게 기억하고 있으면 양산 천성산 내원사(內院寺)와 혼동하기 쉽다. 내원사 계곡도 유명하기에 헷갈리지 않고 내원암을 찾아가려면 대운산에 있다는 사실을 새겨두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내원’이란 낱말은 사찰의 명칭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무슨 뜻이 담길 말일까?

‘내원’은 도솔천(兜率天)에서 외원(外院)으로 둘러싸인 내원궁(內院宮)을 가리키는 말이다. 불교 우주관에 따르면,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欲界]에는

여섯 하늘세계가 있는데 이 가운데 네 번째 하늘세계를 도솔천이라 부른다. ‘도솔’은 산스크리트어 ‘투시타 Tuṣita’의 발음을 옮긴 말로서 ‘만족’이란 뜻이다.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세계라는 뜻이겠다. 이 도솔천의 한 가운데에 바로 내원이 있다. 고대 인도인들의 생각에 따르면, 석가모니 부처가 인간세계로 내려오기 전에 머무르던 곳이 바로 내원궁이었다고 한다. 석가모니 부처는 욕망의 세계에 태어났지만 욕망을 초월한 성자라는 발상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일 것이다. 내원궁 그곳에는 이제 미래에 부처가 되는 미륵이 때를 기다리며 머무르고 있다고 믿는다. 전국의 사찰에 ‘내원’이란 이름으로 위상을 부여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의 내원암을 이루고 있는 대웅전, 수세전은 1990년도에 신축된 건물이고, 한 단 아래 마당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지장전은 2002년에 건립되었다. 1925년에 큰불이 나서 모조리 불타버린 후에 지어졌다. 그런데 1919년의 『내원암창건기(內院庵創建記)』에 따르면, 칠성각을 건립할 당시 160여명의 사람들이 계원으로 참여하였다는 기록에서 화마가 휩쓸기 이전까지 면면히 이어온 내원암의 규모와 위상을 알 수 있다.

수세전(壽世殿)은 칠성여래 곧 칠성신을 모신 집이다. ‘수세’라는 이름 덕분에 복두칠성이 인간의 길흉화복 특히 목숨을 관장한다는 전통적인 믿음이 또렷해진다. 대웅전 정면 우측에 수세전이 있는데, 이 사이에는 큰 바위가 자리잡고 있어서 바위 옆으로 계단을 놓아 올라가는 길을 만들었다. 계단을 올라 큰바위 위에 오르면, 바위의 굴곡에 맞추어 돌을 다듬어 만든 평평한 공간이 나타난다. 이곳에 나지막한 삼층석탑을 세워 사리보탑이라는 이름을 또렷하게 새겼다.

내원암으로 올라가는 길은 만만하지 않다. 차로 올라갈 경우에는 대원사터를 지날 무렵부터 오르막이 본격적으로 이어지므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수세전과 사리보탑 ■ 필자 촬영



일주문 앞 팽나무 ■ 필자 촬영

일정한 간격으로 중간 중간에 교행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긴 했지만, 좁고 가파른 오르막길이 1.5km 정도 되기 때문에 도로 반사경을 잘 살피면서 조심 조심 올라가야 한다. 절집이 나타나 주차장에 들어서면 5백여 년의 세월을 지켜온 키가 18m나 되는 팽나무가 보인다. 이곳의 역사를 모조리 품고 있는 진정한 터줏대감이다.

8 내원암 계곡과 대운산 숲이 펼치는 치유 공간



불광산 정상의 능선을 경계로 북쪽은 울산이고 남쪽은 부산이다. 그러나 불광산과 대운산이 이어지고, 불광산 너머가 내원암계곡이니 산길 기준으로는 경계가 열리는 곳이다. 내원암계곡은 물이 맑고 수량 또한 풍부해서 물놀이에 적합한 곳으로 유명하다. 주소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로 통하지만 개인차량으로 갈 때는 대운산 제3공영주차장으로 입력하면 된다. 내원암까지 차량으로 갈 경우라면 주차장을 경유하여 내원암 입구까지 다녀올 수 있지만, 내원암계곡과 대운산 치유의 숲쪽이 목적지라면 반드시 차량을 주차해놓고 걸어가야 한다. 차단기가 설치된 출입관리소부터는 차량은 물론 자전거, 반려동물도 입장이 허락되지 않는다. 물놀이를 즐길 경우에도 그늘막이나 취사행위 등은 금지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계곡과 수목을 품은 자연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다.

주차장을 지나 대운교를 건너면 벽천폭포가 보인다. 인공으로 만든 것이지만 시원한 물줄기가 내원암계곡의 이정표인 듯 사람들을 안내한다. 여기서 곧장 산길로 직진하면 내원암으로 가고, 좌측으로 발길을 옮기면 곧 내원암계곡 출입관리소가 나온다. 계곡을 바라보며 5분 여쯤 걸어가면 울산수목원 산림교육문화센터가 보이는데, 이 건물 주위에도 주차공간이 따로 있지만 공공업무를 위한 것이겠다. 울산수목원은 온양읍 운화리 1304번지 일대 면적 14만 4천㎡에 조성할 계획으로 2018년에 이미 착공되었지만 그

동안 완공이 지연되고 있었다. 여기서 2.2km거리이니, 30여 분을 더 걸어야 한다. 마치 나뭇잎을 오려 붙여 세워놓은 듯한 이 건물에는 숲과 치유에 관한 강좌를 열며 수목원의 완공을 기다리고 있다.

교육문화센터 주차장 뒤쪽으로 가면 전망대용으로 만든 작은 쉼터가 있는데, 그 위쪽으로 물놀이를 할 만한 웅덩이가 두어군데 보인다. 너른 바위가 있는 큼직한 웅덩이가 있는데, 애기소라고 부르는 곳으로 물놀이를 맘껏 즐길 수 있는 넓고 깊은 공간이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안전장비와 안전요원의 자리까지 있는 것으로 봐서 여름이면 사람들로 북적이지 싶다. 애기소 위쪽에도 제법 큰 물웅덩이가 하나 더 보인다. 여름에는 무더위를 날려주고, 가을에는 붉은 단풍이 아름다운 경치를 선물하는 그야말로 치유의 숲과 계곡이다.



애기소 ■ 필자 촬영

내원암계곡에서 대운산 정상으로 향하는 길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첫 번째는 대운교를 지나 내원암으로 오르는 길을 택하여 대운산 제2봉^{670m}을 거쳐 대운산 정상^{742m}으로 가는 길이다. 두 번째는 왼쪽 계곡으로 가는 길을 잡아 국립 대운산 치유의 숲을 경유하여 정상으로 오르는 길이다. 이 코스는 도통골이라 부르는 골짜기를 지난다. 도통골은 이름 그대로 도가 통했다는 뜻이다. 원효가 마지막으로 도를 닦은 곳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오는 골짜기다. 대운산 치유의 숲에서 정상으로 오르는 길 곳곳에서 계곡물이 흘러내리는 풍경을 즐길 수 있는데, 구룡폭포에 이르면 우렁찬 폭포 소리가 더해져 계곡을 만끽할 수 있다. 여기서 옛 대피소를 거쳐 큰바위 전망대까지 오르는 길에는 계곡물을 몇 번 가로질러 건너야 한다. 큰 바위에는 협곡이 형성되어 비가 온 뒤에는 곳곳에 작은 폭포가 생긴다. 용심지^{龍深池}라 부르는 곳 근처에서 원효가 암자를 짓고 도를 닦았다고 한다. 큰 바위 아래 골짜기를 도통골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차장에서 국립 대운산 치유의 숲까지는 약 1km 거리다. 계곡을 바라보며 걷는 평탄한 길이므로 20분이면 충분하다. 치유의 숲에는 풀향기길, 바람뜰치유길, 명품숲길 등 다양한 주제로 엮은 숲속 치유 활동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산림치유지도사의 안내에 따라 다양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가족단위로 방문하여 오감으로 숲의 온전함을 함께 누릴 수 있다. 숙박하거나 프로그램 이용자는 차량으로 치유의 숲까지 이동할 수 있다고 한다. 국립 대운산 치유의 숲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지만, 숲에서의 온전한 휴식을 누리는 공간인 만큼 취사나 음주, 흡연은 금지되고, TV나 와이파이 제공도 되지 않으므로 주의사항을 잘 새기고 가야겠다.



구룡폭포 || 필자 촬영



도통골 계곡 || 필자 촬영

치유의 숲은 30분 정도면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아담한 공간이지만 초입 지점부터 풀향기길, 햇살마당, 소공연장, 황토마당이 차례로 배치되어 있고 길 안쪽 공간에는 물치유욕장, 명상터도 자리하고 있어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다니기 편하도록 산책로도 잘 구성되어 있고, 곳곳에 정자가 있어 쉬엄쉬엄 가기도 좋다. 위쪽 등산로를 따라 왕복 40분이면 구룡폭포에 다녀올 수 있으므로 숲과 계곡물을 온전하게 즐길 수 있는 출발지이자 쉼터인 셈이다. 무엇보다도 치유의 숲은 편백나무, 굴참나무, 산철쭉, 산딸나무가 가득한 곳이기에 이 숲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연이 주는 면역력과 치유와 휴식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고마운 공간이다. 대운산이 만들어내는 내원암계곡에 인공의 노력을 더해 엮어낸 합작품인 셈이다.

| 참고자료 |

1장. 승학산, 억새풀을 머금고 학이 날아오르다

「승학산 억새밭 복원...민관 합동 프로젝트 가동」, 『국제신문』, 2020. 10. 20.

「부산서도 '억새 축제」, 『부산일보』, 2005. 09. 27.

「부산 승학산 억새 축제 놓고 지자체간 갈등」, 『연합뉴스』, 2005. 09. 30.

「사하 이야기」(부산광역시 사하구, 2017.)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2장. 구덕산, 9가지 덕을 품고 구덕고개 굽이굽이 넘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부산광역시 서구청(<https://www.bsseogu.go.kr/tour/index.bsseogu>)

두산백과(<http://www.doopedia.co.kr/>)

기상청이야기(https://blog.naver.com/kma_131/221011284049)

3장. 봉래산, 신선이 노닐고 영도할매의 영험이 깃든 곳

강영조, 『영도 근대역사 흔적지도 안내서』, 영도구 문화관광과, 2020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물섬 영도이야기』, 제이엠프린트, 2016

국립민속박물관, 『부산의 마을신앙2』, 국립민속박물관, 2020

4장. 용두산과 복병산, 대일 교류의 공간에서 식민지 근대의 이면까지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우리의 삶터 중구 부산을 담다』, 부산광역시 중구청, 2018.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부산 원도심은 페스트리다』, 소요유, 2014.

김강일, 『조선후기 왜관의 운영실태 연구』, 경인문화사, 2020.

나동욱·류승훈·김유정, 『초량왜관 : 교린의 시선으로 허하다』, 부산박물관, 2017.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부산의 장소를 걷다』, 소명출판, 2016.

부산근대역사관, 『부산근대역사관 이야기』, 부산근대역사관, 2004.

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5장. 구봉산~엄광산, 격동의 부산 근현대사와 마주하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부산민주길을 걷다』(전 3권), 부산광역시교육청, 2021.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부산민주운동사』1,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2021.

부산지역유월항쟁자료발간위원회, 『6월항쟁』(전 3권), 유월자료, 1995.

『동아일보』, 1934.3.31~4.1(5), 「七千餘名이 集中된 魚鱗같은 山上住家, 찬란한 문화

도 그네들에는 무관 ; 釜山 貧民窟 探訪記」

「주경업의 부산에 살다-대청동 '산집'의 금수현 추억」, 『부산일보』, 2015. 6. 23.

민주공원(<https://www.demopark.or.k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https://archives.kdemo.or.kr/main>)

부산민주공원 역사아카이브(<http://archives.demopark.or.kr/archives/main>)

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6장. 수정산, 왜관을 관장하던 '수정'(水亭)에서 발원하다

『다이너믹 부산』(부산시보) 제202214호, 부산광역시, 2022.

부산광역시 동구청, 『부산의 부산 동구 이야기』, 2016.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시사편찬실), 『마을 안팎에는 호랭이가 산다! 안창마을 사람들 이야기』, 2022.

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7장. 배산·황령산, 부산의 원점, 산성과 봉수대가 자리한 산

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 참고자료 |

8장. 부산에서 손꼽히는 고찰(古刹)과 함께 역사의 무게를 묵묵하게 견뎠은 백양산 답사

『동래부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사명 유정, 이상현 옮김, 『사명대사집』, 동국대학교출판부, 2014.

부산일보, 「‘초읍동 전기가설기념비’ 마을 전기 들어온 날 풍광 좋은 곳에 세워」,
2020. 3. 5.

9장. 장산, 긴 역사와 드넓은 바다를 품은 곳

『동래부지』

『동래부 동하면 고문서』

김병섭, 『장산의 역사와 전설』, 국제, 2008.

주영택, 『해운대 역사와 문화를 만나다』, 해운대지구 향인회, 2010.

박창희 외, 『부산학의 선구자들: 김재승 편』, 부산연구원, 2020.

조송현 외, 『재송마을 이야기』, 부산연구원, 2020.

장산구립공원, www.haeundae.go.kr?janganlocalpark

10장. 금정산, 좋은 산의 조건 다 갖춘 명산

『부산역사문화대전』(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부산의 자연 마을』5-북구·사상구·사하구(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0)

이종길, 『금정산 365일』, 부산산악포럼, 2015.

박창희 외, 『나를 찾아 떠나는 부산순례길』, 부산연구원, 2017.

주영택, 『금정의 역사와 현장』, 금정문화원, 2016.

최화수, 『부산 금정산의 생존 전략』, 미디어24, 2002.

11장. 아홉산~달음산, 치유의 공간과 기암절벽에서 넘실대는 바다를 품다 『기장군지機張郡誌』(상·하), 기장군지 편찬위원회, 2001.

김상현, 『원호연구』, 민족사, 2000

이종봉, 「기장지역 고지도와 옛길」, 『지방사와 지방문화』 13권 1호, 2010

정용범, 「기장지역 종교문화 옛길」, 『지방사와 지방문화』 13권 1호, 2010.

한정훈, 「기장지역 옛길의 역사적 변천」, 『지방사와 지방문화』 13권 1호, 2010

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12장. 불광산~대운산, 유서 깊은 명산에서 선각자의 자취를 느끼다

『기장군지機張郡誌』(상·하), 기장군지 편찬위원회, 2001.

『기장상장안유적機張上長安遺蹟』, 부산박물관 학술연구총서 제32집, 2011

김상현, 『원호연구』, 민족사, 2000

조원영, 「전승 자료를 통해 본 신라통일기 기장지역의 불교」, 『항도부산』31, 2014

집필자

정규식

동아대학교 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고전문학과 민속학을 연구하고 있다. 고전소설과 구비문학을 대상으로 인간과 이야기의 관계에 대해 탐색하고 있다. 대표 저서로는 『증편한국구비문학대계』 부산광역시 편(공저), 『중간공동체론』, 『한국고소설강의』(공저) 등이 있다.

박정아

고전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동아대학교 기초교양대학에서 조교수로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칠점산과 초현대』, 『인문학적 사고와 자기표현』, 『밀양지역 대동놀이의 지속과 변화』 등이 있다.

서용태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학과에서 한국사를 공부했다. 부산대, 동의대 등에서 역사를 가르치며 부산 지역사와 근대 의료에 대한 글들을 썼다. 지금은 해군사관학교에서 역사 강의와 연구를 하면서 시민단체 활동과 대중강좌 등 대학 밖의 일반 시민들과도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

배병욱

동아대학교 사학과에서 한국사(근현대사)를 전공하고, 동아대와 울산대, 경성대 등에서 강의하였다. 일제시기 일본인과 미디어에 대한 관심으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최근 3·1운동과 민주화운동 관련 글을 쓰기도 했다. 앞으로 이미지 자료와 선전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볼 생각이다.

이근우

부경대학교 사학과 교수. 부경대 박물관장, 부산경남사학회 회장, 동북아문화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한일고대사, 대마도, 훈민정음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고대왕국의 풍경』, 『부산 속의 일본』, 『훈민정음은 한글인가』 등의 저서가 있다.

이상룡

부산대학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문화재가 자리잡고 있는 풍경에 관심을 갖고 매주 산을 오르고 있다. 대표 논문으로 「비트겐슈타인과 삶의 방식의 변경」, 「해명·치료·언어투쟁」 등이 있다.

박창희

경남 창녕 출생으로 부산대 영문학과, 부산대 예술대학원을 졸업했다. 30여년 간 국제신문 기자로 일했고, 현재 경성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사)부산걷는길연합 대표로 일하고 있다. 지은 책은 '나루를 찾아서'(서해문집) '부산 순례길'(비온후), '가야사 이야기'(이른아침), '허신구 평전'(부산대출판부), '걷기의 기쁨'(산지니) 등 20여 권. 주요 연구로는 '부산의 길: 원천스토리 개발 연구' 등이 있다.

김준호

부산대 대학원 철학과에서 불교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울산대 원효학토대연구소 연구교수를 거쳐 현재 경북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부산대에서 불교관련 과목을 강의중이고, 대학 밖에서도 시민들과 함께 원효전서 강독회와 부울경 인문지도 만들기 모임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BUSAN · 百問이 不如一見

부산 산길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서

발 행 처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T 051-888-5057~8)
기획·편집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시사편찬실
발 행 일	2024년 11월
디자인·제작	엔크리에이티브(주) 도서출판 예린원 · T 051-747-5099
원 문 공 개	부산광역시청(www.busan.go.kr)>부산 소개> 부산의 역사>향토사도서관 부산시사편찬위원회(bssisa.com)> 자료실

발 간 번 호	52-6260000-000678-01
I S B N	979-11-85308-67-8 979-11-85308-29-6 (세트)

- 이 책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부산광역시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시사편찬실)의 동의없이 이 책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업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